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철학박사학위논문

미수(眉叟) 허목(許穆) 고문(古文) 서예 연구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 학 과

윤 성 훈

미수(眉叟) 허목(許穆) 고문(古文) 서예 연구

지도교수 이 정 환

이 논문을 철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윤 성 훈

윤성훈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은 조선시대 현종(顯宗) 연간부터 숙종(肅宗) 초기에 걸쳐 주로 활동한 문인학자이자 관료로서, 당대 남인(南人)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예(禮)는 『주자가례(朱子家禮)』나 조선 전래의 국제(國制)가 아닌 옛 경전에 따른 고례(古禮)를, 학문과 문장은 동시대 및 당(唐)·송(宋) 등 근고(近古)의 것이 아닌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육경(六經, 詩·書·禮·樂·易·春秋)을, 글씨 또한 삼대의 고문(古文)을 추구한 상고(尙古)주의자였다.

현종 시기 제1차 기해예송에서 핵심 논자로 활동했고, 숙종 초 남인 집권기에 과거를 보지 않고 정승의 지위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면서 남인 정권의 상징적 존재로서 정치 무대의 한가운데 서기도 했지만, 허목의 긴 인생 전반을 조망한다면 이는 짧은 예외적 시기에 해당할 것이며, 그는 기본적으로 저명한 학자이자 독서가이자 문장가이자 서예가로서 재야 문예인의 삶을 누렸다. 그의 사상과 문학은 방대한 분량과 이례적 체제를 자랑하는 문집인 『기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중심으로 한 몇몇 작품을 통해 그의 조형 예술의 핵심인 서예 세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허목의 글씨는 매우 독특하여 당대부터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남인 핵심 인물의 대표적 문예 산물이었던 만큼, 서인(西人)들은 따라 쓰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시키자고 주장했을 정도로 그의 글씨를 극렬하게 배척했다. 숙종 대 짧은 집권기 이후로 남인이 몰락하고, 이후 서인 및 그를 계승한 노론(老論)이 조선 정치와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기에, 허목의 글씨는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줄곧 문화계 주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였다. 한편 소수이지만 남인들에게는 숭모의 대상이어서, 남인의 세력이 강했던 영남 지역에서는 재액을 물리치기 위해 <척주동해비> 탁본을 집안에 소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민간에서 <척주동해비>는 '퇴조비(退潮碑)' 즉 조수의 재난을 물리치는 비로 불리기도 하며 전설의 대상으로 신비화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숭모와 배척의 양극단 사이에서 허목의 글씨는 여태껏 적절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본 논문은 <척주동해비>를 중심으로 허목의 서예 세계를 분석하여 그 문예사적 의의를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 서체 분류에 따르면 허목의 글씨는 전서(篆書)에 속할 것이나, 허목 자신은 자신의 글씨를 언제나 '고문(古文)'이라 지칭했다. 한자 '문(文)'이 글자와

문장을 모두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고문'은 옛글과 옛 글씨를 동시에 가리킨다. 허목은 문학에서는 이상 시대인 삼대(三代)의 성인이 지은 육경의 문장을, 서예에서는 당시에 쓰였던 글씨를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허목의 서예는 그의 상고(尙古)주의 학예(學藝) 세계 전반, 특히 그의 글쓰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 의의가 탐색되어야만 한다.

허목의 글쓰기는 일견 서정(抒情)과 의론(議論)을 배제한 건조한 서술(敍述)만을 추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언』의 구성 및 개개의 글을 자세히 독해해 보면, 그는 인물 서술과 공간 서술 등에 서술 대상과 자신이 갖는 연고(緣故)를 자연스럽게 녹여 내어, 사실 서술에 자기 서사를 은연중에 개입시키는 양식의 글쓰기를 구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자 문화권에서 옛것의 추구가 문명 초기부터 문화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옛것은 단순한 과거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현재 자신의 존재 양식의 근원을 확인하는 대상이었다는 사실, 즉 고(古)를 고(故)로 전유(專有)하는 것이 한자 문화권의 전제였다는 거시적 지평을 인식함으로써 그 의의가 온전히 이해된다. 또한 사실 서술 위주의 간결한 문체를 지향했던 허목의 '고문(古文)' 글쓰기는, 그것이 동시에 '고문' 글씨 쓰기였음을 감안할 때 그 풍부함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기언』에도 수록된 <고매누자대년설(古梅樓子大年說)>의 원고(原稿)를 보면, 여러 번 반복 출현하고 있는 같은 글자가 매번 다른 자형(字形)으로 쓰여 있어서 짧고 간결한 문장에 글씨로서 다양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

허목 문학은 상기(尙奇)의 측면도 지니고 있었다. 자연 및 인간 세상이 모두 일기(一氣)의 변역(變易)이라 인식했던 허목은, 기(氣)의 변화의 특수한 예에 해당했던 기이한 사물 및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이는 정치에 관여하는 사대부로서는 재이(災異)에 대한 탐구로, 생활인으로서는 기이한 경물을 즐기는 여행의 추구로, 문인으로서는 괴물(怪物)과 기현상의 소재가 풍부한 작품의 창작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와 동해를 배경으로 과거 전적에 나타난 온갖 괴물 및 만이(蠻夷) 등 기괴한 소재를 그려낸 <백제서망해요(百濟西望海謠)>나 <척주동해비> 등은 허목 상기 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삼대(三代) '고문'은 확고히 추구해야 할 이상임엔 틀림없었지만, 삼대 '고문'이 현재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실제로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쓸 때 그것만으로 창작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허목은 삼대 이후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가치가 하락된 후대의 작품들도 전고(典故)로서 활용했다. 『기언』 권5 「문학(文學)」과 권6 「고문(古文)」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고문」에서

조적서(鳥跡書)·종정문(鐘鼎文) 등 진정한 고문 뿐 아니라 조금 후대의 주문(籒文), 심지어는 진(秦) 이사(李斯)의 소전(小篆)마저도 약간의 긍정적 평가를 부여하여 전거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허목의 고문자 자형 연구의 실제는, 그가 손수 써서 편집한 세 종류의 고문자 자전인 『금석운부(金石韻府)』·『고문운율(古文韻律)』·『고문운부(古文韻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석운부』는 명대(明代)에 목판으로 출간된 동명(同名) 서적의 발췌본이며, 나머지 둘 또한 허목이 기존의 여러 전초(傳抄) 고문자 자전에서 발췌하여 필사한 것이다. 이 수고(手稿) 자전들을 통해 허목이 전초 고문경전(古文經典) 및 사주(史籒) 주문(籒文), 설문고문(說文古文) 등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고문자를 수집했음을 알 수 있다.

<척주동해비>는 허목 서예의 대표작으로서, 그것에 수록된 178개의 자형(字形)을 허목의 위 3종 자전 및 각종 고문자 자료, 허목의 다른 작품에 나타난 글자들과 비교하여, 그 전거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척주동해비>에서 허목이 『고상서(古尙書)』 등 전초(傳抄) 고문경전 및 『고노자(古老子)』 등 고문 제자서(諸子書) 뿐 아니라, 소전체(小篆體) 또한 거리낌 없이 자주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문' 중에서는 종정문의 빈번한 구사가 눈에 띈다. <척주동해비>는 꿈틀꿈틀하며 구불구불한 필획도 매우 특징적이다. 필획은 결구(結構)와 같은 정확한 분석이 힘들긴 하지만, 대체로 기(氣)의 약동을 기괴하게 구불구불한 형태로 체화한 자연물 및 그것과 유사한 초서(草書)의 획과 연관이 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허목 상고주의 학예의 큰 틀 아래에서 그의 '고문' 서예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었다. 허목 서예는 상고(上古) 성인(聖人)의 글씨를 확고한 이상으로 삼으면서도 실제 작품의 자형(字形)에서는 각종 전고(典故)를 선택적으로 활용·변용했으며, 약동하는 필획을 구사한 서사(書寫)를 통해 개성적 면모를 획득했다. 본 연구는 대체로 신비의 영역에 놓여 있던 허목의 서예를 일정한 근거를 갖춘 학문적 분석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첫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주요어 : 허목(許穆), 서예, 고문(古文), 상고(尙古)주의, 기(奇), 조선시대, 전초(傳抄) 고문자, 필획

학번 : 2009-30043

목 차

서론
1. 연구의 중요성 ·····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 5
3. 연구의 내용 ····· 17

제1장『기언(記言)』을 통해 본 허목 고문(古文) 글쓰기의 특성 ····· 21
1.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고(古)와 문(文)이 갖는 가치 ····· 25
2.『기언』원집(原集) 서문과 잠계(箴戒)를 통해 본 허목 글쓰기의 특성 ····· 31
3. 『기언』「자평(自評)」 및 <고매누자대년설(古梅樓子大年說)>을 통해 본 허목 글쓰기의 특성 ····· 38

제2장 허목 문학의 기(奇) 추구 양상
1. 허목과 상기(尙奇) 문학 ····· 52
2. 천지(天地) 변역(變易)의 세계관과 기(奇)의 문(文)으로서의『역(易)』에 대한 인식 ····· 60
3. 산수 유람을 통한 기(奇)의 체험 ····· 68
4. 허목 기(奇) 문학의 양상 - <백제서망해요(百濟西望海謠)> 분석을 중심으로 ····· 72

제3장 허목의 고문관(古文觀) ····· 81
1.『기언(記言)』을 통해 본 허목의 고문(古文) 인식 및 고문 서예 창작 활동 ····· 85
2.『기언』「문학(文學)」을 통해 본 허목의 고문 문학 인식 ····· 101
3.『기언」「고문(古文)」을 통해 본 허목의 고문 서예 인식 ····· 107

제4장 허목 수고본 고문자 자전(字典)의 분석 ····· 114
1.『금석운부(金石韻府)』
1.1. 체제와 구성 ····· 116
1.2. 허목(許穆) 수고본(手稿本)『금석운부(金石韻府)』와 명(明) 간본(刊本)『금석운부』 ····· 119

1.3.『금석운부』의 특성과 의의 ……129
2.『고문운율(古文韻律)』
2.1.『고문운율』의 체제와 구성 ……131
2.2.『고문운율』의 특성과 의의 ……135
3.『고문운부(古文韻部)』
3.1.『고문운부』의 체제와 구성 ……142
3.2.『고문운부』의 특성과 의의 ……144

제5장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통해 본 허목 고문(古文) 서예의 특징
…… 147
1. <척주동해비>의 원문 및 내용 …… 151
2. <척주동해비> 수록 글자 결구(結構) 분석을 통한 자형(字形) 연원의 탐색 ……161
2.1. 전초(傳抄) 고경(古經) 자형의 채택 …… 164
2.2. 전초(傳抄) 제자서(諸子書) 자형의 채택 ……170
2.3.『설문해자(說文解字)』자형의 채택 …… 173
2.4. 전초(傳抄) 석각(石刻) 문자 …… 176
2.5. 종정문(鐘鼎文) …… 177
3. <척주동해비>의 필획 ……186
4. <척주동해비>를 통해 본 허목 고문(古文) 서예의 특징 …… 195

결론 …… 198

참고문헌 …… 206

부록
1. 허목 고문 서예 작품 목록 …… 212
2. <척주동해비> 자형(字形) 비교 표 ……219

Abstract …… 386

일러두기

한문 인용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표점지침'에 따라 문장 부호 및 표점을 가하여 정리했다. 따라서 서명(書名)·편명(篇名) 및 작품명 등의 경우 인용문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서명 부호 '《》'(unicode: 300A, 300B)을 사용하였고(예: 《邶風·大雅·毛傳》), 인용문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호(반각기호 '『』, 「」' 및 <>' 등)를 썼다.(예: 『隋書』「經籍志」) '표점지침'에서는 문장의 끝을 표시하는 문장부호로서 '고리점(。)'(unicode: 3002)을 쓰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침표(.)'로 대신했다. 이 외에는 대체로 '표점지침'을 준용했다.

서 론

1. 연구의 중요성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 선조 28 ~ 1682, 숙종 8)은 16세기 말에 출생, 인조(仁祖) 재위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고, 17세기 중후반인 현종(顯宗) 및 숙종(肅宗) 대 초에 걸쳐 주로 활동한 인물로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 학자 중 한 명이다.

현종 초 벌어진 제1차 예송(禮訟)에서 송시열(宋時烈)을 강하게 논박하는 상소를 올려 유명해진 그는 남인(南人)의 대표자로 손꼽히는데, 숙종 즉위 직후의 남인 집권기에는 80대의 나이로 우의정을 역임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와 같은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허목이란 인물을 정치 지도자로 국한하여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60대 이후 본격적인 벼슬살이를 시작하기 전까지 허목은 유랑과 은거(隱居)로 점철된 독서가이자 문장가의 삶으로 일관했다. 허목 말년의 화려한 관력(官歷)은 그의 인생 전체로 볼 때 오히려 이례적 예외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가 남인의 대표자로 손꼽히게 된 까닭은, 고례(古禮)를 연구한 예학(禮學)의 종장(宗匠)이자 육경(六經) 고문(古文)을 추구하여 독특한 문장을 구사한 문장가로서 당대에 독자적 학문 및 문예 세계를 구축했으며, 이에 따라 후대 남인 계열 학풍 및 문풍의 선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자이자 문인으로서 선보인 문예적 면모로 인해, 서인(西人) 및 노론(老論)이 정치·문화적 주류를 형성했던 조선 후기에 짧은 집권기 이후 금세 몰락하여 소수파로 전락한 남인이었던 그의 명성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로 대표되는 허목의 독특한 서예 세계는 그의 문예의 독창적 면모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허목 서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허목 문예[1]의 중심에는 '고문(古文)'이 위치하고 있다. '무늬[紋]', '꾸밈[文飾]'라는 원의(原意)에서 출발한 '문(文)'은 주로 '글자[文字]'를 가리키게 되면서, 글자의 집합체인 글 즉 '문장(文章)'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문'은 작게는 한 글자를, 크게는 한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글・서적을, 나아가 그것에 담겨 있는 당세(當世) 사상(事象)의 총화인 문화(文化)를 지칭할 수 있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고문'은 주로 '문자' 혹은 '문장'의 측면, 즉 옛 성현(聖賢)이 남긴 전적(典籍) 혹은 옛글의 양식 및 그것에 담긴 정신을 가리켰다.[2] 그런데 허목이 추구한 '고문'은 옛 책 및 옛글은 물론, '문'의 외양 즉 자형(字形)의 측면인 옛 글씨 및 글씨체를 포괄함은 물론, 그가 구사한 '고문' 서예는 문예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까지 한다는 면에서 주목의 여지가 크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복고(復古)는 문예사의 전변(轉變)적 계기마다 소환된 경향이었기에, 각각의 복고 사조 및 복고주의자 개개인의 양

---

1) '문예(文藝)'는 보통 '문학(文學)'과 통용하여 글쓰기 예술을 주로 지칭하는 데 쓰인다. 그런데 허목의 경우 '문(文)'은 글과 글씨를 통합적으로 지칭하며, 아래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기실 이는 동양 문예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문예'라는 용어를 현대의 일반적 용법과 달리 '문학'에 더해 '서예' 영역까지 통합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용하려 한다.

2) 한대(漢代) 금고문(今古文) 논쟁은 금문 경전과 고문 경전의 채택을 둘러싼 논쟁에서 출발하였다. 고문파의 창시자이자 수장이었던 유흠은 비록 정치적으로 몰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고문 경학가들의 학문은 후한(後漢) 대를 거치며 발전하여 종내는 정현(鄭玄)의 집대성으로 완성되는 주석학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당대(唐代) 고문 운동은 육조(六朝)의 화려한 문풍에 대한 반작용에서 시작하여 유가(儒家) 고전을 본받은 산문 문체의 복고를 시도한 문학 운동이었다. 명(明) 전후칠자(前後七子)의 의고(擬古) 문풍 또한 '산문은 반드시 진한을 모범으로 삼고, 시는 반드시 성당(盛唐)을 따른다[文必秦漢 詩必盛唐]'는 구호 아래 옛 문사(文辭)의 모방에 주력했다. 중국 '고문(古文)' 부흥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문장'이 아닌 문자로서의 '고문'에 주목한 경향으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북송(北宋) 시대『태평어람(太平御覽)』・『책부원귀(冊府元龜)』・『문원영화(文苑英華)』・『태평광기(太平廣記)』 등 유서(類書) 즉 '송조사대서(宋朝四大書)'의 편찬과 함께 일어난 고문자 집자(集字) 사전의 출간 등 소학(小學)의 발전 경향이다. 곽충서(郭忠恕)의『한간(汗簡)』, 하송(夏竦)의『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 여대림(呂大臨)의『고고도(考古圖)』와 설상공(薛尙功)의『역대종정이기관지법첩(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 등이 그 주요 성과이다. 둘째로 청(淸) 중기 이후 등장한 전서(篆書) 및 예서(隸書)의 부흥을 들 수 있다. 등석여(鄧石如, 1743~1804)의 선구적 예술 실천 이후 완원(阮元, 1764~1849)의 '북비남첩론(北碑南帖論)' 등 이론적 작업을 거치면서 통행 서체인 해행초가 아닌 옛 글씨체인 예서와 전서가 서예의 중심이 되고, 또한 전각(篆刻)도 중요한 완상(玩賞) 및 서예술 실천의 대상이 되었다.

상은 모두 심대한 문예사적 의의를 갖는다. 허목은 조선 후기 남인 계열 복고 경향의 대표자라는 중요성도 있지만, 동아시아 전체의 맥락에서 보아도 18세기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던 중국의 전서(篆書) 부흥과 일본의 고문사(古文辭) 문풍 및 고학(古學) 학풍의 흐름보다 앞서 상고적 학풍 및 문예를 독자적으로 선취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구나 그 문예 지향 및 실천의 중심에 서예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학적 표현의 원용 및 전적 고증에 치중했던 대다수의 복고주의 경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은 허목 서예의 의의를 규명하기 위해 '문(文)'·'고문(古文)' 및 복고주의가 갖는 근원적·복합적 의의와, 허목이 갖는 독특한 문예사적 위상을 함께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의 문집인 『기언(記言)』을 분석, 그에 나타난 글쓰기 양식의 특성을 살펴보고, 철저한 상고(尙古)주의자이자 고전(古典) 독서가인 허목이 독창적 면모를 지닌 산문 서술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원동력인 특유의 서사 구조 및 양태를 고찰할 것이다. 옛 글쓰기 양식의 철저한 추구 속에 자신만의 내용을 담아내어 결과적으로 복고적 글쓰기와 독자적 글쓰기라는 일견 양립 불가능한 성격의 글쓰기를 한 데 통합한 그의 글쓰기의 구조처럼, 허목의 서예도 전래된 옛 전거의 글씨들을 취사선택하여 '고문'을 재구(再構)하고 그 '고문'으로 자신만의 내용을 서사(書寫)하여 독창적 '고문' 서예를 창조해냈다. 본 논문은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기언』 소재 '고문' 기사, 허목이 손수 써서 편집한 고문자 집자(集字) 사전, 나아가 <척주동해비>에 구사된 각 글자 자형(字形)의 연원을 분석하였다.

미수 허목은 당대 남인 뿐 아니라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정치 사상가이자 문장가·서예가였으므로 사학·문학사·사상사 분야는 물론 서예사 방면의 선행 연구 또한 다수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와 달리 본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문예사·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옛것 즉 '고(古)'의 추구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의 오랜 전통이며, 복고는 문예사의 주요 전기마다 등장했던 사조였다. '고'와 복고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옛것 추수가 아니라 과거 환기를 통해 새로운 경향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기마다 보였던 복고 사조 및 복고주의자 개인의 문예 양태는 모두 각기 나름의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동아시아 복고주의의 보편적 중요성이란 관점 하에서, 조선 후기 복고 사조의 단초를 열었던 허목의 상고주의 문예 경향 및 '고문' 추구는 그 내적 동인 및 작동 기제가 상세히 논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둘째, 위와 같은 동아시아 복고의 거시적 관점 내지 남인 복고주의의 선구로서 갖는 의의 이외로도, 개별 문인으로서 허목이 갖는 독특한 면모 또한 미학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높다. 그의 글에서 산견(散見)되는 기이(奇異)한 제재(題材)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의 주제를 꺼렸던 유가(儒家) 문예 전통에서 매우 이채로운 것이다. 또한 말기(末技)로 비하되기 일쑤였던 글씨를, 옛 성인의 가치를 현재에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격상시켜 서예 활동을 활발히 전개, 결국 자신만의 '고문' 서예를 창출해낸 점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허목의 서예는 청(淸) 중기 이후 발생한 전서(篆書) 부흥 및 비학(碑學) 성행 이전에 독자적으로 발생된 것이라 문예적 의의가 더욱 높다.

셋째, 동아시아 미학에서 서예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며 허목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허목 서예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면모가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허목은 왕성한 서예 활동을 보였으면서도 그에 대한 이론적 논구의 성격을 지닌 글은 그다지 많이 남기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는 대개 『기언』에 수록된 서예에 대한 영성(零星)한 글들을 논구하는 데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그의 서예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연원을 밝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이런 시도 또한 거의 없었다.

허목의 글씨는 기존의 서체 분류로는 전서(篆書)에 속하며, 그는 자신의 글씨체를 완성하기 위해 전초(傳抄) 고문자 자료를 활용했다.[3] 그런데 전서는 글자의 하위 단위를 쪼개어서 보기가 쉽고 해서 등과는 달리 하위 단위의 조합이 자유로운 편이다. 아울러 전초 고문자를 집성(集成)한 기존 자료에는 해당 자형(字形)의 출전을 밝혀 준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이에 착안하여 허목이 구사한 글씨 개개의 연원을 비교적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런 작업은 서예사 연구로서 갖는 의미도 크지만, 허목의 복고주의적 문예가 동아시아 문예사에서 갖는 의의를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크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허목은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옛 양식의 글의 추구만으로도 독자적 내용을 가진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러한 허목 특유의 복고 기제가 글씨 쓰기에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서예 창작에서 드러난 이러한 세부적 양태에 대한 연구는, 서론(書論)을 위주로 한 기존의 서예 연구가 갖는 단점을 보충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에서는 먼저 허목에 대한 선행 연구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미수 허목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이었고 문집인『기언』도 널리 알려진 저작이었던 만큼 비교적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분량이 방대한『기언』[4]은 사후 7년이 지난 1689년(숙종 15) 왕명

3) '전초 고문자'란 출토 고문자에 대비하여, 당대에 쓰인 고문자의 실물이 아니라 후대에 전래된 해당 자형을 베껴서 정리한 것을 가리킨다. 傳抄古文字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오제중,「傳抄古文의 내용과 字形 비교 연구」,『中國言語硏究』36, 한국중국언어학회, 2011, pp.365~366.

4) 현재 널리 통용되는『한국문집총간』제98・99권 본의 저본은 문집 93권(원집 67권, 별집 26권) 18책, 세계도・연보・부록 2권 23책 총 1796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기

(王命)으로 초간(初刊)된 이래 허목의 연고가 있는 경기도 연천, 전라도 나주, 경상도 의령 등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5], 현재 전해지는 『기언』 책머리에 책의 성립 정황을 비교적 자세히 밝힌 「범례(凡例)」가 수록되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또한 허목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年譜)」는 그의 활동과 저술을 꽤 자세히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다.[6] 허목은 짧은 기간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의 문하에 있었긴 하지만, 학문과 문예 대부분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당대 주류와 차별성도 크기에, 그의 학예(學藝)를 이해하기 위해선 생애 전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크다. 현재 전해지는 「연보」의 기술은 매우 상세하여 허목 연구를 위한 좋은 기초 자료가 된다. 허목의 5대손인 허뢰(許磊)가 정리한 이 「연보」 이전에 후학들이 편찬한 연대기가 3종 있었다는 사실에서, 허목에 대한 탐구가 남인 및 연고지 중심으로 그의 사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7]

현대에 들어와 허목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 후반으

언』 간행의 편집 지침을 밝힌 「범례」에 따르면 간행된 『기언』은 허목의 평생 저술의 10분의 3~4에 그친다고 했다.

5) 『기언』의 편집 및 출간 과정은 다음을 참조. 柳鐸一, 「眉叟 許穆의 著述 刊行 攷」, 『石堂論叢』 21,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5, pp.199~218.

6) 현재 전해지는 「연보」는 이존도(李存道) 본, 이택(李澤) 본, 강박(姜樸)·오광운(吳光運)·성호(星湖) 이익(李瀷) 합작 본 등 3종의 편년기(編年記)를 바탕으로 허목의 6대손 허뢰(許磊)가 편찬하여 1772년에 최초로 간행한 것이다. 이 「연보」는 이후 여러 차례 중간(重刊)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記言』 「年譜·附錄」의 '識'(『한국문집총간』 99, p.383)과 류탁일, 위의 논문, '3. <年譜>의 편찬과 刊行', pp.210~211을 참조할 것.

7) 『기언』은 완역되어 있으므로 이에 수록된 「연보」 또한 완역되어 있다. 이 밖에 각종 해제·논문 및 서적에 허목의 생애가 소개되어 있다. 논문의 소개는 생략한다. 대중서로 다음이 있다. 허찬무, 『(청빈한 대쪽 선비) 미수 허목 – 멸사행공을 배우다』, 진한엠앤비, 2013. 아울러 생애를 비롯하여 허목 학문 및 문학·서예 등을 망라한 논문집으로 다음이 있다. 윤사순 외 10인, 『許眉叟의 學·藝·思想 論攷』, 眉叟硏究會, 도서출판 참나무, 1998. 이 책에 수록된 글 및 논문은 다음과 같다. 강주진, 「許眉叟의 삶과 學統」, pp.20~36 ; 윤사순, 「眉叟(許穆)의 經世思想」, pp.37~72 ; 김도기, 「眉叟 許穆의 經學思想」, pp.73~103 ; 이영춘, 「己亥禮訟과 眉叟 許穆의 禮論」, pp.105~154 ; 최경환, 「眉叟의 道家意識에 관한 硏究」, pp.155~236 ; 최강현, 「眉叟 許穆의 文學을 살핌」, pp.237~264 ; 한혜선, 「眉叟 許穆의 漢詩硏究」, pp.267~320 ; 박성봉·이인철, 「許穆의 『東事』에 나타난 古代史 認識」, pp.321~362 ; 정광호, 「眉叟 許穆의 古篆世界」, pp.363~397 ; 김동건, 「許穆의 書藝硏究」, pp.399~471 ; 양태진, 「許眉叟 遺作에 관한 書誌的 考察」, pp.473~506.

로 볼 수 있다. 우선 1978년 『기언』의 국역(國譯)이 공간(公刊)되기 시작한 이래[8] 국역 및 영인본에 부가된 집필된 '해제'[9]가 몇 종 있다. 이 중 이우성의 해제는 짧지만 허목 학문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가장 이른 예이며 이후 연구들에 끼친 영향도 작지 않아 중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 이우성은 허목의 생애를 개략하고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평가 등을 인용하여 허목의 학통 내지 "학사(學史)적 위치"를 "영남(嶺南) 성리학과 근기(近畿) 실학"을 연결하는 "가교자적 역할"로 규정했다. 또한 예론(禮論)에 있어 서인계의 이론을 벌열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된 남인의 논리를 "군주의 대통을 강조하여 (…) 왕조 질서의 확립과 벌열 세력의 억제를 통한 일반 사대부의 기회 균등"을 꾀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허목의 상고(尙古) 정신을 단순한 복고주의가 아니라 "중세(中世)에 대한 부정", 관념화된 성리학 즉 주자학적 정신 풍토에 대한 부정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우성은 허목을 '근기 실학의 비조(鼻祖)'·'교조적 성리학을 부정한 고학(古學)적 실학자'로 규정하였다. 이우성의 위와 같은 평가는 허목 이후 대표적 남인이었던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과 채제공의 견해[10]를 계승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기도 연천 출신인 허목이 경상우도

---

8) 1978년에 6책으로 출간된 『국역 미수기언』은 『기언』 전체 분량의 5분의 3 가량을 번역한 선역(選譯)이다.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178 ~ 183) 『기언』은 이후 완역되었다. (『국역 기언』 1~8 (한국고전번역원, 2006~2008) 국역은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에서 검색 및 열람 가능하다.

9) 成樂熏, 「眉叟記言 解說」, 『許穆/尹鑴 外-韓國의 思想 大全集 23』, 同和出版社, 1972 ; 李佑成, 「국역 미수기언 해제」, 『국역 미수기언 1』, 민족문화추진회, 1978 ; 金雲泰, 「記言 解題」,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集部1) II』, 서울대출판부, 1979 ; 姜周鎭, 「眉叟全集 解題」, 『眉叟全集』, 驪江出版社, 1986 ; 吳世玉, 「眉叟記言解題」, 『민족문화추진회』 23, 민족문화추진회, 1991년 가을호. 또한 '한국고전종합DB-한국문집총간-記言'에 許穆의 生平과 『記言』에 대한 해제가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kyujanggak.snu.ac.kr)-해제-記言-내용개요'에는 『記言』에 수록된 모든 글의 개요가 있다.

10) 채제공은 성호 이익 묘갈명에서 이익의 학문을 퇴계 이황으로부터 한강 정구와 미수 허목을 거쳐 내려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황-정구-허목-이익'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제시했다. 蔡濟恭, 『樊巖集』 권51, 「星湖李先生墓碣銘」, "但念吾道自有統緖, 退溪我東夫子也, 以其道而傳之寒岡, 寒岡以其道而傳之眉叟, 先生私淑於眉叟者, 學眉叟而以接夫退溪之緖." 허목을 포함한 기호(畿湖) 및 근기 남인 학통의 전개에 대해서는 다음 저서 및 논문을 참조.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南人 분열과 畿湖南人 學統의 성립', 신구문화사, 1998, pp.15~42 ; 윤재근, 「近畿南人 學統의 展開와 星湖

남부 즉 현재의 서부 경남 지역[11]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현지 문인들과 교유를 가졌으며[12], 성재(性齋) 허전(許傳, 1797~1886) 등 후대 학자들도 그에 대해 존경을 표했던 사실 등을 감안하여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이우성의 견해는 이후의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허목은 현종·숙종 조에 걸쳐 진행된 예송(禮訟) 논쟁의 주요 논자 중 한 명이었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정치사 및 사상사의 주요 인물로 부상했다. 따라서 그가 조선 사상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예학(禮學)이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겠다.

당대에 서인과 남인이 벌였던 투쟁의 치열한 양상, 그리고 그것이 이후 조선 정치사에 미쳤던 영향의 강도를 감안한다면, 당대 사상의 지형을, 한쪽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주자학 준수-주자가례(朱子家禮) 중심-사인(士人) 지향-보편주의로서, 다른 한쪽은 허목을 중심으로 한 남인-탈주자학-고례(古禮) 중심-왕권 지향-분별주의로 정리하는 것은 일

學의 形成」, 『온지논총』 36, 2013. 허목과 이황 사상의 비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형찬, 「敬畏에서 感應으로 - 眉叟 許穆의 退溪學 계승에 관한 고찰-」, 『철학』 98, 한국철학회, 2009, pp.27~50.

11) 허목은 한양에서 태어났고 선영(先塋)이 있는 경기도 연천이 주거주지였으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아버지의 임지인 고령과 거창에 따라간 적이 있으며, 23세 때에는 성주(星州)의 한강 정구를 사사(師事)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전란으로 인해 전국을 유랑하며 장년기를 보냈는데, 44세(1638년)부터 약 10년을 의령·사천·창원·칠원(漆原) 등 서부 경남에 거처했다. (1645년에 一家를 이끌고 다시 연천으로 돌아왔는데, 1646년도 대부분 김해·의령 등지에서 보내다가 12월에야 연천으로 돌아옴. 그리고 1647년에는 7월에 의령에서 어머니 상을 치르고 10월에 시신을 모시고 연천으로 돌아와 12월에 연천 아버지 묘소에 埋葬함. 따라서 거주는 38~45년 8년이지만 여행과 장례 등으로 2년을 더 보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년을 서부 경남에서 보낸 것이 됨.) 의령은 그의 중제(仲弟)인 허의(許懿)가 모친을 모시고 피난 가서 그대로 봉양하며 거처했던 곳이며, 사천은 허의의 처가인 구암(龜巖) 이정(李楨) 집안의 연고지다. 또한 창원은 선세(先世)의 별업(別業)이 있던 곳이다. 「연보」에 따르면 허목의 어머니는 의령에서 사망했는데, 허목이 먼 곳에서 달려와 정성 들여 상을 치르는 모습에 지역민들이 감동했다고 한다. 의령에는 허목을 추모하는 공간인 이의정(二宜亭)이 소재하고 있다.

12) 허목은 지역으로는 경상우도, 학파로서는 남명 조식 및 퇴계 이황 계열 문인들과 폭넓은 교유를 가졌다. 『기언』에 나타난 영남 지역 문인들과의 교유 양상은 다음 논문에 자세하다. 안병걸, 「眉叟 許穆과 嶺南學派」, 『퇴계학과 유교문화』 3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

견 타당해 보인다. 허목의 정치사상과 경학(經學)의 성격을 이러한 '당파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려 시도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13] 그러나 멀리서 볼 때는 한 덩어리로 보이는 '당파'란, 현실 정치의 실제를 천착한다면 기실 여러 분화를 거쳐 내부 분열을 거듭하는 이질적 견해의 집합체이며, 그 내부적 입장차가 보이는 대립의 의의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14] 그러나 당파적 입장에 입각한 이러한 도식화가 갖는 근원적 문제는, 논의의 세부로 들어가면 당대 인물이 실제 견지했던 입장 및 견해의 실제와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데에 있다. 허목을 한 당파의 영수로 정리하게 만들었던 주원인인 예송 논쟁의 배경에 있는 예론의 세부를 살펴보면 이런 모순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인과 남인의 입장 차이를 그들의 사상적 배경과 연결시켜 두 그룹의 예론을 이해하려 한 연구[15]로 최완수[16]와 지두환[17]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시각에 따르면 서인과 남인의 차이는 사상으로부터 정치적

---

13)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정치·사회사의 측면에서 허목의 반주자학적 사유구조 및 군주중심론, 그리고 반북벌론의 구체적 실상에 대해 논한 김준석, 「朝鮮後期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그 展開」,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 송시열과 허목의 正義觀을 대비시켜 논한 연구인 곽신환, 「宋時烈과 許穆의 正義觀」, 『정신문화연구』, 제16권 제2호(통권 5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허목의 『경설(經說)』이 가진 서인의 四書集注 중심의 程朱學 존숭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성격을 논한 김언종, 「『經說』을 통해 본 眉叟 古學의 性格」, 『道山學報』 제5집, 道山學術硏究院, 1996 ; 허목의 主理論적 性理설의 사상사적 위치 및 그 비정통적 의의를 논한 금장태, 「眉叟 許穆의 사상」, 『退溪學派의 思想 I』, 집문당, 1996.

14) 남인 내부의 청남과 탁남의 분화는 물론, 훗날의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의 커다란 분화를 야기한 서인 내부의 송시열계와 비(非)송시열계의 대립 또한 심각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만조, 「朝鮮 顯宗朝의 私義·公義 論爭」, 『한국학논총』 제14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91.

15) 예학 연구사의 흐름과 각 연구자의 논점은 다음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아래 서술은 이봉규 논문의 해당 부분을 재정리한 것이다. 최완수, 지두환, 이영춘 등의 해당 논문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를 참조할 것. 이봉규, 「예송의 철학적 분석에 대한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제31집, 1996, pp.160~162.

16) 최완수는 17세기 예송을 정리하면서, 한쪽을 '수주자파(守朱子派)'로 규정, 그들이 '천하동례(天下同禮)'를 주장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을 '왕자례부동사서(王者禮不同士庶)'를 주장하는 '탈주자파(脫朱子派)'로 정의했다.

17) 지두환은 예송에 대한 입장 차가 서인과 남인의 비조인 이이(李珥)와 이황(李滉)의 이발(理發)에 대한 입장 차이에 기인했다고 보았다. 즉 이이는 이발을 부정했으나 이황은 이발과 기발(氣發)을 모두 인정했다는 것에서, 이것을 기(氣)의 가변성(可變性)에 대한 인정의 유무(有無)로 이해하고, 이런 철학적 입장 차이가 종법(宗法)을 왕가와 일반 사대부에 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론의 차이를 불러왔다고 해석했다.

입장과 예론의 입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논의 전개의 세부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도식화는 적지 않은 이론적 맹점을 드러낸다.[18] 더구나 같은 남인이었던 허목과 윤휴 사이의 차이 또한 적지 않으며,[19] 나아가 어떤 시각에서는 허목의 예론이 윤휴보다 오히려 송시열과 한 부류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20] 당대의 예론을 서인 대 남인으로 이분해서 보는 방법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논의의 시초에서 이우성이, 허목 학문의 성격을 "중세적" "주자 중심주의"의 극복으로 규정한 것은 간단한 해제 성격의 논의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후속 연구들에서 허목의 학문에서 개혁적 단초를 찾아 당대 주류인 서인과 차이를 강조하고, 다시 당대의 당파적 차이를 개인의 이론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한 지나친 범주화의 오류가 종종 발생했다. 이는 조선 후기 사상사의 거대 주제 중 하나인 '개혁성'을 '탈성리학' 내지는 '탈(脫) 주자(朱子)'와 성급하게 일치시켰던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이론적 가정으로 요구된 '개혁성'에 입각한 해석은 허목 예

---

18) 이영춘은 이이와 이황의 이(理)에 대한 이해를 불변(不變)과 가변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더욱이 같은 이이의 제자라도 어떤 이(金長生, 張維 등)는 제왕가의 특수성을 인정하기도 했던 예를 들면서 양 학파의 사상적 입장 차이가 예론의 입장 차이로 등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봉규는 예송에서 보인 견해 차이를 서인과 남인 학자들 사이의 차이로 이분해 보는 관점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이영춘 연구의 의의는 긍정하면서도, 이영춘 또한 성리학적 예학을 보편주의로 고례(古禮)에 기반을 둔 예학을 분별주의로 보는 이분법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철학적 측면에서 예(禮)의 의미는 모든 구성원이 무조적적으로 따라야 할 무차별적 원칙이라는 형이상의 관념과 신분의 차이에 따라 역할과 위상을 분별지우는 차별적 규범이라는 형이하적 제도라는 두 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19) 고영진과 유영희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고영진, 「17세기 후반 근기남인학자의 사상 – 윤휴·허목·허적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 유영희, 「탈성리학의 변주 – 미수 허목과 백호 윤휴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3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20) 이원택은 타고난 사적 관계인 '천작(天作)'에 입각한 친친(親親)과 사회적 관계인 '인작(人作)'에 입각한 존존(尊尊)의 구별이 예송에 있어 더욱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구분법이며, 이에 따라 본다면 송시열과 허목은 친친에 입각한 사림정치론의 입장으로, 윤휴는 존존에 입각한 절대군주론적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현종대의 服制論爭과 公私義理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예론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이런 시각은 문학론 및 문예론 방면의 몇몇 연구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문학론 및 문예론에서도 허목은 강력한 복고 지향을 드러냈다. 이 방면의 연구에서 허목의 복고적 '고문(古文)관'이 지닌 개혁성과 수구성은 논의의 중심이 아닌 것 같다. 그의 복고 지향이 워낙 명확하고, 기본적으로 유자(儒者)인 조선시대 문학가들에게 문(文)은 현실과 관계에서 예(禮)만큼의 무게를 갖지는 않았으며, 또 예론과 달리 허목이 당대의 중심적 문학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남인에서 허목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의 문학론의 연원 및 성격에 대한 언급 자체는 적지 않다.

조선 중기 의고주의 문풍의 연원 및 양상에 대한 한문학계의 연구는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다. 90년대 중반 조선 문단에 미친 명대 의고문파의 영향에 대해서 지적한 강명관의 연구[21] 이래 전후칠자 수용의 양상 및 계보가 정리되었고,[22] 가장 이른 수용 사례 중 한 명인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 1537~1616), 조선 중기 소위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 중 한 명인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 등 개별 문인의 사례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 왔다. 강명관은 명 의고문파의 영향을 받은 조선 문인들을 '진한고문파(秦漢古文派)'로 지칭했는데, 이후 문장 작법의 모범이 되는 전범 선택과 실제 문풍에 따라 '당송고문(唐宋古文)'을 추구하는 문파의 존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들의 계보 및 성격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23], 당송고문을 추구하는 소위 '한구정맥(韓歐正脈)' 계열 문풍의 문

---

21)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秦漢古文派의 성립」, 『한국한문학연구』 18, 한국한문학회, 1995. 강명관의 본 논문은 본인의 저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22) 신승훈은 조선 중기 및 후기 전후칠자 수용의 여러 양상을 절충적 양상(崔岦과 申欽), 계승 및 발전(金尙憲과 趙翼), 비판 및 극복(李植・金昌協・李宜顯), 독자적 尙古 노선(許穆) 등 네 가지 양상으로 정리하였다. 신승훈, 「前後七子의 受容과 朝鮮中期 文苑의 反響」, 『동양한문학연구』 16, 동양한문학회, 2002, pp.124~138. 다음 논문도 참조.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秦漢古文派의 산문비평론」,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이성민, 「'秦漢古文派'의 성립 배경과 秦漢古文에 대한 인식」, 『동악어문학』 48, 동악어문학회, 2007.

장관과 문장의 성격에 대한 연구로 논의가 확장・심화되었다.[24] 이는 나아가 '진한고문파'라는 명칭에 대한 이론(異論), 그리고 소위 '진한고문파'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 - 당대의 문인들을 진한고문파와 당송고문파로 구분하여 소속시키는 연구 방법에 대한 지적[25] -에까지 이르게 된다.

허목의 문장과 문론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고[26] 소위 '진한고문파'와 함께 다룬 논고가 대부분이지만, 허목의 '고(古)' 지향이 명(明) 의고주의의 영향을 받은 조선 중기의 '진한고문'풍의 자장(磁場) 안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남인 계열의 문단을 전반적으로 연구한 주요 성과로는 부유섭[27]과 하지영[28]의 논문을 꼽

---

23) 강명관의 '진한고문파'에 대한 지적 이래, 정민은 '당송파 고문가'의 존재를 지적하고 그들의 계보 및 학문적 성향과 문장의 성격을 정리했다. 정민,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진한계고문파(秦漢系古文派)'와 '당송계고문파(唐宋系古文派)'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도 참조할 수 있다. 김철범, 「이조후기 산문론에서 '見識'의 문제」, 『한문학보』 9권, 우리한문학회, 2003.

24) 박은정, 「17C 말 18C 전기 農巖 계열 문장가들의 古文論 연구-金昌協・李宜顯・李德壽・申靖夏・李夏坤의 韓歐正脈論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송혁기의 연구는 한구정맥 계열 작가들의 계보・창작 전범・수사(修辭) 및 문장관 뿐 아니라 그들에 대응한 남인 '허목' 계열 문인들의 문학관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송혁기,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6. 이 저서는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에 일부 논문을 추가하여 출간한 것이다. 송혁기, 「17세기말~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25) 장유승, 「前後七子의 수용과 秦漢古文派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문학논집』 제36집, 2013.

26)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철범・신승훈, 「眉叟 許穆 散文의 特徵과 그 意味-『地乘』과 記를 중심으로」, 『文化傳統論集』 제13집,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 신승훈, 眉叟 許穆 散文의 美學」, 『인문학논총』 제14권 3호,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 이준규, 「許穆 散文의 古文詞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제29집, 동양한문학회, 2009. 또한 허목의 시(詩)에 대한 연구가 종종 눈에 띄는데, 허목이 남긴 전체 글 중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이채롭다. 최강현,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문학을 살핌 1-주로 그의 수기시(修己詩)를 중심으로-」, 『淵民學志』 제2집, 淵民學會, 1994 ; 최강현,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문학을 살핌 2: 주로 그의 기행시를 중심하여」, 『겨레어문학』 20권, 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 김혜숙, 「미수 허목(許穆) 시적(詩的) 정회(情懷)에 대한 일고(一考)-상고(上古) 희구(希求)의 좌절(挫折)과 자족적(自足的) 안착(安着)」, 『한국한시작가연구』 10권, 한국한시학회, 2006 ; 이준규, 「許穆 한시의 尙古的 경향에 대하여」, 『韓國漢詩硏究』 17권, 한국한시학회, 2009.

27) 부유섭, 「17-18세기 중반 近畿南人 文壇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목 문학이 남인 문단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허목의 문학을 단독으로 다룬 주요 연구로는 권진호의 논문[29]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기언』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허목의 가계 및 사승(師承) 관계를 자세히 밝히고 있으며, 고문(古文) 및 고기(古氣) 추구가 구체적 문장 –특히 기문(記文)을 중심으로 –에 나타난 양상을 망라하여 밝혔다. 이 논문은 허목의 문예 및 산문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힌 최초의 종합적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허목과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문학사상의 상고 지향성을 비교한 이효원의 논문[30]도,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명 의고주의의 영향을 조선이라는 일국(一國)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의 경우까지 확장·비교하여, 허목 고문사 연구의 의의를 동아시아적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허목의 문학관을 둘러싼 논의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소위 '진한고문파'의 문풍이 문학을 성리학적 이념에 종속시킨 당대 주류의 문학론에 파열을 일으켜 "도문분리(道文分離)"로 가는 흐름에 일조했다는 해석에 대한 검토이다. 문이재도(文以載道) 혹은 도문일치(道文一致)론과 도문분리론의 길항관계는 조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유가 문예론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 중 하나다. 형이상(形而上)의 세계 구성 원리에서 실천 윤리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성리학적 전통 하에서 도(道)에 비해 부차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고 종종 '말기(末技)'로 취급받기도 하는 문장으로서의 문(文)이, 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곧 '문예'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경남은 일련의 논문에서 18세기에 활동한 조귀명(趙龜命, 1693~1737)과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의 도문분리론의 성격을 밝히고, 아울러 그들 담론의 전사(前史)로서 조선 초기부터

---

28) 하지영, 「18세기 秦漢古文論의 전개와 실현 양상」, 이화여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14

29) 권진호, 「眉叟 許穆의 尙古精神과 散文世界」,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30) 이효원, 「許穆과 荻生徂徠의 尙古主義 문학사상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단속적으로 나타난 도문분리에 대한 이론·실천적 탐색의 연원을 제시한 바 있다.[31] 그런데 허목은 서인 및 노론 계열은 물론 '진한고문파'와도 차별점을 보여 '육경고문(六經古文)'을 추구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독자성을 보였으며[32] 도가(道家)적 경향까지 보일 정도로[33] 당대의 문풍과 현격한 차별성을 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나타난 문예의 독자성을 위한 도문분리 담론 연구의 틀로 끌어들일 접점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허목이 일생에 걸쳐 추구한 '삼대(三代, 夏殷周)' 고문은 문장으로서의 고문 뿐 아니라 글씨로서의 고문도 포괄하고 있었으며, 그는 문장이건 글씨건 '삼대 고문'에 거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분류하자면 허목은 도문일치 내지는 문이재도론자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허목이 당대의 정쟁에서 송시열과 대립하였다고 하여 허목의 예론을 송시열의 그것과 완전히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든가 후대의 개혁적 학문을 위한 예비적 단초로 본다든가 하는 논리는 위의 예론 연구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무리가 따른다. 필자는 허목의 문예론에서 당대로부터의 일탈이나 후대를 여는 단초를 찾을 필요성 또한 적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도문일치와 도문분리의 논의에서 '문'은 대개 문장을 가리키는데 허목의 경우는 글씨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문'의 함의가 훨씬 크다. 또한 허목 자신 서예 창작을 줄기차게 실천했고 당대 및 후대의 주목 또한 그의 '고문' 글씨를 향해 있었다. 굳이 '도'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허목의 '문'에 걸린 문예적 의의는 이미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박경남에 따르면 이단적 사상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정주학적 도문일치론을 견지한 '한구정맥(韓歐正脈)'파 문인들조차, 일정한 문학적 성취가 있다면 정주

31) 박경남, 「趙龜命 道文分離論의 변화와 독자적 인식의 표현으로서의 문학」, 『국문학연구』 17, 국문학회, 2008 ; 「兪漢雋·朴胤源의 도문분리 논쟁과 兪漢雋의 各道其道論」,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16·17세기 程朱學的 道文一致論의 균열과 道文分離的 경향」,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32) 송혁기, 앞의 책, pp.95~96.

33) 허목의 도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아버지 허교(許喬, 1567~1632)가 수암(守菴) 박지화(朴枝華, 1513~1592) 등 도가 계통의 인물들과 교유한 집안 내력과 박학(博學)을 추구하여 폭넓은 학문에 관심을 가졌던 자신의 학문 경향에 기인한다. 권진호, 위의 논문, pp.13~14, 48~50. 다음 논문도 참조할 수 있다. 이진경, 「근기남인(近畿南人)의 도가사상 연구」, 『儒學硏究』 3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程朱)의 순정한 학문이 아니더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도문일치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34] 그렇다면 "삼대(三代) 성인(聖人)의 문(文)이 곧 천지(天地)의 문"[35]임을 강조한 허목의 문(文)이 가진 재도(載道)적 함의가 크면 클수록, 문장은 물론 글씨까지 포괄한 그의 서예 실천의 면모가 문의 가치를 더욱 더 고양시켜 그 문예사적 의의가 더욱 증대될 소지가 클 것이다. 아울러 한자 문화권 및 유가 문인들 내에서 '고'와 '문'이 갖는 원초적 중요성, 동아시아 문예사의 중요 계기마다 '고문'이 소환되었던 역사, 그리고 청대 비학(碑學)의 옛 글씨 부흥을 전혀 다른 양상으로 허목이 선취했다는 점 등등을 고려한다면, 굳이 도문분리론의 맥락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허목 '고문'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서예는 허목의 문예 활동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분야이기에 발표된 연구 또한 비교적 많다. 그러나 연구의 세부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위에서 언급한 사상사 및 문학사 분야의 기존 연구들이 정리한 허목 사상의 특징과 허목 글씨의 특징을 범범하게 병치시키거나, 근거가 박약한 허목 학문의 개혁적 면모를 글씨의 미적 특질과 곧바로 연결시키는 연구가 많은데, 이는 위에서 계속 언급한 타 분야 연구의 문제점들이 서예 연구까지 파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현대적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정광호는『기언』의 서예 관련 자료를 망라하여 이후 연구의 범위를 제시했다.[36]『기언』에 적으나마 관련 언급이 있고 또『고문운율(古文韻律)』등 몇 종의 고문자 자전(字典)을 직접 편집하여 남겼음에도, 허목 '고문' 서예[37]의 연원을 밝히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으며, 허목 서예 연구의 이런 난점은 여태껏 해소되지 않고 있

34) 박경남, 「16·17세기 程朱學的 道文一致論의 균열과 道文分離的 경향」, pp.409~416.
35)『記言』권5「文學」
36) 정광호,「眉叟 許穆의 古篆世界」,『민족문화』4, 민족문화추진회, 1978.
37) 정광호는 허목의 글씨를 "奇屈한 篆法"의 古篆이라고 하면서 '眉篆'이라 略稱하고 있다. 위의 논문, p.102.

다.[38] 김동건[39]은 작품을 충실히 수집하여 글씨의 실례를 통해 허목 서예 특질의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전체가 아닌 일부에 그치긴 했지만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자형과 중국 고대 전서(篆書)를 비교하여 자형의 연원을 밝히려 시도했고, 명대(明代) 조환광(趙宧光, 1559~1625)의 전서와 허목의 글씨가 유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한 점 등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자형 비교 연구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밖에 허목 인장(印章)의 특성에 대한 연구[40]도 주목의 가치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관점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허목 서예의 동인과 연원 및 창작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치·사상사 및 문학사 분야의 선행 연구의 흐름에서 한 발짝 비켜나 허목 문예의 내적 동인 및 양상에 집중하여 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현재까지의 연구는 해당 분야 연구 담론의 논리에 충실한 나머지 허목 예술 창작이 가진 개별적 특성 및 내적 논리를 밝히는 데는 그다지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문예론적 의의 규명의 불충분함이 그 자체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개별 작품 분석의 장애로 작용하였음은 위에서 본 서예 관련 선행 연구의 미진한 현황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 두 가지 방향을 통해 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고(古)'와 '문(文)' 그리고 '고문(古文)'이 조선 후기 남인이라는 당파적 시각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 문예사 전반과 관련되는 대단히 복합적이며 긴 연원을 갖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고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허목의 '문(文)'은 문학과 서예라는 두 가지

3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아래의 제4장 1.2. '허목 수고본『금석운부(金石韻府)』와 명(明) 간본(刊本)『금석운부』' 참조.
39) 김동건,「眉叟 許穆의 書藝硏究」,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1992.
40) 김현숙,「許穆 篆刻의 美學的 接近」,『동양예술』27, 한국동양예술학회, 2015.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허목의 글쓰기와 글씨 쓰기가 갖는 복합적 성격 및 그 독자성의 구체적 양상을 밝히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허목이 서예 창작을 통해 보인 개별 자형(字形)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허목 '고문' 서예의 연원을 실증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얼핏 서예사·미술사적인 협애한 가치만을 지니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데, 허목 고문이 가진 복합적 성격 및 허목 문예 전체 내에서 글씨가 갖는 위상 나아가 동아시아 문예사의 맥락에서 고문이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미학적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작지 않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까닭은 자형 연구가 지니는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한 바 크다. 허목의 작품례를 모아 분석하는 작업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비교할 외부 자료를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 본 논문에서는 허목 글씨의 소의(所依)를 밝혀 연구 단계 최초의 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자형 분석의 실례를 통해 허목 고문이 서예사·문예사·미학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지에 대한 심화 연구의 단초를 열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에서는 주로 허목의 문집인 『기언』의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기언』에 대한 연구는 각 분야에서 많이 축적된 상태이다. 그러나 경학(經學)에서는 「경설」 등 경전 연구의 내용을, 사학(史學) 분야에서는 「동사(東事)」와 같은 역사 서술에 대한 분석이나 재이(災異)나 지지(地誌) 기록 등의 특성을, 예학에서는 허목 상례(喪禮)

의 세부를 다루는 등, 주로 『기언』에 수록된 글의 내용적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한문학 분야의 연구 또한 소차(疏箚)나 기문(記文) 등 특정 문류(文類) 혹은 문체 분석에 그쳤다. 허목의 글쓰기와 글씨 쓰기는 '고문(古文)'을 중심으로 강한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허목 서예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허목 글쓰기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허목의 문집을 이용하려 한다.

'옛것'만을 추구하여 일견 문예 '창작'과는 별반 관련이 없어 보이는 허목은 실제로는 방대한 분량의 문집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서예 작품을 다수 남겼다. 첫째 장에서는 우선 『기언』 글쓰기의 의도를 담고 있는 두 가지의 '서문'에 주목하여 허목 서술의 특징을 밝히려 시도할 것이다. 첫 번째 서문의 분석에서는 말을 삼간다는 뜻이 담겨 있는 '기언(記言)'이라는 명칭 자체에 주목하고, 『기언』 내에 다수 수록된 잠계(箴戒)류 글과 연관하여, 일견 연결되기 어려워 보이는 '신언(愼言)'과 '창작' 사이의 연결점을 모색할 것이다. 두 번째 서문과 허목 수필(手筆)본 「고매누자대년설(古梅樓子大年說)」의 분석을 통해서는, 무개성적 사실 서사처럼 보이는 허목의 서술 방식이 실은 개성적이고 다채로운 서사일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둘째 장에서는 허목 글 곳곳에서 드러나는 '기(奇)'에 대해 논한다. 허목의 글과 글씨에서 드러나는 '기이함'에 대한 지적은 종종 있어 왔는데, 타인의 지목과는 별개로 허목 자신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기'와 '괴', '기이' 등에 대한 언급을 남긴 편이다. 이는 공자의 언명 이래 가급적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배제하려 애써 온 유가적 전통 내에서 이례적 예에 속한다. 종래에는 허목의 이런 특성을 주로 '도가적' 관점에서 해석해 왔는데, 본 논문은 이를 허목 문예 전반과 관련된 고유한 미적 특질로 보아 선행 연구와는 다른 관점의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후에는 허목 '고문' 서예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한다.

3장에서는 허목 '고문' 서예 연구의 이론적 선행 작업으로서 『기언』「문학(文學)」 및 「고문(古文)」에 드러난 고문 추구의 양상을 상세히 분석

할 것이다.

4장에서는 허목 고문 서예 연원 고증의 예비적 단계로서 허목이 손수 쓰고 편집한 고문자 자형(字形) 자전(字典) 3종, 즉 『금석운부(金石韻府)』·『고문운율(古文韻律)』·『고문운부(古文韻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이 자전들의 서지(書誌)적 특성을 밝힌 다음, 각 자전들에 수록된 자형들이 명(明) 『금석운부』·『한간(汗簡)』·『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 등 각종 중국 전래 전초고문자(傳抄古文字) 자전들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허목의 사례는 물론 전반적으로 서예 연구가 쉽지 않은 까닭은 구체적 서예 도상(圖像)을 분석하기도 또 그것을 해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연원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서예의 성격에 대한 서술이 정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허목 서예의 경우 주요 작품이 자신만의 '고문(古文)'이라는 서체로 쓰였는데, 이는 전통적 서체 분류로는 전서(篆書)에 해당한다. 전서의 경우 초서나 행서와는 달리 글자 각 부분이 모인 전체 구성인 '결구(結構)'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41] 본 논문은 이에 착안하여 글자의 결구 차원의 분석을 통해 각 글자 자형의 연원을 정확히 특정하고, 연원 특정을 기반으로 허목 서예의 특질을 규명하려 한다.

5장에서는 허목의 가장 대표적인 서예 작품인 <척주동해비>를 분석하여 4장에서 밝힌 허목 '고문' 연구의 연원이 실제 서예 실천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척주동해비>에 나타난 178자[42] 자형 전체를 분석하여 그 전거를 특정할 것이다.

---

41) 해서(楷書)도 결구 구별이 용이하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해서는 워낙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고 또한 법식에 얽매이는 경향이 강해 서자(書者)에 따른 결구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반해 전서는 결구가 비교적 자유로워 이형(異形)·이체(異體)자가 풍부하다.

42)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는 '제목', '소서(小序)', '본문', '찬서자후지(撰書者後識)'을 포함하여 모두 227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중복 출현한 횟수를 제외하면 178개의 각기 다른 개별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상사나 문학론 방면의 연구 방법론에 의거하지 않은『기언』의 분석을 시도하여 허목 글쓰기의 특성을 밝히려 한다. 또한 수고본 고문자 자전의 서지 분석 및 실제 작품의 자형 분석을 통해 허목 글씨 연원의 실체적 진상에 접근하여,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를 갖춘 후 허목 서예의 미적 특질을 논할 것이다. 여태껏 허목은 물론 여타 서예의 미학적 의의를 논한 연구에서, 문헌에 나타난 논설과 실제 서예 실천에 나타난 미적 특질의 연결이 피상적으로 그쳐 온 것은, 서예 연구 방법론의 미비에 기인한 바 크다. 본 논문을 통해 현재까지 불충분한 연구 상황이 계속되어 온 허목 서예 연구의 돌파구를 마련함은 물론, 적어도 전서(篆書) 및 고문 서예 연구에서는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의 일단을 제시하여, 동양 미학 연구의 중대 분야 중 하나인 서예 미학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기괴하여 일견 연구의 대상이 되기 힘들어 보이는 그의 글씨를 학문적 분석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첫걸음을 내디디려 한다.

제1장 『기언(記言)』을 통해 본 허목 고문(古文) 글쓰기의 특성

허목은 숙종 재위 초기 남인(南人), 좁게는 소위 '청남(淸南)' 계열 남인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정치가로서 그의 지위는 짧았던 남인 집권기의 종말과 함께 몰락했지만, 남인의 학문이나 문예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허목의 문화적 위상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흔들림이 없었다. '탁남(濁南)'의 영수였던 허적(許積, 1610~1680)이나 권대운(權大運, 1612~1699)과 같은 걸출한 인물들은 물론, 허목과 함께 '청남'의 다른 한 축이라 지목된 당대의 가장 예리한 논객이자 이론가 윤휴(尹鑴, 1617~1680)조차 이 정도의 문화적 지위는 누리지 못했다. 상대당인 서인 그리고 그 후계인 노론 및 소론 인사들은 줄기차게 허목을 비난하거나 조롱했지만, 그가 남인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이자 대표적 문인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영조(英祖, 재위 1724~1776)·정조(正祖, 재위 1776~1800) 대 이후 노론 독재가 확립되며, 조선의 사상 및 문예의 주류 또한 정치사상적으로는 존주대의(尊周大義)를 지키며 문예 측면에서는 한유(韓愈)·구양수(歐陽修)를 중심으로 한 당송(唐宋) 고문(古文)의 가치를 견지한 노론계 경화사족(京華士族)으로 굳어지면서, 그들 학맥·사상·문화의 원점으로서 송시열의 지위는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경지로 올라서게 된다. 그리고 비록 정치적으로는 몰락했으나 일정한 세력으로 온존했으며 퇴계 이황 학맥으로 대표되는 사상적 지분도 작지 않았던 남인들에게 허목은 거의 송시열에 필적하는 대척자(antagonist)이자 대표자에 해당했으며 이는 상대측인 서인·노론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 그만큼 허목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문사(文士)였고, 나아가 후대까지 줄곧 주목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허목의 '문(文)'이 그저 일정 시기 한 당파를 대표했던 인물의 유산 내지 솜씨 좋은 문필가의 문장이 아닌, 일정한 문예사적 가치를 지닌 조선 후기의 특징적 문화물의 하나로 평가받게 된 이유로, 대체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文)이 문장과 문자를 동시에 지칭했으나 삼불후(三不朽: 立德・立功・立言)의 하나이자 재도(載道)의 매개체[器]였던 작문(作文)에 비해 글씨 쓰기는 대체로 말기(末技)로 폄하되었던 유교 문예의 전통에서, 글과 글씨를 동시에 추구했던 허목의 활동은 유달리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숙종 초기 남인 집권기에 허목은 “옛 성인(聖人, 舜과 禹) 시대의 글자[虞夏之文]”로 “옛 성인의 말[虞夏之言]”을 써서 국왕에게 진상(進上)하여 글씨를 진언(進言)에 개입시키는 특이한 사례를 보였고, 사인(私人)들과 맺은 교유에서도 특유의 글씨체로 편액(扁額)이나 제발(題跋), 잠명(箴銘)을 써주는 등 글씨가 주요한 매개체가 되는 일이 많았다.[43] 또한 삼척부사(三陟府使) 시절에 쓴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의 명성은 당색을 넘어 매우 폭넓게 퍼진 것이었다. 글씨만 전문으로 쓰는 사자관(寫字官)이 아닌 사대부에게 글씨만의 문명(文名)은 존재하기 힘들다. 예학(禮學)의 종장이자 학문 높은 문인(文人)이었던 허목의 이와 같이 높은 ‘문명’은 자연스레 글씨[文] 뿐 아니라 그의 문장[文]에 대한 주목 또한 이끌었다.

둘째, 육경(六經)의 옛 글에 바탕을 둔 허목의 글 또한 그 자체로 독자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계(霞溪) 권유(權愈, 1633~1704) 등 당대 남인 계열 문인들의 고문사(古文辭)는 생경하고 난삽한 표현 양식으로 인해 독자적 문풍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는데,[44] 이들 문장의 독특한 미감(美感)은 대체로 당송(唐宋) 고문을 추구했던 서인・노론 계열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어서 비(非) 남인 측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의 선배 격에 해당하는 허목은 이들과 달리 상대방에게도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고문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항해(沆瀣)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현수갑고(峴首甲稿)』[45]에

---

43) 이들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3장 ‘1.『기언(記言)』을 통해 본 허목의 고문(古文) 인식 및 고문 서예 창작 활동’을 참조.

44) 하지영,「하계(霞溪) 권유(權愈) 산문 소고 – 숙종 연간 남인계 관각 문단과 관련하여」,『한국고전연구』4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pp.175~214.

45) 권진호는 洪翰周, 洪吉周, 宋伯玉의 허목 평가의 의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권진호,「眉叟 許穆의 尙古精神과 散文世界」, pp.65~66) 홍길주의『현수갑고』는 완역되

수록된 「『동문십이가』에 붙이는 짧은 글[東文十二家小題]」에서 허목을 “금가고 깨어진 정(鼎)과 대(敦)”에 비유하며 “억지로 은주(殷周)의 옛 그릇을 들먹이니 어리석고 호기심 많은 이들이 종종 미혹된다”[46]라며 조롱하면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2 문장가[47] 중의 한 명으로 꼽아, 명문 선집인 『대동문준(大東文雋)』에도 허목의 글을 선발하였다.[48] 송백옥(宋伯玉, 1837~1887) 또한 『동문집성(東文集成)』에서 허목을 비판했지만,[49] 선집에 포함시킴은 물론 가장 많은 글을 수록하였다.[50] 노론계 인사인 홍길주와 송백옥조차 긍정적 평가는 한사코 거부할망정 허목의 글이 가려 뽑아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은 부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 있다. (홍길주, 『현수갑고 상・하』, 박무영・이은영 외 옮김, 태학사, 2006. 아래 인용한 번역은 이를 참고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홍길주 및 그의 저작에 대해서는 해제(『현수갑고 상』, pp.7~25)를 참조할 것.

46) 『峴首甲稿』 권3, 雜文紀, 「東文十二家小題」, “眉叟, 如缺鼎破敦, 强稱殷、周之古器, 愚而好奇者, 往往誑惑.” 『현수갑고』 원문은 태학사(2006) 번역본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47) 그가 칭한 ‘동문십이가’는 이색(李穡), 최립(崔岦), 이항복(李恒福), 이정구(李廷龜), 신흠(申欽), 김상헌(金尙憲), 장유(張維), 이식(李植), 허목, 김석주(金錫胄), 김창협(金昌協), 황경원(黃景源)이다.

48) 『대동문준』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현수갑고』에 수록된 서문 통해 그 대략적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峴首甲稿』 권3, 「大東文雋序」) 서문에 따르면 『대동문준』에는 이색, 이항복, 최립, 이정구, 신흠, 김상헌, 장유, 이식, 허목, 김석주, 김창협, 황경원이 수록되어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동문십이가’와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홍길주의 古文 選集 활동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문학관에 대해서는 김철범, 「19世紀 古文家의 文學論에 대한 硏究 – 洪奭周・金邁淳・洪吉周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pp.110~119를 참조.

49) 宋伯玉, 『東文集成』 제8책, 「眉叟許政丞記言文鈔引」, “此老讀書八十年, 所學極駁, 力追古文者, 禹碑、殷《盤》及周《誥》耳. 缺齧字句, 佶屈聱牙, 無一篇不參差者, 如夏敦、商彝, 蟲蝕鳥攫, 驟讀之, 簡硬可愛, 而索然無繩尺風味矣.” 『동문집성』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청구기호: K4-85) 장서각 홈페이지(http://jsg.aks.ac.kr/)에서 pdf 파일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50) 속집인 『동문집속(東文集續)』을 포함하여 18명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각 책의 수록 작가와 작품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동문집성 제1책 목은 이색 30편, 2책 점필재 김종직 24편, 3책 간이 최립 35편, 4책 월사 이정구 20편, 5책 상촌 신흠 37편, 6책 택당 이식 33편, 7책 계곡 장유 28편, 8책 미수 허목 42편, 9책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33편, 10책 식암 김석주 33편, 11책 농암 김창협 40편, 12책 동계(東谿) 조귀명(趙龜命) 41편. 동문집속 1책 강한 황경원 28편, 2책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36편, 3책 연암 박지원 36편, 4책 대산 김매순 35편, 5책 연천 홍석주 35편, 6책 항해 홍길주 37편.

송백옥이 미수 허목 선집 머리글[引]에서 허목 문체의 특징을 묘사한 말이었고, 또한 허목 자신도 『서경(書經)』 '은반주고(殷盤周誥)'를 흠모하여 모방하고자 했다고 말한 문장의 특성은 '길굴오아(佶屈聱牙)'[51]함이었다.[52] 전아(典雅)하고 근엄하며 동시에 유려한 당송 고문의 주류와 대비되어, 일상의 행문(行文)에서 흔히 인용되는 당송 작품들 이전인 진한(秦漢) 및 선진(先秦)의 고전에서 전범을 찾아 문장을 구사한 권유・민창도(閔昌道, 1654~1725)・오상렴(吳尙濂, 1680~1707)・청천(靑泉) 신유한(申維翰, 1681~1751)[53]・약산(藥山) 오광운(吳光運, 1689~1745) 등 남인 계열 문장가들의 가장 앞줄에는 당연히 허목이 놓일 것이며, 그들 문장의 간오(簡奧)와 고경(古勁)[54] 그리고 길굴오아함이 미감은 허목 또한 공유하는 것이다.[55]

이들 문장의 특성 및 문장 학습과 문학 활동에 미친 명(明) 의고주의의 영향과 조선 한문학사 상의 위치 등은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일국(一國) 문예사 상 어떤 흐름의 가장 앞선 계기를 형성한 이의 계발적 의의를 논하려면 그가 서 있는 문화권의 문예사 전체 내에서 그것이 갖는 의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허목 '고문' 글쓰기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에 앞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고(古)'가 갖는 의미를 근원적인 시각에서 짧게나마 고찰해보고자 한다.

---

51) 길굴(佶屈)은 길굴(佶倔), 힐굴(詰屈=詰曲)과 같으며 원래 구불구불함을 형용하는 말로서 전(轉)하여 문장이 껄끄럽고 난삽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오아(聱牙)는 오아(聱齖)와 같은데, 오(聱)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모양(『說文解字』 耳部 '聱', "聱, 不聽也.")이고 아(齖)는 치열이 고르지 않은 모양이다. '길굴오아'는 원래 한유(韓愈)가 「진학해(進學解)」에서 『서경』 상서(商書) 「반경(盤庚)」 편과 주서(周書) 「대고(大誥)」・「강고(康誥)」・「주고(酒誥)」・「소고(召誥)」 등의 난삽함을 형용한 말이다. 韓愈, 「進學解」, "周《誥》、殷《盤》, 佶屈聱牙."

52) 『記言』 別集 권1, 詩, 「自戲」, "文章千古慕佶倔, 白首磊落誦殷《盤》."

53) 신유한의 서얼로서 폭넓은 교유를 했기에 당색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영남 출신이며 허목을 사숙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을 남인 계열의 상고적 고문사로 평가해도 무방할 듯하다.

54) 간오(簡奧)는 간결하고 심오함으로서, 화려한 수식이 적은 압축미, 조어(助語)의 사용을 지양한 질박 등을 가리킨다. 고경(古勁)은 옛스럽고 힘있음으로서, 원래 서예에서 전서(篆書) 등 옛 글씨의 미감을 상찬할 때 주로 쓰던 평어(評語)였다.

55) 남인 산문가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송혁기, 「17세기 후반~18세기 초기 허목 계열 남인의 산문론 – 동시기 김창협 계열 산문론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1.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고(古)와 문(文)이 갖는 가치

『설문해자(說文解字)』는 '고(古)'를 '고(故)'라 풀이하고, 이어서 "십(十)과 구(口)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이는 앞날의 말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다.[56] 이에 대해 단옥재(段玉裁)는 다음과 같이 주석했다.

> 고(故)란 모든 일의 소이연(所以然)인데 소이연은 모두 옛것[古]에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고(古)는 고(故)다"라고 한 것이다. 『일주서(逸周書)』에 "천(天)은 고(古)이고, 지(地)는 구(久)이다"라고 했으며, 정현(鄭玄)은 『상서(尙書)』의 '계고(稽古)'를 주석하여 "계는 동(同)이고 고는 천(天)이다"라고 했다. '앞날의 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은 입[口]이니, 입으로 말하여 열 차례에 이르게 되면 구르고 굴러 인습(因襲)하게 된다.[57]

서구 음운학을 도입하고 갑골·금문(金文)·간독(簡牘) 등 방대한 출토 문자의 성과를 반영하는 등 혁명적 변화를 거쳐 전통적 고증학과 결별한 현대 문자학이 발달한 오늘날, 소전(小篆) 자형(字形) 중심의 『설문해자』 자의(字義) 해석은 문자학적 어원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 문자학사(文字學史)의 사료로서 갖는 의미가 더 커 보인다. 그러나 어원의 실증적 추구라는 문자학 본연의 과업으로부터 한 발짝 비켜나 한 문자에 담긴 관념이 문자가 놓인 문명의 지평을 구성하는 근원 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이를 살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58] 문자학사 상 가장 무거운

---

56) 許愼, 『說文解字』, 第三篇上 古部 '古', "古, 故也. 从十口, 識前言者也. 凡古之屬皆从古. 𠦂, 古文古."

57) 段玉裁, 『說文解字注』, "《邶風·大雅·毛傳》曰: '古, 故也.' 《攴部》曰: '故, 使爲之也.' 按, 故者, 凡事之所以然, 而所以然皆備於古, 故曰'古故也'. 《逸周書》: '天爲古, 地爲久.' 鄭注《尙書》'稽古'爲'同天'. '識前言者', 口也, 至於十, 則展轉因襲, 是爲'自古在昔'矣. 公戶切, 五部."

58) 『설문해자』의 자원(字源) 해설은 현대의 문자학 성과를 통해 볼 때 틀린 설명이다. 古의 갑골문은 대개 혹은 의 자형(字形)으로서 방패를 나타내는 𠙵 아래에 口가 있는 가 본자(本字)이다. 방패는 대표적인 견고(堅固)한 사물이고, 口는 구체적 사물의 성질을 추상화하는 지사(指事) 부호의 역할을 한다. 이는 고문자학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견해이며, 나아가 裘錫圭는 古를 固의 고자(古字)로 보기도 했다. 古의 고문자학(古文字學)적 고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季旭昇, 『說文新證』, 福建人民出版社, 2010, p.152. 白川靜은 <大盂鼎> 등 금문(金文) 명문에

권위를 갖는 허신(許愼)의 고전적 문구(locus classicus)와 각종 고전의 전거를 동원한 단옥재의 고증학적 주석 사이에는, 한(漢)과 청(淸)이라는 이질적 조대(朝代)의 시대적 배경과 천 년을 훌쩍 넘는 시간적 격절에 따른 변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한자 문명을 관통하는 통주저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古]을 반쪽으로 갖고 나머지 반쪽을 동사화 기호인 복(攴, 攵)을 부착한 고(故)로써 고(古)를 풀이한 허신의 원전은, 불완전한 동어반복에 미묘한 이질화를 첨가한 성훈(聲訓)을 구사한 일종의 선언에 가깝다. 고(古)가 곧 모든 소이연의 근원임을, 그리고 또한 소이연의 근원은 전승임을 부연하고 있는 주석가 단옥재의 주석은, 소이연을 밝히는 것이란 하늘과 하나 되는[同天], 즉 자연을 궁구하여 그 이치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하는 구절을 원용하기까지 한 지점[59]에서 단순한 문구 주석의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60]

서 古가 故의 뜻으로 쓰이는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白川靜, 『字統』, 平凡社, 2004, pp.284~285.

59) 단옥재가 인용한 이 구절은 정현(鄭玄)이 『상서위(尙書緯)』에서 『서(書)』의 "曰若稽古帝堯"를 해석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상서위』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若稽古帝堯', 稽, 同也; 古, 天也."(安居香山・中村璋八 輯, 『緯書集成』 上, p.390, 河北人民出版社, 1994) 『隋書』「經籍志」에 따르면 『상서위』는 정현(鄭玄)이 주석한 것이라고 한다. (『隋書』「經籍志」, "《尙書緯》三卷, 鄭玄註, 梁六卷.")

60) 정현이 '稽古'를 '同天'이라고 풀이했다는 사실은 『詩經注疏』「商頌」<玄鳥>의 소(疏)와 『三國志』「魏志」'高貴鄕公曹髦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위제(魏帝) 조모(曹髦)와 태학박사(太學博士) 유준(庾峻)이 나눈 정현의 해석에 대한 문답은 '稽古同天'이란 해석의 위상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역경(易經)』 강(講)이 끝난 후, 다시 『상서(尙書)』를 강하도록 명했다. 황제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정현(鄭玄)이 「계고(稽古)는 동천(同天)이다」라고 했으니, 요(堯)가 하늘과 합치했다는 뜻이오. 그런데 왕숙(王肅)은 같은 구절에 대해 「요가 옛 도(道)를 고찰하여 잘 따라 행했다」는 의미라고 주석했소. 두 풀이가 일치하지 않는데, 어떤 것이 맞소?' 이에 박사 유준(庾峻)이 답하여 말했다. '옛 학자들 각자의 고유한 견해가 다 달라 저로서는 어느 한쪽이 맞다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서』 「홍범(洪範)」에서 「세 사람이 점치면, 그 중 두 사람의 결과를 따른다」고 했는데, 가규(賈逵), 마융(馬融), 그리고 왕숙이 모두 「옛 도를 고찰하여 잘 따름」이라고 해석했으니, 「홍범」에 따라 말하자면 왕숙의 해석이 더 낫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중니(仲尼)가 「하늘이 위대하거늘 오직 요만이 하늘을 준칙으로 삼으셨네」라고 말했으니, 요의 위대한 미덕은 하늘을 준칙으로 삼음에 있었소. 「옛 도를 고찰하여 잘 따름」이라는 해석은 『상서』 본연의 지극한 뜻이 아니오. 지금 책의 첫머리에서 뜻을 열어 성인(聖人)의 덕을 밝히면서 큰 줄기를 버리고 세부적인 것을 거론한다면, 이 어찌 책을 지은 이의 뜻이겠소?' 유준이 답하여 말했다. '신이 스승의 학설을 받들어 따르느라 큰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각 학설을 절충하는 것은 폐하의 생각에 따라 재단하십시오.' (講《易》畢, 復命講《尙書》. 帝問曰:

고(故)의 오른쪽 반 즉 방(旁)인 동사 복(攴)을 다른 동사로 치환하고 왼쪽 반 즉 편(偏)인 고(古)와 결합시킨 두 글자 어구[61] 중 고증학자 단옥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 『서경(書經)』의 첫머리에 나오는 계고(稽古)였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성격의 어구 중 가장 널리 쓰이면서 문화적으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은 복고(復古)다. 한자 문화권에서 복고 즉 '옛것으로 돌아감'이 갖는 중요성은, 글자 하나 혹은 둘의 의미, 개인적 선택, 시대적 풍조의 범위를 넘어선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문명 전체의 조건이 되며, 나아가 우주적 차원의 행위가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글자체의 변천은 있었어도 문자 시스템은 타자로 대체됨 없이 수천 년간 그대로 존속해 왔고 현재도 그러한 중국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한자 문명에서, 문명과 세계의 소이연 즉 기원으로서 옛것 즉 고(古)가 갖는 무게감은 한자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보편성을 갖고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공통 감각 내지 상식(common sense)은 유교(儒敎)가 일개 학파의 주장 혹은 주의를 넘어 특정 조대(朝代)에 한정되지 않은 동아시아 사회 및 문화 영위의 보편적 이데올로기로 제도화되는 기반이 되었다.

유가(儒家)의 창시자 공자(孔子)의 언행이 기록된 최초의 유교 텍스트인 『논어(論語)』 곳곳에서 이미 고(古)에 대한 경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공자는 자신에 대해 "전술(傳述)하되 창작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며 옛것을 좋아하는"[62]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가 계승하고자 했던 옛것은 옛 성현(聖賢)의 문(文)이었다. 그는 "주(周)는 하(夏)와 은(殷)을 참고하였으니, 찬란하구나, 그 문(文)이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노라."[63]라고 했는데,[64] 여기에서 '문'은 넓게는 옛 성현이 제정하

"鄭玄云'稽古同天', 言堯同於天也, 王肅云'堯順考古道而行之', 二義不同, 何者爲是?" 博士庾峻對曰: "先儒所執, 各有乖異, 臣不足以定之. 然《洪範》稱'三人占, 從二人之言', 賈、馬及肅, 皆以爲'順考古道'. 以《洪範》言之, 肅義爲長." 帝曰: "仲尼言'唯天爲大, 唯堯則之', 堯之大美, 在乎則天, '順考古道', 非其至也. 今發篇開義以明聖德, 而舍其大, 更稱其細, 豈作者之意邪?" 峻對曰: "臣奉遵師說, 未喻大義. 至於折中, 裁之聖思.", 『三國志』「魏志四」'高貴鄕公曹髦')"

61) 주요한 것으로 계고(稽古), 고고(考古), 박고(博古), 복고(復古), 상고(尙古), 의고(擬古), 회고(懷古) 등을 들 수 있다.

62) 『論語』, 「述而」,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63) 『論語』, 「八佾」, "子曰: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

고 제도화하여 동시대까지 계승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에 의거하여 영위하는 문화 전체를 가리키고, 좁게는 그것이 언어화되어 기록되어 당대까지 전해지던 문적(文籍)을 가리킨다. 『논어』 곳곳에서 공자는 『시(詩)』, 『서(書)』, 『역(易)』을 자연스럽게 인용하거나 언급하고 있는데, 『춘추좌전(春秋左傳)』 등의 기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이는 당대 위정(爲政) 교양 계층의 보편적 언어 습관이었다. 나아가 공자가 후대에 고대 성왕(聖王)들 및 주공(周公)과 비슷한 반열의 문화 영웅(cultural hero)으로 격상되게 된 까닭은, 그가 『시』를 정리하고[刪詩] 『춘추(春秋)』 경문(經文)을 저술하였으며 『역』의 십익(十翼)을 편찬하는 등 현재 전해지는 유교 경전 서물(書物) 대부분의 성립에 직접 관여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명(正名)에 민감했던 공자가 자신의 소명을 다름 아닌 '이 문(文)' 곧 '사문(斯文)'이라 이름 불러 자부했던 것이며,[65] 후대의 유학자들이 이를 본받아 자신들의 소의(所依) 학문 전체를 '사문'이라 지칭하고, 나아가 동료 학자를 '사문'이라 환유(換喩)하여 지칭하기까지 한 것이다.[66]

옛 성인(聖人)의 정신적·제도적 유산을 계승, 손에 잡히는 문적으로 편찬하여 구체화한 공자가 말한 '사문'은 단순히 글 혹은 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었겠지만, 성인이자 사표(師表)인 공자를 계승한 후대 유자(儒者)들에게 '사문'은 그 외연과 가치가 확대·고양되어, 극단적인 경우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일 수 없어 어지럽히거나 해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숭앙되기까지 하였다.[67]

---

64) 로타 본 팔켄하우젠에 따르면 공자가 추구한 '이상적 시대'는 공자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근고(近古)의 주대(周代)였다. 이런 관점은 여러 가지로 의미 깊은데, 유가의 시초였던 시절부터 고(古)가 절대적 격절성을 지닌 초월적 시대가 아닌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구성된' 구체적 시대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로타 본 팔켄하우젠, 심재훈 역,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 세창출판사, 2011, pp.499~504.

65) 『論語』, 「子罕」, "子畏於匡, 曰: '文王旣沒, 文不在玆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66) '사문(斯文)'은 유학자나 선비를 가리키는 말로서, 주로 학문적 경향을 함께하는 같은 학파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쓰였다. 『옛편지 낱말사전』, 하영휘 외 편저, 돌베개, 2011, p.251, '斯文' 항목, "稔仰聲光 固非一日 意表 權斯文歷枉 欣豁無比"(安在龜 등의 편지); 李恒福, 『白沙集』 권2 (『한국문집총간』 62) 「晦齋先生遺稿跋」, "右晦齋先生《元朝五箴論》、《太極書》五篇, 南窓 金斯文筆也. 其孫浚疊爲障子, 來示余."

67)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하(下)에 맹자가 "공자가 『춘추』를 짓자 난신적자(亂

이처럼 '고(古)'가 단순한 시간적 앞섬 내지 이연(已然)이 아닌, '거슬러 올라가야 할[故]' 그리고 절대 가치를 가진 이상(理想) 시대로 오염 혹은 전유(專有, appropriation)된 역사는 유구하고도 뿌리 깊다. 그리고 유가 전통 내에서 '추구해야 할 과거'로 가는 매개체가 문(文)으로 지목된 내력은 그 창시자의 업적 및 발언과 연계되어 계승자들에게 '문'을 단순한 물적 대상으로 환원시킬 수 없게 할 정도의 문화적 중량을 부여했다.

한편 '문(文)'에 업힌 문화적 의의는 고(古) 이상으로 심대했으며,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또한 매우 폭넓었다. '문'은 크게는 문명(文明)과 문화(文化)로부터 작게는 문장(文章, writing, 쓰인 것, 저술된 것)과 문자(文字, a character)까지 지칭할 수 있다. 외연의 폭넓음과 문화적 의의의 심대함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문명이나 문화 같은 거시적 '문'은 한자 문화권 인식 지평 전체의 구성에 관여하기 때문에,[68] 그리고 문

臣賊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온다. ("聖王不作, 諸侯放恣, 處士橫議, 楊朱、墨翟之言盈天下, 天下之言, 不歸楊則歸墨. 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是禽獸也. 公明儀曰: '庖有肥肉, 廐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莩, 此率獸而食人也.' 楊、墨之道不息, 孔子之道不著, 是邪說誣民, 充塞仁義也. 仁義充塞, 則率獸食人, 人將相食. 吾爲此懼, 閑先聖之道, 距楊、墨, 放淫辭, 邪說者不得作. 作於其心, 害於其事, 作於其事, 害於其政, 聖人復起, 不易告言矣. 昔者, 禹抑洪水而天下平, 周公兼夷狄驅猛獸而百姓寧,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 난신적자는 어지럽히고 해치는 신자(臣子)로서 강상(綱常)을 어지럽혀 윗사람을 해치는 아랫사람을 일컫는다. 사문난적은 사문 즉 올바른 유학을 어지럽히고 해치는 이를 가리키는데, 조선시대 송시열은 사문을 곧 주자의 학문과 등치시켰다. 송시열은 주자와 다른 경전 해석을 피력한 『사변록(思辨錄)』을 지은 박세당과 『중용』을 주자와 다른 방식으로 재편집하여 『중용설(中庸說)』을 저술한 윤휴를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 비판했다. 송시열이 윤휴와 박세당을 사문난적이라 지목하여 비판한 사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대식, 「숙종대 사문난적 논란의 재검토 – 국가 차원의 강학(講學) 통제인가?」, 『한국교육사학』 40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8.

68) 유가 경전에 바탕을 둔 동양의 전통에서 가장 거시적인 '문'은 『주역(周易)』의 괘상(卦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주역』 「계사전(繫辭傳) 하(下)」에서는 전설적인 고대 성왕(聖王)인 포희씨(包犧氏, 복희씨)가 천지(天地)의 법상(法象)과 조수(鳥獸)의 무늬를 살피고 인간과 사물의 경우를 두루 참조하여 신명(神明)과 만물을 파악할 수 있는 팔괘를 만들었음을 말했다. ("古者, 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與天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문화'와 '문명'은 물론 서양어 cultura와 civitas의 번역어로서 근대 일본에서 니시 아마네(西舟)의 『백학연환(百學連環)』 등에서 선택된 단어이지만, 모두 『주역』에 출전을 두고 있는 말이어서 의미심장하다. 문화(文化)의 출전은 『주역』 '비괘(賁卦) 단전(彖傳)'의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란 구절이다. 문명(文明)이란 어구는 『주역』 몇몇 곳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동인(同人)괘 단전'의 "文明以

장과 문자 등 미시적 ‘문’은 한문 구사자의 일상 소통에 불가결한 매체이기 때문에, ‘문’은 중국 및 동아시아 한자 사용자 특히 지식층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에서 심대한 의의를 갖는 한 글자가 되어 왔다.

유가 고전에 대한 소양이 관리 선발의 주요 기준이었고, 지식인 관리들은 고전에 바탕을 둔 한문 문언(文言)의 교양을 몸에 익히고 있었으며, 문서 행정에 기반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일찍부터 확립된 중국, 그리고 중국의 통치 모델을 받아들여 자국에 적용한 한국과 일본에서, 한문과 한자 즉 ‘문’은, 문언이어서 – 자국어가 아닌 한국과 일본에서는 더욱 –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진 ‘문화적 향유’의 대상인 동시에, 빈번하게 쓰여 일상에 넘치는 흔한 ‘일상적 매체’이기도 하였다. ‘문’, 즉 한문 및 한자 사용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문’은 친밀도 높은 일상적 대상이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계승된 ‘문’을 물려받은 한자 문명권 내의 ‘문인(文人)’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 문명, 교양 등 거시적 ‘문’은 옛것인 고전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거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통시성을 통한 이러한 일종의 ‘거리 두기’는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古)’ 그리고 ‘고(故)’와 동반되어 자연적으로 존숭의 정서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한자 문화권에서 ‘고문(古文)’은 정서적, 문화적 함의 없이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글’, ‘옛글’을 가리킬 수 없었으며 언제나 어느 정도 존숭의 염을 띠고 바라보며 때에 따라 의도적으로 소환하여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고(古)’와 ‘문(文)’에 부여된 가치가 심대하여, 한자 문화권 내의 문인(文人)이라면 누구나 ‘고문(古文)’에 대해 심상한 태도로 대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고문’의 추구를 단순히 특정 집단의 문풍 정도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허목의 ‘고문’ 또한 이러한 문화적 전제를 염두에 두

健, 中正而應, 君子正也.”란 구절과 ‘건(乾)괘 문언전(文言傳)’의 “見龍在田, 天下文明.”이란 구절 등을 들 수 있다. 石塚正英・柴田隆行, 『哲学・思想翻訳語事典』, 論創社, 2003, pp.245~246, ‘文化と文明’.

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염두에 둔 채, 아래에서는 실제 문장의 미시적 차원에서 허목이 어떤 양식으로 '고'를 대하고 다루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2. 『기언(記言)』 원집(原集) 서문과 잠계(箴戒)를 통해 본 허목 글쓰기의 특성

『기언』은 다른 문집과 다르게 허목이 생전에 스스로 편찬을 시도하여 (독립 저작들을 제외하면) 두 차례에 걸쳐 정리했고, 사후 출간 시 편집진이 허목의 의도를 존중하여 생전의 원고를 재편집 없이 수합·병치시켰기 때문에 저자 자편(自編)의 원집·속집(續集) 및 사후 추가된 별집(別集)으로 구성된 복잡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저자 서문 또한 원집과 속집에 각각 존재한다. 두 서문은 『기언』 창작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텍스트가 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원집의 서문을 살펴본다.[69]

> 나는 옛글을 깊이 좋아하여 늙어서도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품고 <금인명(金人銘)>[70]을 암송하였다.
>
> "경계할지어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일을 많이 벌이지 말라. 말이 많으면 그르침이 많고, 일이 많으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 (…) 진실로 삼갈 수 있다면 이는 복의 근원이 된다. 입이 무슨 해가 있으랴라고 여긴다면 이는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 될 것이다. 힘이 센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하고, 이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수를 만난다. 도둑은 주인을 미워하고, 백성은 윗사람을 원망한다. 그래서 군자는 천하 사람들 모두보다 윗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알고

69) 『기언』의 체제 및 『기언』 원집 서문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황의열, 「『記言』의 編輯 體制와 眉叟 許穆의 文體意識」,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70)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나오는 글로서, 공자가 후직(后稷)의 사당을 갔다가 세 겹으로 입을 봉한 동상(銅像)을 보았는데 그 금인(金人, 銅으로 주조한 사람의 형상)의 등에 새겨져 있던 것이라고 한다. (『孔子家語』「觀周」)

자신을 낮추며, 다수를 다 앞설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을 뒤처지게 한다. 장강(長江)과 황하(黃河)가 동쪽으로 흘러가지만 모든 냇물의 수장이 되는 까닭은,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천도(天道)는 따로 가까이 하는 이를 두지 않는다. 늘 착한 사람과 함께 할 뿐이다. 경계할지어다."

그리고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말을 하면 반드시 기록하며 날마다 반성하고 힘써서 나의 글을 '기언(記言, 말을 기록함)'이라 명명했다. 옛 사람의 글 읽기를 좋아하여 마음속으로 옛 사람의 실마리를 좇으며 날마다 여기에 부지런히 힘썼으니, 『기언』이란 책은 육경(六經)에 근본을 두고 예악(禮樂)을 참고하여 널리 백가(百家)의 언설까지 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분발하며 힘을 다하며 50년을 보냈으니, 그리하여 『기언』은 간명하면서도 갖출 것을 다 갖추고, 마음껏 말했으면서도 엄정하여, 천지(天地)의 화육・천체의 운행・날씨와 계절의 변화・자연에 사는 동식물과 작물의 생장・사회 윤리・사람의 도리와 사물의 법칙・시서(詩書)와 육예(六藝)의 가르침・희노애락애오(喜怒哀樂愛惡) 등 형기(形氣)의 감(感)・제사와 귀신・요상(妖祥)과 괴상한 사물의 이변・각 지역 풍기(風氣)의 구별 및 언어와 민요의 차이・기록과 서술과 논변과 문답・도(道)의 성쇠(盛衰) 및 시대의 치란(治亂)・현인과 우인(愚人)、열사(烈士)와 반역자、절개 있는 부인과 간사한 인간을 통해 얻는 경계 등등을 모두 이 글에 담아내었으니, 이를 통해 옛 사람과 같아지기를 바란 것이다.

정미년(1667) 동지(冬至)에 공암(孔巖) 미수(眉叟) 허목(許穆) 씀[71]

---

71) 『記言』, 「記言序」, "穆篤好古書, 老而不怠, 常戒之在心, 誦《金人之銘》, 曰: '戒之哉! 毋多言, 毋多事; 多言多敗, 多事多害. 安樂必戒, 毋行所悔. 勿謂何傷, 其禍將長; 勿謂何害, 其禍將大; 勿謂不聞, 神將伺人. 焰焰不滅, 炎炎若何; 涓涓不壅, 終爲江、河. 綿綿不絶, 或成網羅; 毫末不扎, 將尋斧柯. 誠能愼之, 福之根也; 口是何傷, 禍之門也. 强梁者不得其死, 好勝者必遇其敵. 盜憎主人, 民怨其上. 君子知天下之不可上也, 故下之; 知衆人之不可先也, 故後之. 江、河雖左, 長於百川, 以其卑也. 天道無親, 常與善人, 戒之哉!' 《易翼》曰: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者乎; 居其室, 出其言不善, 則千里之外違之, 況其邇者乎? 言出乎身, 加乎民; 行發乎邇, 見乎遠. 言行, 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言行, 君子之所以動天地也, 可不愼乎?' 穆唯是之懼焉, 言則必書, 日省而勉焉, 名吾書曰'記言', 說讀古人之書, 心追古人之緖, 日亹亹焉. 《記言》之書, 本之以六經, 參之以禮樂, 通百家之辯, 能發憤肆力且五十年, 故其文簡而備, 肆而嚴, 如天地之化育、日月星辰之運行、風雨寒暑之往來、山川草木・鳥獸五穀之資養、人事之誼、民彝・物則、詩書・六藝之敎、喜怒哀樂愛惡形氣之感、禋祀鬼神、妖祥物怪之異、四方風氣之別、聲音謠俗之不同、記事・敍事・論事・答述、道之汚隆・世之治亂、賢人・烈士・貞婦・奸人・逆豎・愚暗之戒, 一寓於文, 以庶幾古人者也. 强圉協洽日短至, 孔巖 許穆 眉叟書."

이 서문을 쓴 1667년은『기언』원집 성립에 가장 결정적 계기를 이룬 해였다. 이 해에 내편과 외편인 「경설(經說)」과 「동사(東事)」를 썼으며, 중편의 핵심을 이루는 「청사열전(淸士列傳)」도 썼다. 상편의 「담평(談評)」과 「석란(釋亂)」도 이 해에 이루어진 것이다. 연천으로 귀향하여 은거하기 시작한 1662년 8월 이래 이때까지 상편 '학(學)'의 「천지변화(天地變化)」(1662년) 및 '고문(古文)'의 「고문운율서(古文韻律序)」와 「형산신우기비(衡山神禹碑記)」(1664), 중편의 「십청원기(十靑園記)」(1663) 등 원집의 중요 글들이 대부분 완성되었다. 이렇게 허목의 생애 중 가장 생산적이었던 몇 년을 1667년 11월에 일단 마무리를 지으며 쓴 글이 바로 「기언서」이니, 이 서문에 담긴 글쓰기에 대한 허목의 생각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서문은 상당히 파격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글의 첫머리를 대뜸 <금인명>을 인용하기 시작하여 거의 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만큼 긴 인용문을 제시했다. 게다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다. <금인명>의 인용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주역』「계사전(繫辭傳) 하(下)」 제8장의 인용이 이어진다. 이 두 '옛글'의 인용은 서문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그친다.

두 인용문은 모두 '말조심'에 대한 글이다. <금인명>의 경계는 직설적이다. 말이 반드시 화(禍)로 발전하게 됨을 전제한 뒤, 재난이란 자라나기 이전에 미리 막아야함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화의 자라남은 이처럼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니 군자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야 함을 역설하며 경계하였다. 「계사전」의 경우는 중부(中孚) 괘 구이(九二) 효사(爻辭)에 대한 부연설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군자의 말의 영향력이 큼을 이야기하며 좀 더 차근차근 신언(愼言)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말에 대한 경계라는 점에서는 앞의 인용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인용문의 과다한 비중은 저자가 평생 '옛글'을 추구한 사람임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신언(愼言)'의 가치의 연원이 '옛글'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그것이 절대적 가

치임을 옛 사람의 입을 빌려 선언한 것이 된다. ‘신언’이란 가치의 절대성으로 인해 문집의 명칭을 ‘기언’으로 삼은 정당성도 자연스레 확보되게 된다. ‘기언’이란 문집의 제목에 대한 후대의, 그리고 정치적 문예적 반대파들의 비난에 대해, 이 서문이 작성될 당시에 저자인 허목이 이런 비난을 상정하고 이 명칭을 선택한 것은 물론 아니겠으나, 「기언서」는 ‘기언’이란 이름이 결코 기이함이란 비정상성의 추구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란 점을 확실하게 웅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문에 이어서 드디어 등장하는 허목 자신의 발언은, 서문이 표명하고 있는 ‘신언’의 가치가 ‘기언’이란 명칭 뿐 아니라 『기언』이란 책의 성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즉 신언을 철저히 추구하기 위해 “말을 하면 반드시 기록”(言則必書)했기 때문에 ‘기언(記言)’ 즉 ‘말을 기록함’이란 문집의 명칭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50여년의 기간 동안 성실히 지속한 결과 천지 화육, 귀신, 산천초목, 예악, 사방 풍속 및 세세한 각종 인간사까지 온갖 사상(事象)이 담긴 방대한 문(文)이 이루어졌다. ‘신(愼)’은 ‘경(敬)’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허목이 ‘신’을 강조한 까닭은 넓게는 유학자의 기본 덕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좁게는 위로 한강(寒岡) 정구(鄭逑)를 통해 퇴계 이황과 연결되고 아래로 성호(星湖) 이익(李瀷)을 통해 채제공(蔡濟恭)으로 연결되는 남인(南人) 학맥에서 유달리 경(敬)과 지행(知行)을 강조했기 때문이기도 하다.[72]

그러나 허목의 ‘신(愼)’이 설령 유학자의 보편적 덕목 혹은 학파의 경향에서 출발한 것이라 해도, 글쓰기와 관련하여 ‘신(愼)’이 ‘기(記)’로 발전한 양상은 허목만의 특이한 계기라 할 수 있다. 유교 문화의 전통 상 조심을 위해 언행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주로 왕자(王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73] 사대부들 또한 많은 기록을 남겼으나, 허목의 경우처

72) ‘경(敬)’과 ‘신독(愼獨)’을 통해 허목의 퇴계학 계승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김형찬, 위의 논문(「敬畏에서 感應으로 – 眉叟 許穆의 退溪學 계승에 관한 고찰–」, 『철학』 98), pp.30~36.

73) 『禮記』「玉藻」: “動則左史書之, 言則右史書之.” ; 『漢書』「藝文志」: “古之王者, 世有史官, 君擧必書, 所以愼言行, 昭法式也. 左史記言, 右史記事, 事爲《春秋》, 言爲《尙書》, 帝王靡不同之.”

럼 ‘기(記)’에 대해 긍정의 자세를 확언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추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허목은 ‘신언(愼言)’ 즉 ‘말조심’의 추구가 역설적으로 ‘다작’의 결과로 나타난 희유의 사례이다.

허목이 ‘신(愼)’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기언서」의 직접적 언명 이외에 그가 잠계(箴戒)류 글을 중요시했다는 것으로부터도 간접적 유추가 가능하다. 『기언』 원집 중편(中篇)의 「전원거(田園居)」1은 경기도 연천(漣川)[74] 십청원(十靑園)[75]이란 자신만의 임원 공간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글인데, 각종 초목과 괴석(怪石)에 대한 박물지적 기록 사이로 「입춘잠(立春箴)」이라는 경계의 글을 삽입했다. 「입춘잠」은 천도(天道)·지리(地理)·인기(人紀)를 지켜 큰 나무를 베지 않고 어린 짐승을 죽이지 않는 등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말년에 「자서(自序)」2를 지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짧은 글 30편을 선정하여 「자서속편(自序續編)」을 엮으면서도, 「입춘잠」을 비롯하여 「자경잠(自警箴)」, 「지일잠(至日箴)」, 「불여묵사지(不如默社誌)」[76], 「불여묵전

---

74) 「전원거」 편은 일(一)과 이(二)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는데, ‘전원거 일’에는 ‘연상(漣上)’이란 부제가 붙어 있어서 연천에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고전종합DB’에는 ‘漣上’이 ‘連上’으로 잘못 釋文되어 있고, ‘국역 미수기언’에도 “윗글에 이어서”로 오역되어 있다.

75) ‘십청원’은 허목의 선영(先塋)이 있는 연천 석록동(石鹿洞)에 마련한 그의 은거(隱居) 공간에 조성한 정원으로서, 정원에 가꾼 열 가지 상록 초목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연천 석록동의 위치는 현재의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이며, 허목의 묘 및 선영이 강서리 산90번지 일대에 있다. (허목도 같은 곳에 묻혀 있다) 허목이 우의정에서 물러난 후 숙종이 그에게 집을 하사했는데, 허목은 이 집을 ‘은거당(恩居堂)’이라 명명했다. 따라서 허목 은거처는 현재 ‘은거당 터’로 불리며, 십청원도 같은 곳에 소재했다. 은거당 터는 묘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 뒷산이 녹봉(鹿峰)이다. 허목은 『장자(莊子)』의 고사에서 따서 자신을 ‘석호노농(石戶老農)’ 혹은 ‘석호노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石戶農은 高士를 지칭한다. 『莊子』 「讓王」: “舜以天下讓其友石戶之農…以舜之德爲未至也, 於是夫負妻戴, 攜子以入於海, 終身不返也.”) 은거당 터에는 현재 당시 십청원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유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다만 묘역 앞에 십청원에서 옮긴 것으로 보이는 ‘石戶’란 글씨를 새긴 괴석이 전하고 있다. 그가 자신이 거처한 곳을 ‘석록(石鹿)’이라 부른 것은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76) 자신이 거주하는 전사(田社, 허목에 따르면 5家 10家를 私社인 田社라고 한다고 함)의 이름을 ‘입을 다무는 것만 못함[不如默]’이라고 지은 것 또한 ‘愼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記言』 권23, 中篇 ‘戒懼’; 권67 ‘自序續編’, 「出林塢作不如嘿社誌八十有三言」, “出於妄皆過也, 皆曰過也, 言不可逝也, 駟不及舌, 故曰: ‘口生詬, 口戕口.’ 口之不愼, 禍之招也, 而況多言多敗乎? 恥過, 莫如戒心; 守口, 莫如愼嘿. 愼嘿者寡言, 寡言則戒專, 戒專則過寡, 故名吾塢曰‘不如嘿社’, 書之以自警. 【五家十家爲田社, 是私社. 古制, 各樹其土之所宜木.】”

사노인십육계(不如默田社老人十六戒)」, 「희노지계(喜怒之戒)」 등의 잠계류 글을 수록했다. 이중 「불여묵사지」, 「불여묵전사노인십육계」, 「희노지계」, 「자경잠」은 다시 『기언』 원집 중편의 편목인 '계구(戒懼)'에도 수록되었다. 물론 소차(疏箚) 혹은 묘갈문·서간(書簡) 같은 실용문, 그리고 「동사(東事)」와 같은 역사 기록 등의 압도적으로 방대한 양에 비하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잠계류 글이 초라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언』의 특색이 작자 자신의 독자적 편집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자기 서사의 요소가 특히 강하며 『기언』 전체로도 중대한 계기를 이루는 「전원거」1과 「자서속편」에 '계구'라는 편목의 하나로도 설정했던 잠계들을 굳이 다시 수록한 것은, 서문과 더불어 허목이 '신(愼)'을 얼마나 중요시하며 평생에 걸쳐 추구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기언』은 물론 허목의 '신' 추구가 신언(愼言)에서 기언(記言)으로 변환되어 서사된 '문(文)'의 가장 뚜렷한 예가 되나, 허목이 추구한 '고문(古文)'이 문장과 글씨 두 측면을 겸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언』만이 유일한 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실제 현재 전해지고 있는 허목의 육필 '고문(古文)' 작품들 중에서도 잠계류 글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다.[77]

허목이 고문(古文)으로 쓴 잠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단서지계(丹書之戒)> 및 주(周) 무왕(武王)의 명(銘)이 있다. 『기언』 권52 속집(續集) '치도(治道)'에는 숙종에게 고문(古文)으로 11개의 명(銘)을 써서 진상하며 함께 올린 차자(箚子)[78]가 실려 있는데,[79] 이때 쓴 것이 주 무왕이

77) 현재 전해지는 허목의 서예 작품은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작품 숫자로 허목의 성향을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기언』 「범례」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언』에 수록된 글은 실제 허목이 지은 글의 3~40%에 지나지 않는다. 문장이건 글씨건 작품의 수와 함께 작품이 지어진 배경 및 전체 작품에서 그것이 어떤 계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다.

78) 『記言』 권52, 續集 '治道', "伏以殿下旣三年喪畢, 晃祀先王於太廟, 受群臣賀, 推廣恩澤, 雜犯死罪者皆赦之, 臣民懽忻同慶, 欽仰政化一新. 人君惟萬國之表, 中心無爲, 以守至正. 禮, 三公在朝, 以敎訓德義, 保其身體; 三老在學, 以憲德乞言. 在輿, 有旅賁之規; 位宁, 有官師之典; 倚几, 有誦訓之諫; 居寢, 有瞽御之箴; 宴居, 有工師之誦; 臨朝, 有瞽史之道, 非僻之干, 無自以入. 君德之所以自養者, 亦必奸聲亂色不留聰明, 淫樂慝禮不接心術, 外無聲色之誘, 內無淫慝之惑, 內外交養, 惰慢邪辟之氣, 不設於其身, 心志百體, 皆由順正. 親仁好問, 克勤不怠, 以成至德, 天人合應, 治道大順, 祥瑞畢至, 惟殿下加勉

사상보(師尙父, 太公望)에게 <단서지계>를 받고 자신의 거처 곳곳의 기물(器物)에 새긴 잠명(箴銘) 11개이다.[80] 숙종에게 바친 11개의 명은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48세 때인 1642년 4월에 무왕의 명 중 <장명(杖銘)>과 <궤명(几銘)>을 쓴 것이 전해지고 있고,[81] 사망하기 한 해 전인 1681년 가을에 연천을 방문한 하당(荷塘) 권두인(權斗寅)에게 <단서지계>, <장명>, <반명(盤銘)>, <감명(鑑銘)>을 써 준 예를 확인할 수 있다.[82] 이밖에 정이천(程伊川, 程頤)의 <사물잠(四勿箴)>을 쓰기도

焉. 昔周 武王旣克殷, 踐祚三日, 受《丹書》之戒於師尙父, 惕若戒懼, 矛、劍、几、杖, 居處器皿, 皆有銘, 凡十一篇. 今臣敢以古文書進此三代之訓, 三代之文, 三代之禮, 殿下常目在之, 以義制事, 以禮制心, 遵而勿失, 聖德幸甚, 邦國幸甚."

79) 『승정원일기』 고종 20년(1883) 10월 24일 기사에 숙종 때 허목이 "篆書十一銘"을 올린 일에 대해 나온다. 이 차자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는 보이지 않으나, 『기언』「연보」에 따르면 1676년(숙종 2) 10월에 올린 것이라고 한다. 허목이 '고문'을 써서 진상한 예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3장 허목의 고문관(古文觀)'을 참조.

80) <단서지계(丹書之戒)>는 『소학(小學)』「경신(敬身)」 첫머리에 나오기 때문에 조선시대 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태공망에게 <단서지계>에 대해 들은 주 무왕이 기명에 명을 새겼다는 내용은 『소학』에는 나오지 않고 <단서지계>의 최초 출전인 『대대례기(大戴禮記)』에 나온다. 『대대례기』에 따르면 주 무왕은 자리(席)의 네 끄트머리(四端), 궤(机, 几), 거울(鑑), 세숫대야(盥盤), 기둥(楹), 지팡이(杖), 허리띠(帶), 신발(履屨), 상두(觴豆), 방문(戶), 창문(牖), 검(劍), 활(弓), 창(矛) 등 17군데에 잠명을 새겼다고 한다. 『大戴禮記』 권6 「武王踐阼 第五十九」, "武王踐阼三日, (…) 曰: '黃帝、顓頊之道存乎意, 亦忽不可得見與?' 師尙父曰: '在<丹書>. 王欲聞之, 則齊矣.' 王齊三日, (…) 師尙父西面, 道書之言曰: '敬勝怠者吉, 怠勝敬者亡. 義勝欲者從, 欲勝義者凶. 凡事不强則枉, 不敬則不正, 枉者滅廢, 敬者萬世.' (…) 王聞書之言, 惕若恐懼, 退而爲戒書. 于席之四端爲銘焉, 于机爲銘焉, 于鑑爲銘焉, 于盥盤爲銘焉, 于楹爲銘焉, 于杖爲銘焉, 于帶爲銘焉, 于履屨爲銘焉, 于觴豆爲銘焉, 于戶爲銘焉, 于牖爲銘焉, 于劍爲銘焉, 于弓爲銘焉, 于矛爲銘焉. 席前左端之銘曰: '安樂必敬.' 前右端之銘曰: '無行可悔.' 後左端之銘曰: '一反一側, 亦不可以忘.' 後右端之銘曰: '所監不遠, 視邇所代.' 机之銘曰: '皇皇惟敬, 口生垢, 口戕口.' 鑑之銘曰: '見爾前, 慮爾後.' 盥盤之銘曰: '與其溺于人也, 寧溺于淵. 溺于淵, 猶可游也; 溺于人, 不可救也.' 楹之銘曰: '毋曰胡殘, 其禍將然; 毋曰胡害, 其禍將大; 毋曰胡傷, 其禍將長.' 杖之銘曰: '惡乎危? 于忿懥. 惡乎失道? 于嗜慾. 惡乎相忘? 于富貴.' 帶之銘曰: '火滅修容, 愼戒必恭, 恭則壽.' 履屨之銘曰: '愼之勞, 勞則富.' 觴豆之銘曰: '食自杖, 食自杖, 戒之愒, 愒則逃.' 戶之銘曰: '夫名難得而易失. 無勤弗志, 而曰我知之乎? 無勤弗及, 而曰我杖之乎? 擾阻以泥之, 若風將至, 必先搖搖, 雖有聖人, 不能爲謀也.' 牖之銘曰: '隨天之時, 以地之財, 敬祀皇天, 敬以先時.' 劍之銘曰: '帶之以爲服, 動必行德行德, 行德則興, 倍德則崩.' 弓之銘曰: '屈伸之義, 廢興之行, 無忘自過.' 矛之銘曰: '造矛造矛, 少間弗忍, 終身之羞.' 予一人所聞, 以戒後世子孫." 『고시기(古詩紀)』와 『곤학기문(困學紀聞)』 등에도 <무왕서명(武王書銘)>이 나오는데 20군데에 새겼다고 하고 내용도 다르다. 허목이 숙종에게 써서 올린 11개의 명(銘)은 『대대례기』의 그것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하는 허목의 글씨 중 <단서지계>나 <장명(杖銘)>, <감명(鑑銘)> 등이 『대대례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81) '篆武王銘'. 자세한 사항은 '부록 1. 허목 고문(古文) 서예 작품 목록' 참조.

했고[83], 자신의 <불여묵전사노인십팔계(不如默田社老人十八戒)>[84]나 <불여묵사지>, <희노지계>[85]를 쓴 작품도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허목은 주 무왕 명을 특별히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서지계> 및 주 무왕 명, <금인명>, 『주역』「계사전」 등 옛글에 등장하는 '신(愼)' 특히 '신언(愼言)'의 교훈은 허목이 평생 지키며 소중히 여겨,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이름으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잠계도 창작하였으며, 남에게 옛 글씨로 써서 선사하고, 국왕에게까지 헌상하였다. 아래에서 다시 서술하겠지만, 허목에게 옛 글씨 즉 '고문(古文)'은 단순한 글씨체가 아닌 삼대(三代)의 이상을 현재에 그대로 전하는 매개체였다. 따라서 옛글(옛 서적)에 쓰인 말을 옛 글씨로 쓴다는 것은 허목에겐 그 말에 담긴 가치를 특별히 존숭하며 실천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지는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신언'에 대한 이러한 의지는 또한 '기언(記言)'의 실천으로도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강력한 실천은 개성적인 체제와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문집인 『기언』으로 현현되었다. 허목의 철저한 '말조심' 추구는 역설적으로 조선 문예사에서 보기 드문 양상의 강력한 창작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3. 『기언』「자평(自評)」 및 <고매누자대년설(古梅樓子大年說)>을 통해 본 허목 글쓰기의 특성

『기언』 '산고속집(散稿續集)'의 '문장(文章)' 편목에 속한 「자평(自評)」은 허목이 사망하기 1년 전인 1681년에 지은 글로서 『기언』 전체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다. 『기언』에는 '원집(原集)' 저술 당시에 지은 「기언서(記言序)」가 이미 있으나,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원집' 이후에 허목

82) 보물 902-5호 '권벌 종가 유묵(權橃宗家遺墨)> 허목전서(許穆篆書).
83) 1666년(72세). 『(慶南大學校 博物館 寺內文庫 所藏) 朝鮮名士遺墨 I』(汗馬古典叢書 18), 경남대학교 박물관, 2017, pp.35~57.
84) 개인소장. 『記言』에는 <不如默田社老人十六戒>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六'이 '八'로 되어 있다.
85) 88세 때인 1682년 3월에 쓴 <한간문(汗柬文)>(보물 592-4호)에 포함되어 있음.

은 ‘속집’ 및 ‘산고속집’ 등을 다시 덧붙여 저술・자편(自編)했기 때문에 이때에 서문 격의 글을 또 한 번 쓴 것이다. 따라서 편집 정황 및 저술 시기로 보면 「기언서」보다 「자평」 쪽을 최종판의 서문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두 글은 성격이 꽤 달라서 각각 별개의 가치를 지닌다. 둘 모두 『기언』이란 책이 담고 있는 방대하고도 다양한 내용의 열거로 끝맺고 있지만, 「기언서」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용을 통해 ‘신언(愼言)’의 가치를 강조하며 저술 동기를 서술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자평」은 자신의 고문(古文) 독서 이력과 고문의 약사(略史)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서술하여 자신만의 서술인 『기언』 서술 양식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자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자신의 독서 이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이 늙은이는 재능과 지혜가 낮아 평생 책을 읽었는데, 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족한 면을 힘쓴 것이다. 또한 세속의 글을 즐기지 않고 삼대(三代)의 고문(古文)을 즐겨 읽었으나, 끝내 소득도 없이 처음처럼 줄곧 좋아할 뿐이었다. 삼대 고문 아래로는 『좌전(左傳)』・『국어(國語)』・『전국책(戰國策)』 등 선진(先秦) 시대의 책과 서한(西漢)의 사마천(司馬遷)・사마상여(司馬相如)・양웅(揚雄) 등의 글 그리고 제자백가의 책을 두루 읽었으며, 다시 그 하대(下代)로는 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이 고문(古文)에 가장 가까웠기에, 이들 글을 60세가 되도록 1만 몇 천 번을 읽었다. 우(虞)・하(夏)의 광대함은 감당할 수 없지만, 상시(商詩)의 고오(古奧, 고아하고 심오함)함・주고(周誥)의 오아(聱牙, 난삽함)함・선진의 웅건(雄健, 씩씩함)함・서한의 박대(博大, 넓고 큼)함은 모두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으나 노둔하여 불가능했다. 제자백가의 글은 괴궤(瑰詭, 奇異함)하고 굉박(閎博, 크고 넓음)하나 모두 경전(經傳)의 아순(雅馴, 전아하고 純正)함만 못하다. 돌이켜 보면 문장을 추구한 지 7~80년이 지났으니, 글에 대하여 깊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음의 측면으로도 거의 무궁한 경지에 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옛 사람에 비한다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찌 옛 사람의 경지를 행할 수 있겠는가?[86]

---

86) 『記言』 권58, 「散稿續集」 ‘文章’, 「自評」, “老人才智下, 平生讀書, 非好書, 勉其所不及者然也. 又不樂世俗之文, 嗜讀三代古文, 卒無所得, 嗜好如初. 下則《左氏》、《國

여기서 허목은 지고의 가치를 지닌 삼대 고문을 추구하였고, 아울러 그로부터 하대(下代)인 선진(先秦)·한(漢)·당(唐)의 고문도 병행하여 두루 읽어냈다고 술회했다. 문단의 처음과 끝을 자신의 부족함과 옛 사람 및 옛글의 위대함을 대비시키며 겸손함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생 고문을 추구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자신의 추구한 문장의 이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고히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상 즉 삼대 고문의 추구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다양한 후대의 고문도 읽었음을 고백했는데, 이 후대의 고문들은 비록 삼대의 성인의 경전들보다는 못한 것이지만, 그 다양한 면면들을 섭렵했음을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그것들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력에 대한 고백만으로는 고문 독서의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문단에서는 원고(遠古)의 복희씨로부터 명(明)에 이르기까지 고문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서술했다. 이 문단은 '원집' 상편 '문학(文學)'에 권두언으로 실었다가 말년에 '자서속편'에 다시 수록했을 정도로 허목이 중시했던 그의 고문[87]론의 핵심에 해당하는 글을 약간 변용하여 그대로 실은 것이다.[88]

마지막 문단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오랜 기간에 걸친 '옛 사람의 추종과 옛글 독서'의 결과가 『기언』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말했다.

語》、《戰國長短書》, 先秦、西漢, 太史公、相如、揚雄, 又旁及百家, 又下則韓、柳氏最逼古, 行年六十, 讀至萬有餘千. 如虞、夏之皞皞不可當, 商《詩》之古奧、周《誥》之聱牙、先秦之雄健、西漢之博大, 以爲皆爲吾有, 而顧魯鈍未能耳. 諸家百氏, 瑰詭閎博, 皆莫如經傳之雅馴, 反而求之, 亦已過七十八十, 於文可謂勤且深矣, 於心亦以爲幾入於無窮, 而視古人, 則卓乎其不可及矣, 古人何可爲也?"

87) 이때의 '고문'은 문장으로서의 고문을 가리킴. 글씨로서의 고문은 '古文' 편에 주로 수록. 이에 대해서도 역시 아래의 제3장 '허목의 고문관'을 참조할 것.

88) 위의 글, "概論之, 文者天地之文也, 非人智巧所及. 上世包羲氏則《河圖》作《易》八卦, 制作文字, 通天下之亹亹, 其文在天爲日月星辰, 在人爲禮樂文章. 文章之盛衰, 在世道之汚隆, 人文歷夏、商至周甚盛, 自東周以降, 孔子歿, 周道衰, 諸侯更霸, 百家起. 至秦, 專用法術, 焚滅《詩》、《書》, 天下遂大亂. 聖人之文, 貳於老氏, 散於百家, 然去古未遠, 天地純厚之氣猶在. 屈原作《離騷》, 馬遷紬《史記》, 自黃帝始, 至于《麟止》. 揚雄作《太玄》、《法言》, 揚雄死, 古文亡矣, 魏、晉氏來, 蕭索無餘. 唐時, 韓、柳繼西漢之末, 韓淳而柳刻. 宋興, 修明三代之治, 文學歸於訓詁. 明驅除戎狄, 掃淸區宇, 自以功德, 傲蔑秦、漢, 而治道譎詭, 發於心者, 非六經之治, 其文章亦然."

이 늙은이가 문학(文學)을 닦은 지 90년, 비록 옛 사람의 경지에는 미치지 못하나 늙도록 옛 사람의 글 읽기를 좋아하여 옛 사람의 문도가 되었다. 늙은 나이로 저술한 것들이 지금 세상에는 진실로 무용한 헛된 글이 되겠으나, 그래도 버리지 않고 각기 분류하여 한 책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성명(性命) 및 하늘과 사람의 근본으로부터 인사(人事)까지 미루어서,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삶과 죽음 그리고 시작과 끝・고금의 변천・치란(治亂)과 흥망・나라의 사당과 제사・산과 바다와 하천 등 자연 지리・귀신 및 그에 대한 제사・각종 의례 절차 및 예절・충신열사와 효자정부(孝子貞婦)의 선행・각 지방의 풍속 및 민요와 산물・해외의 여러 민족과 진귀한 사물・곤충과 식물・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및 괴물 등등을 모두 다 드러내 열거했으니, 늙은이의 쓸데없는 어리석음과 도리에 어긋남이 심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여 『기언』을 짓게 된 것이다.[89]

역설적으로 보이긴 해도 「기언서」에는 '신언'이라는 '기언'의 강력한 정신적 동인(動因)이 제시되어 있으나, 「자평」에는 그러한 종류의 동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고문가(古文家)로서의 자신의 이력 및 그 역사적 연원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여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기언』의 성립 내력임을 밝혔는데, 이렇게 작자 나름의 저술의 필연성을 기술했다는 점은 「기언서」와 동일하며, 다만 그 필연성 서술의 양태가 달랐을 뿐이다.

기실 「기언서」보다는 「자평」 쪽이 허목 글쓰기의 전반적 양상과 유사하다. 허목은 의리(義理)나 성명(性命) 등 보편적 준칙 혹은 원리에 근거한 판단에 따라 현실적 사태를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과거[古]로부터 주어진 것 즉 옛 사람이 남긴 옛글에 담긴 내용을 상고(詳考)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천을 겪으며 계속하여 존재한 사상(事象)들의 제 현상을 빠짐없이 서술하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서사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다.

---

89) 위의 글, "老人修文學九十年, 縱不逮古人, 老說讀古人, 爲古人之徒, 年老所著述, 於今之世, 固爲無用之空文, 猶不捐, 各分類成一書. 自性命天人之本, 推之人事, 善惡邪正、死生終始、古今之變、治亂興壞、郊廟禘嘗、海岳川瀆、鬼神百祀、儀則禮節、忠臣烈士孝子貞婦善行、四方風土謠俗百産、域外雜種珍異、昆蟲草木、災異妖孽物怪, 俱著畢擧, 老悖昏耗甚矣, 此《記言》之作也, 述《自評》五百七十三言. 重光作罔白露節下弦後日, 期頤老人眉叟書. 【《記言》, 有原集、續集, 旣序《記言》, 老而讀書, 又作《自評》.】"

허목의 문장이 “서사(敍事)와 기실(紀實)” 즉 사실 서술과 기록에 뛰어나며[90], “서술에는 뛰어나나 의론(議論)이 적다”는 평가[91]는 조선 후기 당대(및 後代)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허목의 산문이 명(明) 전후칠자(前後七子) 및 그 영향을 받아 당대(및 前代) 조선에 유행했던 진한고문(秦漢古文)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인데,[92] 명대 전후칠자의 글쓰기 방식 또한 구체적 사물 및 사건의 기술에 강했던 진한고문을 본받아 의론적이기보다는 서사성이 강했다.[93]

그러나 허목이 명대(明代) 문학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유지했던 점, 주자(朱子)·정자(程子) 등 송대(宋代) “주소체(註疏體)” 문장 즉 논리를 곡진하게 전개하는 “의론”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예학(禮學)에 천착하는 등 유자(儒者)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유지했다는 점 등에서, 전후칠자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문장에서 의론보다 서사가 지배적이었던 것은, 전후칠자의 영향이 거셌던

90) 洪良浩, 『耳溪集』 권16 ‘題跋’, 「題陟州東海碑」, “叟常言: ‘先秦、西漢之後, 古文亡, 唐、宋以下, 不足觀也.’ 故其文蒼奧簡直, 絶無折旋變化, 論者病之. 然余獨謂: ‘唐、宋之文, 喜議論法太勝, 若東人則習模擬, 去古文益遠, 苟論敍事紀實, 則當推眉叟爲第一.’”

91) 李克誠, 『螢雪記聞』, “李東州嘗以許眉叟穆之文爲僧文, 蓋病其無味也. 李星湖曰: ‘我朝三百年行文, 可以爲第一, 但長於敍事而少議論耳.’” 부유섭, 위의 논문(「17-18세기 중반 近畿南人 文壇 硏究」), p.33 각주96에서 재인용.

92) 이준규는 허목의 趙絅 및 崔岦 문장 긍정을 통해 전후칠자에 대한 긍정을 간접적으로 추론했으며, 특히 허목의 韓愈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은 대체로 秦漢고문을 중요시했던 전후칠자가 唐宋 중에서는 한유를 긍정한 것과 강하게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준규, 「許穆 散文의 古文詞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pp.290~299.

93) “전후칠자의 글쓰기 양상은 (…)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묘사에 힘쓰며, 의론성보다는 서사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전후칠자는 송대의 설리적이고 의론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을 기술하는 진한고문식 글쓰기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논지를 조직해나가는 의론문보다는 시간적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인물전, 비지문, 추보식으로 따라가는 유기, 기문 등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하지영, 「18세기 秦漢古文論의 전개와 실현 양상」, 이화여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14, p.149. 하지영은 이 논문의 제4장 ‘秦漢古文의 특징과 조선적 전개 양상’의 ‘A. 先秦兩漢 산문의 문체적 특성’ 및 ‘B. 秦漢古文식 글쓰기의 계승과 변용 양상’에서 『左傳』 및 『史記』 그리고 李攀龍, 李夢陽, 王世貞 등 작품의 字句 및 구성 분석을 통해 선진고문 및 전후칠자 문장의 특색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18세기 진한고문가인 申維翰, 李用休, 兪漢雋 등의 문장 특성뿐 아니라 그 前史인 중국 및 조선의 진한고문 문학의 전개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조선 후기 진한고문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된다. 다만 前史에 해당하는 許穆은 중요한 계기로서 다루고는 있으나 연구의 본주제가 아닌 만큼 설명은 소략한 편이다.

당대 조선의 문풍, 특히 비(非) 서인(西人) 계열의 '고문' 진작 문풍과 보조를 함께 하면서, 『좌전』이나 『사기』, 양웅(揚雄) 등의 고전을 직접 독해하며 자득한 독자적 작문 양식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옛글의 독해를 통해 고(古)를 고(故)로 전용하는 행위, 자득(自得)을 통해 옛 사람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 술이부작(述而不作)과 온고지신(溫故知新)은 한자 문화권의 유구한 전통이다. '술(述)'의 태도는 고(古)뿐만 아니라 금(今)에도 적용된다. 허목은 서술의 전반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언』 전체 체제 및 개개 작문에서 사실 서술 속에 은연중 자기 서술을 담아냄으로써 계고(稽古)를 통해 현상의 연고(緣故)를 발견하는 전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현했다.

문학사 및 문예사에서 허목은 전(前) 시대의 계승자보다는 후대의 선도자로서 갖는 의의가 특히 더 강조되어 왔다. 허목 이후 남인 문단의 문풍이 갖는 특성들, 즉 전고(典故)를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과다하게 사용하고,[94] 평이하고 전아하며 유려함보다는 껄끄럽고 억세며 개성 강한 글 흐름을 추구하면서,[95] 서술자의 판단에 따른 의론 전개나 감정의 개입을 지양하고 읽는 사람에게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등등의 특성을 갖는 문장 및 글의 구성 추구 양태를 허목이 선취(先取)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목이 추구한 문장의 "미감(美感)"은, 고기(古氣)를 추구하여 선진양한의 문장법을 추구하면서 간략하고 짧은 글에 허사(虛辭)나 조자(助字)를 절제하여 응축되고 매끄럽지 않은 느낌을 주는 강한 문세(文勢)라는 "고경(古勁, 옛스럽고 뻣뻣함)",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적 서술 및 묘사에 주력하면서 문맥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자구(字句) 구사에 있어 고도의 절제 및 엄정함의 간결함을 추구하는 "간오(簡奧, 간략하고 파악하기 어려움)", 기(奇)를 선호하여 다양하고

94) 특히 남아 있는 작품은 많지 않지만 당시 남인 관각(館閣) 문단 특히 산문의 대표자로 인식되었던 권유(權愈)의 경우 의식적으로 생소한 전범을 사용하여 난삽함을 추구한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영, 「하계(霞溪) 권유(權愈) 산문 소고」, pp.192~209.

95) 남인 문인들의 '간(簡)' 추구는 어조사 사용이 적고 긴박감 있는 문장 운용 성향을 낳았다. 송혁기, 위의 책(『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pp.76~93.

기이한 소재를 많이 다룬 “잡박(雜駁, 여러 가지가 뒤섞임)” 등이라고 평가된다.[96] 허목은 남인의 대표자 중 한 명이기에 남인 문풍의 선구라 지목되며, 허목 이후 남인 문단이 구사한 문장의 특성 또한 허목과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되곤 한다.

그러나 문장의 특징은 미묘한 것이어서 정확한 분석 및 특정이 매우 어려우며, 문풍 또한 같은 문단 내에서 공유하는 특성 외에 개인적 고유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문장의 “간오”함을 지적할 때 흔히 거론하는 어조사의 배제 또한 소위 “간오”한 문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97] 허목이 간결한 구성을 가진 짧은 길이의 글과 어조사를 절제한 어구를 운용한 경향은 있었으나, 허목의 후인들이 이러한 문장을 의식적으로 추구했고 허목이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선배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허목 문장의 간결함은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술 위주의 작문 과정에서 나온 부수적 결과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더구나 허목은 권유 등과 달리 어구 구사에서 일부러 난해한 전고를 찾아 쓴 흔적도 찾기 힘들다.

옛 문헌의 전거를 동원한 사실 서술과 거기에 개인적 연고를 끼워넣어 자기 서사를 은연중에 구현하면서, 감정 토로와 의론의 개입을 배제하여 전반적으로 간결한 어법을 구사했기에 허목의 글은 실제로 매우 간결한 느낌을 준다. ‘원집’ 「전원거」1에 수록된 「고매누자대년설(古梅樓子大年說)」의 예를 들어 보겠다.

---

96) 신승훈, 위의 논문(「眉叟 許穆 散文의 美學」), pp.3~17.

97) 하지영은 선진(先秦) 고문의 대표격인 『좌전』·『예기(禮記)』 등의 문장에서 어조사의 생략과 과잉이 함께 나타나며, 단구(短句)와 장구(長句)의 공존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한 구의 반복 또한 흔했다. 당시의 문장은 후대와 달리 엄정한 문장법이 확립되기 이전이라 일정한 법칙에 의해 학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복된 독서를 통한 내재화를 통해 어떤 ‘형세’를 취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영, 「18세기 秦漢古文論의 전개와 실현 양상」, pp.113~132. 허목 문장에서는 어조사를 배제한 응축되고 강한 어세(語勢)로 긴장감과 촉급함을 주는 효과와 어조사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신승훈, 「眉叟 許穆 散文의 美學」, pp.4~7 ; 이준규, 「許穆 散文의 古文詞에 대하여」, pp.304~306.

청악매(靑萼梅) 중 본줄기가 이리저리 얽혀 있고 가지가 묵은 것을 대년고매(大年古梅)라고 하고, 누자 중 누런 좁쌀 같은 꽃밥의 붉은 꽃이 피는 것을 대년누자(大年樓子)라고 한다. 누자는 용주공(龍洲公, 趙綱)이 뜰에 심었던 좋은 품종이고, 고매는 한산옹(寒山翁, 宋錫祐)에게서 나온 것이다. 용주공은 여든 네 살을 살았고 한산옹은 여든 일곱 살을 살았다. 지금은 두 노인 모두 세상을 떠나고 그들이 준 식물만이 석록암거(石鹿巖居)에 전하는데 암거 노인(자신을 지칭) 또한 여든을 바라보니, 가히 식물의 고사라 할 만하다. '대년'이란 오래 살았음을 표시한 것이다.

신해년(1671) 4월 15일 태령노인(台嶺老人)이 불여묵사(不如默社)에서 씀[98]

이 글은 위(謂)·위(爲)·지(之)·어(於)·야(也)·자(者) 등 허사(虛辭)를 적소에 풍부하게 사용했지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상을 주어 "간(簡)"의 느낌을 주는 글로 꼽기엔 손색이 없다. 이 글의 "간"은 전체 구성과 어구의 어법 모두에서 성취되고 있다. 먼저 청악고매(靑萼古梅, 푸른 꽃받침의 늙은 매화)와 누자산다(樓子山茶, 동백의 일종)[99] 중 '대년(大年, 나이 많음)'이라는 형용이 붙는 두 식물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곧바로 두 식물을 자신에게 준 두 사람을 언급한다. 이제는 죽고 없는 두 사람은 모두 장수했는데 자신도 곧 두 사람이 살았던 나이에 도달할 것이고, 두 사람이 남긴 식물 이름에 모두 장수를 뜻하는 명칭이 들어가 있음을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대년'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처음 식물명을 소개할 때처럼 정의 형식으로 풀이한 후 글을 마쳤다.

어법 면에서는 나열, 대우와 생략 및 반복법이 두드러진다. 글이 시작

98)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眉叟先生眞蹟』 중 <古梅樓子大年說>, "有靑萼梅, 樛幹老査, 謂之大年古梅; 樓子, 黃粟紅花, 謂之大年樓子. 樓子, 龍洲公庭植佳品; 古梅, 出於寒山翁. 龍洲公八十四, 寒山翁八十七, 今二老皆亡, 其植物留傳石鹿巖居, 巖居老人將*八十, 可爲**植物古事. 大年者, 識壽也. 重光大淵獻孟夏月半日也, 台嶺老人書于不如嘿社." 같은 글이 『記言』 권14, '原集' '上篇' '田園居一'에도 수록되어 있다. 『眉叟先生眞蹟』과 『記言』 두 수록본 사이에는 2개소의 글자 出入이 있다. *將: 『記言』에는 '且'로 되어 있다. **爲: 『記言』에는 '謂'로 되어 있다. 또한 『記言』에는 '重光大淵獻孟夏月半日也'란 연기(年紀) 11자가 없다.

99) 식물명에 누자(樓子)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괄루(栝蔞, 하늘타리)를 누자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일단 산다화(山茶花)의 일종인 누자산다로 보았다. 『양화소록』, pp.289~299, '12.산다화' 참조.

하면서 곧바로 “有靑萼梅 樛幹老査 謂之大年古梅”와 “樓子 黃粟紅花 謂之大年樓子”가 대우를 이루어 등장하고, 바로 뒤이어 “樓子 龍洲公庭植佳品”과 “古梅 出於寒山翁”이, 그리고 “龍洲公八十四”와 “寒山翁八十七”이 대우를 이룬다. 나열법인 배비(排比)와 대우(對偶)는 진한고문에서도 흔히 사용된 수사로서,[100] 여기에서는 건조해지기 쉬운 서술문에 규칙성의 리듬감과 심화(深化) 점층의 느낌을 주고 있다. “龍洲公八十四 寒山翁八十七”의 구에서는 어떠한 조사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연결사의 부재로 인한 “간오(簡奧)”함은 허목 산문의 특징 중 하나다.[101] 또한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 ‘古梅’, ‘樓子’, ‘大年’ 등 주제어를 제외하고도 - ‘巖居’, ‘植物’, ‘老’, ‘古’ 등의 예처럼 같은 구 혹은 글자의 반복도 거리낌 없이 구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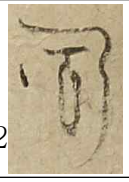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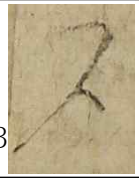
위와 같은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허목 문장의 특징들이며, 이와 같은 특질들은 곧 허목 이후 남인 문장가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허목의 문장에서는 옛 사실의 고증은 흔하지만, 뒤틀어져서 알기 힘든 전거를 통한 표현은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어조사의 절제만큼이나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적재적소의 사용 또한 두드러지기 때문에, 글 전체로 보면 간오에 따른 촉급한 호흡을 띠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것을 풀어주어 이완된 느낌을 주는 곳도 존재한다.[102] 절제된 분량과 구도 안에서 두 식물, 그 식물의 연고가 되는 두 사람, 그 사람들과 연고를 가진 자신, 그리고 식물과 사람 모두의 공통점인 장수라는 좁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자연히 같은 어구・단어 및 글자가 반복하여 출현한다. 그러나 이 동일 어구의 빈출이 번쇄함을 주지는 않으며 작품의 전체적 기조인 “간(簡)”을 해치지도 않는다. 이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허목이 구사한 ‘고문(古文)’에 있다. ‘고문’은 옛 문장과 옛 글자・글씨를 동시에 지칭하며 허목은 고문에 관한 독자적 견해에 따라 독특한 ‘고문’

100) 하지영, 위의 논문(「18세기 秦漢古文論의 전개와 실현 양상」), pp.119~120.
101) 신승훈, 위의 논문(「眉叟 許穆 散文의 美學」), pp.9~20. 흥미롭게도 여기에서 신승훈이 허목 문장의 “簡奧” 미감 분석의 제재로 사용하고 있는 글이 『記言』「田園居一」에서 「古梅樓子大年說」 바로 다음에 나오는 「大明紅說」이다.
102) 신승훈, 위의 논문, pp.6~7.

글씨체를 구사하여 글씨를 썼다. 「고매누자대년설」은 허목 자신이 소화한 '고문' 문장으로 쓴 문학 작품인 동시에 특유의 글씨체로 쓴 서예 작품이기도 하다.

「고매누자대년설(古梅樓子大年說)」은 『기언』 '원집' 「전원거(田園居)」1에 수록되어 있는데, 허목의 수필(手筆) 원고(原稿)에 해당하는 작품도 현재 전하고 있다.[103] 여기에서 각각 4회씩 출현하고 있는 실사(實辭)이자 단자(單字)인 '古'와 '梅'의 서사례(書寫例)는 다음과 같다.

<표 1>

古	1 2  3  4

'古'의 1번째·4번째 자형(字形)은 『설문해자(說文解字)』 '고문(古文)'의 변형이다. 2번째는 옛 청동기인 '백영이(伯英彝)' 명문(銘文)의 자형이며, 3번째는 허목의 다른 작품들에서 '故'로 쓰이기도 하고 '古'로 쓰이기도 한 자형이다. '설문고문(說文古文)'의 '古' 자형의 활용 예는 허목의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104]

허목이 구사한 '梅' 자형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

103) 허목 手筆 원고인 <古梅樓子大年說>은 許穆 특유의 古文 篆書로 쓰여 있으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眉叟先生眞蹟』(소장품번호: 서울역사002692)에 수록되어 있다. 『미수선생진적』은 가로 27.4cm, 세로 39.2cm 크기인 1책의 서화첩으로서, 총1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면 許眉叟先生畫像 (小棠 金奭準 筆), 제2면 許眉叟先生文正公畫像贊 (古藍 田琦 筆), 제3~6면 古梅樓子大年說 (眉叟 許穆 筆), 제7~9면 高陽山水記 (許穆), 제10~14면 簡札1 (許穆), 제15면 簡札2 (許穆), 제16면 簡札3 (許穆), 제17면 簡札4 (許穆), 제18면 印影集 (許穆 印章 9顆). 유물정보 열람 및 이미지 열람·다운로드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seoul.kr)에서 가능하다.

104) 허목이 작품에서 구사한 '古' 자형의 예들은 부록의 표 <眉叟-6 古>를 참조.

<표 2,3>

梅	1 2 3 4
明 金石韻府 ‘梅’	存乂切韻 古尙書 六書統 六書統
참조	說文小篆 說文或體

「고매누자대년설」 ‘梅’ 자형2는 존예(存乂) 왕남빈(王南賓)의 『절운(切韻)』[105] 자형이며, 4번째 자형은 ‘고상서(古尙書)’의 자형이다. 이 둘은 모두 『설문해자』 표제자인 소전체(小篆體) 자형이자 현재 해서 ‘梅’의 표준 자형인 좌우 편방(偏旁) 결구(結構)의 ‘木+每’ 형태를 상하(上下) 결구인 ‘每/木’로 바꾼 자형을 기본으로 하여 그것에 각기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번째 자형은 출전을 알 수 없다. 다만 『육서통(六書統)』이나 『설문해자』 혹체(或體)의 자형에서 볼 수 있듯이 ‘梅’는 ‘木+某’인 ‘楳’로 쓰기도 하는데, 이때의 성부(聲部)인 ‘모(某)’ 자[106]를 기반으로 그것에 상당한 정도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1번째 자형은 ‘梅’의 고자(古字)인 ‘槑’라고 볼 수 있다. 다만 ‘槑’라는 기본형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형을 가했고, 마치 가지에 달린

105) 『절운(切韻)』은 수(隋)의 육법언(陸法言)이 편찬한 운서(韻書)인데, 당대(唐代) 이후 『절운』을 바탕으로 한 운서들이 많이 편집되었으며 이를 ‘절운계 운서’라고 한다. 존예 왕남빈의 『절운』도 이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왕존예 혹은 왕남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106) ‘某’는 보통 ‘아무(誰某, a certain)’의 뜻으로 가차되어 쓰이지만 원래는 ‘매실’을 가리키는 ‘梅’의 원자(原字)였다. 후에 가차된 뜻의 ‘아무’로 전용(專用)되면서 ‘매실나무’는 주로 ‘梅’로 쓰게 되었다. ‘槑’는 원래 ‘某’의 古文이었다. 『說文解字』, “某, 酸果也. 从木, 从甘, 闕. 槑, 古文某从口.”

매화 송이를 연상케 하는 회화적 상형(象形)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매(梅)’는 이 글의 주인공 격인 두 식물 중 ‘누자(樓子)’와 달리 단자(單字)로 ‘매실나무(매화나무)’라는 대상 식물을 가리킬 수 있어서 한 글자에 담긴 함의가 크고, 이 한 글자가 이 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고(古)’ 또한 ‘고매(古梅)’라는 명칭에, 또 두 식물을 매개로 두 인물과 작자가 연고를 갖게 된 ‘고사(古事)’ – 정확하게는 ‘고사(故事)’에 해당할 것이나 허목은 이를 ‘고사(古事)’라 표현했다 –라는 글의 주제에 들어있고, ‘대년(大年)’과 ‘수(壽)’라는 두 식물과 세 사람의 속성과도 간접적으로 연관되며, 나아가 허목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이며 글을 읽을 이는 물론 다른 이들도 그렇다고 널리 인식하고 있던 ‘상고(尙古)’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하는 글자이다.

‘매’와 ‘고’의 이러한 중차대한 함의와 비중 때문에 짧은 글 내에서 4회씩 반복되었을 것이다. 의론이 아닌 서술의 비중이 절대적인 글의 성격상 이러한 반복은 번쇄함이라는 문학으로서의 문장에는 결격이 될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허목이 실제 쓴 「고매누자대년설」 원고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古’ 4회, ‘梅’ 4회, 총8회 등장한 이 글자들이 전부 다른 형태로 쓰였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이 자형들은 모두 현재 쓰이는 해서의 형태를 어느 정도 연상시킬 수 있으며 일상에서도 쓰이는 소전(小篆)이나 옥저전(玉筯篆) 등이 아닌, 낯선 고전(古篆)을 근거로 허목이 자신만의 변형을 약간 가한 ‘고문(古文)’으로 쓰였기에, 고색창연함과 생경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허목은 글씨로서의 ‘고문’이 주는 여러 미감(美感)들, 즉 옛것에 대한 연상을 일으키는 창고(蒼古, 고색창연함)·현재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주는 소삽(疏澁, 낯설고 껄끄러움)·각기 다른 여러 가지 자형이 갖는 나름의 조형미로 인한 괴기(瑰奇, 특이하게 아름답고 진귀함) 등을 통해, 문장으로서의 ‘고문’이 주는 미감들, 즉 고경(古勁)·간오(簡奧) 등이 자칫 불러올 수 있는 딱딱함·단조로움·어색함 등의 단점을 자연스럽게 보족(補足)하고 있다. 글씨로서의 ‘고문’이 주는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허목의 ‘고문’ 문장은 – 만일 그것이 ‘고문’ 글씨로 쓰였다면

– 별다른 수사적 기교를 동원하지 않고 서술(敍述)만 추구해도 일정 정도 미적 성취를 담보할 수 있게 된다.

허목은 '고(古)'를 철저하게 추구하여 조선 문예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고(尙古) 흐름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평생 '고문(古文)'을 읽고 '고문'을 지었으며 '고문'으로 글씨를 썼다. 따라서 허목의 글씨로서의 '고문' 창작을 살펴보려면, 그의 문장으로서의 '고문'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의 글쓰기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생전에 스스로 편집한 자신의 글의 총합인 문집『기언(記言)』이 일반 문집 체제의 상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기언』중에서도 특히 80세 이후 제2차 출사(出仕)기이자 관력의 정점에 섰던 시기 직전인 숙종 원년(1674) 이전의 글을 모은 '원집(原集)'이 중요하다. 그가 의도했던 체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집은 상중하・잡(雜)내(內)외(外)・독립저작 모음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마치 유서(類書)처럼 주제별로 구성한 상중하 편(篇)의 의의가 가장 크다. 상편・중편・하편의 편목(篇目) 구성은 그 자체로 무엇인가 이야기해주는 것은 없다. 다만 상편(上篇)에 포함된 예(禮) 및 문학(文學)・고문(古文) 편이 예학의 종장이자 고문가였던 허목의 면모를 드러내줄 뿐이다. 그러나 편목 내 수록 글들의 배치를 잘 살펴보면 허목이 자신의 문집에 담고자 했던 속내가 어느 정도 들여다보인다. 옛 제도 및 사실의 고증 혹은 과거의 어떤 인물의 행적을 서술한 글은 거의 모든 편목 내에서 흔히 발견된다. 아울러 자신과 어떤 연고를 갖고 있는 현재의 인물이나 공간에 대한 서술, 예컨대 문집의 서문이나 묘도문, 혹은 당우(堂宇)의 기문(記文)이나 어떤 지역의 유기(遊記) 등도 자주 수록되었다. 과거의 사실 혹은 인물은 현재의 자신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혀 있거나 혹은 김시습(金時習)처럼 자신의 행적과 글짓기 양식의 원형이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서(序)나 기문 역시 과거 제도 혹은 사실의 상고(詳考)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 사실 서술과 현재 자기 서술의 글이 편목 내에서 병치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이런 사실들은 허목이 어떤 한 글의 작문이건 문집 전체의 체제건 일관되게 사실 서사와 자기 서사의 결합을 추구하여 고(古)를 고(故)로 전용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사실 서사를 통해 자기 서사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은『기언』원집의 서문인 「기언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서 그는 '신언(愼言)'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는 경(敬)의 가치 추구라는 유자(儒者) 일반 혹은 남인(南人) 학파의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보다는 「기언서」가 문집의 서문임을 감안할 때, 이 글은 '신언'이라는 자기 서사의 절제라는 지향성이 거꾸로 사실 서사의 극대화로 나타나 역설적으로『기언』이라는 방대한 서술을 창조해낸 결과를 낳은, 허목 글쓰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로서 독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심한 독해가 없다면 과거의 상고 혹은 현재의 인물·공간 서사라는 '서술(敍述)'이 주를 이루는 허목의 글은 자칫 나열 일변도의 따분한 글로 읽힐 수도 있다. 기존의 연구가 파악한 허목 문장의 고경(古勁)·간오(簡奧)·박잡(駁雜) 등의 미감도 허목 이후 남인 문장가들이 추구한 문장미의 선구로서 갖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허목 글쓰기가 갖는 독자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허목의 글쓰기는 동시에 글씨 쓰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소된다.「고매누자대년설(古梅樓子大年說)」 수고본을 통해 볼 수 있는 그의 '고문(古文)' 문장-글씨 쓰기의 양상은 그의 글이 갖는 고경-창고(蒼古)·간오-소삽(疏澀)·박잡-기이(奇異) 혹은 괴기(瑰奇)의 풍부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어느 쪽이나 독자성이 큰 그의 글쓰기-글씨 쓰기가 서로 상보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허목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허목 서예의 연원 및 양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증대됨을 알 수 있게 된다.

제2장 허목 문학의 기(奇) 추구 양상

1. 허목과 상기(尙奇) 문학

조선 후기 한문 산문에는 당파 및 학파에 따라, 또한 가문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흐름이 존재했다. 그러나 주자학 수용의 심화 및 권력과 문화의 노론(老論) 집중에 따라 소위 '한구정맥(韓歐正脈)'이라 일컫는 노론계 문인들의 산문 경향이 대체로 문풍(文風)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수도인 한성(漢城) 및 근기(近畿)에 세거(世居)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만큼 중국의 학술 및 문예를 선단(先端)에 서서 폭넓게 접촉할 기회도 많아, 패관소품이나 고증(考證) 경향 등 중국의 비(非)주자학적 문예를 수입·실천한 사례도 적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있는 별격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노론 주류의 문예 지향은 어디까지나 성리(性理)에 대한 탐구와 도학(道學)의 실천을 기반으로 한 순정(醇正) 전아(典雅)한 문장을 향해 있었다. 이러한 문장의 전범(典範)은 '당송(唐宋) 고문(古文)'이었으며, 추구한 풍격(風格)은 도덕 함양의 구현인 온화돈후(溫和敦厚)와 난삽한 수식의 배제인 평창(平暢)이었다.

한편 정치적으로 이들과 대립했던 남인(南人) 계열의 문인들은 학문적 지향이나 문풍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남인 중 퇴계 이황의 적통을 이었던 학자들은 성리학 혹은 도학(道學)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으며 그 밖의 문인들도 주자학에 대한 경시나 부정에 이른 것은 결코 아니었으나, 특히 근기의 남인들 중에는 성리(性理)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하고 박학(博學)적 경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산문의 문풍에서는 당송 이전 진한(秦漢)의 고문을 전범으로 삼아 생경하고 난삽한 표현을 즐기는 경향을 보이는 일군(一群)의 문인들 또한 존재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허목은 권유(權愈) 등처럼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들 그룹의 선진(先進)에 해당한다. 이들은 당송 이전의 문학을 전범으로 삼았던 만큼 노론 계열 소위 한구정맥파에 비해 더 '고(古)'로 거슬러 올라, 평창으로부터 거리를 둔 생경하고 거친 '고경(古勁)'한

문풍을 이루었다. ‘고경’의 생경한 난삽함은 평창과 대비를 이루는 ‘간오(簡奧)’로 이어지기 쉬웠고, ‘고경’과 ‘간오’의 난해함과 비일상적 미감은 독자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기굴(奇崛)’의 효과를 느끼게끔 하였다.

허목의 문장은 권유 등 후진(後進) 남인들처럼 뚜렷한 난삽함의 지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허목에게 ‘고(古)’와 ‘간(簡)’의 경향성은 분명 존재하며, 이와 함께 ‘기(奇)’의 경향 또한 비교적 명확히 보인다. ‘기굴’은 ‘고경’과 ‘간오’의 부수적 효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허목은 ‘고’에 대한 뚜렷한 추구와 함께 ‘기(奇)’에 대한 추구의 경향도 분명 보였다. 물론 허목의 문예 경향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 혹은 ‘고문(古文)’일 것이지만, 그와 함께 ‘기’의 추구 즉 ‘상기(尙奇)’ 경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부를 이룬다.[107]

허목 문학 및 문예의 ‘상기’ 경향을 살펴보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첫째, 한유(韓愈)라는 전범(典範)의 이중적 정체성이다.

‘한구정맥’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구양수(歐陽脩)와 함께 한유는 당송(唐宋) 고문을 대표하는 아정(雅正)한 문인이다. 조선에서 가장 선호된 문학 선집인 『고문진보(古文眞寶)』에는 한유의 글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주희(朱熹)가 교정한 『한문고이(韓文考異)』에 바탕을 둔 『주문공교창려선생집(朱文公校昌黎先生集)』이 널리 유통된 사실에서도 한유의 전범적 지위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한유가 당송 고문 작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존중된 까닭은 「원도(原道)」 등에서 보인 유가에 대한 강력한 옹호와 도통(道統) 의식 때문이다. 그

107) 金景은 李用休(1708~1782), 盧兢(1738~1790), 李德懋(1741~1793) 등 18세기 이후 조선 문단의 ‘상기(尙奇)’의 양상에 대해 논하면서, 奇의 개념 및 범주, 그리고 前史로서 王充・劉勰・韓愈 및 明淸 散文에 대해 논구하였다. 다만 18세기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또 奇를 주로 낭만주의 문학과 연결하며 儒家와 奇의 관계를 부정적 의의 위주로 파악했기 때문에, 許穆의 尙奇를 이해하기 위한 시사점은 발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尙奇 문학 이해를 위해 중요한 연구라 판단된다. 김경, 「18세기 漢文散文의 尙奇 논의와 作品樣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런데 도통 의식은 한편으로 세상과의 불화에 대한 자각과 표리를 이룬다. 이러한 자각은 사실 유가의 유구한 전통이어서, 광(匡)에서 위협을 당하고 진채(陳蔡)의 사이에서 굶주린 공자의 고난은 "사문(斯文)이 나에게 있다"는 자부로 이어졌으며, 맹자는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면" 동시에 "심지(心志)를 힘들게 하고 근골(筋骨)을 괴롭히며 체부(體膚)를 굶주리게 한다."고 말했다.

한유는 「진학해(進學解)」에서 자신이 불우한 처지에서도 문장과 학문에 힘쓰는 것이 선유(先儒)인 맹자(孟子)의 예를 본받은 것이라고 했다. 불우함이 승화되어 문학적 창작으로 나타난다는 논리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글은 '불평(不平)의 명(鳴)'의 문학 이론이 전개된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이다. 그리고 「송맹동야서」에서 '불평의 명'의 체현자로서 거론된 맹교(孟郊)는, 한유를 필두로 한 당(唐) '괴기시파(怪奇詩派)'의 주요 일원이기도 하다. 「송궁문(送窮文)」에서 '문궁(文窮)'으로 인해 "한 가지 능함에 전력하지 않고 괴괴기기하기만 하여, 때를 만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오직 스스로 즐거워하기만 할 뿐[不專一能 怪怪奇奇 不可時施 祇以自嬉]"라고 자신을 묘사한 한유는, 「정요선생묘지명(貞曜先生墓誌銘)」에서 맹교의 시(詩)가 "표현은 읽는 이의 눈과 심장을 찌르고, 논리는 얽힌 실을 칼로 자르는 듯하며, 장구(章句)는 갈고리와 가시가 되어 내장을 흔들어 뽑아낸다. 그리하여 신비롭고 귀신같은 발상과 전개가 곳곳에 겹겹이 드러난다.[劇目鈌心 刃迎縷解 鉤章棘句 搖擢胃腎 神施鬼設 間見層出]"라고 말했다.

유가(儒家) 문예는 대체로 온유돈후(溫柔敦厚)와 화평(和平)의 가치를 우선시한다. 그런데 유가를 옹호했던 한유의 문학, 특히 시(詩)는 온유돈후와 화평의 극단적 대척점에 있는 기괴(奇怪)의 미감을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기언(記言)』 권5 「문학(文學)」에서, 허목은 유종원과 함께 한유를 "서한(西漢)의 말(末)을 계승한" 당(唐)의 문학가로 보아, 비록 옛 성현의 진정한 고문(古文)의 시대 후에 태어났긴 하지만 여전히 본받을 만한 전범(典範)의 한 명으로 인식했음을 드러냈다. 한유의 존재는, 허목의 상기(尙奇)가 상고(尙古) 및 유가적 가치와 반드시 배치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奇)의 문(文)으로서 『역(易)』이 갖는 중요성이다.

『주역(周易)』 혹은 『역경(易經)』은 유학의 중요 경전 중 하나이다. 경전으로서 『역』은, 천지(天地) 및 인사(人事)가 항상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갖고 있는 일정한 법칙을, 옛 성왕(聖王)이 괘상(卦象) 및 글로 표현하고 공자(孔子)가 부연하여 경전화한 것이기에, 『역』 그 자체가 천지 변화의 표상이 된다. 그리고 그 변화 안에서 인간이 어떤 사태에 맞닥뜨려 행동하고자 할 때 먼저 그것에 대해 파악하고자 점을 치며 활용하는 점서(占書)라는 의의도 갖는다. 이러한 『역』은 글로 구현된 책이기에 '문(文)'으로서, 즉 문장 혹은 문학으로서 갖는 의의도 크다. '고문'을 추구하는 후대 문인에게 성인의 경전은 가장 기본적인 문장 전범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으로서 『역』의 가장 특징적인 일면이 곧 '기(奇)'이다.

허목은 박길응(朴吉應)에게 문학(文學)을 논하며 보낸 편지[108]에서 경전들 각각의 문장 특성을, "『역경』의 '기(奇)'·『시경(詩經)』의 '아름다움[葩]'·『춘추(春秋)』의 '의(義)'·「우서(虞書)」와 「하서(夏書)」의 '광대하고 엄정함[皥皥罭罭]' 및 은반주고(殷盤周誥)의 '난삽함[佶屈敖牙]'"이라고 정리했다. 허목은 육경(六經)의 문장 특성에 대한 묘사를 종종 시도했는데[109], 이러한 시도의 원조는 한유의 「진학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110] 「진학해」에서도 『역경』 문장의 특성을 '기(奇)'라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견해는 한유의 문인인 황보식(皇甫湜)에게도 그대로 계승된다.

> 『서경(書經)』의 문장은 기(奇)하지 않고, 『역경(易經)』의 문장은 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둘이 어찌 이치에 방해되고 성인(聖人)의 저작임에 지장을 주겠습니까? "용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111]라던가, "돼지가 진흙을 진 것과 귀신이 한 수레에 가득 실려 있는 것을 본다"[112]나 "돌연히 닥

108) 『記言』 권5, '原集' '上篇', '文學', 「答朴德一論文學事書」, "竊復思之, 文章之作, 本非異道. 如此而求之, 如此而得之, 如此而發之, 故曰: '蘊之爲德行, 施之爲事業, 發之爲文章.' 如《易》之奇、《詩》之葩、《春秋》之義、虞·夏之《書》皥皥罭罭、殷《盤》·周《誥》之佶屈敖牙, 皆不出於聖人賢人之手乎?"

109) 대표적으로 위에서 소개한 『記言』 권58의 「自評」과 권5의 「文學」을 들 수 있다.

110) 韓愈, 「進學解」, "上規姚、姒渾渾無涯, 周《誥》、殷《盤》佶屈聱牙, 《春秋》謹嚴, 《左氏》浮誇, 《易》奇而法, 《詩》正而葩."

111) 곤(坤) 괘 상육(上六)의 효사(爻辭).

112) 규(睽) 괘 상구(上九)의 효사.

쳐 와 기세가 화염과 같아 불에 타 죽고 버림받는다"[113] 등등은 어떤 말입니까?[114]

이렇게 볼 때 허목의 '기(奇)' 추구의 전범은, 한유를 넘어 옛 성인의 경전인『역』으로 거슬러 오를 수 있으며, 상기(尙奇)와 상고(尙古)가『역』을 매개로 상충됨 없이 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허목의 '상기'에서『역』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문장 전범으로 기능하기 때문만은 아니다.『역』은 분명 성인의 글[文]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고 자연의 변화의 이치가 그대로 담겨 있는 글이다. 성인의 글 즉 육경(六經)은 곧 "천지(天地)의 문(文)"이다.[115] 기이한 서물(書物)의 독서와 기이한 문장의 창작은 그 의의가 문학 내에만 머문다. 그러나 그 기이함이 '천지의 문'의 속성 중 하나라면, 기이한 문(文)의 독서는 천지의 기(氣)의 기(奇)의 감수(感受)와 연결되게 되어, 그 문예적 의의는 비교할 수 없이 증대되게 된다.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기(奇)는 비상(非常)과 출중(出衆)의 의미를 갖는다. 자연의 비상과 출중에 대한 감수는, 무한대의 크기나 압도적 위력의 자연에서 느끼는 숭고의 감정과는 달라서, 변역무상(變易無常)의 이치에 비해 부차적인 중요성만을 지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천지자연의 전체적 이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일면임은 분명하다. 이에 기(奇)의 문(文)인『역』의 독서와 자연의 기경(奇景)에 대한 유람이 연결되어, 성인의 경전과 개인적 유람 체험이 기(奇)의 추구라는 하나의 문예 행위 안에 통합되게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개개의 문예 혹은 문학 사조를 배경으로 허목의 상기(尙奇)를 다루지 않고, 위와 같은 좀 더 넓은 맥락 하에서 허목 자신의 내적 동인에 집중하여 상기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奇)' 및 '괴(怪)'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 본 후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

113) 리(離) 괘 구사(九四) 효사.

114) 皇甫湜,『皇甫持正集』(電子版四庫全書) 권4, 「答李生第一書」, "《書》之文不奇, 《易》之文可爲奇矣, 豈礙理傷聖乎? 如'龍戰于野, 其血玄黃'、'見豕負塗, 載鬼一車'、'突如其來如, 焚如, 死如, 棄如', 此何等語也!"

115)『記言』권5「文學」.

상상을 통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 전복적・환상적 형상을 창조하여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때로는 섬뜩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미술・문학의 술어인 '그로테스크(grotesque)'[116]는 보통 '괴기(怪奇)' 및 '기괴(奇怪)'로 번역된다.[117] 근대 이후 '怪奇' 혹은 '奇怪'가 두 글자 단어로 한 데 묶여 주로 '그로테스크'의 번역어로서 통용되었던 사정을 떠나, 한자 문화권에서 '기(奇)'와 '괴(怪)'는 그 어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118] 문화적 함의는 약간 달랐다. '奇'가 '奇異' 즉 '상궤에서 벗어남', '특이함'으로 쓰여 문맥에 따라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쓰이면서 대체로 중립적 가치를 지닌 용어의 지위를 유지하며 일상적 용어로 쓰인 반면, '怪'는 공자(孔子)가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배척한 이래 주로 부정적 함의를 지닌 쪽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초자연적 외양 및 능력을 지니며 때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존재를 '怪物'로 부르는 예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유교적 교양을 지닌 문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중국 및 조선의 문예사에서 '奇' 및 '怪'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발견하기 힘든데, 다만 중국 중당(中唐) 시기에 그 희소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당대(唐代) 시단(詩壇)에 기이(奇異)함을 제재로 삼거나 특이하고 험벽(險僻)한 표현의 글을 즐겨 창작하며 등장한, 한유(韓愈)・맹교(孟郊)를 대표로 이하(李賀)・노동(盧仝)・가도(賈島) 등을 포괄하는 일군의 시인들을 '괴기시파

116) 영어・독일어・프랑스어 등 언어권에서 명사 및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그로테스크'란 어휘는 이탈리아어 '그로타(grotta, 동굴)'에서 유래한 '라 그로테스카(La grottesca)'와 '그로테스코(grottesco)'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15세기 말 이탈리아 곳곳에서 발굴된 고대의 장식미술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당시인들에게 이 양식은 동물과 식물을 합치는 등 현실의 여러 형상을 합쳐 비현실의 형상을 만들거나 또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창출하는 등 현실세계를 정확히 모사하지 않는 괴상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볼프강 카이저 지음, 이지혜 옮김, 아모르문디, 2011, pp.42~44, 50~57. 이후 그로테스크 개념은 장식미술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에서 벗어나 일반 미술 나아가 문학적 경향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었고, 또한 우스꽝스러움 등 부정적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던 초기의 함의에서 벗어나 섬뜩함을 자아내는 환상적 요소를 가리키기도 하는 등 여러 가치를 담게 되었다. 같은 책, pp.58~88.

117) 현대 중국어에서는 '丑怪(醜怪)'로 번역되는 일도 많다.

118) '기(奇)'의 원자(原字)에 대해서는 기(踦, 절름발이), 기(騎, 말을 탐), 기(剞, 剞劂, 새김칼) 등 여러 설이 있으나 어원이 어느 쪽이건 '異' 즉 '특이함', '보통이 아님'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說文解字』, "奇, 異也. 一曰不耦. 从大, 从可." '괴(怪)'는 '心+圣'의 형성자(形聲字)로서 역시 이상한 것을 가리켰다. 『說文解字』, "怪, 異也. 从心, 圣聲."

(怪奇詩派)'라 부르기도 하는데,[119] 황보식은 '奇'와 '怪'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 뜻이 새로우면 정상[常]과 다르게 되는데, 정상과 다르면 '괴(怪)'이다. 표현[詞]이 수준이 높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뛰어난 것인데, 뛰어나면 '기(奇)'이다.[120]

> '기(奇)'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름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곧 정상이 아닌 것이다. 정상이 아닌 것은 정상과 같지 않은 것이요, 정상과 같지 않음이 곧 정상적 수준보다 뛰어남이다. 바름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 정상적 경우보다 뛰어나니, 높이 여겨도 괜찮다.[121]

즉 '奇'와 '怪'는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非常], 일상적인 것과 다른 것[異於常]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奇'의 경우는 '출중(出衆)' 다시 말해 '뛰어남'이 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怪'와 다르다는 것이다. 황보식이 '奇'를 긍정적으로 정의한 것처럼 '怪'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논어』의 예처럼 전통적으로 '怪'가 부정적 함의를 지니며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것을 가리켰던 것을 감안한다면,[122] '奇'와 '怪'의 함의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추

---

119) 이들은 대표자의 이름을 따서 '한맹시파(韓孟詩派)'로 부르기도 하고, 창작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음(苦吟)시파', '험괴(險怪)시파'로 부르기도 한다. 姜剑云, 『审美的游离-论唐代怪奇诗派』, 東方出版社, 2002, pp.13~14.

120) 皇甫湜, 『皇甫持正集』(電子版四庫全書) 권4, 「答李生第一書」, "夫意新, 則異於常, 異於常, 則怪矣; 詞高, 則出于衆, 出於衆, 則奇矣."

121) 皇甫湜, 위의 책, 「答李生第二書」, "夫謂之奇, 則非正矣, 然亦無傷于正也. 謂之奇, 卽非常矣. 非常者, 謂不如常者; 謂不如常, 乃出常也. 無傷於正而出于常, 雖尙之, 亦可也."

122) '怪'는 '木怪', '水怪', '土怪' 등을 가리켰다. 『國語』「魯語下」, "木石之怪, 曰夔、魍魎; 水之怪, 曰龍、罔象; 土之怪, 曰羵羊." 이매망량(魑魅魍魎)은 사람을 해치는 괴귀(怪鬼)를 가리킨다. 『春秋左傳』, '宣公三年', "楚子伐陸渾之戎, 遂至于雒, 觀兵于周疆, 定王使王孫滿勞楚子. 楚子問鼎之大小輕重焉, 對曰: '在德, 不在鼎. 昔夏之方有德也, 遠方圖物, 貢金九牧, 鑄鼎象物. 百物而爲之備, 使民知神姦, 故民入川澤山林, 不逢不若, 螭魅罔兩, 莫能逢之, 用能協于上下, 以承天休. 桀有昏德, 鼎遷于商. 載祀六百, 商紂暴虐, 鼎遷于周. 德之休明, 雖小, 重也; 其姦回昏亂, 雖大, 輕也. 天祚明德, 有所底止. 成王定鼎于郟鄏, 卜世三十, 卜年七百, 天所命也. 周德雖衰, 天命未改, 鼎之輕重, 未可問也."

론할 수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奇'와 '怪'는 모두 '이상(異常)' 즉 '정상적인 것, 보통의 것과 다른 보기 드문[罕見] 것'을 의미하는데, '怪'가 '터무니없고 정도가 아니며[荒誕不經]' '요상하고 환상적[妖幻]'이어서 대개 추악하고 무섭거나 심지어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는 데 반해, '奇'는 '뛰어나고[出衆]' '비범하여' 대개 사람으로 하여금 놀랍고 신기한 느낌을 갖게 하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123]

'기(奇)'가 갖는 이러한 긍정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았듯이 홍길주가 허목의 문장을 "어리석고 '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속아서 미혹될[愚而好奇者 往往誑惑]"만한 것이라고 평하거나 송백옥이 『기언』을 가리켜 "'기'를 좋아하여 문장 또한 '기'하게 된 것[好奇而文亦奇]"라고 말한 데에서는, 대체로 폄하의 정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허목에게 가진 부정적 태도가 일정 정도 이들의 당색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허목이 '기(奇)'를 좋아했다", "허목의 문장이 '기'하다"는 평가가 반드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 것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문장뿐 아니라 그의 글씨 또한 '기이하다' 혹은 '신이(神異)하다'는 세평(世評)이 대세였다.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했던 그의 '고문(古文)' 서예 특히 <동해비(東海碑)>의 유명세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의 문예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인격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중앙의 고관까지 지낸 정통 유학자였던 허목에 대해 전해지고 있는 적지 않은 수의 민간 전설들은, 그가 평생에 걸쳐 산출한 '문(文)'의 '기(奇)'함이, 역시 평범하지 않았던 그의 관력 및 행적과 겹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허목의 문장 및 글씨에 대해 문인·학자들 그리고 세간의 평가가 내린 '기(奇)'라는 속성 규정은 그가 실제로 보인 경향과 합치하는 바가 많다. 허목의 '고문(古文)' 문예는 글짓기와 글씨 쓰기 두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이 장에서는 특히 허목의 글에서 나타나는 '기' 추구의 동인(動因) 및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3) 姜劍云, 위의 책, pp.15~17.

2. 천지(天地) 변역(變易)의 세계관과 기(奇)의 문(文)으로서의 『역(易)』에 대한 인식

이기(理氣)나 심성(心性)의 문제에 대해 많은 글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허목은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거나 체계적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으나마 남긴 몇 편의 글을 통해 천지(天地)의 운행 원리에 대해 그가 가졌던 생각의 대략은 짐작할 수 있다. 『기언(記言)』 원집(原集)의 첫 머리인 '학(學)' 편(篇)의 「천지변화(天地變化)」는 허목의 대표적인 천지 운행에 대한 이론적 언설이다. '천지변화'라는 제목은 세 글이 모두 '天地變化'라는 어구로 시작하기에 붙여진 것이지만, 천지 운행의 기화(氣化)의 양상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내용을 적절히 함축한 제목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만물(萬物)의 형성과 변천은 천지를 이루며 변화하는 일기(一氣)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간사 또한 마찬가지다.

> 천지가 변화하여 한 번 찼다가 한 번 비니, 만물의 형체는 기(氣)에서 생기며 또한 기는 모든 형체에 씌워져 있다. (…) 해와 달이 번갈아 빛을 비추고, 더위와 추위는 계절에 따라 운행되어 갔다가 다시 오는데, 만물이 이것으로 인해 죽고 나며, 이것으로 인해 성하고 쇠하며, 이것을 인해 유유자적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무궁하니, 인사(人事)의 선악과 세도(世道)의 승강(昇降)이 모두 하나의 기[一氣]이며 일기에 따라 변천하는 것이다.[124]

> 천지가 변화하니, 만물이 그에 의해 나서, 움직이고 지각하면서 서로 잘 감응하여, 동류(同類)끼리 아끼면서 생육한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양능(良能)을 가지며 날마다 써도 다함이 없다.[125]

> 천지가 변화하여 김을 불어넣기도 하고 들이쉬기도 하니, 만물은 그에 따르

124) 許穆, 『記言』 권1, '原集' '上篇' '學', 「天地變化」3, "天地變化, 一盈一虛, 形生於氣, 氣冒於形. 天無外【包萬物而無外.】, 地有方【生萬物而有方.】, 日月代明, 寒暑序行, 往而復來, 萬物以之而生死, 以之而盛衰, 以之而遊衍, 以之而無窮, 人事之淑慝、世道之汚隆, 一氣而遷耳."

125) 위의 책, 「天地變化」1, "天地變化, 萬物資生, 蠢動知覺, 藹然相感, 能愛類養生, 故生有良能, 日用而不已."

며, 두려움[怵惕]·측은히 여김[惻隱]·사랑과 바람[愛欲]이 거기에서 생겨난다. 여기에서 선악이 나뉘고 만사(萬事)가 나와, 어지러이 뒤섞여 만 갈래로 가지런하지 않으니, 이것이 살아있는 만물의 실정이다.126)

천지(天地, 하늘과 땅), 즉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주는 항상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 즉 변화가 근본을 둔 원리는 물론 이(理)지만127), 변하고 또 변하는 것 그 자체는 기(氣)이며, 기는 형태를 갖춘 모든 것 즉 만물(萬物)의 생육과 지각이 바탕으로 삼고 있는[資] 것이다. 만물에는 당연히 사람도 포함되기에, 만물 즉 모든 존재의 사상(事象) 즉 만사(萬事)에는 당연히 인사(人事)도 포함된다. 그러니 만사의 운용과 작용의 바탕 또한 기(氣)라면 인사의 바탕 또한 기가 될 터이다.

이렇게 천지 만물로부터 인사의 선악까지 모두 전체로서 하나인 기(氣)로 분리 불가능하도록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람의 대표자인 성인(聖人)이다. 왜냐하면 성인은 욕심 없고 사심 없이 지극히 정성스러워[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변하고 또 변하는 천지 만물에 참여하여 그 본성을 다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신명에 통하고 조화를 아는, 지성(至誠)의 도를 체득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는 일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주는 일이 없고, 성인(聖人)은 사사로이 인(仁)을 베푸는 일이 없다. 오직 지극히 성(誠)해야 사사로움이 없고, 사사로움이 없으면 도(道)가 저절로 생겨난다. 오직 욕심이 없어야 사사로움이 없으니, 성인은 욕심이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128)

---

126) 위의 책, 「天地變化」2, “天地變化, 吹煦闔歙, 品物從之, 怵惕惻隱愛欲形焉. 於是善惡分而萬事出矣, 紛綸參錯, 有萬不齊, 生物之情也.”

127) 위의 책, 「心之知覺」, “理與氣, 非爲二本. 形生於氣, 氣本於理. 理者氣之性, 氣者理之才, 才出於性, 理行於氣.”

128) 『記言』 권58, ‘散稿續集’, ‘學’, 「汗簡文」 ‘上篇’, “天爲萬物之祖, 聖人萬國之宗.天無私覆, 地無私載, 聖人無私仁. 惟至誠無私, 無私則道自生. 惟無欲, 惟無私, 聖人無欲, 故聖人無可無不可.”

천도(天道)는 쉬지 않고 그치지 않아, 한 번 가고 한 번 오며 끝없이 순환하여 화육(化育)을 행한다. 천지는 만물을 생생(生生)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성인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는다.[129]

천도가 변화하여, 사계절이 교차하여 운행하고, 해와 달이 번갈아 밝고, 귀신이 드러난다. 변역(變易)하여 일정하지 않으니, 천도가 만물을 생생(生生)함을 헤아릴 수 없다. 오직 성인만이 본성을 다하여, 천지에 참여, 삼재(三才)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본성을 다하고 사물의 본성도 다할 수 있으니, 신명에 통하고 조화를 알아 천하의 대경(大經)을 경륜한다. 이것이 지성(至誠)의 도이다. 성(誠)이란 천도이니, 정성스럽지 않으면 사물이 없게 된다. 성이란 인위(人爲)를 두지 않음이니, 무위(無爲)의 극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130]

생생(生生) 변역(變易)하는 천도(天道)를 가능케 하는 천명(天命) 즉 이(理)인 본성[性]을 남김없이 체화·구현할 수 있는 성인(聖人)은 천지의 조화·변화를 아는 존재이며, 그가 오래전에 그것을 언어화하여 서적으로 남긴 것이 경(經)이다. 때문에 성인을 배우고자 한 후대의 유자들이 그리고 허목이 경전을 평생 독서하여 궁구한 것이다. 이 경전에 대해 허목이 나름의 요약을 하여 국왕에게 진상한 글이 「경설(經說)」이다. 「경설」은 『시(詩)』·『서(書)』·『예(禮)』·『역(易)』·『춘추(春秋)』 오경(五經)과 홍범(洪範)·악(樂)·형(刑)·정(政)·시령(時令)·귀신(鬼神) 6개 하위 주제를 11개 설(說)에 걸쳐 서술하고 있는데, 그 첫머리가 「역설(易說)」이고 두 번째가 「춘추설(春秋說)」이다.

왜 '역경(易經)'이 중요한가? 허목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역(易)'이란 때에 따라 변역(變易)하면서 도(道)를 따르는 것으로서, 천리(天理)와 인사(人事)가 여기에 들어 있다. (…) 그 지극히 미묘한 것이 체(體)요, 지극히 드러난 것이 용(用)이다. 드러난 것으로 말하자면, 만사(萬事)와 만물(萬物)이 변역하여 일정하지 않아, 시작과 끝에서 길흉으로 나타나니, 이것이 그 용이다. 미묘한 것으로 말하자면, 형체도 없고 조짐도 없으며, 온갖 변화

129) 위의 책, 「汗簡文」 '中篇', "天道不息不已, 一往一來, 循環不窮, 以行化育. 天地以生物爲心, 聖人以利物爲心. 品物咸亨, 各正性命. 非至德至道, 不凝焉."

130) 위의 책, 「汗簡文」 '下篇', "天道變化, 四時錯行, 日月代明, 鬼神著矣. 變易無常, 其生物不測, 惟聖人能盡之矣, 聖人能與天地參者也. 能盡性盡物, 通神知化, 經綸天下之大經, 至誠之道也. 誠者天道也, 不誠無物. 誠無爲, 無爲之極, 論說不能及至矣."

보다 선행하지만 시작을 두지 않고, 온갖 변화의 뒤에 있으면서도 끝을 두지 않아, 쉬지도 그치지도 않으니, 이것이 그 체요, 태극의 근본이다.131)

'역'이란 그 글자 그대로, 쉬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으며 바뀌고 또 바뀌는 천지 만물의 근본적 속성, 그것을 그대로 문자화・경전화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것의 쓰임은 괘상(卦象)을 사용하는 점서(占書)이지만, 그 본질은 천지 즉 자연의 본성을 다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인이 그 속성을 남김없이 다 드러낸 책이기에, 자연 현상의 인지를 위해 제1차적이며 필수불가결한 텍스트북이 된다.

변화 원리의 집약체가 『역』이라면, 『춘추(春秋)』는 현현(顯現)한 물상(物象) 그리고 역사로 전개되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인사(人事)가 부연 서술된 기록이다.

주(周)나라의 덕이 쇠하여 왕도(王道)가 손상되자 제후들이 멋대로 설쳐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니, 이에 공자(孔子)가 『춘추』를 지었다. (…) 공자는 왕자(王者)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으나, 요・순・문・무・주공의 도(道)를 전했으니, 그 대경(大經)과 대법(大法)이 『춘추』에 실려 있다. 『춘추』는 수만 글자로 이루어졌고 가리키는 사건은 수천 가지이니, 만물의 흩어지고 모임이 여기에 실려 있다.132)

『춘추』가 중요한 이유는 황금시대인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마지막 시기인 주나라의 이상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곧바로 뒤이은 타락의 시대를 살았던 공자에 의해 서술된 현실 세계의 변역(變易)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이다. 『역』에 천지(天地) 변역의 원리가 서술되어 있다면, 『춘추』에는 인사 변역의 변칙과 그에 따른 상도(常道)의 어그러짐이

131) 『記言』 권31, '內篇' 「經說」, 「易說一」, '易統', "易者, 隨時變易, 以從道者也, 天理人事在焉. 其時用之大, 一卦一時六十四, 一爻一時三百八十四, 而至四千九十六, 時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其至微者體也, 其至顯者用也. 自其顯者而言之, 萬事萬物, 變易無常, 吉凶終始, 其用也; 自其微者而言之, 無形無朕, 先萬化而無始, 後萬化而無終, 不息不已, 其體也, 太極之本也."

132) 위의 책, 「春秋說二」, "周德衰, 王道缺, 諸侯縱恣, 天下大亂, 於是孔子作《春秋》. 孔子曰: '《春秋》, 天子之事也. 知我者, 其唯《春秋》乎; 罪我者, 其唯《春秋》乎!' 孔子不得位, 傳堯、舜、文、武、周公之道, 其大經大法, 載於《春秋》. 《春秋》文成數萬, 其指數千, 萬物之散聚載焉."

자세하다. 『춘추』는 이상적 상태라면 천지인(天地人) 삼재 중 하나의 인(人)의 대표자로서 천도(天道)와 천명(天命)을 체화한 옛 성인처럼, 인주(人主)가 되어 바른 정치를 펴서 천명에 부합해야 할 군왕 및 제후들이, 인의(仁義)의 도를 잃고 패악을 행한 사적(事蹟)의 기록이다.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의 기(氣)로서 그 변역을 함께하기 때문에, 인사(人事)의 어그러짐은 곧 천기(天氣)와 천상(天象)의 재이(災異)로 드러나게 된다. 허목이 『춘추』에서 특별히 주목한 것도 이 지점으로서, 이를 따로 정리하여 『춘추재이(春秋災異)』[133]라는 독립된 저작을 저술하기까지 하였다. 『춘추재이』에 부친 발문(跋文)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사람의 도리를 닦지 않으면,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함이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분명하다. 군주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 만물로 하여금 제자리를 얻도록 하는 이니, 신명과 사람의 감응이 합치함은 군주의 덕에 달려 있다. (…) 예가 어그러지면 질서가 파괴되고, 악이 음란해지면 윗사람을 범하며, 정치가 어지러워지면 나가가 망하고, 형벌이 법도를 잃으면 백성이 흩어진다. 국가의 치란(治亂)과 흥망이 이 네 가지에 달렸다. 사해(四海)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천명(天命)의 상도(常道)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것이 재이와 요얼(妖孼)로 드러나 볼 수 있게 되니, 이것은 하늘이 보여 주는 뚜렷한 경고이다.[134]

---

133) 원래 독립 저작이었던 '춘추재이'는 『기언』 권62 속집 「서술(敍述)」5에 수록되었다. 「춘추재이」는 서(序)와 발(跋)을 갖추었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나열식으로 구성된 『기언』 하편의 「요상」과 달리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어서,(「요상」은 1664년 혹은 1665년에 저술되었음)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해 두었던 '재이'를 말년을 맞아 총정리한 저작이라고 판단된다. 「춘추재이서(春秋災異序)」에 따르면 "上之七年孟秋上旬處暑前日庚申"에 서문을 지었다고 되어 있다. 이 7년은 숙종7년인 1681년으로 보인다. '한국고전종합DB'의 '국역'에는 "현종7년 1666년"으로 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 등의 관련 기록을 참조해보면 1666년 7월에는 경신일이 없고, 1681년 7월 10일 신유일이 처서이며 9일이 경신일이다. 따라서 이때 의 '上'은 숙종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서술'이 속한 '속집(續集)'은 1674년 이후의 저작을 모은 것임을 감안할 때, 이 '上之七年'이 1666년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허목 「춘추재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저술시기를 1666년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춘추재이』에 대해선 다음 연구를 참조. 이욱, 「許穆의 災異觀 - 그의 祭儀的 對應을 中心으로 -」, 『종교학연구』 14, 1995,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pp.153~168 ; 이동린, 「許穆의 春秋災異論에 나타난 '漢學的' 경향」, 『한국사론』 4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3, pp.127~178.

134) 『記言』 권62, '續集' '敍述五', 「春秋災異跋」, "天之與人, 一也. 有人道不修, 而天人相感, 其顯如影響. 人君代天理物, 使萬物得所, 神人合應, 在君德. 禮以序之, 樂以和之, 政以齊之, 刑以一之; 禮忒則乖, 樂淫則犯, 政亂則亡, 刑失則散, 有國之治亂興亡, 係此

허목이 비정상적 천문 현상이나 이상 기후 등의 천재지변 즉 '재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허목이 살았던 당대의 시대적 배경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135] 그러나 설령 자연재해가 혹심했던 시대 배경이 없더라도, 천인합일(天人合一)적 세계관 하에서 군주는 항상 하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군주를 보필하는 사대부인 유가 지식인은 군주의 질의와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 이론적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에, 재이에 대한 문헌적 연구는 당연한 의무가 된다. 다만 수기(修己)와 내성(內省)의 경향이 강했던 당대 조선의 학문적 풍토를 고려할 때, 허목과 같이 독립된 저작을 지을 정도로 재이 연구를 진행했던 경우는 흔치 않다. 그리고 그런 연구를 가능케 한 지적 배경으로서 단연 천지 만물의 끊임없는 변역의 기반으로서 일기(一氣)의 유행(流行)을 들어 천인합일을 강조한 그의 세계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천(天)의 이상(異常)은 정치에 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대부의 입장에서 항상 주시하고 또 문헌을 통해 전례(前例)를 연구해야 할 천지변화의 일면이다. 한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유교적 교양인으로서 인지·관찰하고 향유·연구해야 할 천지변화의 또 다른 일면을 꼽자면 산수(山水)의 빼어난 풍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풍광은 대체로 여행·유람을 통해 향수되는데, 이는 일상 속의 특기할 만한 비일상이 되므로 대체로 기록으로 잘 남아있는 편이다. 허목의 『기언』에도 여행과 산수 유람의 기록, 즉 유기(遊記)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허목은 일부 기록에서 유람과 『주역(周易)』을 연관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 용주공(龍洲公)이 연천(漣川)으로 편지를 보내 와 산수 유람의 약속을 했다. 나는 일 없이 지내다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뻐하며, 손령(蓀嶺)으로 가서 공을 따라 백운산의 경치를 구경했다. (…) 용주공이 『춘추정의(春秋正義)』와 『주역』 64괘의 「효상(爻象)」과 「괘서(卦序)」를 들고 왔는데, 이것은 우리 유도(儒道)의 대종(大宗)이다. (…) 정미(精微)한 말씀과 지극한 의론을 들을 수 있었는데, 모두 사람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것이었다.[136]

四者. 四海之不保, 天命之靡常, 可見者, 如災異妖孼, 天之示警顯矣."

135) 이욱, 앞의 논문(「許穆의 災異觀 - 그의 祭儀的 對應을 中心으로 -」), pp.154~159.

136) 『記言』 別集 권9, '記', 「白雲山水記」【戊申】, "龍洲公寄書漣上, 爲山水之約. 僕無事得書喜甚, 至蓀嶺, 從公遊觀於白雲水石. (…) 公手持魯《春秋正義》、《易·六十四

8월에 낙산사(洛山寺)를 구경하며 경숙(京叔)[137]과 『주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138]

용주 조경(趙絅)은 허목과 매우 가깝게 지냈던 지기(知己)였고, 백운산은 경기 지역[畿內]을 대표하는 명산일 뿐만 아니라 허목이 은거하던 연천으로부터 멀지 않아 그가 매우 애호하던 곳이었다. 풍광 좋은 곳에서 좋아하는 이와 함께 담론을 나누는 대상인 『주역』은, 단순한 기호의 대상이 되기엔 지나치게 의미심장한 경전이다. 천지 변화 전체의 원리와 삼라만상의 효상(爻象)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들은 단지 『주역』을 논했다는 언급만 하고 있어서, 허목이 왜 굳이 특정 경물의 완상에 『주역』을 동원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 동인은 다음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

웅연(熊淵)은 장경대(長景臺) 아래로 15리인 연천 서쪽 지역에 있다. 내가 전쟁을 만나 남쪽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석문(石文)이 출현한 지 이미 몇 년 지난 후였다. 가서 보니, 푸른 돌에 검은 글씨가 형언할 수 없이 매우 괴(怪)하고 기(奇)하였다. 영숙(永叔) 권수(權脩)는, "돌이 처음 생길 때 석문이 함께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기화(氣化)가 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옳다. 이어서 점을 쳐 효(爻)를 얻어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순종하여 상하가 응한 것이다.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을 흉하게 할 것이다. 혼암(昏暗, 어리석음)하여 스스로를 덮어 가리면 사람이 없어서 만나지 못할 것이다."[139]

연천 임진강 강변 석벽(石壁)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돌의 무늬인 '웅연석문'은 허목이 즐겨 찾았으며 여러 유기(遊記)를 남기도 한 경물(景物)

卦爻象・卦序》, 此吾道之大宗. 公行年八十有三, 能博覽强識, 精力不老, 僕少於公九年, 而倦怠甚矣. 得聞微言至論, 皆警人敎人者也. 識之. 上之九年中秋十五日, 眉叟書."

137) 당시 양양부사(襄陽府使, 재임 1660 6월~1664년 1월)였던 강호(姜鎬)의 자(字).

138) 『記言』 권24, '原集' '中篇' '記行', 「壬寅正月記行」, "八月觀洛山寺, 與京叔談《易》."

139) 『記言』 別集 권9, '記', 「熊淵石文記)」, "熊淵, 在長景下十五里連西之地. 吾自亂後南歸, 石文已出數年, 往觀之, 石靑字黑, 怪怪奇奇, 不可名狀. 權永叔曰: '石文與石俱生, 不可知, 或氣化成之.' 其言得矣. 從而筮之曰: '順從而上下應也. 非正, 凶其家. 暗而自蔀, 無人不覿.'"

이다. 그가 이곳을 중요하게 여긴 까닭은 기화(氣化)로 이루어진 '문(文)'이기 때문이다. 석문은 '기화'의 감응을 통해 귀신(鬼神)[140]이 빚어낸 것이며,[141] 천지(天地)의 문이 드러난 것[142]이다. 그렇기에 그 '괴괴기기(怪怪奇奇)'함은 천지변화의 특이한 출현으로서 '괴기'한 것이며, 그저 신기하기만 한 비정상적 물상(物象)이 아닌 것이다. 한 효(爻) 한 괘(卦)가 64괘 384효의 일부로서 어느 하나 의미심장하고 중요하지 않은 괘와 효가 없듯이, 어느 빼어난 일물(一物) 일경(一景)의 기이함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만큼 기이한 천지변화의 일면을 표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석문'의 기이함을 마주한 허목이 『주역』의 효사(爻辭) 하나를 거기에 대응시킨 것은,[143] 경물을 마주하여 도덕적 감계를 떠올림도 아니고, 자신의 처지를 그것에 우의(寓意)함도 아닌, 천지변화의 실정(實情)의 일면을 마주하여 천지변화에 대한 성인(聖人)의 언어를 떠올린 것으로서, 그로서는 매우 자연스런 행동이었다.

허목이 『주역』의 속성을 '기(奇)'로 들기도 한 것을 보면,[144] 어떤 '기

---

140) 이때의 '귀신'은 사람에게 해를 주는 요얼(妖孼)의 귀신과는 거리가 멀고, 천지(天地)의 기(氣)의 작용으로서의 귀신을 가리킨다.

141) 위의 책, 「石文記」, "石文, 類龍蛇草木形, 變化怪詭, 不可名狀. 石靑字黑, 苔蘚不沒. 前有一邑宰剝斲之, 剝得數字而去, 石剝深二寸, 石文二寸, 此鬼神之文也, 最古不可知. 古渡林樾岸, 有文在石, 人之居且百年, 然後其文始出, 文本與石俱生耶, 抑氣化之感, 鬼神成之耶. 石鹿老人記."

142) 『記言』 別集 권10, '跋', 「題熊淵石文後」, "秦興, 古文廢而隸書作, 隸書者, 徒隸之書. 又隸書變而草書大傳, 楷、草皆非聖人作之, 草書又不列於王者同文, 古書載籍不言, 然吾乃今得此, 然後知草、隸亦出於天地之文, 而其見於石文如此云."

143) 허목이 여기서 얻은 점괘·점사(占辭)와 그것에 대한 그의 해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그가 얻은 효는 『易』 풍괘(豊卦) 상륙(上六)인 것으로 짐작된다. 풍괘의 괘사는 "풍은 형통하니, 왕자(王者)만이 이를 수 있다. 근심하지 않으려면, 해가 중천에서 비추듯이 해야 한다.[豊, 亨, 王假之, 勿憂, 宜日中.]"이며, 단사(彖辭)는 "풍은 큼이니, 밝고 동(動)한다. 그러므로 풍성한 것이니, '王假之'는 숭상함이 큰 것이요, '勿憂宜日中'은 천하에 비춤이 마땅함이다. 해는 중천에 있으면 기울고, 달은 차면 이우니, 천지의 盈虛도 때에 따라 消息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하물며 귀신이겠는가?[彖曰: 豊, 大也. 明以動, 故豊. '王假之', 尙大也; '勿憂宜日中', 宜照天下也. 日中則昃, 月盈則食, 天地盈虛, 與時消息,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이다. 풍괘 상륙의 효사는 "상륙은 지붕을 풍성하게 지어 집을 가려버린 것이다. 그 문을 엿보니 조용하여 사람이 없어 3년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한다. 흉하다.[上六, 豊其屋, 蔀其家. 闚其戶, 闃其无人, 三歲不覿, 凶.]"이다. 아마도 허목의 해석은 석문의 '출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豊卦의 上六은 得時하지도 當位하지도 못해 昏暗하여 스스로를 가려 남을 끊어 '조용하여 사람이 없고 남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인데, '석문'은 이와 달리 자신을 잘 드러냈다는 것이다.

144) 『記言』 권5, '原集' '上篇', '文學', 「答朴德一論文學事書」.

이한' 사물 혹은 경물을 보고『주역』으로 언어화된 천지변화의 기이함을 연상한 그의 행위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리고 실제 자연의 대체물인 정원의 가산(假山)에서까지 자연의 변화와 '기(奇)'를 떠올린 면모를 볼 때,[145] 실제 자연의 기이함을 목도할 수 있는 유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나아가 이를 활발하게 기록으로 남긴 행적의 내적 동인 또한 충분히 이해된다. 그의 유랑과 유람은 일면 신산했던 초중년 생애의 반영이기도 했지만, 다른 일면 일기(一氣)가 관통하는 천지 변화의 세계관 내에서 그 변화의 구체적 면모를 생생하게 감수(感受)하고자 했던 지적 태도의 자연스런 발로이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그 구체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산수 유람을 통한 기(奇)의 체험

허목의 산수 유람은 당대(當代) 문인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적극성을 띤 것이었다.[146] 이에 따라 그의 전국에 걸친 활발한 유람 활동은 조선 후기 산수유람 성행의 서막을 여는 선구의 가치를 지니게 되니, 그 문예사적 의의 또한 중차대한 것이 되게 된다.

---

145)『記言』別集 권9, '記',「石假山記」,"穆遊南海上, 過浪州, 省叔舅閑閑翁於西湖之藏六窩. 見庭中石峯數重, 其高可仰. 蒼然峽屼, 磈礧相支, 間植佳木異卉. 其間常有積氣濃陰, 若霞霧駮鬱。, 然若深山之中, 神氣變化以發生育, 穆甚奇之. 蓋翁好奇, 嘗於山海間, 多得奇怪異石, 列之庭除, 層高累奇, 積之及仞而成之. 從下而上, 皆峭壁層巖, 石氣成潤, 其谷常陰, 其植常茂, 其亦得山之性也. 雖泰山之崔崒, 亦不過一拳石之多, 則特其所積大小殊耳, 其體一也, 不必躡層崚慕幽夐, 而其樂在此."

146) 이경순은 조선 후기 士族들이 남긴 산수 유람기의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산수 유람 문화가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를 통시적으로 연구했는데, 17세기 후반 이후 유람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이전, 17세기 전·중반에 활동한 대표적 유람가 중 한 명이었던 허목의 유람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히 이 시기의 산림으로서 유람가의 면모를 보이는 것은 허목이다. 허목은 1617년에서 1670년대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전국의 명산을 유람하고 33편에 이르는 다수의 기록을 남겼다. 물론 전대에도 전국을 유람했다는 명성을 얻은 이들은 더러 있었지만 구체적 기록을 남긴 인물은 金時習, 柳夢寅, 梁大撲 정도였다. 즉 허목은 17세기 이후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명산을 유람하고 다수의 기문을 남긴 최초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경순,「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間 인식」, 2013,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47.

허목의 산수 유람에 대한 적극적 긍정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넓은 공간의 편력(遍歷), 즉 우리가 사는 세계 전반을 두루 둘러보는 행위에 대한 긍정이다. 천지 변화의 전모는 물론 『역』에도 드러나 있다. 그러나 역경(易經)이 아무리 성인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적(典籍)에 수록된 문자일 뿐이며, 변화의 실제 세계에 대한 경험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허목의 일생에 걸친 전국 명승 편력은 이를 몸소 실증해낸 행적이었다. 이는 개인적 실천에만 그치지 않고 타인의 행위에 대한 상찬으로까지 이어졌다.

> 저는 평생 병이 많아 다른 일은 하지 않고 50년 동안 독서만 했을 뿐인데, 이제는 노쇠하여 그만둔 지 오래입니다만, 천지의 광대함과 고금의 자취, 만물의 무궁함을 내심 전적을 통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중년에 산택(山澤)을 유람하며 태백산(太白山)에 올라 해 뜨는 동해를 보고, 전국을 다 돌고 마침내 남쪽 끝까지 이른 뒤에야, '예전에 말했던 천지의 광대함, 고금의 자취, 만물의 무궁함은 책만 읽어서는 얻을 수 없도다'라고 개연히 길게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왕손(王孫)께서는 사방을 두루 구경하여, 국경을 넘어 4,000리를 가서, 현도(玄菟)와 부선(扶仙)을 지나 갈석산(碣石山)과 유연(幽燕)의 옛터로 들어가 고국(古國)의 유풍(遺風)을 물으셨으며, 다시 삼한(三韓)의 밖으로 나가서는 삼신동(三神洞)을 유람하고 14,000길이나 되는 천왕봉(天王峰) 정상에 오르셨으니, 천하의 장관을 빠짐없이 구경했다고 할 만합니다.147)

낭선군(朗善君) 이우(李俁)는 허목과 가깝게 지내며 교류를 나눈 종실(宗室)로서 문예 전반에 관심이 많았지만 특히 서예를 깊이 천착하여, 『대동금석첩(大東金石帖)』이나 『열성어필첩(列聖御筆帖)』 등 서예 자료집을 편찬하는 등 조선 후기 서예 문화 진작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 사행(使行)을 통해 얻은 <형산신우비(衡山神禹碑)> 등 여러 서

147) 『記言』 別集 권7, '書牘三', 「答朗善君俁」, "穆平生多病, 無他事, 讀書五十年, 今已衰廢久矣. 凡天地之大、古今之故、萬物之無窮, 心以爲載籍可盡也. 中年從山澤之遊, 躡太白瞰日域, 歷九域之墟, 以窮維火之極南, 然後慨然長歎, 向所謂天地之大、古今之故、萬物之無窮, 不可以徒讀得之也. 今王孫博觀四方, 穿塞四千里, 歷玄菟、扶仙, 入碣石、幽・燕之墟, 問古國遺風, 又出三韓之外, 遊三神洞, 登天王絶頂一萬四千丈, 天下之壯遊, 可謂極矣."

예 자료를 허목에게 소개하기도 했고, 또 허목과 고전(古篆)에 대해 깊은 토론을 나누는 등, 서예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서예 분야에서 허목과 신분을 뛰어넘는 동지적 관계를 맺었다. 허목의 전국 편력은 개인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으며, 낭선군의 천하 편력은 왕실의 부와 사행의 특권에 기인한 것이었기에, 이들이 향유한 편력의 공간적 크기는 결코 당대의 일반적 양상이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낭선군의 유람은 상당한 정도의 편력을 과시했던 허목조차도 비교불가능한 범위를 지닌 것이었다. 낭선군의 광대한 유람은, 천지 변화의 감응과 경물 유람의 체험을 연결시킨 허목에 의해 상찬됨으로써, 왕족의 사치스런 향락이 아닌 거대한 가치를 지닌 문예적 체험으로 격상될 수 있는 이론적 계기를 얻게 되었다.

허목의 산수 유람 긍정은 특정 공간의 기관(奇觀)을 자세히 서술하는 방향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이는 전국을 돌아다닌 개인적 이력과 지리 및 풍토(風土)에 박물지(博物誌)적 관심을 보였던 학문적 성향과 맞물려 그 빈도와 정도에서 당대의 일반적 양상을 뛰어넘는 특수성을 확보하게 된다.

> 초봄에 생계를 꾸리느라 진주(晉州)의 바닷가로 이사를 갔는데, 바닷가라 거센 바람과 괴이한 기운이 많아 하루 안에도 날씨가 어둡고 흐려지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결(痞結)과 적취(積聚)의 질병이 많습니다. 해산물과 특산물 중 기괴(奇怪)한 것을 많이 만나는데, 그 성질을 모르고 남들을 따라 날마다 먹다 보면, 구토와 설사가 크게 일어났다가 며칠 만에야 낫곤 합니다. 겨울에도 눈이 쌓이거나 단단한 얼음을 볼 수 없고, 수초는 봄처럼 파랗고 벌레들도 숨지 않습니다. 이곳의 풍속은 음사(淫祀)와 저주를 숭상하여 밤낮으로 요망한 무당들이 불을 들고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멀리 남쪽 지방으로 와 유람하며 보았던 괴이한 광경입니다. 진주에서는 겨우 몇 개월 머물고 창원(昌原) 감계(甘界)로 왔는데, 바닷가의 풍기(風氣)와 풍속은 대체로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남해가 진귀하고 괴이함이 많고 풍요롭지만 동쪽 지방의 맑고 상쾌함만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148]

148) 『記言』 권21, '原集' '中篇', '羈旅', 「答從兄書」, "春初, 從生理, 移去晉州海上. 海上

종형(從兄)인 허후(許厚)에게 보낸 편지의 한 단락이다. 여기에서는 의령(宜寧), 진주, 창원 등 남쪽 지방으로 와서 수년 간 보냈던 경험을 토대로 남쪽 풍토를 서술하고 있는데, 개개 경물의 세부 묘사보다는 자세한 관찰을 바탕으로 전체적 개괄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괄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어로는 '기(奇)', '이(異)', '괴(怪)'를 꼽을 수 있다. 남해의 변화무쌍한 진귀함과 괴이함에 대한 평가는 일견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어지는 편지에서 이는 긍정으로 전환된다.

> 전쟁 중에 관동 지방을 몇 달 동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 동해의 뛰어난 경치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번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상쾌해지고, 남들과 유람의 즐거움을 논할 때에도 이 지역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9월에 사천(泗川)에 갔다가 몇몇 유생들과 바다로 가서 <남해대전비(南海大戰碑)>를 들렀다가 홍문(虹門)과 구정봉(九井峰)을 구경했습니다. 더운 지역이라 바다 날씨가 항상 따뜻하여, 기이하고 아름다운 초목이 많습니다. 바다가 개면 제주와 일본도 바라볼 수 있고, 그 너머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 난리를 겪고 남쪽 지방을 떠돌아다닌 지 10년 만에 대황(大荒, 가장 먼 지역)까지 다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평소 옛글을 읽는 것을 즐겨 이대로 일생을 마쳐도 족하다고 생각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와본 후에야 비로소 천지의 광대함과 조화의 무궁함이란 글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149]

여기에서도 위의 전국 및 천하 편력과 마찬가지로 천지 변화의 무궁함을 직접 경험함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여행과 유람에 대한 긍정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그 긍정의 양상은 약간 다른데, 편력의 경

多盲風怪氣, 一日之間, 昏陰異變, 其疾多痞結積聚. 雖有海錯異産, 多逢奇怪, 不知其性, 從人日食, 嘔泄大作, 數日乃安. 冬寒, 不見積雪堅氷, 水草如春, 蟄蟲不俯. 其俗尙淫祀咀呪, 日夕妖巫握火, 呵叱鬼魅. 此皆南遊遐遠怪觀. 纔留數月, 遂來甘界, 海隅風氣習尙, 蓋大相同而小異, 然後乃知南海之多珍怪富饒, 不如東境之淸爽."

149) 위의 책, 「又一書(答從兄書)」, "嘗於亂中, 羈旅東界外數月. 涉冬徂春, 行歷五六百里, 獨不及太白之外. 蓋大嶺之東, 竝群峯積雪, 望日月之出. 東海皆沙海, 海上皆沙. 往往有深松大澤奇巖, 其名區絶勝, 至今十年之後, 每想東海之觀, 懷抱爽然, 對人論遊觀之樂, 又未嘗不亹亹在此. 九月, 嘗到泗川, 與數儒生相從入海, 過南海大戰碑, 觀虹門、九井. 炎方海氣常煖, 多草木怪麗之奇. 海晴, 則耽羅、日本皆可望, 而又其外無窮. 自逢多亂, 流離極南近十年, 以窮大荒, 平生樂讀古書, 自以爲終此足矣, 及至此, 然後乃知天地之大、造化之無窮, 不可以徒讀得之也."

우에는 유람 공간의 거대한 크기 자체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거대한 천지 변화 체험으로 그대로 치환되는 반면, 특정 지역의 '기(奇)'의 체험은 천지 변화의 전체상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의 빼놓을 수 없는 일국(一局)의 감수(感受)의 한 단계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특정 지방의 기이함이 설혹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그것을 느껴 감상한 경험 자체는 부정적일 수 없다.

천지 변화에 대한 글[文]인 『주역』도 '기(奇)'하며, 천지 변화가 돌과 함께 나타난 일개 경물인 '석문'도 '괴괴기기(怪怪奇奇)'하고, 남쪽 바닷가의 산물과 경물도 기이하다. '기'란 상리(常理)가 아닌 이상(異常)이기 때문에 물론 천지 변화의 한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한 국면 또한 일기(一氣)의 일부이기에 천지 변화의 전체상의 완전한 인식을 위해 불가결한 한 조각이 된다. 그리고 그 '기'의 인지는 유람이라는 직접 경험을 통해 온전히 완성된다. 허목의 유람은 개인의 특이한 행적이면서 동시에 조선 후기 문예사의 경향을 여는 한 계기를 이루었는데, 그 계기의 의의를 온전히 파악하려면 천지 변화 전체와 그 한 국면으로서 기(奇)한 경물이 갖는 중요성의 양 측면에 대해 허목이 가졌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허목 기(奇) 문학의 양상 - <백제서망해요(百濟西望海謠)> 분석을 중심으로

허목의 '기'와 '괴' 추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람이라는 직접 경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경험의 밑바탕에는 천지 변화가 서술된 '역(易)'이라는 성인의 '문(文)'의 '기(奇)'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허목의 '기' 추구는 자신만의 '기'한 문의 창작으로 나아갔다. 허목의 문, 즉 글과 글씨가 '기'하다는 당대(當代)의 세평 및 후대의 평가는 대개 막연한 인상에 근거한 비평이었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허목이 창작한 '문'의 '기'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를 살펴봄으로써, 허목 '기(奇)' 미감의 전모 파악을 완성하려 한다.

산수 유기(遊記) 등에 나타난 '기'의 서술은 대체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이함을 강조하였다고 해도 황탄(荒誕)함 즉 황당하고 거짓됨으로까지 흐르지는 않아서 그 특이함과 비일상성 즉 (현대적 의미의) '기괴(奇怪, grotesque)'함을 느낄 여지는 별로 없다. 그러나 허목은 직접 경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상상적 괴물이 등장하는 글의 창작을 통해, '기'의 영역을 극도로 확장시켰다. 이는 매우 이례적 현상이었다. 때문에 당대인들이 받았던 인상은 주로 여기에 기인하며, 허목 '기'의 주된 문예적 의의도 여기에 있다.

괴물과 진귀한 사물의 등장하는 허목의 글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란 글씨의 밑글이 되는 <동해송(東海頌)>이다. <동해송>은 허목이 67세였던 1661년 삼척부사 시절에 지은 글이다. 그런데 <동해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년인 1681년에 지은 <백제서망해요(百濟西望海謠)> 즉 <백제 땅에서 서해를 바라보며 지은 노래>를 살펴보아야 한다. <백제서망해요>가 <동해송>의 제재(題材) 및 표현 양식을 포함하면서 나아가 <동해송>에 미처 담기지 못한 것들까지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괴하고 환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동해송>이 상대적으로 압축적이고 근엄하다면, <서망해요>는 번쇄(煩碎)하고 기굴(奇崛)하다. 둘 모두 『산해경(山海經)』 등 과거의 전적에서 재제를 가져왔으며, 특히 주요 모티브와 표현은 모두 『문선(文選)』에 수록된 목화(木華)의 <해부(海賦)>[150]에서 따왔다. 가져온 표현이라도 <동해송>은 적절한 요약 및 변용을 충분히 거친 반면, <백제서망해요>는 <해부>의 표현 그대로 원용(援用)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동해송>을 부연(敷衍)하면 <서망해요>가 되고 <서망해요>를 압축하면 <동해송>이 되어, 두 작품은 서로 상보적 관계를 이룬다. 무엇보다 <서망해요>에는 <동해송>보다 '괴물'과 그 배경인 바다에 대한 묘사가 더 풍부하므로 '기'와 '괴'란 주제를 다루기에 더 적합하다. <동해송>(<척주동해비>)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5장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150) 목화(木華)는 서진(西晉) 사람으로서 자(字)는 현허(玄虛)이며 <해부> 이외의 작품은 남아 있지 않다. 목화의 <해부>는 한(漢) 반표(班彪)의 <覽海賦> 및 조조(曹操)의 <觀滄海>·조비(曹丕)의 <滄海賦> 등과 함께 바다의 풍광을 묘사한 사부(詞賦)의 원조가 되는 작품인데, 그 방대·웅대하고 풍부한 표현은 후대 해양 문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서는 <백제서망해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백제서망해요>의 제목 밑에 달린 '소서(小序)'에 의하면, 이 작품은 모두 59구(句) 9결(闋)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별 구분 없이 죽 이어서 나열되어 있으므로 단락 및 구 분별이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우선 내용에 따라 원문의 구별을 시도해 보았다.

① 1纍唯遠眺大海, 2滭洋無涯, 3包括宇宙, 4渺漫六合, 5朝日夕月, 6星辰錯落, 7陽開陰闔, 8潮汐吹欿.
② 9瀇蕩浩汗, 10瀲灩淼涘, 11蕩颺合散, 12戕風迅雷屑雨, 13海動暗霾, 14滉瀁滔天, 15膠戾而爭迴, 16極目悽愴.
③ 17幽怪曠望無外, 18神廬祇窟, 19奇詭積儲, 20潛靈居包歸虛.
④ 21夔一足龜六眸, 22鯨吹滂陵吞舟, 23青兕玄螭, 24鮫人水怪, 25三角駢列, 26蛇身猂首, 27詭變出沒, 28霰昱絶電, 29妖露呵欻, 30陽氷五寸, 31陰火潛然.
⑤ 32其外黑齒棧齴, 33爪蛙、蠔蜒、烏衣、裸人, 34佛齊、沙華、析木、天墟.
⑥ 35瀴溟渤滀, 36駭奇詭之多, 37蜊像食人, 38天吳眇瞧, 39群妖遘迄, 40海童、馬銜, 41叫嘯邀露, 42眩惑無度.
⑦ 43氛霧霰飄, 44廣宇(雨/黮)(雨/黯), 45慌惚幽暮, 46惴然而慄, 47黯然而駭.
⑧ 48鸝之鴿之, 49洙、泗斷如, 50魯道之遞, 51作者七人, 52師、襄入海, 53淸士遠引.
⑨ 54曠然無儔, 55道旣不行, 56尼父且欲浮海而乘桴, 57死者不可作, 58其虛其徐, 59余將焉如?[151]

이를 바탕으로 국역(國譯)해보면 다음과 같다.

151)『記言』 권57, '散稿續集', '詩', <百濟西望海謠>.

①

纍唯遠眺大海 죄인의 몸[152] 멀리 대해를 바라보니
滊洋無涯 넓게 펼쳐져 끝이 없어
包括宇宙 우주를 모두 껴안고
渺漫六合 아득히 육합에 넘치니
朝日夕月 아침에는 해 뜨고 저녁에는 달 뜨며
星辰錯落 별들이 어지러이 널려있고
陽開陰闔 더위와 추위 오고 가며
潮汐吹欿 밀물과 썰물 들고 나네

②

瀏蕩浩汗 넘실넘실 질펀하여
瀲灩淼涘 일렁일렁 출렁거리다가도
蕩颱合散 거침없는 질풍 모였다 흩어지면
戕風迅雷屑雨 매서운 바람 불며 번개 치고 비 흩뿌리면서
海動暗霆 바다가 일어나 어둑어둑 해져
滉瀁滔天 넘실대는 물결 하늘까지 닿고
膠戾而爭廻 거대한 소용돌이 빙글빙글 도니
極目悽愴 눈앞 가득히 펼쳐지는 풍경에 애달픈 슬픔 복받치네

③

幽怪曠望無外 신비하고 괴이한 바다, 끝없이 펼쳐진 모습 멀리 바라보니
神廬祇窟 천지신령이 머무는 곳이라
奇詭積儲 기이하고 특이한 것들 가득하고
潛靈居包歸虛 신선의 거처인 삼신산과 바닥 모를 귀허[153] 품고 있네

④

夔一足龜六眸 발이 하나인 기(夔)와 눈이 여섯인 거북
鯨吹滂陵吞舟 거대한 파도를 내뿜는 고래와 배를 삼키는 능어(陵魚)[154]

---

152) 1681년(숙종 7) 당시 허목은 1680년 경신대출척 이후 관직이 삭탈된 상태였다. 또한 이 시의 모델인『문선(文選)』「해부(海賦)」에도 화자를 죄인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다.『文選』「海賦」, “若其負穢臨深, 虛誓愆祈, 則有海童邀路, 馬銜當蹊.”

153) 귀허(歸虛): 귀허(歸墟)라고도 함. 바다 가운데 있다고 전하는 바닥없는 골짜기.『열자(列子)』「탕문(湯問)」에 “渤海之東, 不知幾億萬里, 有大壑焉, 實惟無底之谷, 其下無底, 名曰歸墟.”라는 구절이 있음.

154)『문선(文選)』「해부(海賦)」의 주(注)에 인용된 유소(劉邵)의 「조도부(趙都賦)」에

靑兕玄螭 푸른 외뿔소와 검은 교룡
鮫人水怪 교인과 수괴
三角騈列 나란히 헤엄치는 뾰족한 가시 돋은 능어(鯪魚)[155]
蛇身狶首 뱀의 몸에 돼지 머리를 한 괴물[156] 등등
詭變出沒 온갖 기괴한 것들이 출몰할 때엔
霹昱絶電 순식간에 번개가 번쩍이듯
妖露呵欻 신비한 이슬처럼 몽롱한데
陽氷五寸 양빙은 두께가 오촌이요
陰火潛然 음화는 은은히 빛을 발하네

⑤
其外黑齒棧齴 그밖에 이빨을 드러내는 흑치국 사람들
爪蛙蠔蜒 조와[157], 호단[158]
烏衣裸人 오의국[159], 나인국[160]
佛齊沙華 삼불제국[161], 사화공국[162] 있어
析木天墟 석목과 천허[163]까지 펼쳐지네

"巨鰲冠山, 陵魚吞舟, 吸潦吐皮, 氣成雲霧"라는 구절이 나옴.

155) 능어는 『산해경(山海經)』에 나오는 물고기인데, 두 마리가 나란히 헤엄치며 등과 배에 삼각 마름열매의 뿔(三角菱) 모양의 가시가 나 있다고 한다.

156) 『투황잡록(投荒雜錄)』에는 뇌공(雷公)이 "豕首鱗身"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초사(楚辭)』「대초(大招)」에는 "豕首縱目"에 被髮하고 "長爪踞牙"인 西方의 괴물이 나온다.

157) 조와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자바(Java)다.

158) 단만(蜑蠻)은 중국 남방의 수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단민(蜑民)을 가리키는데, 고기잡이 하며 사는 어단(魚蜑), 굴 캐는 호단(蠔蜑), 나무를 잘 하는 목단(木蜑) 세 부류가 있다고 한다. 『三才圖會』 및 『通雅』 참조.

159) 오의국(烏衣國): 제비 나라. 오의는 제비를 가리킴. 송(宋) 장돈이(張敦頤)의 『육조사적(六朝事迹)』 '오의항(烏衣巷)'에 오의국에 표류했던 금릉(金陵) 사람 왕사(王榭)의 고사가 나옴.

160) 나인국(裸人國): 현재의 안다만-니코바르 제도(Andaman and Nicobar Islands).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배가 인도 및 스리랑카로 가는 중간기착지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알려졌다. 『문선(文選)』 「해부(海賦)」에도 등장하며,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 하권(下卷)에 기록이 나온다.

161) 불제(佛齊)는 삼불제국(三佛齊國, 三弗齊國)을 가리킴. 삼보자(Samboja) 왕국. 현재의 수마트라 섬에 있던 고대 왕국. 7세기 무렵 중국에 조공한 바 있다.

162) 사화공국(沙華公國): 순다 해협(Sunda Strait)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세부쿠(Sebuku) 섬에 있던 나라 이름.

163) 석목(析木)과 천허(天墟)는 동쪽과 북쪽의 별자리의 이름.

⑥

瀁溟渤滃 요동치는 아득히 너른 바다에
駭奇詭之多 놀랍도다, 괴이한 것들 많도다
蜮像食人 망상[164]은 사람을 잡아먹고
天吳眇瞧 천오[165]는 눈 흘기며[166]
群妖遘迄 뭇 요물들 날뛰는데
海童馬銜 해동과 마함[167]이
叫嘯邀露 울부짖기도 하고 이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168]
眩惑無度 이리저리 현혹하는구나

⑦

氛霧霰飄 상서롭지 못한 안개[169] 자욱이 일어나
廣宇(雨/黮)(雨/黯) 온 천지가 어둑어둑해지며[170]
慌惚幽暮 저물녘처럼 어슬어슬 흐리터분해지니
惴然而慄 오싹 소름 끼쳐
黯然而駭 맥빠지고 무서운 마음 드네

⑧

鸜之鵒之 구관조 날아와 둥지 트니[171]
洙泗斷如 유가(儒家)의 도가 끊어졌네

---

164) 망상(蜮像, 罔像, 罔象)은 수괴(水怪)의 일종으로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도 한다. 『國語』「魯語下」, "水之怪曰龍、罔象. 韋昭注: '或曰罔象食人, 一名沐腫.'"

165) 천오(天吳): 수신(水神)의 이름. 사람의 얼굴을 하고 머리가 여덟이며, 호랑이의 몸에 꼬리가 열 개라고 함. 『山海經』「海外東經」: "朝陽之谷, 神曰天吳, 是爲水伯." 『山海經』「大荒東經」: "有神人, 八首人面, 虎身十尾, 名曰天吳."

166) 묘요(眇瞧): 요(瞧)는 보는 모양(視貌). 묘(眇)는 한쪽 눈을 감고 자세히 보는 모양.

167) 해동과 마함 모두 바다의 신이한 괴물. 해동은 바다의 신이한 동자이며, 마함은 말머리에 뿔이 하나이고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文選』「海賦」: "海童邀路, 馬銜當蹊." 李善注: "馬銜, 其狀馬首, 一角而龍形." 呂向注: "馬銜、海童, 幷海中神怪."

168) 「海賦」에 "海童邀路"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요로(邀露)의 '露'는 '路'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⑦결(闋)의 내용을 감안하여 그대로 '露'로 보아 해석했다.

169) 분(氛)은 운기(雲氣)인데, 흉(凶)한 기(氣)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170) 암담(黯黮)은 어두침침하고 흐릿한 상태를 가리킴. 원래 비우머리(雨) 없이 쓰는데, 기상현상임을 강조하기 위해 허목이 덧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171) 구욕(鸜鵒, 鴝鵒)은 구관조의 일종이다. 『좌전(左傳)』 소공(昭公) 25년에 인용된 노래에 "구관조가 날아와 둥지 트니 공이 나가서 욕을 당하네(鸜之鵒之 公出辱之)"라는 구절이 나온다.

魯道之遞 노나라의 도가 쇠하니
作者七人 은거한 이 일곱 사람이었고[172]
師襄入海 소사 양과 격경 양 섬으로 들어간 것처럼[173]
淸士遠引 고아한 선비들 멀리 떠났네

⑨
曠然無儔 온 나라 텅 비어 어울릴 사람 없도다
道旣不行 도가 행해지지 않을 적엔
尼父且欲浮海而乘桴 공자도 뗏목 타고 바다 멀리 떠나려 하셨네
死者不可作 죽은 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其虛其徐 머뭇거릴 수 있으랴
余將焉如 나 장차 어디로 갈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백제서망해요>에 출현하고 있는 '기괴(奇怪)'의 요소들, 즉 일상적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바다의 광막함・흉포하거나 이상한 기후・위협적인 괴물들・머나먼 바다 밖 이국(異國)의 사람들, 그리고 이 제재들을 묘사한 표현 어구들은 모두 <해부(海賦)> 등 바다를 그린 과거의 작품들에 전거를 두고 있다. 이는 <서망해요>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해송>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일반의 인상과는 달리 이 작품들에 나타난 기괴한 재제들 자체가 허목의 독창(獨創)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기괴한 것들을 제시하는 방법 즉 서술 방식에서 허목만의 독자성을 볼 수 있으니,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작품 전반에 걸쳐 일상적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막한 바다와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 활동하는 상상적 괴물들을 그리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인 ⑧, ⑨ 단락[闋]에 이르러서는 바다란 결국 '도(道)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찾아갈' 도덕적 공간임을 강조하여, 앞서 서술한 '기괴'한 존재들이 괴력난신이란 비도덕의 행위자가 아님을 보이고 있다. 바다를 타락한 현세에 은자가 피난할 도피처로 인식하는 것은 『논어』로부터 시작

172) 『논어(論語)』「헌문(憲問)」에 "일어나 은둔하려 떠난 이 일곱 사람이네(子曰 作者七人矣)"라는 구절이 나옴.
173) 『논어(論語)』「미자(微子)」에 "악관(樂官)인 소사(少師) 양(陽)과 격경(擊磬) 양(襄)이 해도(海島)로 들어갔다(少師陽、擊磬襄, 入於海)"라는 구절이 나옴.

한 것이고, 반표(班彪)의 <남해부(覽海賦)>에서도 공자(孔子)의 '뗏목을 타고 떠남[乘桴]'을 언급하였듯이, 이 또한 허목만의 독자적 차용(appropriation)은 아니며 유구한 문화적 연원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제1구의 첫 글자를 자기 지칭인 '죄인[纍]'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제59구의 첫 글자 역시 1인칭 대명사인 '나[余]'로 끝맺는 수미상관의 전체 구조 내에서, 소사(少師) 양(陽)·격경(擊磬) 양(襄)·공자라는 옛 성현의 본받을 만한 사적은 자연스럽게 자기 서사의 구도 내로 포섭되어,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지위를 고양시킴은 물론 바다라는 공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마저 고양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허목은 일견 기괴해 보이는 작품에서조차 유자로서 도덕적 일관성을 확고히 지키는 한편,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살짝 벗어나 '기괴'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둘째, 하나의 매체인 물로 채워진 바다라는 거대한 단일 공간 및 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해양 기상 현상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일기(一氣)로 이어진 천지의 무궁한 변화 및 그 변화의 특수한 양상 중 하나인 기이한 현상들에 대한 제유(提喩)처럼 읽혀서, '기(奇)'의 서술이 단순히 신기한 것들의 박물지(博物誌)가 아니라, 천지 기화(氣化)의 일면으로 이해되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보충·확대해주는 기능을 하게 한다.

①결(闋)의 도입부에서 바다라는 공간의 광대함을 노래하여 공간 전체의 윤곽을 묘사한 후, ② 단락에서 바닷물의 거대한 움직임이 일으키는 흉포하고 무지막지한 폭풍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다는 일상적 인식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거대한 물이므로, 그 변화인 파도도 하늘에 닿을[滔天] 만큼 거대하다. 해양 기상의 기이함은 거대한 크기만 있는 것도 아니다. ④와 ⑥ 단락에서 묘사된 다양한 괴생물과 상상적 괴물들이 일으키는 미기후(微氣候)들은 변화의 다양성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바다의 기이함의 양태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다양한 바다의 변화들을 마주한 작자는, 그 일상적 인지를 훨씬 벗어나는 광막함과 기이함에, 두렵고[惴慄] 서글픈[悽愴] 느낌에 휩싸인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여러 기이함은, 아무리 광막하고 비일상적인 공간이라도 어디까지나 천지의 일부인 바다라는 일기(一氣)의 변화의 일면일 뿐이다. 기이함의 대전제인 천지 변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 하에서,

작자는 옛 성현의 위대함을 빌려, 두려운 공간인 바다를, 내쳐진 사람인 자신을 받아들여 줄 가능성을 지닌 도덕적 공간으로 치환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허목의 문(文) 즉 문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奇)'에 대해 살펴보았다. <척주동해비>로 대표되는, 허목의 글이 독자에게 주는 '기'의 미감은, 그의 고문(古文) 글씨가 주는 형상적 인상을 제외한다면, 글에서 묘사하고 있는 기이한 제재들, 즉 상상적 괴물이나 괴이한 현상들이 불러일으키는 이상하고 특이한 이례(異例)적 미감처럼 보인다. 그러나 허목이 주목한 '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 천지의 항상(恒常)된 운동인 '변화'와 '변역'의 일면이기 때문에, 공자가 말한 '괴력난신'처럼 배척해야 할 요소만은 아닌, 천지 변화 전체에 대한 인지 속에서 그 중요한 일면으로서 궁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된다. '기(奇)'는 천지 변화의 원리에 대한 성인의 말씀인 '역경(易經)'의 속성이기도 하고, 천지 변화의 일면인 기이한 경물(景物)을 찾는 유람을 통해 실제로 감수(感受)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지만, 광막한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다종다양한 괴물들을 묘사한 글을 통해, 간접 경험이나마 '기'의 극대화된 양태를 추체험할 수도 있다. 허목 글쓰기의 중요 요소인 '기'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를 통해, 그의 고문(古文) 서예의 밑바탕이 되는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제3장 허목의 고문관(古文觀)

1681년(숙종 7) 11월 14일 오시(午時) 창덕궁(昌德宮) 희정당(熙政堂)에서 열린 주강(晝講)에서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 형조판서 겸판의금부사(刑曹判書兼判義禁府事)[174] 이정영(李正英, 1616~1686)은 숙종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進言)하였다.

> 전서(篆書)는 국가의 길흉사에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만, 요사이 삭서(朔書)[175]는 모두 잡체(雜體)를 쓰는 데다 마음을 다하여 써서 올리지 않고 장난하듯이 하기까지 하니, 지극히 한심합니다. 게다가 허목의 전서가 출현한 이후로 뒷사람들이 모두 그 신기함을 좋아하고 본받아 허목의 서체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 그 글씨꼴이 더욱 흉악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대전(大篆)과 소전(小篆) 및 상방대전(上方大篆)[176] 이외의 잡체는 금지하도록 승정원(承政院)에 명령하여 신칙(申飭)하도록 하십시오.[177]

---

174) 이정영(李正英)은 1681년 4월 9일에 형조판서에, 동년 7월 28일에 겸판의금(兼判義禁)에 제수되었다. 임명 사실은『승정원일기』해당일 기사를 참조.

175) 삭서(朔書): 당하(堂下) 문신(文臣)으로서 나이가 40세 이하인 사람을 승문원(承文院)에서 뽑아 매달 해서(楷書)와 전서를 시험 보게 하던 제도. 시관(試官)은 승정원(承政院)이 2품 이상의 관원 중 선발하였다. 해서와 전서에서 각각 3명을 뽑아 차등을 두어 지필묵(紙筆墨)을 하사했고, 이유 없이 써서 올리지 않은 사람은 의금부에 구속하여 추고했다.『은대조례(銀臺條例)』「예고(禮攷)」49 '삭서(朔書)' 및『대전통편(大全通編)』「예전(禮典)」'奬勸' <朔書文臣> 참조.

176) 소전(小篆)은 진초(秦初)에 이사(李斯)가 이전의 진계(秦系) 문자를 바탕으로 정리·제정한 서체이고, 대전(大篆)은 소전 이전의 서체로서 주(周) 선왕(宣王) 때 태사(太史)인 주(籒)가 만들었다고 전하는 주문(籒文), 춘추전국 시기 육국(六國)에서 쓰인 육국문자(六國文字), 진계 문자인 <석고문(石鼓文)> 등을 폭넓게 지칭한다. 상방대전은 상방전(上方篆)이라고도 하며 주로 인새(印璽)에 사용한 전서의 일종으로서 인면을 가득 메워 필획을 구부려 중첩하였기 때문에 구첩전(九疊篆)이나 첩전(疊篆)이라고도 불렀다. 각종 전서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기술함.

177)『승정원일기』286책, 숙종 7년(1681) 11월 14일 5/7 기사 '熙政堂에 李正英 등이 입시하여 永昭殿祥後에 朔望과 朝夕으로 上食하는 문제, 日本에서 보내 온 鷹連의 取來 날짜를 退定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正英又曰: '凡篆字, 於國家吉凶事, 多有用處, 而近日朔書, 皆是雜體, 且不盡心書進, 有若戲弄者然, 極爲寒心. 且自許穆篆字出, 後人皆好新效奇, 多用其體, 其爲字樣, 尤爲凶惡. 今後則大小篆及上方大篆外, 雜體禁斷事, 令政院申飭, 何如?' 上曰: '令政院申飭禁斷, 可也.' 【出擧行條】"

숙종은 이를 받아들여 삭서에서 허목의 전서체를 포함한 소위 '잡체'를 금지, 대전・소전・상방대전만을 시험하도록 했고 거행조건(擧行條件)[178]을 내어 이를 공식화했다.[179]

1662년(현종 3, 허목 68세) 8월 삼척부사(三陟府使)에서 파직당한 후, 허목은 12년 동안 포의(布衣, 벼슬 없는 士人)로서 저술에 전념하며 유유자적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1674년 11월에 특명으로 대사헌에 제수된 후 이조참판, 우참찬, 좌참찬, 이조판서를 거쳐 1675년 6월 우의정 제수에 이르기까지 숙종 즉위(1674년 8월 23일) 후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례적 발탁과 승진을 보이며 당시 남인(南人) 정권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부상했다. 이후 1678년 윤3월에 체차(遞差)되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물러날 때까지 줄곧 원로로 대우받으며 우의정으로 있었다. 숙종은 수십 번에 걸친 정사(呈辭, 사직 의사 표명)에도 사직을 허락하지 않고 내의원을 보내 간병하게 하거나 입시(入侍)할 때 내관을 보내 부축하게 하기도 했고, 그가 고향인 경기도 연천(漣川)으로 물러난 후에도 승지(承旨)나 사관(史官)을 보내 돌아오라는 뜻을 전하거나 여러 차례 약품・음식・곡식을 하사하였다. 연천의 초옥(草屋)이 화재로 불에 타 미처 다시 짓고 있지 못하던 중 그가 귀향하여 남의 집을 빌려 거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관찰사를 시켜 작은 집 –허목은 이를 '은거당(恩居堂)'이라 명명한다 –을 지어주게 한 것은 군주

178) 거행조목(擧行條目)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거조(擧條)라 한다. 군신이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은 주서(注書)에 의해서 『승정원일기』에 기록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서로 남겨지지 않는다. 그런데 군신의 대화 내용 중에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할 사안이나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할 사안을 뽑아서 주서가 정서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 조보(朝報)에 반포하게 되는데, 이를 거조라고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79) 실제로 이 당시 이정영의 건의와 숙종의 명령으로 인해 삭서에서의 '잡체 금지'가 법제화되었다. 이는 1698년(숙종 24) 이익(李翊), 윤지완(尹趾完), 최석정(崔錫鼎) 등이 왕명을 받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조례(條例) 등을 모아 편찬한 법전인 『수교집록(受敎輯錄)』의 다음과 같은 조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受敎輯錄』, 「禮典」 '勸奬' <朔書>, "朔書, 大小篆、上方大篆外雜體, 令政院申飭禁斷. 康熙辛酉承傳." 이때의 '강희(康熙) 신유년'이 곧 1681년이다. 이후 법전들인 『전록통고(典錄通考)』, 『대전통편』 등에서도 계속하여 삭서에서 대소전 및 상방대전 이외의 잡체를 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조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law/에서 "朔書" 검색)

가 신하에게 보일 수 있는 예우의 극치였다. 그러던 1680년 3, 4월에 발생한 경신환국(庚申換局,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西人)이 재집권하게 되자 5월에 허목도 삭출(削黜)되게 된다. 위에서 인용한 이정영의 제언도 이러한 정치적 맥락, 즉 남인의 정치적 축출에 따른 조정의 전반적 반(反) 남인 정책 기조 하에서 나온 것이다. 남인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인 허목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상징물이 바로 그의 글씨였기 때문이다. 서인(西人) 중에서도 이정영이 위와 같이 '허목 글씨 배제'를 주도한 것은, 이정영 또한 서가(書家, 서예가)로 이름이 있었고 특히 전서에 능했던 데에 기인한 바도 없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소식에 대해 허목이 보인 반응은 그의 문집인 『기언』에 수록된 다음의 시(詩) 및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한 부가 설명인 후지(後識)에서 찾아볼 수 있다.

朝日上東嶺 동쪽 산마루 위로 해 떠오르니
烟霞生戶牖 누추한 집 주위로 아침 안개 피어나는데
不知山外事 산 밖의 일 아랑곳없이
墨葛寫蝌蚪 갈필(葛筆)로 과두문자 쓰노라

어떤 연신(筵臣, 經筵官)이 고문(古文)을 금지시키자고 주상전하께 아뢰었다. 주(周)나라 때 사주(史籒)가 대전(大篆)을 만들었어도 창힐(蒼頡) 고문(古文)을 금지시키지는 않았고, 공자(孔子) 때는 오로지 과두문자만을 사용했다. 진(秦)나라 때 이사(李斯)가 소전(小篆)을 만들었지만 고문은 아직 남아있었고, 한(漢)나라에서는 오수전(五銖錢)을 주조하고 왕망(王莽)이 화천(貨泉)을 주조했을 때에도 모두 고문을 사용했다. 이사가 제자백가의 문적(文籍)을 불태워 없앴지만, 고문은 훼손되지 않았다.[180]

180) 『記言』 권57, 「散稿續集」 '詩', <不知山外事>, "朝日上東嶺, 煙霞生戶牖, 不知山外事, 墨葛寫蝌蚪. 有筵臣白上禁古文. 周時, 史籒作大篆, 不禁蒼頡古文; 孔子時, 專用蝌蚪文字; 秦時, 李斯作小篆, 古文猶在; 漢鑄五銖錢, 莽鑄貨泉, 皆用古文. 李斯焚滅百家, 古文不毁."

이 시는 이정영의 진언이 있은 후 약 2달 후인 1682년 1월에 지은 것으로서, 이때는 죽음[181]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였다. 여든 넘어 누린 몇 년 간의 뜻밖의 영예와 이후 정변(政變)에 따른 급전직하의 치욕을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며 느낀 회한이 담겨 있으나, 분노나 염세의 정조보다는 평생 줄기차게 옛것만을 추구했던 독서·저술인으로서 역사를 통해 입증된 고문의 움직일 수 없는 지위가 한낱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부정당한 부당함에 대한 담담한 서술로 일관하고 있기에, 흔히 경물(景物)이나 사건에 맞닥뜨려 불러일으켜진 감상을 토로하게 마련인 시(詩) 장르조차, 고대 성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선현들을 통해 끊임없이 계승되었고 자신 또한 인생을 건 줄기찬 추구를 통해 구현해낸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작(作)'의 보편성으로 끌어들인 은근하지만 강인한 허목만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 작시(作詩)의 사정보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정영이 '잡체'의 가장 부정적 예라며 '전자(篆字)'라고 지목한 자기의 글씨를, 허목 자신은 '고문'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방대한 『기언』에서 허목은 일관되게 자신은 평생토록 '옛 사람의 서(書)'를 읽어왔다며 자신이 추구한 것은 오직 옛 성인의 전적에 담긴 옛 제도와 정신이라고 천명하였으며, 당대 및 후대인들도 그를 상고(尙古)의 대표자로 지목하기 주저하지 않았기에, 그가 추구했다고 스스로 말한 '고문'이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 추구의 양태는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허목 문예(文藝)의 가장 종요로운 지점을 해명하는 핵심적 계기가 된다. 서론에서도 서술했다시피 무늬라는 원의(原意)에서 시작하여 단자(單字)인 글자로, 그리고 글자의 집합인 문장(文章)으로, 나아가 문화와 문명으로까지 확장한 '문(文)' 그중에서도 옛 '문'인 '고문(古文)'은, 동아시아적 전유(專有)의 전통 안에서 주로 옛 정신이 구현된 옛 문장으로서 각 복고 문풍의 계기마다 호출되었으며, 그런 큰 주된 흐름과 함께 그것보다는 미약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서 문자나 글씨로서의 옛 '문' 또한 소환되어 왔던 작은 문예 전통도 존재하기에, 문장으로서 그리고 글씨로서 '고

181) 허목은 1682년 4월 27일(갑진일) 인시(寅時)에 사망했다.

문'을 추구했으되 글씨로서의 고문에 약간 더 중점을 두었던 허목의 경우는 동아시아적 전통의 자장 내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그만의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기언』 내에 언급된 '고문'의 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허목의 전통적이면서도 특이한 고문관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언』에서 보이는 허목의 고문 서예의 실제를 몇몇 예를 통해 확인하고, 이어서 문장으로서의 고문 추구의 양상이 어떠한 구조를 띄고 있는지를 문장 전범(典範) 추구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씨로서의 고문 추구의 구조가 문장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면서, 글씨로서의 고문이 허목에겐 정확히 무엇을 가리켰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1. 『기언(記言)』을 통해 본 허목의 고문(古文) 인식 및 고문 서예 창작 활동

허목에게 '고문(古文)'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었으며, 실제 작문(作文)·작서(作書) 활동에서 '고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허목 연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문집 『기언』에 대한 분석이 우선일 것이다. 『기언』에는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182] '古文'이란 말이 총 50편의 글에 등장한다. 아래 표는 그 일람이다.

182) 원집(原集), 속집(續集)과 별집(別集)을 합하여 『기언』을 간행할 때, 독특한 『기언』의 체제 때문에 편집자들이 간혹 중복하여 등장하는 글들을 그대로 실은 경우가 있다. 『記言』「記言凡例」 참조. "先生平生著述甚多, 而《記言》所錄, 厪十之三四. 其間篇章, 或有重出者, 或有疏略者. 重出者, 如《自序》中所錄文字之類是也; 疏略者, 如計篇計字多不準數之類是也. 此蓋先生未成之書, 而今不敢妄加增刪者, 以曾經先生手錄故也. 覽者詳之."

<표 4> 『기언』 소재 '古文' 기사 일람표

No.	卷次		제목	내용 (古文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분류
1	原集·上篇	권2 禮	漢儒祀於學	漢代의 經學 전승사를 서술하며 孔壁 古文經에 대해 언급	문자·經學
2		권3 學	答堯典洪範中庸考定之失書	尹鑴의 古文經 부정과 『書經』「요전」·「홍범」 및 『중용』 재편집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편지. 古文經 특히 古文尙書에 대해 언급함.	문자·經學
3		권5 文學	文學	上古부터 明代까지 문학사로서의 古文의 略史. 揚雄 사망 후 古文의 명맥이 끊겼음을 말함.	문장
4		권5 文學	答朴德一論文學事書	古文 문학의 의의에 대해 논한 편지. 註疏체 文과 古文의 차이에 대해 언급.	문장
5		권5 文學	答客子言文學事書	古文 문학의 의의에 대해 논한 편지	문장
6		권5 文學	東溟哀悼文二百一十	동명 鄭斗卿 哀詞. 東漢 이후 古文이 亡했음을 언급.	문장
7		권6 古文	古文	古文字의 종류 및 略史	문자·서예
8		권6 古文	古文韻律序	古文字 集成인 『고문운율』 서문	문자·서예
9		권6 古文	衡山神禹碑跋	朗善君 李俁가 燕行에서 매입한 岣嶁碑帖의 의의	문자·서예
10		권6 古文	古文示學子	각종 고문자 자료, 특히 豊叔의 金石古文 소개	문자·서예
11	中篇	권18 丘墓	簡易堂墓誌	崔岦 묘지명	문장

12	原集內篇	권31 經說	洪範說	古文尙書에 대해 언급	문자·經學
13	原集·許氏先墓碑文	권42	許寧越墓記	季弟 許舒 墓記. 古文尙書에 대해 언급.	문자·經學
14		권42	尹生墓銘	사위 尹昇离 墓銘. 나를 따라 古文을 읽은 행적을 기술.	문자·經學
15		권43	貞敬夫人全州李氏墓銘	妻 李氏 墓銘. 허목 자신이 唐虞古文을 읽었음을 말함.	문자·經學
16	續集	권52 治道	上古文十一銘箚	古文으로 11개의 銘을 써서 進上하며 올린 箚子	문자·서예
17	散稿續集	권57 詩	不知山外事	世變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은 蝌蚪古文을 쓰겠다는 심경을 읊은 시	문자·서예
18		권58 文章	自評	말년에 자신의 독서 편력을 회고하며 古文의 문학사를 정리	문장
19	續集	권60 敍述	延陵季子	春秋 吳 季札의 행적 서술하며 그것이 기록된 자료로서 春秋古文을 언급함.	문자·經學
20	自序	권66 自序	自序二	말년에 자신의 인생 역정을 정리하여 서술하며 虞夏殷周古文 등을 追述한 「經說」에 대해 언급	문자·經學
21	自序續編	권67 自序續編	許眉叟自銘	인생 역정을 기술한 自序의 속편으로서 자신의 글 일부를 모은 '자서속편'에 실은 自撰 墓銘. 평생 古文을 좋아했고 紫峰山에서 古文孔氏傳을 읽은 일을 기술함.	문자·經學
22		권67	石硏文	아버지가 물려준 벼루를 써서	문자

		自序續編		鳥跡六書로부터 五帝三代古文을 歷述하며 평생 저술한 감회를 기록	· 서예
23	別集	권3 疏箚	書進皐陶謨箚	古文으로 『서경』 「고요모」를 써서 진상하며 올린 차자	문자 · 서예
24		권6 書牘	與林使君	고문 문학사의 대략을 서술	문장
25		권6 書牘	答學者	南冥 曺植과 龜巖 李楨에 대한 평가한 편지의 앞머리에서 자신의 문장관을 피력	문장
26		권6 書牘	答人論古文	『古文蒼頡篇』을 써달라는 청에 응답하여, 원래 『고문창힐편』이 다 전해지지 않아 일부만 써서 보낸다고 하며, 聲韻에 따른 고문자 사전을 만들 뜻을 피력함.	문자 · 서예
27		권6 書牘	與柳馨遠德夫	磻溪 柳馨遠에게 古文으로 大字 鳶飛魚躍無不敬 7자와 小字로 『詩經』<抑>을 써주며 보낸 편지	문자 · 서예
28		권7 書牘	與李生澤	李澤이 부탁한 古文을 써주며 보낸 편지	문자 · 서예
29		권7 書牘	答南宮參奉億	남궁억에게 보낸 답장. 이정영의 주청에 의해 古文이 금지된 심회를 말함.	문자 · 서예
30		권7 書牘	答朗善君俁	낭선군 이우에게 보낸 답장. 낭선군이 중국 사행에서 구해와 허목에게 보여준 古文帖에 대한 감상과 보내준 印札空冊에 작성하고 있는 古文分韻에 대해 이야기함.	문자 · 서예
31		권7 書牘	答朗善君俁	<神禹碑>를 감상하고 지은 글과 古文韻略 中草本을 주며 함	문자 ·

				께 보낸 편지	서예
32		권7 書牘	答朗善君俁	<신우비> 古文 模本과 함께 보낸 편지	문자·서예
33		권7 書牘	答朗善君俁	자신이 사는 산골까지 찾아와 寶篆古文과 松子를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 편지	문자·서예
34		권8 序	杏林老人拙藁小序	御醫였던 鄭枏壽의 詩集에 부친 小序. 허목이 평생 古文을 좋아했다는 구절이 있음.	문장
35		권8 序	與韓生序	韓均에게 준 글. 한균이 孔壁古文 등 古經을 읽었다는 구절이 있음.	문자·經學
36	別集	권8 序	古文千字序	文徵明의 『玉節千字』를 古文으로 바꾸어 쓴 『고문천자』의 서문	문자·서예
37		권9 記	海山軒古篆記	扶安에 거주하는 金弘遠이 자신의 居室인 海山軒의 편액을 奇字古文으로 써달라고 청하자 이를 古篆으로 써주며 지은 記文	문자·서예
38		권9 記	權使君墨竹屛記	강릉부사 權格이 石陽公子 李霆과 그 外孫 渭川 金世祿의 墨竹圖를 보여주며 허목에게 古文으로 題跋을 써달라고 부탁하여 그 일을 기록한 記文	문자·서예
39		권9 記	衡山碑記	낭선군이 燕行에서 얻은 衡山神禹碑의 내력 및 글씨에 대해 말하고, 낭선군의 山水遍歷과 글씨 수집 활동, 성품 및 官歷 등에 대해 서술.	문자·서예
40		권10 跋	三代古文跋	낭선군이 소장하고 있는 <神禹碑>, <石鼓文>, <嶧山碑>의 글	문자·

				씨와 내력에 대해 기술	서예
41		권10 跋	題朗善君圖書帖後	낭선군 소장의 중국 역대 인장첩에 대한 跋文	문자·서예
42		권10 跋	題熊淵釋文後	연천 熊淵의 돌무늬인 石文의 내력 및 의의. 역대 字體의 변천을 서술하면서 秦 후에 古文이 廢해졌다고 했음.	문자·서예
43		권13 哀詞	挽朴承旨德一	同學인 德一 朴吉應 輓詞. 자신은 평생 古文을 읽어 세상과 교류가 없었지만 박길응과는 文緣이 적지 않았음을 말함.	문장
44	別集	권13 哀詞	挽鄭文翁	同學인 文翁 鄭東稷 만사. 정동직을 통해 柳馨遠이 古文을 써달라고 했던 인연(No.27 참조)을 언급.	문자·서예
45		권13 哀詞	金大司成哀詞	金著國 애사. 자신이 學古文했던 어린 시절부터 公은 현달했음을 언급.	문자·經學
46		권14 雜著	書古文贈韓君	韓垕에게 古文으로 箴銘을 써줌	문자·서예
47		권14 雜著	古文書贈申君	자신이 古文으로 글을 써주는 이유를 서술	문자·서예
48		권14 雜著	書古文九章後	韓五奎의 아들 韓塾에게, 아버지에게 古文으로 글을 써주었던 인연을 언급	문자·서예
49		권15 記行	甲辰記行	낭선군이 <神禹碑>을 보여주었던 일을 언급	문자·서예
50		권42 丘墓文	贈議政府左贊成權公墓碣銘	權晛 묘갈명. 권현이 古文을 좋아하여 先秦兩漢의 書가 아니면 읽지 않았음을 언급	문장

위의 표는『기언』중 '古文'이란 용어의 절단(truncation) 없는 완전일치 검색(precise searching) 결과만을 보여주며, 또한 '古'와 '文'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옛글' 혹은 '옛 글자'를 지칭할 수 있는 말 – 예를 들어 '篆' 혹은 '經'을 포함하는 용어 –이 등장하는 예는 보여주고 있지 않기에, 허목이 옛 전적 및 글씨를 언급했던 다양하고 풍부한 언급을 보여주기엔 부족한, 지극히 좁고 얕은 들여다보기가 될 것이다.[183][184] 그러나 아쉬운 대로 그 일단은 엿볼 수 있으며, 적어도 '古文'이란 말 그 자체(per se)의『기언』내 용례는 모두 볼 수 있기에 일단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무늬[紋]'란 문자학적 원의(原意)와 '문명(文明)' 혹은 '문화(文化)'란 가장 확장된 맥락을 제외한다면, 일상적 한문(漢文)에서 '문(文)'은 대체로 '문자' 혹은 '글씨' 그리고 '문장'을 지칭한다. 쓰인 것(writing)으로서의 문장의 경우 시가(詩歌) 등의 운문(韻文)보다는 대체로 산체문(散體文, prose)을 지칭하기에,[185] 문장으로서의 '古文'은 산문(散文)인 옛 문장이 되며, 좁게는 '옛 스타일로 쓰인 문장(sentence)' 넓게는 '고전적 문체를 준용한 문편(文篇, work) 혹은 문적(文籍, book)'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문자(character)・글자・글씨로서의 '古文'의 경우, 현행 글자・글씨체인 '금문(今文, current script)'와 대비되는 '옛 체(古文, ancient script)'를 가리킨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바탕으로『기언』내 '古文'의 용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83) 고전에서 따온 전거가 풍부하며 虛辭의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문맥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文語인 漢文의 분석에 '검색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할 연구 방법이다.

184)『기언』에서는 '古文'으로 썼다는 언급이 없으나, 실제 작품을 보면 허목 특유의 '고문'으로 쓰인 예 또한「古梅樓子大年說」,「不如默社誌」,「不如嘿田社老人十六戒」,「李上左佛畫帖跋」,「汗東文」등 허다하다. 따라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집인『기언』에 '古文'이란 말이 등장한 기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연구 방법 상의 편의라는 면에서 채택되었을 뿐 뚜렷한 한계가 엄존한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85) 산문(散文)은 원래 변문(駢文)에 대응되는 말이다. 따라서 서구적 문학관의 도입 이후로 문학을 크게 운문(詩歌), 희극, 소설, 산문의 넷으로 나누었을 때의 '산문'과 전통적 '산문'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현대적 의미의 '산문(prose)'와 '운문(verse)' 개념을 준용할 경우 '사부(辭賦)'의 위치는 애매해진다. '散文' 개념의 연원 및 포괄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오수형,「唐代의 散文美學 硏究: 韓愈・柳宗元을 중심으로」,『중국문학』35,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 pp.39~40.

첫째, 한대(漢代) 금고문(今古文) 논쟁으로부터 출발하여 후대 경학(經學)에서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된 금문경(今文經)과 고문경(古文經)은 주로 『서경(書經)』을 가리킨다. 즉 전한(前漢) 대에 복생(伏生)이 구술(口述)한 것을 당대에 통용된 예서(隸書)로 필사한 것으로 전해지는 '금문상서(今文尙書)', 그리고 공벽(孔壁)에서 나온 것에 마융(馬融)·정현(鄭玄) 등이 주석을 달았으나 망실되었다가 동진(東晉)의 매색(梅賾)이 공안국(孔安國) 전(傳, 주석)의 '고문상서(古文尙書)'라고 헌상(獻上)하였다가 나중에 당대(唐代) 십삼경주소에 수록되게 된 『상서정의(尙書正義)』의 저본이 된 '고문상서'가 그것이다. 허목을 포함한 후대인들이 '고문상서'라고 간주한 것은 공안국이 전(傳)하고 공영달(孔穎達)이 소(疏)한 『상서정의』를 가리키고, 좁게는 그중에서도 고문편(古文篇)-예를 들어 「고요모(皐陶謨)」 등-을 지칭한다. 당연히 이 때 허목 등 후대인이 읽은, 즉 눈으로 본 서물(書物)은 '고문(古文)', 옛 글자체 즉 전서(篆書) 혹은 과두문자(蝌蚪文字)로 쓰여 있지 않다. 오래 전부터 예석(隸釋) 혹은 해석(楷釋)되어 통용되었고 원 서물은 망실되어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古文'은 지금 비록 현재의 글자체로 쓰여 있으나 과거에는 옛 글자체로 쓰였던 것으로 간주되는 서물 특히 경전을 가리킨다. 위의 표에서는 이를 '문자-經學'으로 분류했다.

둘째, 경학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고문경은 대부분의 경우 『서경(書經)』(『尙書』)이 된다. 위의 표 No.2인 <요전·홍범·중용을 연구하여 개정한 것이 잘못임을 지적한 답장[答堯典洪範中庸考定之失書]>에서 고문경전이 위서(僞書)라며 『서경』과 『중용』을 다시 편집한 윤휴(尹鑴)에 대해 허목은 현재 전해지는 성인의 경전에 대한 신뢰를 표하며 반박하고 있는데, 이때의 '古文'은 주로 '고문상서', 넓게는 고문경전을 가리킨다. 그런데 허목이 다른 여러 곳에서 '고문을 좋아한다[嗜古文]', '고문을 읽었다[讀古文]'라고 했을 때의 '古文'은 이보다 더 외연이 넓다. 이때의 '고문'은 『상서』를 포함한 육경(六經) 전체, 즉 『시(詩)』·『서(書)』·『예(禮)』·『악(樂)』[186]·『역(易)』·『춘추(春秋)』[187], 그리고 육경만큼의 비

중은 아니지만 선진(先秦)의 제자서(諸子書) 및 사서(史書)와 한대(漢代)의 문장 -『사기(史記)』·『한서(漢書)』 및 양웅(揚雄) 등 문학가의 저서-까지 폭넓게 가리킨다. 허목이 육경을 읽은 까닭은 소위 '주소체(註疏體)'의 글, 즉 송대(宋代) 성리학의 해설을 거치지 않고 '옛 사람의 뜻[古人之旨]'을 직접 읽어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선진과 한대의 선호한 것은, 선진의 글에는 육경에 담긴 '천지의 순수하고 두터운 기[天地純厚之氣]'가 그나마 있고 한대의 글에는 선진의 '고기(古氣)'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육경만큼은 아니지만 2차적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문인(文人) 사대부(士大夫) 허목에게 독서는 경세(經世)의 준거이자 문학(文學)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문장 쓰기 실천의 관점에서 보자면 육경은 주요(primary) 전거가 되며 선진양한고문은 그 다음의(secondary), 즉 차상(次上)의 전거가 된다. 이런 면에서는 '古文'을 '문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육경'을 가리킬 때는 위의 첫 번째 분류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옛 문자로 쓰였던 경전'을 가리키기에 '文'이 '문자'를 지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文'의 양의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경우의 '古文'은 '글자'와 '문장' 둘 모두를 가리키게 된다. 위의 표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편의상 학습기의 공부로서의 독서의 측면이 강하여 주로 경전 독서를 가리킬 때는 '문자-經學'으로, 허목 자신이건 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건 문장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맥락이면 '문장'으로 분류했다.

셋째, '글씨 쓰기', 즉 서예 창작의 실제에서 언급되는 '古文'의 '文'은 당연히 '문자' 및 '글씨'를 가리킨다. 이정영이 '허목의 (흉악한) 전서[許穆篆字]'로 지칭하고 허목 자신은 '고문(古文)'으로 불렀던 허목이 쓴 '古

186) 『예』는 삼례(三禮), 즉 『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 세 경전을 통틀어 가리킨다. 실제 허목은 여러 글에서 이 셋을 두루 인용하고 있다. 『악』이 가리키는 『악경(樂經)』은 독립된 서물(書物)로 실존하지 않는다. 「경설(經說)」에서 허목은 <악의(樂義)>·<악술(樂術)>·<악변(樂變)>·<원악(原樂)>·<악통(樂通)> 다섯 편으로 나누어 악(樂)을 해설했는데, 여기에서는 『예기』 「악기(樂記)」·『주례』와 『서경』 등 경전은 물론 『국어(國語)』·『사기(史記)』 ·『순자(荀子)』 등 사서(史書) 및 제자서(諸子書)까지 폭넓은 인용이 등장한다.

187) 춘추 삼전(三傳) 중에서도 『좌전(左傳)』의 비중이 가장 크다.

文'은, 경학(經學)의 대상인 '고문'과 달리 '예전에는 옛 글자였으나 지금은 금문(今文)'인 글자가 아니라 현실상의 형태로도 (허목이 구현한) 옛 모습을 띠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옛 글자'이다. 당대 및 후대인들의 주목이 되었던 허목의 '古文'은 바로 이런 의미의 고문이다. 당대인들의 요청에 의해, 그리고 허목 자신의 자부에 의해 '고문' 서예 창작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위의 『기언』 소재 '古文' 기사의 등장 횟수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표 5>

분류	문자-經學	문장	문자-서예	계
횟수	11	11	28	50

이 28건 중 권6의 '고문(古文)' 장에 수록된 4편의 글이나 권9・10의 「형산비기(衡山碑記)」・「삼대고문발(三代古文拔)」 등 고문의 역사나 의의들을 서술한 비교적 이론적인 성격이 짙은 글을 제외하면, 허목이 실제 '고문'으로 글씨를 쓴 '서예 실천'과 관련된 기록[188]은 총 16건이 된다. 이를 다시 구체적 맥락에 따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대상	對 국왕	對 낭선군	對 私人[189]		계
형식	箚子	字典 및 자료[190]		작품	
횟수	2	3	3	8	16
No.	16, 23	30, 31, 32	8, 26, 36	27, 28, 37, 38, 44, 46, 47, 48	

188) 남에게 써준 것이 아닌 자신의 저작을 '古文'으로 쓴 것인 No.26 「古文韻律序」, No.36 「古文千字序」 포함. No.17의 「不知山外事」는 구체적 저작이나 작품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문'으로 글씨를 써왔고 또 쓰고 있다는 상황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리스팅에서 제외했다.

189) 허목 자신 포함

190) '자료'는 <神禹碑> 模本과 <千字文>을 가리킴. <천자문>의 경우는 '서예 실천' 즉

낭선군 이우(李俁)는 그 자신 서예 자료 수집에 관심이 많았으며 허목과 교류도 깊어 사행(使行)을 통해 획득한 중국의 각첩(刻帖) 등을 허목에게 자주 제공했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혹은 허목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저술한 필사(筆寫) 고문자 자전(字典)은 서예 창작 실천이라기보다 서예 자료 탐구의 면모가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때 실제 서예 창작이 '古文'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인 문건은 총 10건이 된다. 물론 이는 실제 사례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허목에게 자주 '고문'으로 글씨를 써줄 것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례는 국왕에게 '古文'을 진상한 2건이다. 신하로서의 충심에 기반한 자발적 제공이라는 점에서 요청에 의한 것이었던 사인(私人)에게 준 다른 글씨의 예와 구별된다는 점 외에도, 허목이 왜 '古文'으로 글씨를 썼는지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 2건의 글은 특별한 중요성을 띤다.

유교 국가에서 조정의 신하는 왕명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며, 동시에 국왕의 잘못을 지적하여 논하는 간언(諫言)을 하는 존재였다. 특히 정책을 검토하며 국정을 총괄하는 조정의 최고위직인 대신(大臣)은 국왕을 보도(輔導)하는 책임 또한 무거웠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정승이 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 이외로 왕의 수신(修身) 및 국가의 도덕과 관계된 진언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원로였던 허목이 나이 어린 숙종에게 <심학도(心學圖>·<요·순·우가 심법을 전수한 도표[堯舜禹傳授心法道]>[191], 군덕(君德)의 계(戒)에 대한 상소[192], 수덕(修德)의 계에 대한 차자[193] 등을 올린 일은 고위직의 신하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위였다. 그런데 숙종과 허목 사이에는 일반적인 진언(進言) 즉 '말(=글)의 올림' 이외에 글씨라는 매개체 또한 존재했다. 이는 조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 전체로 보아도 매우 특수한 사례이다.

'작품'으로 볼 여지도 있음.

191) 이조참판(吏曹參判)이었던 1675년(숙종 1) 3월에 올림. 「연보(年譜)」 참조.

192)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이었던 1675년 5월에 올림.

193) 우의정이었던 1676년 9월.

1675년 5월에 숙종은 우참찬 허목에게 선조(宣祖)의 어필(御筆)과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초서(草書) 그리고 필묵을 하사하면서 헌액(軒額)·문액(門額) 및 성현(聖賢)의 격언 등을 전서(篆書)로 써서 올리라고 명령한다.[194] 그해 8월에 허목은 양녕대군의 사당인 지덕사(至德祠)를 건립하자고 주청했는데, 이때 허목이 지덕사 편액을 전서로 썼다.[195] 위의 표의 두 차자도 이러한 '전서를 쓰는 신하'로서 허목이 가졌던 특수한 위상을 바탕으로 올려진 것이다. 여기서 허목은 '전서-고문'을 단순히 특이한 글씨가 아닌 옛 성현을 정신을 담는 도구로서 격상시키고 있다. No.23 <「고요모(皐陶謨」를 써서 진상하며 올린 차자[書進皐陶謨箚]>는 1675년(숙종 1) 3월에 올린 것이며, No.16 <11개의 고문(古文) 명(銘)을 진상하며 올린 차자[上古文十一銘箚]>는 1676년 10월에 올린 것이다. 이 중 No.23에서 허목이 왜 국왕에게 고문을 써서 올렸는지, 그가 '고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잘 드러난다.

> 엎드려 생각건대, 신(臣)이 『서경(書經)』의 「우서(虞書)」와 「하서(夏書)」를 읽어보니, 「대우모(大禹謨)」·「고요모」·「익직(益稷)」 세 편이 요(堯)·순(舜)·우(禹) 시절의 아름다운 말과 훌륭한 정치를 싣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요모」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 신이 반드시 고문(古文)으로 써서 올리는 까닭은, 우(虞)·하(夏) 바로 그 당시에 했던 말을 우(虞)·하(夏) 그 당시에 기록한 글이니 그 글씨마저 우(虞)·하(夏) 그 당시의 글씨라면 우(虞)·하(夏) 시절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그대로 따라 행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虞)·하(夏)의 다스림일 것입니다. 엎드려 청컨대 성명(聖明)으로 깊이 생각하시어 더욱 이를 힘쓰시기 바랍니다.[196]

---

194) 『記言』, 「年譜」 권2, 肅宗大王元年乙卯, 五月, "內賜宣廟御筆.【又賜安平大君草書及筆墨, 且錄軒額門額及聖賢格言, 令中使傳命書篆以進.】"

195) 『記言』 「年譜」 권2, 肅宗大王元年乙卯, 八月, "請建至德祠.【先生於筵中達曰: '讓寧大君, 太宗長子, 弟忠寧大君, 生有聖智, 百姓歸心. 讓寧佯狂逃去以讓之, 時擬之泰伯·虞仲. 今其子孫貧窮, 不能奉其祭祀, 請立祠堂, 錄用其子孫.' 上從之, 命戶曹立廟於南郭下. 先生以篆書額曰至德祠. 有記.】"

196) 『記言』 別集 권3, '疏箚', 「書進皐陶謨箚」, "伏以臣讀《虞夏之書》, 《大禹謨》、《皐陶謨》、《益稷》三篇, 堯、舜、禹之際, 嘉言善政, 而《皐陶謨》最備. '愼厥身修, 思永, 敦敍九族, 庶明勵翼, 邇可遠在茲', 身修家齊國治天下平也; '行有九德'以下, 知人之事也, 故有'巧言令色孔壬'之戒; '天敍有典'以下, 安民之事也, 故言顯善威惡達于上下之訓; '九德', 善成德之著也; '天敍有典, 勅我五典, 五敦哉, 天秩有禮, 自我五禮, 有庸哉', 言典禮自天子出也. 聖人大經大法, 備矣. 臣必以古文書進者, 其言虞、夏之言, 其書虞、

도(道)를 함께 하는 학인들인 사인(私人) 한 명 한 명에게도 소홀히 대함이 없음이 유자(儒者)의 도리이겠지만, 유교 국가에서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는 글이야말로 한 자 한 자 성의(誠意)를 다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이 짧은 차자(箚子)는 허목의 '고문'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가장 공식적인 공표에 해당할 것이다. 성인(聖人)인 우순(虞舜)·하우(夏禹)와 현인(賢人)인 뭇 신하들 즉 익(益)·직(稷)·설(契)·기(夔)·고요(皐陶) 사이에 오고 간 '우하(虞夏)의 말[言]'과, 그 대화가 오롯이 기록된 「대우모」·「고요모」·「익직」의 글[書] 즉 '우하의 책[書]'과, 그 글이 당대의 형태 그대로 드러난 '우하의 글씨[文]'인 고문(古文), 이 셋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서 '우하의 훌륭한 다스림[治]'을 구현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이는 가장 충실한 형태의 문이재도론(文以載道論)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주장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글씨를 보통 말기(末技)로 여겼던 유가 미학의 전통에서 도를 싣는 도구[載道之器]로서의 문(文)을 글에서 글씨로 확장한 예는 허목 이외에 달리 찾아보기 힘들다. 이 지점에서 허목은 유가 미학의 충실한 계승자인 동시에 이단자가 되며, 타인들이 줄곧 전서(篆書)라는 기존의 카테고리 내의 개인적 이례(異例)로 여겼던 자신의 글씨를, 그 자신은 또한 줄기차게 삼대(三代)의 이상을 구현한 삼대의 글씨 즉 '고문(古文)'으로 호명한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허목의 견해는 서인(西人)인 송시열(宋時烈) 및 김만기(金萬基) 등과 크게 다르다. 당대에 전서(篆書)로 가장 유명했던 서가(書家)는 김진흥(金振興, 1621~?)[197]이었다. 중인인 김진흥은 역과(譯科)에 급제했다가 글씨를 잘 써서 전문학관(篆文學官)에 등용되었다. 그는 여이징(呂爾徵, 1588~1656)으로부터 전서를 배웠으며, 명(明) 주지번(朱之蕃)의 『해편심경(海篇心鏡)』의 체제를 본받아 운부(韻部) 별로 각 글자의 전서체(篆書體)를 모은 『전해심경(篆海心鏡)』과 38체의 전서로 『대학장구(大學章句)』를 쓴 『전대학(篆大學)』을 저술했다. 『전해심경』에는 송시열과

夏之書, 而其文虞、夏之文, 虞、夏之際, 可想也. 殿下遵而行之, 亦虞、夏之治也. 伏乞聖明深思而加勉焉."

197) 본관 선산(善山), 자 흥지(興之) 또는 대이(待而), 호 송계(松溪).

김만기가 서문을 썼고, 『전대학』에는 송시열이 서문을 썼다.

여이징은 당대에 전서로 유명했는데, <삼전도비(三田渡碑)>의 전액(篆額)도 그가 썼다. 1606년 조선에 사신으로 온 주지번은 다른 사신들과 달리 시서화(詩書畫)를 논하며 문화적 교류를 행하여 조선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명이 망하고 청이 중원의 지배자가 된 후 조선 사대부들은 멸망한 중화문화에 대한 숭모를 그에게 투영하여 그의 글씨를 숭배했다.[198] 송시열이 김진흥을 상찬한 지점도 여기에 있다. 「전해심경서문」에서 송시열은, 김진흥이 한미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공상(工商)의 미천한 일을 하지 않고" "전서의 깊은 경지[篆家三昧]를 얻은 학자[學士]"인 동강(東江) 여이징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여 "전문(專門)의 업(業)"을 이루었으니, 주자(朱子)가 칭찬했던 필공(筆工)인 조충(曹忠)과 채조(蔡藻)보다도 더 낫다고 칭찬하고 있다.[199] 『전대학』의 서문에서는 김진흥 전서의 연원이 주지번의 책을 열심히 연구한 데에 있으니 학자들이 이 책을 통해 망해버린 명(明)에 대한 "개심고서(溉鬻膏黍)"[200]의 감동을 느껴 "풍화(風化)의 복고(復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

---

198) 주지번의 글씨가 망해버린 명과 중화문화의 표상이 된 과정 및 그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하영휘, 「朱之蕃의 朝鮮使行과 朱太史 전설」, 『朝鮮時代史學報』 81, 조선시대사학회, 2017, pp.207~233.

199) 『宋子大全』 권138, '序', 「篆海心鏡序」, "呂學士東江公諱爾徵, 以古書衆體游其藝, 實得篆家三昧, 胤子湖伯公 聖齊聿傳其箕裘. 有金生振興者, 自幼侍側, 給筆研役, 竊識其運毫行墨之方, 及公捐館, 仍從湖伯公不去, 遂窺其藩籬而用志不分, 蔚然爲專門之業. 夫自拔於寒微之地, 謝工商之簡微, 而自從士大夫游, 斯已難矣, 況不肯無所用心, 能涉文藝之流, 而不遷於異物? 斯可謂穎吐而芒擢者歟. 湖伯公以東江公之所嘗視也, 又惜其勤一生而遂至湮沒, 將剞劂其所寫韻書, 以傳於世, 湖伯公眞所謂愛其所親, 而小物不遺者也. 噫! 使生而生乎名門右族, 則其必笙簧藝苑而揭額碑碣者, 將塡咽其門矣. 惜乎, 閾臬之阻閼也! 湖伯公要余題其卷首. 昔晦翁於曹忠、蔡藻之流, 猶且發揮其所執, 況此之進於曹、蔡, 而能用曹、蔡之所爲者乎? 若其門戶之偏正, 地步之闊狹, 旣有淵源之所自, 則善觀者因木而知其山可也. 時崇禎上章閹茂正月日, 恩津 宋時烈敍."

200) 개심고서(溉鬻膏黍): 점점 쇠망해 가는 세상을 당하여 옛날 융성했던 세대를 사모하는 것을 비유한 말. 개심은 『시경(詩經)』 「회풍(檜風)」 <비풍(匪風)>의 "물고기를 쪄먹을 이 누군지, 있다면야 내가 가마솥 닦을래. 그 누가 주(周)나라로 돌아갈 이 있다면, 진정 좋은 말 일러 주리[誰能亨魚, 溉之釜鬵, 誰將西歸, 懷之好音]"에서 온 말이고, 고서(膏黍)는 「조풍(曹風)」 <하천(下泉)〉 의 "무성하게 자라는 메기장 고운 싹을, 그 위에 단비 내려 기름지게 하더니[芃芃黍苗, 陰雨膏之]"에서 온 말이다. 이 시들은 모두 주(周)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보고 어진 사람들이 이를 탄식하여 부른 노래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송시열의 두 서문에서는 삼대의 이상의 구현의 매개물은커녕 전서(篆書)의 독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편린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의 가치는 철저히 고명한 학자인 여이징, 중화문화의 표상인 주지번, 절대적 추앙의 대상인 주자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기존에 쓰여 왔던 아정(雅正)한 대전(大篆)·소전(小篆)·옥저전(玉筯篆)의 서법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 이외에 그 너머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 탐구할 이론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게 된다. 김진흥이 비록 38체의 전서 잡체를 모았으나 독자적 연구가 아닌 집적과 나열에 그쳤고, 이를 통해 구현한 것도 신유학적 가치를 담은 대표 서물(書物)인『대학』이었다. 이에 따라 송시열의 문인(門人)인 김만기는「전해심경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글씨 쓰는 기예에 대하여 배운 바는 없으나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귀동냥한 바는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생(生, 金振興)에게 물어 보려 한다. 조적서(鳥跡書)가 사황씨(史皇氏, 蒼頡)에 의해 창제된 이래로 세상의 변천과 더불어 글자체가 변화했는데,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이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고문(古文)·기자(奇字)·구서(龜書)·용서(龍書)·운서(雲書)·수로서(垂露書) 등 여러 글자체는 아득히 먼 과거라 상고할 수 없거나 견강부회하여 만든 것이라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오직 허신(許愼)의『설문해자(說文解字)』[의 글자(小篆)]와 이양빙(李陽氷)의 글씨(玉筯篆)만이 근엄하고 정밀하여 정말로 전서(篆書)를 쓰는 이의 법도와 모범이 될 만하다. 그런데 이 둘(소전과 옥저전)을 흔하고 수준 낮은 글씨체라 칭하며 옛날의 종(鐘)·정(鼎)·모(牟)·대(敦)[202]에 새겨진 관지(款識, 銘文)를 힘써 배우면서 그 퇴색하고 부식된

---

201)『宋子大全』권137, '序',「篆大學序」, "世人喜趨便省, 於書爲甚, 故蒼、籀遺法, 隱晦久矣, 非獨風化之不古也. 金生振興出於寒品, 能究闡鳥跡、科斗等三十八體, 以書《大學章句》, 其用心可謂勤矣. 余嘗問其所從受, 則曰'朱詔使之蕃有《篆訣》一篇, 其始得之, 朝暮耽賾, 殆忘寢食, 歷數年而遂通衆體'云. 噫! 今日不惟古書之罕有, 中朝文獻亦不可復見矣. 今世之士, 於此, 苟思其所自之不易, 愛玩無斁, 則其於溉鬻膏黍之感, 自不能已; 而因以了其經傳章句之指, 則其風化之復於古也, 亦庶幾焉. 然則金生之功, 亦不爲細矣. 若其醇駁雅俗之氣、濃廉淡肉之態, 則自有知者知之矣. 全南水使俞侯掟取而繡諸梓, 其意亦可尙也. 功旣訖, 金生介於按使趙公龜錫, 俾余書其事. 時崇禎癸卯五月日, 恩津 宋時烈敍."

202) 종정모대(鐘鼎牟敦): 모두 기형(器形)에 따라 청동기를 분류한 명칭이다.

형태마저 모조리 따라하려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옛것이라면 정말 옛것이긴 하겠지만, 바로 『중용(中庸)』에서 말한 '증거가 없어 믿지 않'[203]아야 할 경우가 아니겠으며, 또한 심장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찡그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지금 생(生)의 이 책은 한결같이 허신과 이양빙을 따르고 있으며, 변칙의 서체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이것(허신과 이양빙의 글씨)을 주(主)로 삼고 있으니, 내 견해와 비슷하고 앞서 말한 경우와 다르지 않은가? 그 같음과 다름의 맞고 틀림은 반드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다. 생(生)은 나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겠는가?[204][205]

여기에서 김만기는 종래의 대표적 전서체인 소전과 옥저전을 강력히 옹호하면서 더 과거로 거슬러 오르거나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것을 '황당무계한 억지'라고 배척하고 있다. 명확히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비판의 화살이 향하고 있는 대상은 당연히 허목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이정영의 정책 제언은 이러한 서인 내부의 공통적 인식에서 기인한 바 클 것이다.

이와 같이 허목에게 '古文'은, 문장-서적-글씨가 한 명칭 하에 일체가 되어 옛것의 지고지선의 가치를 담고 있어, 일평생 애호하며 추구한 대상이었다. 글씨로서의 '고문'은 같은 학파 내지는 같은 당파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상징물로 인정받았기에, 허목은 많은 사람에게 이를 써주었으며, -남인이 정권을 유지한 동안에는- 국왕도 허목의 고문을 삼대의 가치를 실은 매개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글씨에 이 정도로 의미

203) 『中庸章句』 제29장, "上焉者, 雖善無徵, 無徵不信, 不信, 民弗從; 下焉者, 雖善不尊, 不尊不信, 不信, 民弗從."

204) 『瑞石集』 권5, '序', 「篆海心鏡序」, "(…) 顧余於斯藝也, 未之學也, 而亦嘗有所耳剽乎古昔者, 欲因是而問于生也. 自鳥跡之創于史皇, 字體與世變化, 大、小篆, 其最著者也. 至若古文、奇字、龜、龍、雲、露等諸體, 或復闕焉無所稽, 或傳會而無足据, 惟是許叔重之《說》, 李陽氷之畫, 謹嚴精工, 信乎其爲篆家之功令模範也哉. 有於斯二者, 見謂卑近, 務學古之鐘、鼎、牟、敦之所款識, 與其漫漶剝蝕之狀而並擬之, 古則信古矣, 無乃'無徵不信', 而亦類乎不病心而强顰者哉? 今生之書, 一遵乎許、李二家, 雖旁及變法而必以是爲主, 其亦有似乎吾見而異乎前者之云歟? 其同異得失, 必有辨矣. 生其有以復我乎哉?"

205) 『한국문집총간』 본 『서석집』에 수록된 「전해심경서」에는 연기(年記)가 없으나,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된 목판본 『전해심경』의 서문 끝에는 "歲在乙卯孟秋, 光山金萬基書于靜觀軒"라는 연기가 있다.

가 부여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태여서 서인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206], 이는 남인이 실각하자 허목의 전서도 빠르게 부정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당대의 정치·문화적 상황으로 보나 허목 자신의 내적 논리의 면에서 보나 '古文' 특히 '글씨'로서의 '고문'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허목 '고문' 서예의 실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허목에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가를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허목의 글씨로서의 고문관은 문장으로서의 고문관과 구조 상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먼저 문장으로서의 고문부터 살펴보려 한다.

2. 『기언』「문학(文學)」을 통해 본 허목의 고문(古文) 문학 인식

[207] 한자 문화권의 문예사에서 끊임없이 소환되어왔던 '고(古)'는 논의의 맥락에 따라 가장 앞으로는 역사의 시원으로부터 가장 뒤로는 당송(唐宋)에 이를 정도로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상대적 시간'이다.[208] 문장으로서의 '古文'에 대해 허목이 가졌던 견해에서 먼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허목이 이상적 시대로 지목한 '古'가 소구 가능한 최대한 앞쪽 즉 현재로부터 가장 먼 고대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언』 원집(原集) 권5 「문학(文學)」의 권두언에 해당하는 다음의 제목 없는 짧은 글은 중국 '문(文)-문장'의 역사 전반에서 '古文'이 겪어 온 이력을 압축적 언사로 그려내고 있기에 그의 문장으로서의 고문론의 요강

206) 송시열의 「전대학 서문」은 1663년, 「전해심경 서문」은 1670년에, 김만기의 「전해심경 서문」은 1675년에 쓰였다. 특히 숙종 원년인 1675년은 남인 정권이 강력했던 시기였기에, 서문에 나타난 김만기의 반감의 배경이 이해가 간다.

207) 2. '『기언』「문학」을 통해 본 허목의 고문 문학 인식'과 3. '『기언』「고문」을 통해 본 허목의 고문 서예 인식'은 拙稿, 「미수(眉叟) 허목(許穆) 고문(古文)론 연구: '옛글'과 '옛 글자' 추구를 위한 전범 설정을 중심으로」, 『美學』 제84권 2호, 한국미학회, 2018, pp.46~59에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208) '古文' 개념의 상대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도련, 「'古文'의 여러 槪念과 展開」, 『중국학논총』5,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1989, pp.43~55.

처럼 읽힌다.

a(1) 상고(上古) 시대의 서적은 전해지는 것이 없으나, 우(虞)·하(夏) 이후로는 우·하의 질박함과 은(殷)·주(周)의 태평하고 엄정함은 육경(六經)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성인(聖人)의 문(文)은 곧 천지(天地)의 문이다.

a(2) 공자(孔子)의 문하 중 문학(文學)이 뛰어나다 일컬어지는 이로 자유(子游)와 자하(子夏)가 있었다. 주나라의 도가 쇠퇴하고 공자가 세상을 떠나자 성인의 문이 무너져, 노자(老子)에 의해 변질되고 제자백가에 의해 어질러지더니 진(秦)에 이르러서는 그마저도 불타 없어져 남지 않게 되었다. 천지의 순후(純厚)한 기(氣)는 『국어(國語)』와 『춘추좌씨전』에서는 그래도 간결함과 심오함을 찾아볼 수 있으나 『전국책(戰國策)』에서는 어지러워졌다.

a(3) 사마천(司馬遷)은 선진(先秦)의 고기(古氣)를 계승했는데, 양웅(揚雄)은 고(古)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奇)의 경지에는 들었다. 그러나 양웅이 죽자 고문(古文)도 없어졌으며, 위진(魏晉) 이후로는 영락하여 완전히 사라졌다.

a(4) 당대(唐代)에는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이 나와 서한(西漢)의 끝을 계승하였고, 그 후 소식(蘇軾)은 변화에는 뛰어났으나 고에 미치지 못함은 훨씬 더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명대(明代)의 이몽양(李夢陽)과 왕세정(王世貞)은 혼후(渾厚)함은 한유만 못하고 변화는 소식만 못하면서 특이한 아름다움[瓌詭]만 일삼을 뿐이었다.

a(5) 진한(秦漢) 이래로 고(古)가 변하여 난(亂, 어지러움)이 되었고, 난이 변하여 기(奇, 기이함)가 되었다가, 기가 변하여 궤(詭, 이상함)가 되었다.[209]

허목은 이 글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루는 순수하고 조화로우며 화평하고 질박한 기(氣)를 그대로 구현했던 먼 옛날 성인(聖人)의 문(文)이 당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변질되어 타락해 왔다는 '하강(下降)'의 고문관을 노정하고 있다. a(1)에 따르면 요성(姚姓)인 순(舜)임금의 우(虞)와 사성(姒姓)인 우(禹)임금의 하(夏) 이전의 전적은 전해지는 바가 없지만, 육경에서 지금도 읽어낼 수 있는 이상적 고문은 곧 천지의 문이며 성인

209) 『記言』 권5, 「上篇」 '文學', 「文學」, "上古載籍無傳, 虞、夏以來, 姚·姒之渾渾、殷·周之皚皚噩噩, 可見於六經. 聖人之文, 天地之文. 孔子之門, 稱文學, 子游、子夏; 周道衰, 孔子歿, 聖人之文壞, 貳於老氏, 散於百家; 至秦, 則又焚滅而無餘. 天地純厚之氣, 至《國語》、《左氏》, 簡奧猶在, 至《戰國長短書》, 則亂矣. 太史公繼先秦古氣, 至揚雄氏, 不及古而入於奇, 然揚雄氏死, 古文亡矣, 魏、晉氏來, 蕭索盡矣. 唐時韓、柳氏出而繼西漢之末, 其後蘇長公得變化, 而不及古遠矣. 又其後崆峒、鳳州, 渾厚不及韓, 變化不及蘇, 特爲瓌詭. 自秦、漢以降, 古變而亂, 亂變而奇, 奇變而詭."

의 문이다. 그러나 육경을 편찬한 공자가 세상을 떠나자 고문은 어지러워져 하강하기 시작한다. a(2)~(4)에서는 a(5)에서 '어지러움[亂]'-'기이함[奇]'-'이상함[詭]'이란 3단계로 요약한 '하강의 역사'의 실제를 설명하였다. 허목이 내린 하강의 각 단계에 대한 속성 규정의 준거는, 각 단계에 속한 문학가 및 그들의 작품이 고문의 고기(古氣)와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가이다. 짧은 길이의 글인 데다가 널리 알려진 문학가 및 서적을 익히 알려진 표현을 원용하여[210] 서술하고 있으며, '성인의 문이 곧 천지의 문이다'라던가 '우·하와 은·주의 육경 고문은 모든 가능성을 함장한 온전하고 완벽한 고기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얼핏 보기에 당연한 듯한 언명을 하면서,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전제를 바탕으로 역사를 간명하게 '규정'하고 마지막으로는 고문 하강의 역사를 '선언'하고 있기에, 이 글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짧고 간단한 글에서 보인 '고문'의 '하강'은 일면 하강 일변도의 단순한 방향성만을 지닌 약사(略史)처럼 보이지만 그 하강의 양상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허목은 분명 성인의 문(文)이자 천지의 문인 '상고의 옛글'을 지고지상의 가치를 지니기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전범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허목은 일견 태고의 황금시대를 추구한 원리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고 고문의 추구를 곧장 비타협적 모토로 환원할 수는 없다.

우선 앞서 서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유학자에게 있어 성인이 지은 경전이란 문명의 전제 조건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경전의 문장을 닮고자 하는 이상은 일개인에 의해 독점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없었다. 나아가 고전이 교양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 힘든 언문일치의 현대인에게는 고답적 희유(戱遊)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고전에 바탕을 둔 문어에 의한 언어생활을 향유했던 조선의 유자들에겐 실로 실제적이며 요긴했던

210) a(1)의 구절은 揚雄『法言』「問神」의 "「虞書」와 「夏書」는 혼혼(渾渾)하며 「商書」는 호호(灝灝)하고 「주서(周書)」는 악악(噩噩)하다[《虞夏之書》渾渾爾, 《商書》灝灝爾, 《周書》噩噩爾]"라는 문장을 조금 바꾸어 원용한 것이다.

이론・실천적 급소에 해당했기에, 문장으로서의 고문 추구는 결코 비타협적 원리주의 운동과 같이 작동할 수 없었다. 경전에 기재되어 있는 글은 성인의 지고한 이상을 담고 있으며 그 자체로 완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당장의 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당대(唐代) 이래 교유와 문예의 중심이 된 오언(五言)과 칠언(七言)의 유려하고도 친숙한 근체시를 버리고 『시경(詩經)』의 고졸한 사언시(四言詩)로 전부 돌아가야 하는가? 언재호야(焉哉乎也)와 어우자즉(於于者則)의 허자(虛字)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적실하고도 평이한 서술을 버리고 『서경(書經)』 근엄하고 함축적인 전모훈고(典謨訓誥)만으로 회귀해야 하는가?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섣부른 시도는 오히려 자구의 모방에 그친 난삽하며 '괴궤(瑰詭)[211]'한 '의고(擬古)'라는 비난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장가들은 상고 경전 문장의 이상에 대한 직접적 추구를 유예한 채 이상 추구의 중간 단계로서 중고(中古)나 근고(近古)의 문학가 및 작품을 학습의 전범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채택, 실천하였다. 이 지점을 통해 중국 당송(唐宋)의 고문 운동, 명대의 전후칠자・당송파(唐宋派)・경릉파(竟陵派) 등등 문학 유파의 큰 흐름이 갈리게 되고, 세부로 더 들어가면 개개 문인이 선호했던 전범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 그의 문학 세계의 성격을 판명하는 가장 종요로운 관건이 되게 된다. 따라서 허목의 고문 추구 또한 상고 경전 추구라는 선언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면서, 동시에 허목이 상고 이후의 전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언』「문학」 권두언을 다시 정리해 보면, a(2)~(4)는 하강의 역사임엔 틀림없지만 타락이나 부정의 역사로 볼 수는 없게 된다. a(2)는 a(5)에서 '어지러움[亂]'이란 한 글자로 규정되는 제1차 대하강기다. 이 시기는 노담(老聃)이 균열을 일으켜[離異] 성인의 가치를 배반[違背]하여 그것을 변질시킨[212] 이래, 제자백가의 온갖 주장으로 상고

211) 瑰는 美玉을 뜻하며 瓌와 같다. 詭는 詭辯 등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 정상적이지 않은, 기이한, 거짓된 상태를 가리킨다. 瑰詭 혹은 詭瑰는 상궤를 벗어난 특이한 아름다움을 뜻한다.

의 도를 계승한 전일한 주나라의 도가 산산이 흩어져 엉클어져, 마침내 진나라 분서갱유의 비극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좌구명(左丘明)의 『국어』와 『춘추좌전』에 간오(簡奧), 즉 간단하고 쉽고도[簡易] 심오함[奧妙]이라는 옛 가치의 일면은 남아 후세인들이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 위진남북조 이후로 고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결말을 맞는 a(3)의 시기에도, 서한(西漢) 때 사마천과 양웅이란 걸출한 두 인물이 선진(先秦) 고문의 가치를 계승하여 후대에 남겼다. 특히 양웅에 의해 일부 구현된 '기(奇)'의 가치는 a(3)를 표상하는 한 글자가 되어 이 시기에 일정한 의의를 남긴다. 고문이 사라진 이후인 a(4)의 시기는 거짓되며 특이한 미[瓌詭]를 추구한 시대이지만, 이때도 서한을 계승한 한유와 유종원 및 천지조화의 일면이자 성인의 글의 한 특성이기도 한 변화를 체득한 소동파가 있어 후대 작가들의 전범이 될 만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때 a(2)~(4)의 '하강사'는 비록 고대의 이상이란 완전성에 미치지는 못하나[不及] 나름대로 각자 일정한 의의를 지닌 문학 전범들의 역사가 된다.

허목이 상고 이후의 문장 내지는 학술에 그리 부정적이지 않았음은 덕일(德一) 박길응(朴吉應)에게 답한 편지[答朴德一論文學事書][213]에서도

---

212) 이(貳)는 이(二)의 갖은자이며 부(副) 즉 버금, 보좌, 副職, 副本 등의 뜻을 갖는다. 이로부터 딴 마음을 품어[懷有二心] 배반[違背, 背叛, 叛逆]하거나, 분리되어 떨어진다[別, 離異, 分裂]는 뜻이 파생되었다. 변역(變易) 및 변화(變化)의 뜻도 있는데, 이때 변화의 방향은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

213) 박길응(朴吉應, 1598~?)은 본관 밀양, 자 덕일, 호는 진정재(眞靜齋)다. 1634년(인조12)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고, 정언, 지평, 사간, 집의, 승지를 역임하고 참판에 이르렀다. 저서로 안회(顔回)를 연구한 『학안록(學顔錄)』이 있다. 허목과는 젊은 시절 총산(蔥山) 정언옹(鄭彦訇, 1545~1612)을 함께 사사한 인연이 있다. 정언옹 이외에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1571~1637)과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문인이기도 했다. 『기언』에는 박길응과 관련하여 이 편지를 포함 3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別集 권8, '序', 「送杆城郡守朴德一序」 ; 別集 권13, '哀詞', 「挽朴承旨德一」) 「挽朴承旨德一」에는 이 편지를 작성한 동기 및 정황으로 추정되는 구절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편지는 성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고문을 추구한다면서 문장을 짓는 허목을 비판한 박덕일의 편지에 대해 답장하며 고문의 가치를 변론하는 내용인데, 「挽朴承旨德一」에는 "내가 난리를 피해 남쪽 바닷가로 도망가 있을 적에 <하릴없는 가뭄 걱정(無聊悶旱)>이란 시를 지어 군(君, 박길응)께 보냈는데 그 시가 놀랍도록 괴상하여, 군이 '문장이란 수고스럽기만 할 뿐 무익하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었고, 나는 우하은주의 문장의 예를 들어 풀이하며 수천 자에 달하는 답장을 보냈다[吾嘗逃難南奔海上, 詠無聊悶旱詩寄君, 其詩鬼怪可愕, 君以爲文章徒勤而無益, 吾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허목은 주자(朱子)와 정자(程子)의 학문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육경의 깊은 뜻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성실하고 세세하게 부연설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게끔 분명히 밝혀내어 후대의 학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송대 학자들의 글은 주석가의 문장이라 고문과는 확실히 다르지만 고문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란 것이다.[214] 상고주의자답게 성리학에 대한 관심은 약했지만 허목은 송대 학문의 가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일견 대척점으로 보이는 송학(宋學)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보였을 정도이니 그 이전의 문장에 대해 그가 일정한 긍정을 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중국 문학 선집인 『문총(文叢)』에 쓴 서문인 「문총서」에서 허목은 실로 다양한 제자백가들을 언급하면서 그들 간의 사승관계를 밝혀 각 학파의 연원을 드러내고 각 인물의 주장을 요약하며 간단한 평가도 내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자로 대표되는 유가의 정도(正道)에는 무익하지만 천하의 모든 존재에 대한 지식을 널리 수집하여 각 존재에 구현된 도(道)의 변화의 일면을 파악할 수는 있게끔 하는[皆無益於孔子之術者, 然其博物天下之變則得矣]"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변(變)'이란, a(2)~(4) 각 시기의 하강에 따른 앞선 시기의 더 나은 가치가 뒤 시기의 하강된 가치로 변질되어 왔음을 가리키는 a(5)의 술어였는데[古變而亂, 亂變而奇, 奇變而詭], 여기에서는 천하 사물의 개별적 변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물론 『시경(詩經)』「대서(大序)」에서 정풍(正風)·정아(正雅)와 대비되는 '쇠퇴한 시기'의 시편(詩篇)들을 지칭하여 변풍(變風)·변

復書擧虞、夏、殷、周之文以釋之, 書凡累千言.]"라는 구절이 있다. 「答朴德一論文學事書」는 1640년에 쓰였는데 이때는 허목이 의령, 사천, 창원 등지에서 지낼 때이며, 편지의 내용도 위에 인용한 「挽朴承旨德一」의 구절과 상통하므로, 「答朴德一論文學事書」가 「挽朴承旨德一」에서 언급한 편지일 가능성이 크다.

214) 『記言』 권5, 「上篇」 '文學', 「答朴德一論文學事書」, "(…) 宋時程氏、朱氏之學, 闡明六經之奧繼悉, 委曲明白, 懇懇複繹, 不病於煩蔓, 此註家文體, 自與古文不同. 其敷陳開發, 使學者了然無所疑晦. 不然, 聖人教人之道, 竟泯泯無傳, 穆雖甚勤學, 亦何所從而得古文之旨哉? 後來論文學者, 苟不學程、朱氏而爲之, 以爲非儒者理勝之文, 六經古文徒爲稀闊之陳言. 穆謂儒者之所宗莫如堯、舜、孔子, 其言之理勝亦莫如《易》、《春秋》、《詩》、《書》, 而猶且云爾者, 豈古文莫可幾及, 而註家開釋易曉也. 穆非捨彼而取此, 主此而汚彼, 惟平生篤好古文, 專精積久, 至於白首, 而其所得如此. (…)"

아(變雅)를 말한 것처럼, '변'이란 '화(化)'와는 달리 '부정적 상태로의 변질'이란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상고의 이상적 상태로부터 이미 멀어져 버린 후대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변질된 상태로나마 나름의 의미가 있는 사례들을 널리 취하여[博物] 참고로 삼고자 하는 행위에 부정적 의의만 있을 수 없다. 제자백가의 글을 널리 참고하는 의의는,「문총서」마지막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나라가 쇠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각자 다른 논의를 펴며 이단의 도를 스승으로 삼아 멋대로 말하며 편파적 행동을 하니,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그러나 그들의 글은 기이하고 삿되지만 고기(古氣)에 있어서는 특출하니, 그런대로 하·은·주 이상 시대의 변용은 된다[周衰, 人異論, 師異道, 淫詞詖行作, 而天下大亂, 然其文奇詭, 傑特古氣, 猶爲三代之變也]"는 데에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이상적인 육경(六經)만큼이나 하강된 후대의 작품들 또한 일정한 의의를 갖고 있는 만큼, 전국시대와 한대(漢代) 나아가 당송(唐宋) 제가(諸家)의 작품들도 충분히 문장으로서의 '고문' 창작의 전범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상고의 고문에서 멀어진 만큼 고기(古氣)의 손상 정도도 더하기에 전범적 가치 또한 그만큼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전범 가치의 하강은 그 시대적 한계 바로 그 수준의 하강에만 그칠 것이며, 그렇기에 선진(先秦) 고문은 오히려 육경 고문 이하 차상(次上)의 전범으로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이제까지 허목이 문장으로서의 '고문'을 실제 역사와 전범적 가치 면에서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문자학 및 서예 창작의 대상, 즉 '문자 및 글씨로서의 고문'에 대해 그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그가 말한 '고문'이 어떤 범위의 서체를 가리켰는지를 규명하려 한다.

3.『기언」「고문(古文)」을 통해 본 허목의 고문(古文) 서예 인식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자-글씨로서의 '古文'은 허목의 문예 활동

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기언』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허목이 생전에 직접 편집한『기언』원집(原集)의 제6권에는 이를 집중적으로 다룬「고문(古文)」편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 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으로서의 '고문'의 창도가 눈에 띄는「문학(文學)」편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띈다.

이 편에도 위의「문학」과 마찬가지로 '古文'이라는 제목만을 제시한 후 글 자체의 제목은 없이 곧바로 다음과 같은 권두언 형식의 글이 등장하고 있다.

b(1) 창힐(蒼頡)이 새 발자국을 보고 조적서(鳥跡書)를 만들었고, 전욱(顓頊)이 과두문자(科斗文字)를 만들었다. 주(周)의 매씨(媒氏)가 분서(墳書)를, 백씨(伯氏)가 종정문(鐘鼎文)을 바탕으로 수서(殳書)를 만들었다. 또한 기자고문(奇字古文)이 있는데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b(2) 사주(史籀)가 고문(古文)을 변화시켜『십이편(十二篇)』을 지어 주서(籀書)를 만들었다.

b(3) 헌원씨(軒轅氏) 이래의 인서(麟書)·봉서(鳳書)·귀문(龜文)·용문(龍文)·가화서(嘉禾書)·운서(雲書)·조서(鳥書)·성서(星書)는 상서로운 현상을 기록하는 문자였을 뿐 일상에 쓸 수는 없었다.

b(4) 진(秦)에 이르러 이사(李斯)가 소전(小篆)을 만들고 정막(程邈)이 예서(隸書)를 만들었는데, 예서가 일어나자 고문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

b(5) 그러나 후세에 고문을 흠모하여 한(漢)·당(唐) 이래로 여러 사람들이 14개의 서체를 만들었으니, 지영전(芝英篆)·비백문자(飛帛[215]文字)·금착서(金錯書)·옥저전(玉筯篆) 등의 부류가 7개이고, 조희(曹喜)·유덕승(劉德昇)·왕희지·위관(衛灌)·위탄(韋誕)·사유(史游) 등의 사람이 만든 서체가 또 7개인데, 모두 고문이 아니다.

b(6) 그러니 진과 한 이후로 풍기(風氣)가 얕고 얇아졌음을 볼 수 있다. 아아, 태호(太昊) 복희씨 이래의 창고(蒼古)의 기(氣)가 진(秦)에서 망했고, 한(漢)을 거치면서 남김없이 사라졌다.[216]

---

215) 飛帛은 飛白과 같다. 보통 飛白으로 쓴다. 많지는 않지만『新唐書』권98,『吳越備史』,『姑蘇志』및『說郛』에서 인용한 後蜀 馬鑒의『續事始』와 唐 韋續의「五十六種書法」등에서 '飛帛書'라고 한 예가 있다. (電子版四庫全書 '飛帛書')

216)『記言』권6,「上篇」'古文',「古文」,"蒼頡見鳥跡作鳥跡書, 顓頊作科斗文字. 周媒氏作墳書, 伯氏因鐘鼎文作殳書. 又有奇字古文, 不知其所出. 史籀變古文, 作《十二篇》, 爲籀書. 自軒轅氏以來, 獜、鳳、龜、龍、嘉禾、雲、鳥、星文之書, 特記瑞而已, 不可用.

권두언 전문은 위와 같고 바로 뒤이어 각 서체의 유래 및 특성을 부연 설명한 주해(註解) 형식의 글[217]이 나온다.

서체를 가리키는 수다한 고유명사가 등장하여 어지러워 보이지만, 전체 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문학」 권두언보다 오히려 더 간단하다. 여기에서는 하강이 한 차례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b(4)의 진대(秦代)에 발생한 상고 고문의 절멸이라는 파국 이후 등장한 각종 전서체(篆書體)들은 후대의 창작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218] 이 서체들에 대해서는 위의 「문학」의 하강사에 등장한 중고(中古) 및 근고(近古) 작가들에 대한 품평과 달리, 상고 가치의 일부라도 남아있다는 암시가 없기 때문에, 창작의 전범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b(1)~(5)에 등장하고 있는 서체들은 보통 모두 뭉뚱그려 '잡체서(雜體書)' 혹은 '잡체전(雜體篆)'이라고 부른다. 김진흥의 『전대학(篆大學)』의 38체서에도 등장하고, 청대(淸代) '32체 전서'[219] 중 일부에서도 그 명칭 및 자형(字形)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

至秦, 李斯作小篆, 程邈作隸書. 隸書作而古文廢. 然後世慕古文, 漢、唐來, 諸作十四, 芝英、飛帛、金錯、玉筯之類七, 曹、劉、王、衛、韋、史之作又七, 皆非古文, 可見秦、漢以降, 風氣淺薄. 嗟乎, 太昊蒼古之氣亡於秦, 歷漢氏無餘矣."

217) 『記言』 권6, 「上篇」 '古文', 「古文」, "(…) 上古蒼頡見鳥跡始制文字, 作鳥跡書. 神農氏作穗書, 黃帝氏作雲書, 顓頊氏作科蚪文字, 務光作薤書. 又有奇字古文, 蒼古難知, 漢時, 揚雄識奇字. 鳳書、龜、龍之文, 皆因古文記瑞. 至周, 媒氏作墳書, 伯氏作笏記文, 曰殳書, 亦因古人鐘鼎古文, 不知作於何世, 而三代用之. 史佚作鳥書, 司星子韋作星書, 孔氏弟子作麟書, 皆從龜、龍古文. 史籀變古文, 作《十五篇》, 曰籀書. 秦壞古文, 作刻符文字八體, 丞相斯作小篆. 始皇帝至以衡石量書, 文書繁, 上谷 王次仲變古文爲書, 令隸人佐書, 曰隸書. 或云程邈作之, 邈出於徒隸, 故曰隸書. 隸書作, 而古文廢. 邈飾小篆, 作上方篆, 用之印璽. 王次仲減隸書, 作八分文字, 割隸書去八分法小篆取八分云. 秦 胡毋敬, 因大篆變小篆. 漢 孝武時, 甘泉産芝, 令陳遵作芝英篆. 曹喜作垂露篆, 又作懸針篆, 書《五經》篇目. 唐時, 有碧落篆, 似小篆. 陽氷善玉筯篆, 後世用之也. 魯 秋胡妻玩蠶, 作彫蟲書. 漢時, 有鵠頭篆. 韋誕作翦刀篆, 史游造其極. 劉德昇觀星文, 作纓絡篆. 蔡邕見人以帚求書, 作飛帛文字. 韋誕又作金錯古錢. 晉 衛瓘三世攻書, 作柳葉書. 王羲之以飛字龍爪形, 作龍爪書."

218) 여기서 이사(李斯)의 소전(小篆)의 지위가 문제가 된다. 진(秦)이 성립하고 난 이후 등장했으므로 분명 '고문(古文)'은 아니지만, 바로 뒤이어 "예서가 일어나자 고문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소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소전'은 분명 고문이 아니면서도 예서만큼 확실한 '非고문'은 아니며 희미하게나마 고문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서체가 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을 경우 고문 복원의 전거로 기능할 여지는 갖게 된다.

219) 청 건륭제 시기에 한자(漢字) 전서(篆書) 32체를 집대성하고 이에 대응하여 만주문자 전서 32체도 만들어서, 건륭제가 심양(瀋陽)의 풍물을 묘사하여 지은 <성경부(盛京賦)>를 대신(大臣)들에게 명하여 32체 전서체로 쓰게 한 『건륭어제삼십이체전서성경부(乾隆御製三十二體篆書盛京賦)』가 유명하다.

러나 허목의 「고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가 이 서체들을 '잡체' 혹은 삼십 몇 체로 통틀어 다루지 않고, b(4) 시기를 기준으로 b(1)~(3) 및 b(5)로 나누어 그 연원 및 가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5)에 속하는 서체들은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b(3)에 속한 서체들은 상고의 서체에 속하긴 하지만 특수한 용도의 글자들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상 서체와는 구분된 제한된 가치만을 지닌다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b(1)~(3)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시대적으로 비교적 후대이며 의의도 현저히 다른 b(2)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b(2)에서 허목은 분명히 사주(史籒)의 주서(籒書)가 "고문을 변(變)시켜" 만들었다고 했다. 때문에 이 서체는 이상적 상태로부터 한 단계 격하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다만 b(5)의 14개 서체보다는 여전히 상위 단계의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 또한 유추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본다면 b(1)와 b(3)의 서체들이 실제 상고의 고문이 되며, b(2)는 상고 고문으로부터 한 단계 변(變)한 차상(次上)의 가치를 지니고, b(5)의 14 서체는 가장 낮은 지위를 갖는 위(僞) 고전(古篆)이 되게 된다. 또한 b(3)에 등장하는 다수의 서체들은 제한적 용도의 서체라는 특수한 고문이 된다.

그렇다면 「문학」에 등장하는 문장으로서의 고문들과 비교할 때 「고문」의 문자-글씨로서의 고문들은, 전래 양상은 다기(多岐)하지만 전범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단순한 구도를 갖게 된다. 전범이 될 가능성이 b(1)과 b(3)의 서체들로, 더 좁게는 b(1)로 좁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허목의 '고문 복원'의 실제에서는 b(2)의 사주(史籒) 주문(籒文)도 주요한 전범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위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b(3)의 서체들은 제한적 용도를 가진 장식적 서체이기 때문에 실제 문자 생활에서 "쓰일 수 없기[不可用]" 때문이다.

둘째, 사주 주문은 비록 “고문을 (한 번) 변(變)시킨[變古文]”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문의 가치에서 한 단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소구하여 복원할 수 있는 근거 전적[220]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b(4), b(5)의 서체들의 경우도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후대의 가탁과 창조이긴 하나 상고 고전(古篆)의 형상을 조금이나마 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b(4)의 소전(小篆)은 b(1)과 (2) 중에서 상고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참고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또한 b(5)의 서체들은 필획 면에서 일부 은연중에 반영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7>과 같다.

이렇게 볼 때, 기서(記瑞)용 장식 서체를 제외한다면, 허목이 말한 ‘문자-글씨로서의 古文’은 정확하게는 조적서(鳥跡書)・과두문자・분서(墳書)・수서(殳書)・종정고문(鐘鼎古文)・기자고문(奇字古文)을 가리키며, 좀 더 확장한다면 사주(史籒) 주문(籒文)까지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적(典籍)의 기록에 근거한 연원 탐구의 면에서 그러하다. 조적서・과두문자・분서・수서・기자고문은 극히 일부의 자형 밖에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문 자형(字形) 복원 및 서예 실천의 실제에서는 범위가 더 좁아져 종정고문과 사주 주문이 ‘古文’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221]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언』에서 실행된 이론적 탐구의 분석을 넘어 허목의 고문 복원 활동의 실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고문 복원에서 주로 어떤 글자체의 자형이 채택되었는지를, 허목이 손수 써서 편집한 고문(古文) 자형(字形) 집성(集成) 자전(字典)의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

220) 위에서 허목이 12편 혹은 15편이라고 칭한 사주의 저작은 『사주편(史籒篇)』을 지칭한다. 이 책은 현전하지 않지만 사주의 주문은 『설문해자』 등에 다수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 참조.

221) 『기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설문해자』에 소전체(小篆體) 대표자 자형 이외에 ‘고문(古文)」으로 수록된 자형들도 주요한 참고로 활용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표 7>『記言』권6「古文」소재 각종 書體 비교표

시기	古文과 관계		서체 (창제자)	『記言』「古文」 해당 단락
先秦(周)	좁은 의미의 古文		조적서鳥跡書 (창힐蒼頡) 과두문자蝌蚪文字 (전욱顓頊) 분서墳書 (주周 매씨媒氏) 수서殳書 (주周 백씨伯氏) 종정문鐘鼎文 기자고문奇字古文	b(1)
	넓은 의미의 古文	古文 (記瑞용 특수 문자)	운서雲書 (※황제씨黃帝氏) 가화서嘉禾書 a.k.a. ※수서穗書 (※신농씨神農氏) 봉서鳳書 구문龜文 용문龍文 조서鳥書 (※사일史佚) 성서星書 (※사성자위 司星子韋) 인서麟書 (※공자제자孔子弟子) ※해서薤書 (※무광 務光)	b(3) (※는 註解에 등장)
		籀文 (한 차례 變한 古文)	주서籀書 a.k.a. 주문籀文 (주周 선왕宣王 태사太史 사주史籀)	b(2)
秦	非古文	小篆 및 隸書	소전小篆[222] (이사李斯 or ※호무경胡毋敬) 예서隸書 (정막程邈 or ※왕차중王次仲)	b(4) (※는 註解에 등장)

漢 魏 晉 唐 (※春秋 및 秦 포함)	非古文	僞古篆	※조충서彫蟲書 (노魯 추호秋胡 처妻) ※상방전上方篆 (진秦 정막程邈) ※팔분문자八分文字 (진秦 왕차중王次仲) 지영전芝英篆 (※한漢 진준陳遵) ※수로전垂露篆 (한漢 조희曹喜) ※현침전懸針篆 (한漢 조희曹喜) ※곡두전鵠頭篆 (한漢) ※전도전剪刀篆 (한漢 위탄韋誕이 창제했고, 한漢 사유史游[223]가 극도로 조예가 깊었음) ※영락전纓絡篆 (한漢 유덕승劉德昇) 비백문자飛帛文字 (※한漢 채옹蔡邕) 금착서金錯書 (한 위탄) ※유엽서柳葉書 (진晉 위관衛瓘) ※용조서龍爪書 (진晉 왕희지王羲之) ※벽락전碧落篆 (당唐) 옥저전玉筯篆 (※당唐 이양빙李陽氷)	b(5) (※는 註解에 등장)

222) 앞서도 서술했지만 '非古文'이지만 '隸書'만큼 확실한 '非古文'은 아니며 미약하나마 '古文'과 연결될 여지는 갖고 있음.
223) 사유는 원래 『급취편(急就篇)』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제4장 허목 수고본 고문자 자전(字典)의 분석

허목은 '전서(篆書)'로 통칭되는 고문자 자형(字形)을 폭넓게 수집하여 직접 서사(書寫)한 자전(字典)을 여러 종 남겼다. 이 장에서는 이를 분석하여 그가 어떤 서체의 고문자를 수집했으며 그 중 어떤 것에 주목했는지를 살펴, 이론으로서의 그의 고문관이 실제 문자 생활 및 문자학, 나아가 서예 창작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224]

허목의 수고본 전서 자서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한자 자전의 기본적 속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한자 문화권의 전통 자서(字書) 혹은 자전(字典)은, 한자의 3대 구성 요소인 형(形)·음(音)·의(義) 중 어떤 것을 분류·배열·검색의 매개체로 삼는가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류는 그 중심 매개체로서 한자 형태의 주요 요소인 부수(部首)를 이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한자음을 이루는 성운(聲韻) 중 운(韻)을 중심으로 한자를 분류하는 운부(韻部) 형식의 자서가 있다. 전자의 대표적 예로서 『설문해자(說文解字)』, 『옥편(玉篇)』, 『유편(類編)』, 『자휘(字彙)』, 『강희자전(康熙字典)』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는 『절운(切韻)』, 『광운(廣韻)』 등으로 대표되는 운서(韻書) 계열의 자서가 이에 속한다.[225] 금석학(金石學)이 발전함에 따라, 단순히 고문자 자료를 수집·정리한 자료집 차원을 넘어, 연구 성과를 집대성(集大成)하여 자서 형식으로 편찬한 '고문자 자서'도 다수 등장했는데, 이 중 송대(宋代) 곽충서(郭忠恕)의 『한간(汗簡)』은 『설문해자』의 방식에 근거한 부수 분류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송대 문자학의 또 다른 주요 성과인 하송(夏竦)의 『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과 두종고(杜從古)의 『집전고문운해(集篆古文韻海)』, 명대(明代)의 『금석운부(金石韻府)』 및 청대(淸代)의 『광금석운부(廣金石韻府)』, 한대 석각문자

224) 제4장 '허목 수고본 고문자 자전(字典)의 분석'은 이미 발표한 다음 논문을 바탕으로 약간의 보강 및 수정을 더한 것이다. 윤성훈, 「眉叟 許穆 手稿本 篆書 字典 기초연구」, 『대동문화연구』 10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pp.131~167.

225) 한자 자전의 분류·배열·검색 방식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류인태, 「한국 字典의 웹 서비스 구현에 대한 매체적 관점의 고찰」,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이 논문에는 전통 한자 사전의 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소개되어 있다.

를 가장 크게 집대성한 고애길(顧藹吉)의 『예변(隸辨)』 등은 모두 운부 배열법에 따라 편찬된 자서들이다.

미수 허목이 각종 고문자 자형(字形)을 모아 정리하여 편찬한 자전은 현재 3종이 전하고 있다. 이 중 『금석운부(金石韻府)』, 『고문운부(古文韻部)』, 『고문운율(古文韻律)』 3종은 '보물 592-1호 허목수고본(許穆手稿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226][227]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228] (이 3종의 도서는 1929년에 石版本으로 간행된 바도 있다.) 이 3종은 모두 운(韻)을 바탕으로 편찬된 운서(韻書) 계열 고문자 자서다.[229]

이하에서는 연관 자료 및 각종 전초(傳抄) 고문자 자료 검색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230] 위 자서 3종을 분석, 그 기초적 성격을 밝혀 향후 본격적 연구를 위한 토대를 닦고자 한다.

---

226) 이에 대한 공식정보는 '문화재청_국가문화유산포털' 웹사이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를 참조.

227) 『金石韻府』·『古文韻部』·『古文韻律』 원문 이미지는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웹사이트 (http://www.memorykorea.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22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명은 '미수 허목의 전서 모음'(소장번호: 新收-010611-000; 新收-010612-000)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29) 앞의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고문운율초(古文韻律抄)』를 허목의 주재 하에 편집된 책으로 보아 이 또한 넓은 의미의 허목 수고본 자전에 포함시켰으나, 이후 연구를 더 진행함에 따라 『고문운율초』는 제목 그대로 허목 사후에 허목의 작품 및 『금석운부』, 『고문운율』, 『고문운부』에 등장하는 자형을 모아 편집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華'의 경우 『고문운율초』에 8개 자형이 수록되어 있는데, 『금석운부』, 『고문운율』, 『고문운부』 자형들을 모두 망라하여 수록한 다른 글자와 달리, '華'는 『고문운율』과 『고문운부』 수록 자형만 수록하고 있다. 이는 『금석운부』에는 해당 글자가 포함된 下平聲 끝부분인 '幽 侵 覃 談 鹽 咸 嚴 銜 凡' 운부분이 탈락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허목이 편찬에 참여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졸고 「眉叟 許穆 手稿本 篆書 字典 기초 연구」의 해당 부분은 오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허목 수고본 자전을 3종으로 확정한다.

230) 허목이 수집한 고문자의 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汗簡』 등 宋代 이래 중국의 傳抄古文字 集字 사전에 수록된 字形들의 검색이 필수적이다. 전초 고문자 검색은 다음 사이트가 유용하다. 小學堂 사이트, "傳抄古文字" 및 "字形演變", http://xiaoxue.iis.sinica.edu.tw/

1.『금석운부(金石韻府)』

1.1. 체제와 구성

『금석운부(金石韻府)』는 허목의 친필 수고본(手稿本)으로서 총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의 다른 고문자 자전과 같이 운서(韻書) 형식을 띠고 있다. 전체 체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 허목『금석운부』의 체제

冊	冊表題	聲部內題	면	내용	비고
上	金石韻府上	金石韻府平聲上	4~5	平聲上 韻字 목록 수록 韻字: 東 冬 鍾 江 支 脂 之 微 魚 虞 模 齊 佳 皆 灰 開 眞 諄 臻 文 殷 元 渾 痕 寒 桓 關 山	-4쪽에 인장 3과(顆) 있음[231] -開部는 원래 咍部임[232] -渾部:魂部 -關部:刪部
			6~32	上平聲部 본문	-楷書 대표자 및 해당 고문자 자형 수록 -33쪽은 비어 있음
		金石韻府平聲下	34~35	平聲下 韻字 목록 수록 韻字: 先 仙 宣 蕭 超 崤 豪 歌 戈 麻 陽 唐 庚 耕 淸 靑 蒸 登 尤 侯 幽 侵 覃 談 鹽 咸 嚴 咸 銜 凡	-超部:宵部 -崤部:肴部 -咸部:添部
			36~53	下平聲部 본문[233]	
		金石韻府上聲	54~56	上聲 韻字 목록 수록 韻字: 董 腫 講 紙 美 市 尾 語 麌 姥 禮 解 駭 賄 海 軫 準 吻 隱 遠 混 亶 緩 綰 産 銑 獮 篠 小 巧 旻 皸	-美部:旨部 -市部:止部 -禮部:薺部 -解部:蟹部 -遠部:阮部 -混部와 亶部 사이에 원래 很部

				果 馬 養 蕩 綆 耿 靜 頂 拯 有 厚 黝 寢 坎 敢 儉 忝 淡	가 있어야하나 없음 -綰部:潸部 -昊部:皓部 -皮部:哿部 -綆部:梗部 -頂部:迥部 -坎部:感部 -儉部:琰部 -淡部:豏部
			58~83	上聲部 본문	57쪽은 비어 있음
下	金石韻府下	없음	4~29	去聲部 본문[234]	去聲 韻字 목록 및 送・宋・用・絳・寘部 본문이 없음
		金石韻府入聲	30~31	入聲 韻字 목록 수록 韻字: 屋 沃 燭 覺 質 術 櫛 勿 迄 月 沒 曷 末 拔 轄 屑 鳥 藥 莫 陌 麥 昔 錫 職 德 十 合 盍 葉 協 業 洽 柙 法	-鳥部:薛部 -莫部:鐸部 -十部:緝部 -協部:帖部 -洽部:洽部 -柙部:狎部
			32~53	入聲部 본문	

231) 같은 도장 3과(顆)가 『고문운율(古文韻律』) 제2책 卷首에도 찍혀 있다. 세 인장은 각각 “仰止行止”(추정), “人文”, “齊陽許穆文父”로 釋文된다. 이들 세 도장 모두 『미상도장첩(眉相圖章帖)』(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貴 736.3 ㅎ176ㅁ) 등 기존 자료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232) ‘~部는 원래 ~部임’은 이하 ‘開部:哈部’의 형식으로 간략히 표기함. 허목 수고본 『금석운부』에서 해당 운부(韻部)의 대표 운자(韻字)를 명(明) 간본(刊本) 『금석운부』에 수록된 표준 운인 평수운(平水韻)과 다르게 선택한 것을 가리킴. 허목이 최초로 수록한 글자를 해당 운부의 대표 운자로 삼은 것이다.

233) 平聲下 맨앞의 ‘韻字 목록’에는 下平聲이 모두 수록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본문에는 侯韻 이후 ‘幽 侵 覃 談 鹽 咸 嚴 咸 銜 凡’가 없음.

234) 수록 韻部의 韻字는 다음과 같다: 至 志 未 御 遇 暮 泰 霽 祭 卦 怪 夬 隊 戈 廢 震 稕 問 焮 慁 願 翰 換 諫 襉 霰 線 嘯 笑 效 號 箇 過 禡 漾 宕 敬 諍 勁 徑 證 嶝 宥 候 幼 沁 勘 闞 豔 梵 陷 鑑 梵

허목 수고본 『금석운부』는 상하(上下) 총 2책으로 구성되었다. 상책(上冊)은 평성 상(平聲上, 上平聲)·평성 하(平聲下, 下平聲)·상성(上聲)을, 하책(下冊)은 거성(去聲)·입성(入聲)을 담고 있다. 각 성부(聲部)는 가장 앞부분에 먼저 수록 운부(韻部)를 나타내는 운자(韻字)의 목록이 2~3면에 걸쳐 펼쳐져 있다. 목록의 운자는 각 운부 맨 앞에 수록된 표제자인데, 이 때문에 일반적인 운서의 운부(韻部) 운자(韻字), 즉 '평수운(平水韻)' 운자가 아닌 운자도 포함되어 있다. 표제 및 내제, 그리고 목록은 모두 허목 전서체로 적혀 있다.

본문은 광곽(匡郭)이나 계선(界線)이 없고, 행자수(行字數)는 일정하지 않으나 한 면(半葉)에 최대 7행을 넘지 않는다. 행간(行間)이나 상단 여백에 간혹 교정 표시나 첨가 문구가 있긴 하나 대체적으로 정서(淨書)되어 있다.

각 수록자들은 각기 '전서(篆書) 대표 자형-해서(楷書) 표제자-(전서 기타 자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그림 2>

<그림 3>

먼저 전서(篆書) 대표 자형이 하나 제시된 후, 그 바로 밑에 작은 글씨의 해서로 석문(釋文)하여 표제자를 표시하여 주었다. 해서 표제자 아래에는 다시 대표 자형과는 다른 전서 자형을 제시하여 준다. 이 '기타 자형'의 수는 일정하지 않아서, 없는 경우도 많고, 꽤 많은 경우도 간혹 있다. 예를 들어 동부(東部) '東'의 경우는 없으며, '同'은 1개, '風'은 2개

의 기타 자형을 수록하고 있다. (<그림 2>) 대개 아예 없거나 한두 개의 기타 자형만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간혹 많은 자형을 부가한 경우도 있어서, 지부(之部) '其'자는 표제자 포함 12개 자형, 모부(摸部) '烏'자는 13개 자형을 수록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해서 표제자 이외에 해서로 간략한 부기(附記)를 추가하기도 한다. 부기의 위치는 주로 해서 표제자 바로 다음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기타 자형에 부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부기'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 '古文', '籀文' 등 해당 표제자 혹은 해당 자형(字形)의 서체명(書體名) 혹은 연원을 밝혀준 경우. 예를 들어 동부(東部) '工'자의 경우, 해서 표제자 옆에 '古文'을 부기하여, 대표 자형이 '고문' 자형임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 3>)

둘째, '假借' 등 조자(造字) 혹은 통용通用) 원리, 즉 육서(六書)를 밝힌 경우.[235]

셋째, '古尙書' 등 해당 자형의 출전을 밝힌 경우.

한 표제자와 다음 표제자 사이는 대부분 공백 없이 한 행 안에서 계속 이어서 썼다. (간혹 행을 바꾼 경우도 있음) 그러나 한 운부(韻部)가 끝난 경우는 반드시 행을 바꾸었으며, 간혹 한 행을 건너뛰어 운부의 교체를 더욱 잘 드러나게 하기도 했다.

1.2. 허목(許穆) 수고본(手稿本) 『금석운부(金石韻府)』와 명(明) 간본(刊本) 『금석운부』

종래에는 허목이 손수 쓴 『금석운부』를 허목 자신의 편저작(編著作)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이 책은 허목의 저작이 아니며, 명(明)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저작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

235) 허목 『금석운부』에서는 六書 중 假借 이외에는 등장하지 않음.

저 명(明) 간본(刊本)『금석운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으로 위의 사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명(明)『금석운부(金石韻府)』는 명말(明末)의 주운(朱雲)이 편찬한 고문자 자전으로서 5권 5책의 목판본이며, 전서(篆書)로 된 자형(字形) 부분은 붉은 색으로, 해서(楷書)로 된 서문(序文)·표제자·주기(注記)·광곽 및 계선은 검은 색으로 인쇄된 주묵투인본(朱墨套印本)이다. 운서(韻書)식 자전으로서 제1권은 상평성(上平聲), 제2권은 하평성(下平聲), 제3권은 상성(上聲), 제4권은 거성(去聲), 제5권은 입성(入聲) 운부(韻部)에 속한 글자들을 수록하고 있다. 제1권 첫머리에는 4건의 서문과 함께 수집한 고문자 자형(字形)의 출전 목록인「고고서전(攷古書傳)」이 있는데,「고고서전」에는 고주역(古周易)·고사기(古史記) 등 고전적(古典籍), 상정(商鼎)·주궤(周簋) 등 고기물(古器物), 벽락문(碧落文)·패구장비(貝丘長碑) 등 고비명(古碑銘), 임한집(林罕集)·왕존예절운(王存乂切韻) 등 전래(傳來) 집자서(集字書) 등등 총 134종의 출전 서명(書名) 및 기물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각 권에는 먼저 수록 운부(韻部) 운자(韻字) 목록이 제시된 후, 곧바로 자전(字典) 본문이 나온다. 본문의 판면(版面)은 광곽과 계선이 있는 반엽(半葉) 6행의 형식이며, 각 수록자는 '흰 동그라미[白卷] 내에 검은색[墨色] 대자(大字)로 쓰인 해서(楷書) 대표자-검은색 소자(小字)로 쓰인 대표자 자음(字音)의 반절(反切)-붉은색[朱色] 대자(大字)의 고문자 자형(字形)-각 자형 밑에 검은색 소자(小字)로 달린 자형 출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대표자에 딸린 자형들은 최대 수십 개에 달할 만큼 상당히 많으며, 각 자형마다 출전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출전 서목은『한간(汗簡)』등 기존의 고문자 자전을 답습한 것이 많지만, 종래의 수집 성과를 충실히 반영했고, 또 종종 자형만 제시하고 출전은 생략했던 기존의 고문자 자전과 달리 글자마다 출전도 반드시 제시하고 있어서, 전초고문자(傳抄古文字) 집자(集字) 자전으로서 상당한 수준에 달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편저자인 주운(朱雲)에 대해서는, 자(字)가 시망(時望)이며 강소(江蘇) 상주(常州) 출신이라는 점 등, 본서의 서문 및 제기(題記)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달리 알려진 사실이 없다. 또한『금석운부』에는 저자인 주운의 글-서문이나 발문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 주운의 저작으로

알려진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전래하는 1640년 간행의 『금석운부』에는 다음 4인의 서문이 실려 있다.

<표 9>

제목	저자	집필 연도	비고
金石韻府原敍	豊坊	嘉靖10년(1531)	
金石韻府序	兪顯謨	미상	兪顯謨는 較正자임
金石韻府敍	李宓	崇禎13년(1640)	실제로는 廣金石韻府 출간에 관한 내용임
重刊廣金石韻府敍	林樹聲	崇禎庚辰(1640)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원서(原敍)」를 지은 풍방(豊坊)이다. 그는 현재의 절강성 영파(닝보, 寧波) 지역인 은현(鄞縣) 출신으로, 자(字)는 존례(存禮) 또는 인숙(人叔)인데, 후에 도생(道生)으로 개명(改名)하고 자도 인옹(人翁)이라 했다. 호는 남우외사(南禺外史)이다. 1523년(嘉靖 2)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남경이부고공주사(南京吏部考功主事) 등의 관직을 지냈다. 글씨를 잘 써서 오체(五體) 및 전각(篆刻)에 능해 당대에 이미 유명했으며, 서법이론서인 『서결(書訣)』을 지었다. 장서가 수만 권에 달했다는 만권루(萬卷樓)가 집안에 있어, 많은 비첩(碑帖) 및 묵적(墨蹟)을 소유했다고 한다. 『고문운부』의 편찬자인 주운이 무명에 가깝고 기존 자료를 편집·가공하여 책을 편찬했을 뿐 자신의 생각을 밝힌 글을 책에 남기지 않은 반면에, 풍방은 서법으로 당대에 저명했고 이론서까지 남겼던 인물이며 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서문을 남겼기에 『금석운부』 관련 인물 중 오히려 저자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위 4종의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금석운부』는 명말(明末)에 이미 원래의 내용을 보강한 『광금석운부』의 형태로 유통되었다. 그리고 청(淸)의 임상규(林尙葵)와 이근(李根)이 다시 내용을 보강하고 주량공(周亮工)이 서문을 써서 1670년(康熙 9)에 최초로 출간한 『광금석운부』가 후대에 널리 유통되게 되자 원래의 『금석운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236]

236) 조선 시대 『광금석운부』의 유통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으나,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미수의 『금석운부』의 저본이 명(明) 『금석운부』임이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원인으로, 미수가 쓴 『금석운부』 내에 관련 사실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으며, 또한 『기언(記言)』 등 미수의 다른 저작에서도 이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그런데 『금석운부』와 풍붕(豊坊)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기언』 권6 원집(原集) '고문(古文)'의 「고문시학자(古文示學子)」에 나온다. 「古文示學子」의 이 구절은 일찍부터 주목되어,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豊叔'과 '金石古文'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허목 글씨의 연원을 밝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됨이 지적되어 왔다. 정광호[237], 김동건[238], 심현섭[239] 등의 연구에서 이에 대해 언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에 등록된 기관 소장 현황을 통해 비교적 널리 유통되었던 정황은 짐작할 수 있다. 『금석운부』는 기관 소장 내용이 없다. (1929년 출간 석판본 제외) 다만 1927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가 해남 윤씨 고택 소장 도서 전수 조사를 통해 발간한 『해남윤씨군서목록(海南尹氏群書目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서 '金石韻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서명(書名)만 있을 뿐 다른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조사 시점이 석판본 출간 이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본(古本)임은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미수 원고의 사본인지 명(明) 출간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수는 윤선도 신도비문을 지었으며 해남 윤씨 가문과 관계가 깊었으므로, 『목록』의 '금석운부'가 현재 논의의 대상인 두 책 중 하나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해남윤씨군서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 책에도 전문이 전재(轉載)되어 있다. 이내옥, 『공재 윤두서』, 시공사, 2003, 399-433면.

237) 조금 길지만, 이 구절에 대한 정광호의 다음과 같은 최초의 주목이 본 구절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런 인식이 이후 연구에서도 (여전이 미해결인 채)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으므로, 아래에 해당 구절을 전재(轉載)한다.
"(古文示學子 인용 부분 생략) (…)라고 말한 것이 그의 古文蒐集에 대한 유일한 根據이다. 여기서 짐작되듯이 眉叟가 봤다고 하는 豊叔의 「金石古文」은, 그 당시까지 採集할 수 있었던 온갖 體의 古文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眉叟로 하여금 자못 감탄과 好奇心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冊 - 이것이 바로 「金石古文」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例의 그 「金石古文」이란 冊의 正體를 알아내기가 도무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豊叔이란 作者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 이것은 물론 좀더 조사해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아직까지의 결과만으로는 眉叟가 가장 많이 參考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金石古文」은 실상 어떤 冊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冊의 正體가 정확히 攷證될 때까지는 眉篆의 근거도 사실은 不明確한 채로 보류해 둘 수 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정광호, 앞의 논문(「眉叟 許穆의 古篆世界」), p.105.

238) 김동건은 '풍숙'이 '豊坊', '금석고문'이 楊愼의 저작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동건, 「眉叟 許穆의 篆書硏究-形成과 樣式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10, 한국미술사학회, 1996, pp.46~47.

239) 심현섭 역시 "미수가 직접 수집 저술한 古文字典인 『古文韻府』(※府는 원래 部이나 필자의 표기를 그대로 따름), 『金石韻府』, 『古文韻律』의 底本으로 추정되는 풍숙의

그 정확한 실체가 규명된 바가 없다. 문제의 구절은 아래와 같다.

> 후에 또 '풍숙(豊叔)'의 '금석고문(金石古文)'을 얻었는데 그 책에는 『한간(汗簡)』의 문자로부터 『설문(說文)』, 『연설(演說)』, 고경(古經), 석경(石經), 『하서(夏書)』, 고사(古史), 비간총(比干塚)과 석곽(石槨) 문자, <화악비(華嶽碑)>, 상정(商鼎), 주이(周彝), 반(盤), 이(匜), 보궤(簠簋)의 문자, 그리고 『주운(籀韻)』, 『고세본(古世本)』, <기양석고(岐陽石鼓)>, 『대전(大傳)』, 『절운(切韻)』의 집자(集字) 군서고문(群書古文)이 모두 130(家)가 수록되어 있다.[240]

허목의 이 글에서 언급된 전거들은 모두 명(明) 『금석운부』의 「고고서전(攷古書傳)」에도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

古文示學子의 표기	攷古書傳의 표기	실제 書名 및 비고
汗簡文	汗簡	宋 郭忠恕의 『汗簡』
說文	許氏說文	漢 許愼의 『설문해자』
演說	庾儼演說	梁 庾儼默의 『演說文』. 庾儼字書라고도 함.
古經	古周易, 古孝經, 古毛詩, 古周禮, 古論語, 古尙書, 古春秋, 古禮記, 古爾雅	기존 고문자 자전 字形 출전에 기록된 각종 전래 古文 경전들
石經	石經	三體石經 등 각종 석경
夏書	夏書	夏의 사적을 기록한 史書.

『金石古文』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함을 미수 허목 전서 연구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심현섭, 「미수 허목전서 연구의 실상과 과제」, 『서예학연구』13, 한국서예학회, 2008, pp.321~352.

240) 허목, 『記言』권6, 「古文示學子」, "後又得豐叔《金石古文》, 其書自《汗簡文》、《說文》、《演說》、古經、石經、夏《書》、古史、比干塚、石槨文、《華嶽碑》、商鼎、周彝・盤・匜・簠・簋之文、《籀韻》、古《世本》、岐陽《石鼓》、大傳、《切韻》集, 群書古文, 凡百三十家."

		자세한 것은 미상.
古史	古史記 혹은 漢書	『사기』와 『전한서』 등에 나오는 古字를 가리킴
比干塚	比干墓銘	周 武王이 세웠다고 전하는 比干墓의 碑銘
石槨文	滕公石槨 (추정)	'石槨文'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滕公石槨은 漢 夏侯嬰이 발견했다고 전하는 옛 石槨의 銘文
華嶽碑	華嶽碑	雲臺觀에 있었다고 하는 비문. '三方碑', '華嶽頌' 등으로도 칭함.
商鼎周彝盤匜簠簋之文	商彝, 商鼎, 商盤, 周簠, 周簋, 周匜 등등	『歷代鐘鼎彝器款識』 등에 수록된 각종 古器銘
籀韻	籀韻	미상
古世本	古世本	先秦 시기 史書인 世本은 현재 원본은 전하지 않고 각종 史書에 단편이 산재함
岐陽石鼓	岐陽石鼓	<石鼓文>
大傳	周書大傳 (추정)	미상
切韻	義雲切韻, 王存乂切韻 등	『切韻』을 바탕으로 고문자를 모은 책들.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많지 않음.
集字	朱育集字, 荀邕集字 등	吳 朱育의 集字書 등
群書古文	雜古文, 證俗古文, 馬日磾集 등	『汗簡』에도 '雜古文'의 출전이 나오나 어떤 책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음. 『證俗古文』은 『顔黃門說字』를 가리킴. 東漢 馬日磾의 『馬日磾集』을 『群書古文』이라 칭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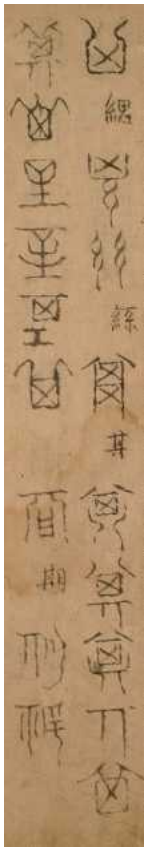
위 표를 통해 볼 때 『기언』「고문시학자(古文示學子)」의 출전들이, 약간 표현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명(明) 『금석운부』의 「고고서전(攷古書傳)」에 등장하는 출전 서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석운부』의 「고고서전(攷古書傳)」에는 모두 134개의 출전이 등장하는데, 「고문시학자」의 "130가(家)"라는 언급과 숫자가 거의 일치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남는데, 주운(朱雲)이 편찬한 명(明) 『금석운부』를 허목이 왜 '豊叔金石古文'이라고 지칭했는가라는 점이 그것이다. 「금석운부원서(金石韻府原敍)」의 끝에는 "嘉靖十年九月望 進士天官尙書郎南禺外史 豊坊 存朮 書于寶峴樓"라는 기록이 있다. 이때의 '존숙(存朮)'이 풍방(豊坊)의 자(字)라고 보면, 허목이 말한 '豊叔'이 김동건이 제시한 바와 같이 풍방(豊坊)을 가리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金石古文'은 정확한 서명(書名)이 아닌 『금석운부』에 수록된 금석 고문자 자형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석운부』의 편찬자인 주운은 무명(無名)의 인사이기 때문에 서법(書法)으로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던 풍방을 저자로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겠다.

미수 허목의 『금석운부』가 명(明) 『금석운부』를 초사(抄寫, 발췌해서 베껴 씀)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증거에 의해 증명된다.

첫째, 허목 『금석운부』 수록 자형은 모두 명(明) 『금석운부』에 나오는 자형이다. 허목 『금석운부』에는 일반적으로 각 자형(字形)의 출전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명 『금석운부』와 비교해 보면 그 출전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아래는 명 『금석운부』 제1권 상평성(上平聲) 및 허목 『금석운부』 상책(上冊) 상평성 지부(之部)에 수록된 '其'자의 예이다.

허목
『金石韻府』
‘其’



명(明)
『금석운부(金石韻府)』
‘其’

허목 『금석운부』에는 ‘其’의 자형 12개가 수록되어 있고, 명 『금석운부』에는 29개가 수록되어 있다. 허목 『금석운부』 12개 자형은 모두 명 『금석운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며, 명 『금석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각 자형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대표 자형: 鐘鼎文 / 기타 자형1: 汗簡 / 기타 자형2: 古孝經 / 기타 자형3: 汗簡 / 기타 자형4: 道德經 혹은 存乂切韻 / 기타 자형5: 左父鼎 / 기타 자형6: 鐘鼎文 / 기타 자형7: 鐘鼎文 / 기타 자형8: 鐘鼎文 / 기타 자형9: 方寶甗 / 기타 자형10: 圓寶鼎 / 기타 자형11: 穆公鼎

위의 예와 같이 허목『금석운부』에는 '부기(附記)'가 달려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각 자형의 출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명『금석운부』와 대조해 보면 모두 출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허목『금석운부』수록 자형(字形)에는 해당 자형의 해서(楷書) 석문(釋文) 이외에, 그 자형의 연원 및 출전 혹은 운용 원리를 가리키는 부기(附記)가 덧붙여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부기의 내용이 명(明)『금석운부』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하평성(下平聲) 선부(仙部) '煎' 자(상책上冊 37면)에 '籀'라고 부기되어 있는데(<그림 6>) 같은 자형이 명『금석운부』에 '籀文'으로 표기되어 있으며(<그림 7>), 하평성(下平聲) 경부(庚部) '庚' 자(상책 47면)의 한 자형에는 '古文'이라고 되어 있는데(<그림 8>) 명『금석운부』의 표기와 같고(<그림 9>), 거성(去聲) 치부(値部)(명『금석운부』에는 지부志部로 되어 있음) '試' 자(하책下冊 5면)의 '假借' 표기(<그림 10>)도 명『금석운부』와 같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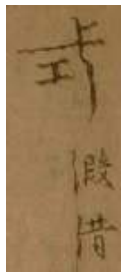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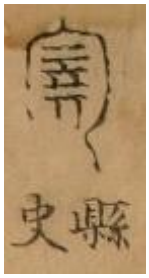
<그림 11>

'煎'의 경우『설문해자』소전(小篆)체와 상당히 흡사한데 명(明)『금석운부』에서는 소전체 아래에 바로 '籀文'도 수록하고 있다. 명『금석운부』가 이 자체를 '籀文'으로 본 것은『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을 따른 것인데, 허목의『금석운부』에서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명『금석운부』가 아닌 송(宋)의『고문사성운』을 참조한 것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庚'과 '試'의 경우를 보면 명『금석운부』를 참조했이 확실함을 알 수 있다. '庚'의 이 자형이 '古文'이라고 한 자료가 명『금석운부』이외에 달리 보이지 않으며, '試'의 경우 '式'의 자형을 '試'에 수록한 것은『집전고문운해(集篆古文韻海)』에서도 보이지만『집전고문운해

』에서는 이를 '假借'라고 하지 않은데 반해 명『금석운부』에서는 '假借'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여러 예들로 볼 때 허목『금석운부』의 '古文'·'籀文'·'假借' 등등의 부기(附記)는 명(明)『금석운부』의 그것을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명(明)『금석운부』를 참조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필사 오류가 등장한다. 허목『금석운부』하평성(下平聲) 선부(先部) '縣' 자(상책上冊 37면)에는 자형(字形) 밑에 '縣史'라고 표기되어 있는데,(<그림 12>) 이는 이 '縣' 자형이 '籀文'임을 가리키는 것이다.('史'는 '史籀'의 약자임) 그런데 사실 이 자형은 '縣'이 아니라 '玄'의 자형이다. '玄' 자의 이 자형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명『금석운부』이외에 찾아보기 힘들며, 더구나 이를 '縣'의 자형으로 수록하고 있는 자전은 없다. 허목의『금석운부』가 이 자형을 '縣'의 '籀文'으로 잘못 인식한 까닭은 명『금석운부』를 초록하는 과정에서 실수했기 때문이다.

<그림 12>



<그림 13>

<그림 13>을 보면 허목『금석운부』에서 '縣史'라고 표기되어 있는 자형이 명『금석운부』의 대표자 '縣' 자 바로 위에 수록되어 있는 '玄'의 '籀文'임을 알 수 있다. 이 자형이 '縣' 자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전사(轉寫)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듯하다. 이 오류는 허목의『금석운부』가 명『금석운부』를 저본으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1.3.『금석운부』의 특성과 의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목의『금석운부』는 명(明) 간본(刊本)『금석운부』 중 일부 자형(字形)을 초사(抄寫)·편집하여 구성한 책이다. 그러므로 분명 이는 허목 자신의 저작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허목의 글씨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다. 본인의 친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허목 '고문' 글씨의 다양한 양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특성은 허목의 '고문'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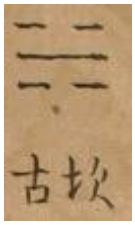
첫째, '古文'·'籀文' 및 '假借' 등 각종 부기(附記)를 통해 해당 자형의 서체·연원·조자(造字) 및 운용 원리를 기입함으로써, 고문자의 성질을 허목이 어떤 시각으로 파악하고자 했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허목『금석운부』에는 '古文'('古'라고 한 글자로 표기한 것 포함) 부기가 61개[241], '籀文'('籀' 혹은 '史' 표기 포함) 부기가 37개, '假借' 부기가 3개소에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모두 명(明)『금석운부』에 근거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허목이 이 책의 초선(抄選) 과정에서 '古文'과 '籀文', 특히 '고문'의 실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허목은 명(明)『금석운부』의 '古文' 혹은 '籀文' 출전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명『금석운부』의 '고문' 및 '주문' 자형을 모두 그대로 수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枝'의 경우 명『금석운부』의 '古文' 자형을 허목『금석운부』에

241) '弘' 자의 경우 6개의 古文 자형을 수록한 후 '皆古'라고 附記하고, 制는 4개 자형에 '並古', '萼'은 2개 자형에 '並古'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자형의 개수로는 70개에 '古文'을 표시한 것이 된다.

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災'의 '籀文' 자형도 수록하고 있지 않다. '貧'의 경우 명『금석운부』에 '古文'과 '籀文'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허목은 '고문' 자형은 수록하지 않고 '주문' 자형은 수록하면서도 '籀文'이라 표기하지 않았다. '雲'은 명『금석운부』의 '고문' 자형을 수록하면서도 '古文'이라 표기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명『금석운부』에는 원래 허목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고문' 및 '주문'이 수록되어 있으나, 허목의 취사선택에 의해 허목『금석운부』에는 극히 일부의 '고문' 및 '주문' 자형만 수록되었으며, 부기(附記)로 명확히 밝힌 것은 더욱 적다. 이를 통해 허목이 명『금석운부』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면서도 그 출전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독자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일부 자형에서 '古尙書' 및 '古周易', '古爾雅' 등 고경(古經) 출전의 자형을 채택했는데, 이를 통해 허목이 고문자를 상고(上古) 성인(聖人)의 정신을 담고 있는 중요한 매체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遜'의 '古易', '困'의 '古書', '陸'의 '古尙書' 부기는 각각 명『금석운부』의 '古周易' 및 '古尙書' 표기를 따른 것이다. '濫'의 경우 부기는 없지만 명『금석운부』에 수록된 '古爾雅'의 자형을 채택하고 있다. '坎'의 경우도 흥미롭다. '古'라고 부기하고 있으나(<그림 14>), 자형은『주역(周易)』감괘(坎卦)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경우도 명『금석운부』를 따른 것이나(<그림 15>),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허목은 명『금석운부』를 채택할 때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취사선택을 했는데, 허목이 이 자형을 선택하면서『주역』의 괘를 염두에 두었음은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그는 '고문(古文)'의 자형을 단순한 글자체가 아닌 성인(聖人)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성인이 지은 고경(古經)이 자형 선택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4>



<그림 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목의 『금석운부』는 그의 독자적 편찬물은 아니며 명(明) 『금석운부』의 발췌·편집본이다. 그러나 명 『금석운부』 자형의 취사선택에서 허목의 고문자[古文], 특히 '古文'(고문 전체가 아닌 고문 중 '古文'이라 불린 특정 서체)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허목의 『금석운부』는 그의 고문(古文) 연구의 본격적 성과물이라기보다는 자전 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허목 자전 전체상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고문운율(古文韻律)』

2.1. 『고문운율』의 체제와 구성

『고문운율(古文韻律)』은 미수 허목의 친필 수고본으로서 총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서(韻書) 형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1>

冊	표제(表題) 및 기타 표시	권수제 (卷首題)	면	내용	비고
一	古文韻律一 平聲 共四	없음	4~82	平聲部 본문	韻部 목록 없음
二	古文韻律二 上聲 共四	古文韻律二 上聲	4~5	上聲 韻字 목록	4쪽에 圖章 3顆 있음[242]
			6~58	上聲部 본문	
三	古文韻律三 去聲 共四	古文韻律三 去聲	4~5	去聲 韻字 목록	4쪽에 圖章 3顆 있음
			6~59	去聲部 본문	
四	古文韻律四 入聲 共四	古文韻律四 入聲	6~7	入聲 韻字 목록	4, 5쪽 비어 있음
			8~43	入聲部 본문	

242) 허목 수고본 『금석운부(金石韻府)』 상책(上冊)에 찍힌 3과(顆)의 도장과 같은 도장

미수 수고본『고문운율』에 대해 우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고문운율』이 1929년에 석인본(石印本)으로 간행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허목수고본(許穆手稿本)' 4종이 1975년에는 보물 592-1호로 지정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본의 존재 자체가 연구자 및 일반에 여태껏 인지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오류는 보물 지정 당시 '허목수고본'이 4종 12책이 아닌 '3종 12책'으로 잘못 등록되었으며 이후에도 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답습했던 데에서 기인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물 592-1호는 "『동해비첩(東海碑帖)』 1책,『금석운부(金石韻府)』 2책,『고문운'부'(古文韻'府')』 9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고문운'부'(古文韻'府')』 9책"은 "『고문운'부'(古文韻'部')』" 5책과 "『고문운율(古文韻律)』" 4책'의 잘못이다. '문화재청-국가기록유산' 사이트에서 본 서적의 원문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문운'부'(古文韻'府')" 9책 중 제1, 3, 4, 6, 8책이 "고문운'부'(古文韻'部')"이며, 제2, 5, 7, 9책이 "고문운율(古文韻律)"임을 알 수 있다.『고문운부(古文韻部)』와『고문운율(古文韻律)』은 모두 운서(韻書) 형식으로 되어 있어 수록 대표자 배열이 매우 유사하여 두 서적의 제1책이 모두 상평성(上平聲)에 해당하는 등 해당 성부(聲部) 본문의 내용이 서로 겹치며, 책 제목 또한 끝의 한 글자만 다른데다 전서체(篆書體)로 쓰여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헷갈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알 수 없는 경위에 의해 별개의 두 서적이 한 데 섞였고, 이후 줄곧 그 상태로 보관·열람되며 오류가 지적되지 않아 온 것으로 보인다.

『금석운부(金石韻府)』,『고문운부(古文韻部)』,『고문운율(古文韻律)』 3종의 필사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1929년에 석판본으로 간행된 바가 있는데, 모두 보물 592-1호 수고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 석판본의 간행 시점까지는 수고본『고문운부(古文韻部)』5책과『고문운율(古文韻律)』4책이 현재와 같이 한 데 섞여 있지 않고 별개의 서적으로 원상태를 지켜 잘 구분되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석판본『고문운율』에는 다른 석판본 2종과 달리 서문과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고문운율서(古文韻律序)」는 석판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고문운율초(古文韻律抄)』의 마이크로필름[243], 그

들이다. 아래『고문운율(古文韻律)』제3책의 도장들도 같다.

리고 『기언(記言)』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고문운율』의 성격 및 편찬 시기를 밝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거가 된다. 세 서적에 수록된 「고문운율서」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찬자 (撰者)	서사자 (書寫者)	서체 (書體)	紀年後識[244]	비고
記言	許穆	미상	楷書	없음	木版本
석판본 고문운율		許進 (허목 10대손)	篆書	있음	許進의 後識가 있음[245]
고문운율초		許穆 (추정)	楷行	있음	

위 3종 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고문운율초』 마이크로필름 첫머리에 수록된 「고문운율서(古文韻律序)」가 허목의 원고(原稿)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고문운율서」는 허목 70세 때인 1664년(현종 5)에 쓰여 졌고, 1674년(현종 15) 허목이 직접 『기언』 원집(原集)을 편집할 때 수록되었다. 『기언』에 수록된 「고문운율서」에는 『고문운율초』 마이크로필름본 수록 「고문운율서」 본문에 한 글자가 추가되었고, 작성 연도를 나타내는 후지(後識) 부분이 빠졌다.[246] 1929년 흥문당에

243) 『고문운율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한국학전자도서관 사이트(http://lib.aks.ac.kr)에서 서지정보 확인 가능. (청구기호: K3^0461, 마이크로필름 번호: MF35-449) 마이크로필름 이미지는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웹사이트(http://yoksa.aks.ac.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필자의 확인에 따르면 「고문운율서」는 장서각에 소장된 서적 실물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마이크로필름에만 수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된 사정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244) 「고문운율」의 완성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後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上之五年甲辰陰雨節, 孔岩 眉叟序." '上之五年甲辰'은 현종 5년인 1664년이다. 『고문운율』이 1664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기언』 「年譜」에도 나온다.

245) 이 後識은 다음과 같다. "此序文載在《原集》中, 而親筆逸焉, 故十代孫進追寫."

246) 허목, 『記言』 권6, '原集' '上篇' '古文', 「古文韻律序」, "《周官》六藝之書六, 曰象形, 曰指事, 曰會意, 曰諧聲, 曰轉注。曰假借. 自鳥跡古文, 以至奇字, 殳書、薤書、鐘鼎、科蚪文字, 大、小二篆, 其法皆是也. 秦壞古文, 程邈作隸書, 楷、草無法, 六書散亂. 玉筯之文, 略有古法, 然便而不嚴. 天地氣數之降至此, 良爲嘆息. 余少好古文, 以至老死孤陋, 隨得隨記, 作《古文韻律》四卷. 古文不備, 通用十三四, 如龜龍、鳥獸、司星之篆, 當時志異而已, 不可用也. 後秦八書以下, 皆非三代之文, 不取." '通'자는 장서각 『고문

서 후손 허진(許進)의 주도로 간행된 『고문운율』의 서문 「고문운율서」는 『기언』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허진(許進)이 미수의 글씨를 따라 쓴 것이다.[247]

「고문운율서」를 통해 허목의 『고문운율』 편찬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옛 성인(聖人)의 조자(造字) 원리인 '육서(六書)'를 잘 구현하고 있는 기자(奇字)·과두(蝌蚪)·대소전서(大小篆書)[248] 등 각종 '고문(古文)'의 법도가 진(秦) 예서(隸書) 이후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던 허목은, 젊은 시절부터 70세인 당시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고문(古文)을 모아 이 책을 편찬했다고 한다. 이 서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고문운율』 편찬의 동인(動因)은, 고문(古文)이 비록 성인의 엄정한 고법(古法)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문자의 3,4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므로, 후대 이양빙(李陽氷)의 옥저전(玉筯篆)처럼 편리하게 잘 갖추어진 고문(古文) 체제를 완비하여, 성인의 고법(古法)을 일상 문자 생활에 되살리려는 것이다. 허목의 다른 자전에는 서문이 없기 때문에 이 「고문운율서」를 『고문운율』만이 아닌 허목의 고문자 자전 전체의 편찬 의도를 담고 있는 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고문운율(古文韻律)』의 체제를 살펴보면, 4책 모두 표지에 제목·책수(冊數)·수록 성부(聲部)가 전서(篆書)로 쓰여 있으며, 제1책을 제외하면 모두 수록 운부(韻部) 목록을 싣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제1책의 목록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금석운부(金石韻府)』 및 허목의 다른 수고본 자전과 마찬가지로 광곽(匡廓)이나 계선(界線) 없이 반엽(半葉) 약 7행정도 분량으로 자필(自筆) 정서(淨書)되어 있으며, '전서(篆書) 대표 자형-해서(楷書) 표제자-(전서 기타 자형)'으로 되어 있는 점도 같다.

운율초』「고문운율서」에 없다. 장서각 『고문운율초」에는 마지막에 '上之五年甲辰陰雨節, 孔岩 眉叟序' 14자가 더 있다.

247) 흥문당 간행 『고문운율』 제4책 마지막에는 11세손 허혁(許赫)이 쓴 발문(跋文)도 수록되어 있다.

248) 이사(李斯)가 만든 소전(小篆)이 대전(大篆)과 함께 '古文'의 영역안에 들어가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앞서 제3장 '3. 『기언』「古文」을 통해 본 허목의 고문 서예 인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記言』 권6, 原集 上篇 '古文' 「古文」에서 小篆에 부여한 미약한 긍정과 연결되는 지점이어서 흥미롭다.

본문의 내용 면에서 『고문운율』이 허목의 다른 자전들과 가장 다른 점은 '전서(篆書) 기타 자형'의 수록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고문운부(古文韻部)』는 대개 서너 개, 많은 경우 스무 개를 넘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적은 자형을 수록하고 있는 『금석운부(金石韻府)』의 경우도 열 개 넘는 경우가 눈에 띄는 데 반해, 『고문운율』의 경우 대부분 '전서 대표 자형 1개-해서 표제자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자형을 수록한 경우도 많아야 대개 한두 개, 많아도 서너 개를 넘지 않는다. 대신 한 번 나왔던 표제자가 재출(再出), 삼출(三出)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견된다.

『고문운율』에서도 해서 표제자 옆의 부기(附記)가 발견된다. 부기는 대개 해당 자체의 연원 및 출전을 밝혀 주거나 통용자(通用字)를 첨가하여 보여주는 내용이다.

2.2. 『고문운율』의 특성과 의의

『고문운율』 체제의 위와 같은 몇몇 특징들을 허목의 기타 자전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 및 의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부(韻部) 목록을 갖추고 운(韻)에 따라 표제자를 배열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운서(韻書)식 사전 형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내에서 표제자별로 해당 고문자[篆書] 자형(字形)이 모두 모여 있지 않고 표제자가 빈번하게 중출(重出)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으로서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주목되는 점은 허목 스스로 서문에서 『고문운율』의 이런 성격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 "나는 어려서부터 고문(古文)을 좋아하여 (…) 얻는 대로 기록하여[隨得隨記] 『고문운율』 4권을 지었다."[249]

위와 같은 서문의 언급과 본문에서 눈에 띄는 표제자 중출(重出) 등의

249) 위의 각주 246 참조.

현상은, 이 책이 공간(公刊)을 위한 저술보다는 저자 스스로의 참고 및 공부를 위한 '수필(隨筆)'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둘째, 해서(楷書) 표제자 옆 부기(附記)에서 밝힌 자형(字形) 연원을 통해『설문해자(說文解字)』, 그중에서도 특히『설문해자』'주문(籀文)'에 대한 허목의 지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허목은『금석운부』에서도『설문해자』'주문' 및 '고문(古文)'을 연원으로 갖는 자형을 다수 수록하고 있음을 부기를 통해 드러낸 바 있다. 허신(許愼)의『설문해자』에는 소전(小篆)체의 대표자와 함께 '주문(籀文)·고문(古文)·혹체(或體)' 등 해당 글자의 이체자, 즉 '중문(重文)'을 수록한 경우가 종종 있다.[250] 허목이『설문해자』의 중문에 관심을 가졌음은『금석운부』등 그의 다른 자전에도 "籀文" 혹은 "古文" 등의 부기가 등장하며 이 부기가 달린 자형이 실제『설문해자』의 해당 자형과 일치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명(明)『금석운부(金石韻府)』를 초록(抄錄)한 허목의『금석운부』와 그의 다른 자전인『고문운부(古文韻部)』에 '籀文' 및 '古文' 부기가 일부 산견(散見)되는 데 반해,『고문운율』에는 이에 대한 부기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특히 해당 자형이 '설문주문(說文籀文)'임을 나타내는 '史' -사주(史籀)의 약칭 - 부기가 매우 많이 등장하여, 거의 90회에 육박하는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史'라는 표기가 '史籀'의 생략 표기임을 설명하고 있는 범례(legend)는 전혀 없지만, 다음 예와 같은 자형 분석을 통해 해당 자형이『설문해자』'주문(籀文)' 자형이며, 따라서 '史' 표기가 주문(籀文)의 전설적 창시자로 비정되는 주(周) 선왕(宣王)의 태사(太史) '사주(史籀)'의 약칭임을 유추·확인할 수 있다.

---

250) 허신의 아들인 허충(許沖)이 건광(建光) 원년(121년)에 후한(後漢) 안제(安帝)에게『설문해자』를 헌상하며 함께 올린「상설문해자표(上說文解字表)」에 따르면『설문해자』에는 9,353자의 표제자와 1,163자의 중문(重文)이 수록되어 있다. (段玉裁,『說文解字注』,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中華民國75년 增訂2版, 789면) 허충의 이 글은 원래 제목이 없으며 '上說文解字表'는 통칭이다. 같은 글이「진설문해자상안제서(進說文解字上安帝書)」라는 제목으로『동한문기(東漢文紀)』13권에도 수록되어 있다.『설문해자』의 고문(古文) 및 주문(籀文)에 대한 연구는 오대징(吳大澂)의『설문해자보(說文古籀補)』(上海, 商務印書館, 1936)을 필두로 많은 논저가 있다. 필자는 주로 다음 논문을 참고했다. 蕭欣浩,「《說文》古文與籀文之關係研究」, 嶺南大學碩士論文, 2010.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그림 16>은 『고문운율』에 수록된 '재(齋)'자이며, <그림 17>은 『설문해자』 '齋'의 '주문(籀文)'이다. <그림 18>는 현재 통용되는 재(齋) 자의 형태와 유사한 『설문해자』 소전(小篆) 대표자이다. 이를 통해 『고문운율』의 '齋' 자가 '설문주문(說文籀文)'을 수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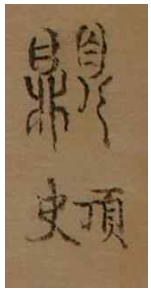
이제 남는 문제는 허목이 과연 『설문해자』를 직접 열람하여 초록했는지, 혹은 후대에 편찬된 다른 고문자 집자(集字)를 참조하여 '설문주문'의 자형을 재구(再構)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허목 고문(古文)의 연원을 밝히는 데 관건적 계기가 되는 사안이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나, 아쉽게도 허목이 『고문운율』은 물론 다른 자전 혹은 기타 저작에서 자신이 어떤 서적을 통해 고문자를 연구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확증하기는 힘들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간접 출전의 후보로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명(明) 『금석운부(金石韻府)』다. 명 『금석운부』에도 『설문해자』의 소전(小篆) 및 주문(籀文)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허목 스스로가 골라 베껴 쓴 『금석운부』에도 '籀文' 및 '古文' 출전 표기가 다수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251] 허목 『고문운율』의 '설문주문' 출전이 명 『금석운부』라는 가설에 대한 반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251)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허목 『금석운부』의 '籀文' 및 '古文' 출전 부기(附記)는 명(明) 『금석운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

<그림 19>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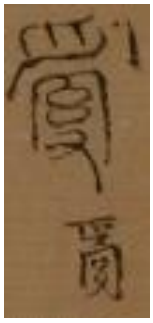
<그림 21>

<그림 22>

<그림 19>는『고문운율』제2책의 '정(頂)'이다. 이것은 '鼎+頁'인 '顶'의 형태로서 '설문주문(說文籀文)' 형태(<그림 20>)이며, 현재 통용되는 대표자인 '頂'의 원형이 되는『설문해자』대표자인 소전(小篆)체(<그림 21>)와는 다르다.[252] 그런데 해당 자형은 명(明)『금석운부(金石韻府)』에는 출전이 '주육(朱育) 집자(集字)'(오吳 주육朱育의『집기자集奇字』)로 되어 있다. 이런 예를 보면 적어도 허목『고문운율』의 '史' 부기(附記)가 명『금석운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문(籀文) 이외에도『고문운율』에는『설문해자』'고문(古文)'의 자형(字形)이 종종 눈에 띈다.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252)『설문해자』에 '頂'(頁部)은 대표자인 소전(小篆)을 비롯하여 혹체(或體)와 주문(籀文) 등 총 3종의 자형(字形), 즉 文 1종, 重文 2종이 수록되어 있다. 段玉裁,『說文解字注』,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中華民國75년 增訂2版, 420-421면. "頂, 顚也. 从頁丁聲. 頲, 或从資作. 顶, 籀文, 从鼎."

‘난(亂)’에는 ‘어지럽다’라는 뜻과 ‘다스리다’라는 상반된 훈(訓)이 혼재하는데, 원래 금문(金文)에서 중간의 엉킨 실타래(幺)를 위의 손(爪)과 아래의 손(又)이 맞잡아 푸는 모습으로 상형한 ‘𤔔’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나중에 진(秦)과 초(楚)의 죽간(竹簡)에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옆에 ‘又’를 더한 것이 소전체에서 ‘乙’로 잘못 변해 현재의 ‘亂’의 형태로 굳어졌다.[253] 현재는 ‘𤔔’은 거의 쓰이지 않는 벽자이며, ‘다스리다’와 ‘어지럽다’의 뜻 모두 ‘亂’의 훈(訓)으로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설문해자』에서는 ‘治’의 뜻을 가진 ‘受部’의 ‘𤔔’[254]과 ‘不治’의 뜻을 가진 ‘乙部’의 ‘亂’[255]으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림 23>는 『고문운율』 ‘𤔔’인데, 『설문해자』의 소전(小篆) 대표자(<그림 25>)이 아닌 ‘설문고문(說文古文)’의 형태(<그림 24>)를 수록하고 있다. 이때 두 가지 면이 주목되는데, 우선 원래 설문고문인 이 형태를 수록하면서 ‘古文’이라 연원 부기(附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고, 또 한 가지 더욱 주목되는 점은 같은 자형이 명 『금석운부』에 ‘籀文’이라고 출전이 오기(誤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史’를 부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문운율』 ‘亂’ 자형(<그림 26>)은 ‘설문소전(說文小篆)’(<그림 27>을 채택하지 않고 다른 자형을 수록하고 있다. ‘亂’의 이 자형은 명 『금석운부』에는 ‘古孝經’으로, 『한간(汗簡)』에는 ‘古尙書’로, 『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에는 ‘古孝經’로 출전이 표기되어 수록되어 있고, 『집전고문운해(集篆古文韻海)』에는 출전 표기 없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28>

<그림 29>

<그림 30>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253)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5, p.127.

254) 段玉裁, 『說文解字注』,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中華民國75년 增訂2版, 162면. “𤔔, 治也. 幺子相亂, 受治之也. 讀若亂同. 一曰理也. 爰, 古文𤔔.”

255) 段玉裁, 『說文解字注』,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中華民國75년 增訂2版, 747면. “亂, 不治也. 从乙𤔔. 乙, 治之也.”

<그림 28>, <그림 29>, <그림 30>은 각각 『고문운율』 '하(夏)'의 대표 자형 및 기타 자형 1, 2이다. 이 자형들은 각각 '설문고문(說文古文)' (<그림 31>), 『집전고문운해(集篆古文韻海)』의 출전 미상(未詳)의 한 자형(<그림 32>), 설문소전(說文小篆) 대표자(<그림 33>)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도 별다른 부기 없이 설문고문을 대표 자형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문운율』에서는 '설문주문(說文籀文)' 자형을 대거 채용하며 '史'라고 분명히 그 출전까지 밝혀 주고 있으며, 주문보다는 적지만 설문고문(說文古文) 자형도 많은 숫자를 채용하고 있다. 다만 설문고문의 경우에는 허목 『금석운부』와는 달리 '古文'이라고 명확히 그 출전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를 통해 볼 때 허목은 『고문운율』에서 설문주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자형 수집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아울러 설문고문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허목은 『고문운율』에서 사주(史籀)의 주문(籀文) 복원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출전으로 『설문해자』를 활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당대 조선의 서적 유통 상황 및 문자학 연구 상황으로 볼 때 허목이 『설문해자』의 완정한 서물(書物)을 직접 보았으리라 생각하기는 힘들다.[256] 그러나 『설문해자』는 한자학(漢字學)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적이므로 후대의 다른 고문자 집자서 및 관련 서적에서 다수 인용하고 있기에, 이런 서적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문해자』 수록 자형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257]

셋째, 같은 글자가 용례 및 훈(訓)에 따라 자형(字形)을 달리함을 나타

256) 하영삼에 따르면 조선시대 학자들이 『설문해자』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8세기 이후가 된다. 하영삼, 「韓國 歷代 《說文解字》 硏究 綜述」, 『中國語文學』 56, 영남중국어문학회, 2010, pp.18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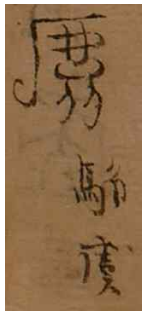
257) <척주동해비>에서 실제로 쓰인 '설문고문(說文古文)' 자형들을 보면, '설문고문'임을 인지한 경우도 보이나, 명 『금석운부』 등에 '古文'이라고 되어 있거나 혹은 '古尙書' 등 다른 출전으로 표시된 것을 채택한 경우가 더 많다. 이를 통해 볼 때 허목의 '설문고문' 자형 채택은 해당 자형이 '『설문해자』의 고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허목은 그 자형이 옛 '고문'의 면모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내는 부기(附記)가 종종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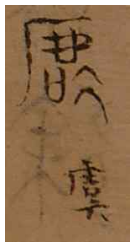
‘우(虞)’는 주로 ‘헤아리다’, ‘대비하다’의 뜻으로 쓰이며, 때로는 전설상의 짐승인 ‘추우(騶虞)’나 고대의 사냥터지기 직책명인 ‘우인(虞人)’ 등의 용례로도 쓰인다. 『고문운율』에는 ‘虞’의 자형으로 다음과 같은 4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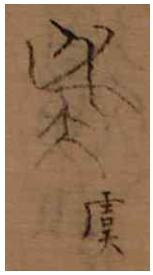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

이 중 <그림 34>는 명 『금석운부(金石韻府)』 및 『한간(汗簡)』에 수록되어 있으며 출전은 ‘고상서(古尙書)’이고, <그림 37>은 명 『금석운부』 및 『집전고문운해(集篆古文韻海)』에 수록되어 있는데 명 『금석운부』에 따르면 출전은 ‘주우정(周虞鼎)’이다. 나머지 2건의 자형은 출전을 찾을 수 없다. ‘우인(虞人)’ 용례로 소개된 자형은 다른 수록 자전에는 그저 ‘虞’의 한 자형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이것이 ‘우인(虞人)’으로 쓰일 때의 ‘虞’의 자형이란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인(虞人)’의 ‘虞’라는 것은 아마도 허목의 생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추우(騶虞)’ 용례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는 아예 자형의 출전 자체를 찾기 힘들다. 『설문해자』에서도 ‘추(虞)’를 ‘추우(騶虞)’의 뜻이라고 했는데,[258] 정작 『고문운율』에서는 설문소전(說文小篆)의 자형(<그림 38>)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 출전은 알 수 없으나 <그림 35>의 자형을 보면 ‘녹(鹿)’ 혹은 ‘비(貔)’ 등 어떤 짐승의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허목이 나름대로 고문자 자형을 보고 용례에 따라 자형도 갈린다고 추정한

258) 段玉裁, 『說文解字注』,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中華民國75년 增訂2版, 211면. “虞, 騶虞也. 白虎黑文, 尾長於身, 仁獸也. 食自死之肉. 从虍吳聲. 『詩』曰: ‘于嗟乎騶虞.’”

것으로 추측된다. ‘우(虞)’ 이외에도, ‘수(須)’ 외에 따로 ‘수대(須待, 기다림)’를 둔다거나, ‘진(陳)’을 ‘진성(陳姓, 姓氏로 쓰이는 陳)’과 ‘진설(陳設)’로 나누어 수록한 것 등등, 『고문운율』 내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제(齊)’의 경우 두 번째 자형에서 ‘섭제(攝齊)’란 부기를 달아 놓았다. (부록 ‘<척주동해비> 자형 비교표’의 ‘眉東-145 齊’ 참조) 이 자형에는 ‘齊’ 아래에 ‘衣’ 부건이 포함되어 있다. 허목은 이를 ‘攝提’란 의미를 쓰일 때의 ‘齊’ 자라고 본 것이다. ‘攝齊’는 ‘옷자락을 듦’의 의미이다. 이 또한 허목이 ‘고문(古文)’에서는 자형이 의미에 강하게 연동된다고 보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를 통해서 허목이 상고(上古) 시대에는 문자의 용례 및 훈(訓)에 따라 자형도 다르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허목은 ‘고문’이 성인의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며 일종의 ‘재도(載道)’론적 문자관을 피력한 바 있다. 여기에서 든 예들은 이러한 허목 고문관(古文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허목 수고본 『고문운율』의 성격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고문운율』은 체계적인 고문자 자전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허목이 고문자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자료를 모으며 틈틈이 편찬한 자료집 성격이 강한 자전라고 할 수 있겠다. 여러 전거 자료 중 특히 『설문해자』, 그중에서도 ‘설문주문(說文籀文)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음도 알 수 있다. 『고문운율』은 허목의 고문자 연구 및 고문자 자전 제작의 중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일 서적의 발췌본인 『금석운부』와는 달리 더 폭넓은 자료를 섭렵한 결과이기 때문에, 『금석운부』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한 연구 성과라 평가할 수 있겠다.

3. 『고문운부(古文韻部)』

3.1. 『고문운부』의 체제와 구성

『금석운부(金石韻府)』·『고문운율(古文韻律)』·『동해비첩(東海碑帖)』과 함께 보물 592-1호 '허목수고본'을 구성하는 『고문운부』는 『금석운부』 및 『고문운율』과 마찬가지로 허목의 친필 수고본 고문자 집자(集字) 자전 고본(稿本) 서적으로서 총 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목의 다른 고문자 자전처럼 운서(韻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체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3>

冊	表題 및 기타 표시	卷首題	내용	비고
一	古文韻部 一 上平聲 共五	古文韻部 上平聲	上平聲部 (東部-山部)	목록 없음 (이하 같음)
二	古文韻部 二 下平聲 共五	古文韻部 下平聲	下平聲部 (先部-銜部)	하평성 마지막 韻部인 凡部는 수록 문자 없음
三	古文韻部 三 上聲 共五	古文韻部 上聲	上聲部 (董部-豏部)	
四	古文韻部 四 去聲 共五	古文韻部 去聲	去聲部 (送部-梵部)	
五	古文韻部 五 入聲 共五	古文韻部 入聲	入聲部 (屋部-法部)	

『고문운부』는 『금석운부』와 『고문운율』과 달리 수록 운부(韻部) 목록이 없이 각 책(冊)이 곧바로 본문을 수록하고 있다. 본문의 구성은 『금석운부』·『고문운율』과 같아서 '전서(篆書) 대표 자형-해서(楷書) 표제자-전서(篆書) 기타 자형'으로 되어 있고, 광곽과 계선 없이 반엽(半葉) 최대 7행으로 저자 친필(親筆)로 정서(淨書)되어 있다. 본문에서 『금석운부』 및 『고문운율』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점은, 첫째, 대체적으로 해서 표제자 옆의 부기(附記)가 타 2종에 비해 적고, 둘째, 반대로 기타 자형은 타 2종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또한 한 운부(韻部)가 끝나면 면을 바꾸어[改面] 새 면에서 다음 운부(韻部)를 시작하는데, 이 때 한두 면을 통째로 건너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종종 행을 바꾸긴

[改行] 해도 대체로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내용이 계속되는 『금석운부』 및 『고문운율』과 달리, 『고문운부』는 중간 중간 빈 공간이 상당히 눈에 띈다.

3.2. 『고문운부』의 특성과 의의

허목 수고본 『금석운부』와 『고문운율』이, 전자는 명(明) 출간본 『금석운부』의 초사본(抄寫本)이며, 후자는 부기(附記)를 통해 '설문주문(說文籀文)'에 대한 강한 관심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각각 뚜렷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고문운부』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눈에 띄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문운부』를 타 2종 자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별적 특성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전으로서 좀 더 완비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허목의 『금석운부』는 발췌본이라는 근원적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면, 『고문운율』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표제자별로 해당 자형이 잘 정리되어 모여 있지 않고 여기저기 중출(重出)하는 등 체계에 있어 완결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에 반해 『고문운부』는 하나의 대표자에 해당 자형(字形)이 모두 망라되어 갈무리되어 있어 그 글자의 모든 자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수록 자형도 전반적으로 『금석운부』와 『고문운율』에 비해 풍부하다.
둘째, 자형의 수록 수가 더 많고 출전도 다양하다.
허목의 『금석운부』는 출전이 명 『금석운부』로 단일하며, 『고문운율』은 수록 자형의 수가 많지 않다. 『고문운부』 역시 명 『금석운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상평성, 하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5책으로 구성되어 체제가 동일하며, 자형 역시 명 『금석운부』 수록 자형들을 대거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고문자 집자(集字) 자전 또한 활발히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아래 표는 '狡'와 '佼'의 예인데, 이 두 글자는 서로 통용되는 관계이다. '狡'의 대표 형태에서 허목은 '犬+ 攴(攵)'의 형태로 썼는데, 이는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이다. 나머지 한 개의 자형은 명 『금석운부』 '손강집(孫疆集)'의 자형과 일치한다. 명 『금석운

부』에서는 '佼'를 '狡'에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허목의 『고문운부』에서는 둘을 분리하고 있다. 이런 예는 『집전고문운해(集篆古文雲海)』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허목 『고문운부』 '佼'의 자형 2개는 모두 명 『금석운부』에도 나오는 자형이지만,[259] 굳이 이를 분리하여 수록한 것에서 명 『금석운부』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다른 자료 또한 또 다른 준거로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4>

허목 古文韻部 狡	허목 古文韻部 佼	明 金石韻府 狡	集篆古文雲海 狡	集篆古文雲海 佼
狡 표제자	佼 표제자	小篆		
狡 자형1	佼 자형1	孫疆集		
		六書統		
		六書統		
		六書統		

259) 명 『금석운부』와 『집전고문운해』 모두 전초(傳抄) 자료집이라 같은 출전의 자료라도 - 『집전고문운해』는 출전을 명기(明記)하고 있지 않음 - 초사(抄寫) 과정의 오류로 인해 자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허목 『고문운부』의 '狡'와 '佼'의 기타 자형을 보면 미묘하게 다른데, '佼'의 기타 자형은 명 『금석운부』 '孫疆集'의 자형이 아니라 『집전고문운해』 쪽의 자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상형성(象形性)이 강한 자형이 종종 눈에 띈다.

아래 표는 『고문운부』에 수록된 '매(梅)'와 '늑(肋)'인데, '梅'의 대표 자형은 명 『금석운부』에 수록된 '존예절운(存乂切韻)'의 자형이고, 기타 자형3 역시 명 『금석운부』에 있는 '고상서(古尙書)'의 자형이다. 기타 자형 1·2는 기존 집자 자서에서 수록 예를 찾기 힘들다. 梅의 성부(聲部)는 지금은 '每'로 쓰지만 예전에는 '某'로 쓰기도 했기 때문에 '楳' 혹은 '㮚(某+ 某)'로도 쓰였는데, '㮚'라는 이체자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고문운부』 '梅'의 기타 자형 1과 2는 이 '㮚'의 변형 자체라 할 수 있는데, 마치 가지 위에 맺힌 매화 송이와 같은 모습이다. '肋' 역시 기존 자전에서 예를 찾기 힘든데, 강한 상형성이 주목된다. 이 자형들은 허목의 창안이나 변용이 아닌, 알려지지 않은 기존의 자서에 출전을 둔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나, 그렇다고 해도 허목이 이런 자형들을 선택한 데에서 다양한 자형을 수집하고자 한 그의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표 15>

梅 대표 자형	梅 기타 자형1	梅 기타 자형2	梅 기타 자형3	肋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문운부』는, 출전이 하나로 제한된 발췌본인 『금석운부』나 '설문주문(說文籀文)' 및 '설문고문(說文古文)'에 대한 집중이 주된 집필 의도인 『고문운율』에 비해, 좀 더 정돈된 체계를 갖추어 다양한 자형을 망라하고자 했기에, 자전으로서 한 단계 진일보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목록의 미비(未備), 빈 행(行)이나 빈 면(面)의 빈출(頻出) 등은 『고문운부』가 아직은 하나의 완비된 서물(書物)이 아닌, 그 예비 단계로서의 서사물(書寫物)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다.

제5장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통해 본 허목 고문(古文) 서예의 특징

<척주동해비>는 명실상부 허목 고문(古文) 서예의 대표작이다. <동해비>의 명성은 동시대에 이미 드높았다. 나아가 삼척의 지방관(도호부사)이었던 허목이 수해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위해 바다의 재액을 물리치기 위해 세운 것이라는 전승[260]에, 상식을 뛰어넘는 신기함 가득한 내용, 그리고 얼핏 보아서는 판독하기조차 힘든 기이한 글씨가 주는 인상까지 합쳐져, 사람들에 의해 신성시되기까지 했다.[261] 일반에 알려진 명성 및 예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허목 서예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의 측면에서도 <동해비>의 가치는 높다. 글씨를 새긴 석물(石物)인 비(碑) 자체도 현재까지 전하고 있고,[262] 허목이 손수 편집한 『기언(記言)』 원집(原集)에도 전문이 수록되어 있으며,[263] 무엇보다 허목이 직접 쓴 육필 원고(原稿)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264] 『기언』의 여러 기록과 손수 써서 편집한 고문자 자전 3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허목은 평생에 걸쳐 문자·글씨로서의 '고문(古文)'의 연원과 배경의 연구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그 연구는 서예 작품을 통해 예술적 실천으로 연결되었다. <척주동해비>는 허목 '고문'의 이론적 모색이 어떤 양식으로 실천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특히 <척주동해비>에 구현된 고문 자형(字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

260) '퇴조비(退潮碑)'라는 별칭은 이에 기인한 것이다.

261) 이런 사실은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다음 기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李瀷, 『星湖僿說』 권29, '詩文門', 「東海碑」, "杜詩譴瘧鬼, 韓文驅鱷魚, 文章可以參造化矣. 如近世許眉叟篆文, 幾於鍾鼎之古矣. 世自無眞眼, 亦安知其不至於神乎? 公著《東海碑》, 自書之. 人有鬼祟者, 以其一本置於旁, 鬼不敢近; 又推而置於門屛間, 鬼亦止於門外, 而未曾或過云. 始知譴瘧驅鱷, 實有是理也." 현재도 <척주동해비> 탁본을 소장하고 있는 집안이 많은데, 이는 아마도 이런 통념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허목의 행적은 사후에 민간에서 신비화되어 여러 구비전승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척주동해비> 관련 전승이 있었다. 신연우, 「許穆 <退潮碑說話> 硏究」,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pp.383~408.

262) 강원도 삼척시 허목길 13-7 소재.

263) 『記言』 권28, '原集' '下篇' '山川下', <東海頌>.

264) 보물 제592-1호 '허목수고본(許穆手稿本)' 중 '동해비첩(東海碑帖)'. 국립중앙박물관 "許穆手筆東海碑帖" (소장품번호: 신수 10610)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 소재 <척주동해비>를 보면, 앞면에 '陟州東海碑'라는 5자의 큰 글씨[大字] 제서(題書)가 있고, 좌측면에 작은 글씨[小字]로 제목(題目)·소서(小序)·서자지(書者識)[265], 뒷면에 역시 작은 글씨로 <동해비>(<東海頌>) 본문이 있는데, 모두 허목의 글씨이다. 우측면에 있는 <재건기(再建記)>[266]는 1709년에 삼척부사 홍만기(洪萬紀)가 비의 이건(移建)을 추진하며 쓴 것이다.

『기언』의 「연보(年譜)」 및 각종 기록에 따르면, <척주동해비>는 허목이 삼척도호부사(三陟都護府使)로 재직 중이던 1661년 여름 무렵에 쓰인 것이다. 당시 허목은 67세였다. 허목은 젊은 시절부터 '고문' 글씨 연구에 매진했던 만큼 많은 필적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해지는 작품 중 <척주동해비> 이전으로 창작 연대가 확인되는 것은 거의 없다.[267] 따라서 이 글씨는 허목의 현전하는 글씨 중 가장 앞선 예로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그만큼 작품의 성립 연대 확인이 중요하므로, 아래에서 우선 이를 확정하고 나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전하는 삼척의 <척주동해비> 비문 중, 앞면의 '척주동해비' 5자 대자(大字)는 1661년 비 건립 당시의 필적이며, 좌측면 및 후면의 소자(小字)는 이후 다시 쓴 것이다. 1709년에 작성된 <척주동해비> 우측면 <재건기(再建記)>에 따르면, 1661년에 허목이 짓고 건립한 원비가 풍랑으로 물에 잠겨 나중에 다시 썼는데,[268] 지금 비의 전면(前面) 대자(大字)는 구본(舊本)을, 좌측면 소서(小序)와 후면 본문의 작은 글자는 신본

265) 제목인 '陟州東海碑', 소서인 '州 古悉直氏之地 在獩墟南 去國都七百里 東臨大海', 서자지인 '都護府使 孔碧許穆書'를 가리킴.

266) <재건기(再建記)> 원문은 아래의 '1. <척주동해비>의 원문 및 내용'을 참조.

267) 이는 아마도 1662년 삼척부사에서 파직되어 연천으로 낙향하기 이전에는 그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지방을 전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1661년 이전 작품예로는 먼저 몇몇 신도비 제액(題額)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괄호 안 연도는 立碑 연도가 아닌 筆寫 연도임.) <이원익(李元翼) 신도비>(1635, 41세), 사천(泗川) <구산사비(龜山祠碑)>(1640, 46세), <권태사(權太師) 신도비>(舊碑)(1659, 65세), <채세영(蔡世英) 신도비>(1660년 추정, 66세), <이창정(李昌庭) 신도비>(1660년 추정) 등. 육필 필적으로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미수허선생전첩(眉叟許先生篆帖)>에 수록된 <周武王銘> 1점만이 확인된다. 첩의 제책 연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주무왕명>은 1642년(壬午) 4월에 쓰인 것이다.

268) 허목 당시의 원비(原碑)는 정라진(汀羅津, 三陟浦) 앞바다의 만리도(萬里島)라는 돌섬에 세웠다고 한다. 만리도는 1910년대 정라항 공사 시 방파제를 만들며 파괴되어 없어졌다. 만리도는 현재 정상부에 비가 서 있는 육향산(죽관도)보다 더 바깥 바다 쪽에 있던 낮은 바위섬이었다.

(新本)을 써서 새긴 것이라 한다. 한편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誌)』[269]에는 "나중에 비석이 풍랑에 부서지자 허목이 이를 듣고 다시 썼는데, 1709년 삼척부사 홍만기가 허목의 문하생 한숙(韓塾)에게서 이것을 구해 얻었다. 대자는 구본을 소자는 신본을 사용하여 돌에 새겨 삼척포진(三陟浦鎭) 성내(城內)의 죽관도(竹串島)[270]에 옮겨 세웠으니, 이때의 부사는 박내정(朴乃貞)[271]이다."[272]라고 했다. 그렇다면 원래 허목이 1661년에 써서 새긴 비는 사라졌는데, 현재 비 전면 5자만이 원래 글씨의 면모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좌측면 및 후면의 글씨는 한숙(韓塾)이 소장했던 고본(稿本)을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육필 '원고'는 허목 집안에서 소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곳곳에 종이를 덧붙여 다시 쓴 흔적이 있고 글자의 위치를 수정한 표시도 있는데[273] 이는 '원고'가 초고(草稿)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 '원고'와 현재 좌측면 및 후면의 비문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의 비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가 아닌, 한숙(韓塾)이 소장하고 있던 허목의 원고를 바탕으로 하여 새긴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274]

---

269) 허목이 지은 『척주지』를 바탕으로 김종언이 지은 책. 허목 『척주지』의 원문에 김종언이 추가 기술한 '부(附)' 부분이 덧붙여져 있는 양식이다. 정확한 저술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848년의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848년 이후에 저술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김종언(金宗彦, 1818~1888)은 본관 강릉, 자(字) 혜중(兮重), 호 송고(松皐)로서 삼척 송정리(松亭里)에 거주한 학자이다. 허목과 김종언의 『척주지』는 완역되어 있다. 『完譯 陟州集』,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삼척시 발행, 산책출판사, 1997. 『척주지』의 서지 및 김종언에 대해서는 『완역 척주집』의 앞부분에 수록된 '해제'를 참조할 것.

270) 현재의 육향산(六香山). 죽관도는 본래 정라진 앞바다의 섬이었으나 삼척항을 만들면서 육지와 연결된 후 육향산이라 불렸다.

271) 「척주선생안(陟州先生案)」에 따르면, 홍만기는 1707년 12월에 도임(到任)해서 1709년 9월에 사직하여 체직되었고, 박내정은 1710년 2월에 도임해서 그해 5월에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완역 척주집』, p.111.

272) 『陟州誌』 上 「府內」, "中年碑爲風浪所激折沈海, 眉相聞而改書. 後四十八年己丑, 府使洪萬紀求得於門生韓塾處, 大字用舊本, 小字用新本, 刻石移竪於鎭營城內竹串島, 府使乃朴乃貞也."(『完譯 陟州集』, p.335)

273) 종이를 덧붙여 쓴 것, 글자 위치 수정 및 같은 글자 반복 등의 교정 지시 표시 내용은 모두 현전 비문 및 『기언』 <동해송>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74) 둘 사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필획 및 필치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곳이 다수 있으며, 결구(結構) 상 차이를 보여서 그 차이를 확연히 인지할 수 있는 글자는 다음 7자이다. 獵, 北, 無(제2자), 羲, 木, 次, 古(제2자).

‘원고’ 및 현재 비 좌측 및 후면 비문 자체(字體)의 결구(結構)를 보면 『고문운율(古文韻律)』의 자형(字形)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고문운율』과 갖는 높은 관련성으로 ‘원고’와 『고문운율』의 성립 시기가 그리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문운율』은 1664년에 성립된 것이다. (집필은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이 둘 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 및 현전 비문의 좌측면 및 후면의 글씨는 모두 『고문운율』 성립연도인 1664년 이전, 즉 1661년~1664년에 쓰였을 것이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는 1661년 원비(原碑)의 초고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좌측면 및 후면 비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보다는 늦은 시기에 써서 한숙(韓塾)에게 주어 보관하게 한 것을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현전 비문 글씨의 성립연도는 넓게는 1661~1682년이 되며, 좀 더 좁힌다면 『고문운율』과의 연관성으로 볼 때 1664년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고증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를 중심으로 하고, 삼척에 현전하고 있는 ‘비문’- 실제로는 비문의 탁본 -을 보조 자료로 활용, <척주동해비>에 나타난 자형(字形)들을 그 연원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275], 허목 ‘고문’ 서예 실천의 연원을 확증하려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먼저 교감을 통해 <척주동해비>의 원문을 확정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

275) 다음 자료들에 나타난 해당 자형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자형의 연원을 실증하려고 한다. 즉 허목의 고문자 자전(字典), 허목의 다른 작품들, 그리고 중국의 전초(傳抄) 고문자 자료들 및 기타 참고 자료들을 비교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2. <척주동해비> 수록 글자 결구(結構) 분석을 통한 자형(字形) 연원의 탐색’을 참조.

1. <척주동해비>의 원문 및 내용

자형(字形) 분석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분석 대상 텍스트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해 <척주동해비> 원문을 교감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려고 한다. 원문 대교(對校)에는 다음과 같은 3종의 텍스트– 저본(底本) 및 2종의 이본(異本) –를 사용했다.

저본: 허목이 직접 쓴 필사본인 <척주동해비> 원고(原稿)
교감본1: 현재 전래하는 비문(碑文)의 탁본[276] (‘비문’으로 약칭함)
교감본2: 『기언(記言)』 수록 <동해송(東海頌)> (‘동해송’으로 약칭함)

교감을 통해 확정한 <척주동해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277]

陟州東海碑

278)州　古悉直氏之地　在獩墟南　去國都七百里　東臨大海279)280)

276) 현재 전래하고 있는 <척주동해비> 탁본은 매우 많은 종류가 있다. 본 교감에서는 그중 선본(善本)이라 판단되는 다음 책에 수록된 것을 사용했다. 한국서예명적 12『許穆 陟州東海碑』, 예술의전당, 2018.

277) 교감을 통해 확정하는 ‘원문’은 ‘해서(楷書) 대표자[正字]’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여기에서는 字形 분석을 위한 텍스트 확정이 교감의 주요 목적이므로, 일반적으로 篆書로 분류되는 허목 ‘古文’ 자형으로 쓰인 저본 자형의 楷釋形을 기본 자형으로 하고, 이본을 참조하여 그 正字形을 교감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楷釋形인 異體字가 문맥 이해를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正字를 기본 자형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ex. 鏡-竟)

278) ‘동해송’에는 ‘州’ 앞에 ‘陟’이 있다.

279) ‘비문’에는 ‘海’ 뒤인 이 위치에 撰書者識인 ‘都護府使孔嗇許穆書’ 9자가 있다.

280) ‘동해송’에는 ‘海’ 뒤에 ‘其頌曰’ 3자가 더 있다.

瀛海滭潳 百川朝宗 其大無窮
東北沙海 無潮無汐 號爲大澤
積水稽天 洋潏汪濊 海動有噎

明明暘谷 太陽之門 羲伯嗣[281]賓
析木之次 牝牛之宮 日本無東

鮫[282]人之珍 涵海百産 汗汗漫漫
奇物譎詭 宛宛之祥 興德而章

蚌之胎珠 與月盛衰 旁氣昇霓[283]
天吳九首 怪夔一股 颱[284]回且雨

出日朝暾 轇軋炫煌[285] 紫赤滄滄
三五月盈 水鏡[286]圓靈 列宿韜光

扶[287]桑砂[288]華 黑齒麻羅 撮髻莆家

---

281) 嗣: '동해송'에는 '司'로 되어 있다.
282) 鮫: '동해송'에는 '蛟'로 되어 있다. 바다에 사는 인어(人魚)인 '鮫人'은 '蛟人'으로 쓰기도 한다.
283) 霓: '동해송'에는 '霏'로 되어 있다. '霓'는 '霏'의 고자(古字)인 동자(同字)이다.
284) 颱: '동해송'에는 '飓'의 속자(俗字)인 '颶'로 되어 있다. '颱'은 '飓'의 고자(古字)(설문해자 或體)인 '颮'과 동자(同字)이다.
285) 煌: '동해송'에는 '熿'으로 되어 있다.
286) 鏡: 저본에는 '竟'으로 되어 있다. '동해송'에는 '鏡'으로 되어 있다. 문맥 및 '동해송'에 따라 '鏡'으로 확정한다.
287) 扶: 저본에는 '搏'으로 되어 있다. '동해송'에는 '扶'로 되어 있다. 문맥 및 '동해송'에 따라 '扶'로 확정한다.
288) 砂: '동해송'에는 '沙'로 되어 있다. '沙'와 '砂'는 동자(同字)이며 '沙'가 대표자이다.

蟺[289]蠻之蠔 爪黿[290]之猴 佛齊之牛
海外雜種 絶黨[291]殊俗 同囿咸育

古聖遠德 百蠻重譯 無遠不服
皇哉熙哉 大嗣[292]廣博 遺風邈哉[293]

都護府使 孔晷[294]許穆書[295]

교감을 통해 확정한 <척주동해비>의 글자는 총 227자[296]인데, 반복해서 나온[重出] 것을 제외하면 모두 178자가 출현하고 있다.
(‘<척주동해비> 글자 일련번호’ 참조)
아래에서 진행할 내용 해석 및 자형(字形) 분석은 위에서 확정한 원문을 기준으로 한다.
<척주동해비>(<동해송>)의 ‘서예 작품’으로서의 특징을 논하기 위해선 그 내용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래에 <척주동해비>의 국역(國譯)을 제시한다.[297]

---

289) 蟺: ‘동해송’에는 ‘蜒’으로 되어 있다. 문맥 상 ‘蜒(구불구불할 연)’은 ‘蜑(오랑캐이름 단)’이 되어야 한다. 단만(蜑蠻)은 중국 남쪽 해안가에 살던 종족인 단호(蜑戶)를 가리킨다. ‘蟺(지렁이 선)’은 ‘나나니벌’의 뜻일 때 ‘단’으로 읽기도 하므로 ‘蜑’과 통용될 수 있다. 蟺은 蟬(매미 선)과 통용되기도 한다.
290) 黿: ‘黿’는 보통 ‘鼉’로 쓴다. ‘동해송’에는 ‘黿’의 이형자인 ‘黿’로 되어 있다.
291) 黨: ‘동해송’에는 ‘儻’으로 되어 있다. 『記言』 권65 「自序一」에 수록된 <동해송>에는 ‘黨’으로 되어 있다.
292) 嗣: ‘동해송’에는 ‘治’로 되어 있다.
293) ‘비문’에는 본문 뒤인 비 우측면에 다음과 같은 <재건기(再建記)> 65자가 있다. “顯宗二年, 先生來守是邦, 撰篆《東海碑》, 立於汀羅島, 爲風浪激沈, 先生聞而改書. 今參考兩本, 大字用舊本, 小字用新本, 刻竪于竹串島. 時上之三十五年己丑春三月也.”
294) 晷: 보통 同字인 ‘巖’의 이체자(俗字)인 ‘岩’ 형태를 많이 쓴다. 여기에서는 저본의 字形을 존중하여 확정했다.
295) 都護府使孔晷許穆書: ‘동해송’에는 없다. ‘비문’에는 본문 앞 小序 뒤(‘東臨大海’ 뒤)에 있다.
296)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목 및 소서(小序) 26자, 본문 192자, 찬서자(撰書者) 후지(後識) 9자.
297) 기존 여러 번역을 참조하되 필자 나름의 해석을 추가하여 대폭 수정을 가했다.

척주(陟州, 삼척)는 옛 실직국(悉直國)[298] 지역으로서 예(獩)의 옛 터[299]의 남쪽에 위치한다. 서울과 700리 거리이고, 동쪽으로 큰 바다를 마주하고 있다.

①

瀛海漭瀁 큰 바다 아득히 넓어
百川朝宗 온갖 강물 흘러드니[300]
其大無窮 그 광대함 가없도다

東北沙海 동북쪽 바닷가 줄곧 모래사장이라[301]
無潮無汐 밀물도 없고 썰물도 없어
號爲大澤 대택(큰 못)이라 부르네

積水稽天 모인 물 하늘에 닿아
浡潏汪濊 일렁일렁 그득그득
海動有曀 바닷물 일어나면 온 세상 어둑해 지네[302]

---

298) 삼국시대 초기 강원도 삼척 지역에 있던 소국(小國).

299) 현재의 강릉 지역. 강릉은 원래 예(獩. 濊, 혹은 薉로도 씀)의 고도(古都)이다. 예국은 철국(鐵國) 혹은 예국(蘂國)이라고도 했다. 20세기 초까지 예국토성(濊國土城) 혹은 예국고성(濊國古城)이라 하는 성곽이 강릉시 옥천동 일대에 남아있었다.

300) 원래 제후가 봄에 천자를 찾아가 만나는 것을 '조(朝)', 여름에 가서 만나는 것을 '종(宗)', 가을을 '근(覲)', 겨울을 '우(遇)'라 했다. '조종(祖宗)'은 신하가 제왕을 조현(朝見)함의 범칭이다. 『周禮』, 「春官」, '大宗伯', "春見曰朝, 夏見曰宗, 秋見曰覲, 冬見曰遇." 강들이 큰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흔히 '조종'에 비유했다. 『書』, 「禹貢」, "江、漢朝宗于海." 孔穎達疏, "'朝宗', 是人事之名, 水無性識, 非有此義. 以海水大而江漢小, 以小就大, 似諸侯歸於天子, 假人事而言之也."

301) 허목은 동해안 해안이 모두 모래이며, 모래사장이 천리(千里)라고 하기도 하면서, 동해를 '사해(沙海)'라고 불렀다. 『記言』 권20, '中篇', '羈旅', 「答從兄書(又一書)」, "東海皆沙海, 海上皆沙, 往往有深松大澤奇巖." ; 『記言』 권35, '外篇', 「東事」4, "交州【淮陽府】東界, 古獩貊之地, 自沃沮至句麗南境, 沙海千里, 其西貊, 多山土瘠."

302) 이 부분은 <백제서망해요(百濟西望海謠)>의 두 번째 악장[闋]과 유사하다. 『記言』 권57, 「散稿續集」, '詩', <百濟西望海謠>, "漻蕩浩汗, 瀲灩浟湙, 蕩飋合散, 戕風迅雷屑雨, 海動曀霾, 滉瀁滔天, 膠戾而爭廻, 極目悽愴." '해동(海動)'은 원래 바다의 심한 악천우의 일종이다.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9, 「海道」6, '禮成港', "又惡三種險, 曰癡風, 曰黑風, 曰海動: 癡風之作, 連日怒號不已, 四方莫辨; 黑風, 則飄怒不時, 天色晦冥, 不分晝夜; 海動, 則徹底沸騰, 如烈火煮湯, 洋中遇此, 鮮有免者." 허목은 「척주기사(陟州記事)」의 「지후(誌候)」에서 동해에 북서풍[厲風]이 불면 '海動'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다. 『記言』 권37, 「陟州記事」, 「誌候」, "東海, 東南北無際, 常多大風, 波浪拍岸十丈, 惟西風海靜. 然厲風則海動, 或無風波浪, 俱謂之海惡."

②
明明暘谷 햇살 가득 양곡은
太陽之門 태양이 나오는 문
羲伯嗣賓 희백이 맡아 해를 맞이하네[303]

析木之次 별자리로는 석목[304]이고
牝牛之宮 방위로는 빈우궁[305]이니
日本無東 해 돋는 동쪽 끝이로다

③
鮫人之珍 교인의 진주[306] 등
涵海百産 바다가 품은 갖가지 산물
汗汗漫漫 질펀하니 흔전만전

奇物譎詭 변화무쌍 기이한 괴물이며
宛宛之祥 서리서리 서린 상서로운 기운 모두
興德而章 성덕(聖德)을 떨쳐 드러내는 것이로다

④
蚌之胎珠 큰 조개가 품은 진주
與月盛衰 차고 기우는 달 따라 영글었다 시들고[307]
旁氣昇霽 토해 낸 신기루 뭉게뭉게 피어오르며[308]

---

303) 양곡은 태양이 뜨는 곳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서경』에 따르면 양곡에서 해를 맞이하는 이는 원래 '희중(羲仲)'이다. 『書經』, 「堯典」, "分命羲仲, 宅嵎夷曰暘谷, 寅賓出日."

304) 석목(析木)은 12성차(星次) 중 동북쪽의 인방(寅方)에 해당하는 성차의 명칭이다. 28수(宿)로는 미수(尾宿)와 기수(箕宿)에 해당한다.

305) 미수(尾宿)와 기수(箕宿)를 빈우궁(牝牛宮)이라고도 한다.

306) 교인(鮫人)은 인어(人魚)로서 진주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張華, 『博物志』 권2 「外國」, "南海外有鮫人, 水居如魚, 不廢織績, 其眼能泣珠." ; 『太平御覽』 권803, "《博物志》曰: '鮫人從水出, 寓人家, 積日賣絹, 將去, 從主人索一器, 泣而成珠, 滿盤以與主人."

307) 조개의 일종인 방(蚌)이 진주를 품고 있으며, 그것이 달과 함께 차고 이운다는 전승을 옛 기록에서 종종 볼 수 있다. 張衡, 「南都賦」, "巨蚌函珠, 駮瑕委蛇." ; 『淮南子』, 「地形訓」, "蛤蟹珠龜, 與月盛衰."

308)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에 따르면 바닷가(海旁)에서 큰 조개[蜃]가 내뿜는 기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누대처럼 생겼다고 한다. 바다나 사막의 대기 굴절 현상으로 나타나는 환영을 '신기루(蜃氣樓)'라고 부르는 것은 이에 기원한 것이다. 『史記』,

天吳九首 머리 아홉 달린 천오[309]와
怪夔一股 다리 하나 뿐인 기[310]는
颱回且雨 돌개바람 일으키며 폭우 뿌리네

⑤
出日朝暾 떠오르는 아침 햇살
轇轕炫煌 어룽어룽 번뜻번뜻 하더니
紫赤滄滄 자줏빛 붉은빛 바다 가득하고

三五月盈 십오야 보름달
水鏡圓靈 하늘을 거울처럼 환하게 밝히니[311]
列宿韜光 뭇 별들 제 빛을 감추네

⑥
扶桑砂華 부상국[312]과 사화공국[313]
黑齒麻羅 흑치국[314]과 마라화국[315]

「天官書」, "海旁蜃氣象樓臺, 廣野氣成宮闕然." 비(霏=霺)는 운기(雲氣)가 꽉 찬 것을 가리킨다. 한유(韓愈)의 시에 신기루가 '昇霏'한다는 구절이 있다. 韓愈, <送區弘南歸>, "蜃沈海底氣昇霏, 彩雉野伏朝扇翬."

309) 천오(天吳)는 수신(水神)의 이름인데, 『산해경』에는 머리가 여덟이라고 나온다. 『山海經』, 「海外東經」, "朝陽之谷, 神曰'天吳', 是爲水伯." ; 「大荒東經」, "有神人, 八首人面, 虎身十尾, 名曰'天吳'."

310) 기(夔)는 동해(東海)에 사는 짐승으로서 외다리이며 물을 드나들 때 폭풍우가 일어난다고 한다. 『山海經』, 「大荒東經」, "東海中有流波山, 入海七千里, 其上有獸, 狀如牛, 蒼身而無角, 一足, 出入水, 則必風雨, 其光如日月, 其聲如雷, 其名曰'夔'."

311) 이 구절은 원래 사장(謝莊)의 <월부(月賦)>에 나온다. '원령'은 하늘을 가리키고, 수경(水鏡)은 맑은 물[淸水]와 밝은 거울[明鏡]을 가리키며 또렷하고 밝게 사물을 비춤을 형용한다. 『文選』, 謝莊 <月賦>, "柔祇雪凝, 圓靈水鏡." 李善注, "柔祇, 地也; 圓靈, 天也." 張銑注, "言月之光彩, 照地如凝雪, 照天水鏡."

312) 일본을 가리킴. 『梁書』「扶桑國傳」, "文身國, 在倭國東北七千餘里, (…) 大漢國, 在文身國東五千里, (…) 扶桑國者, 齊 永元元年, 其國有沙門慧深來至荊州, 說云: ''扶桑, 在大漢國東二萬餘里, 地在中國之東, 其土多扶桑木, 故以爲名.'"

313) 사화공국(沙華公國). 인도네시아 세부쿠(Sebuku) 섬.

314) '흑치국'은 『산해경』 등 고대 전승에 등장하는데, 일본 내 소국(小國)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전 일본에는 이를 검게 물들이는 풍습이 있었다. 『山海經』, 「大荒東經」, "有黑齒之國, 帝俊生黑齒, 姜姓, 口食, 使四鳥." ; 『山海經』, 「海外東經」, "黑齒國在其北, 爲人黑齒, 食稻啖蛇, 一赤一靑, 在其旁." ; 『後漢書』, 「東夷列傳」, '倭', "倭在韓東南大海中, 依山島居, 凡百餘國, (…) 至朱儒東南行船一年, 至裸國、黑齒國, 使驛所傳, 極于此矣."

撮髻莆家 상투 트는 보가룡국[316]

蟺蠻之蠔 단만[317]의 굴
爪聻之猴 조와[318]의 원숭이
佛齊之牛 불제[319]의 소

海外雜種 이들 바다 밖 갖가지 종족과 산물들은
絶黨殊俗 무리도 풍속도 서로 전혀 다르지만
同囿咸育 한 누리에서 함께 보살핌 받고 있네

⑦
古聖遠德 옛 성인의 덕 멀리 미쳐
百蠻重譯 여러 번 통역 거쳐야하는 온갖 오랑캐들[320]마저
無遠不服 아무리 멀어도 찾아와 복종하지 않는 이 없었네

皇哉熙哉 거룩하도다 찬란하도다
大嗣廣博 위대한 그 다스림 널리 미쳤으니
遺風邈哉 유풍이 오래도록 전해지리라

우선 형식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서(小序)를 제외한 본문은 4자(字) 1구(句), 3구(句) 1연(聯)(즉 1연 12자), 총16연(192자)으로 구성된다. 기본 단위를 4자 1구를 하는 사언체(四言體) 운문을 구사하였으며 동일 연

315) 현재의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에 소재했던 말와(Malwa, 麻羅華國, 摩臘婆) 왕국. 구자라트(Gujarat, 胡茶辣國, 古吉拉特邦) 왕국과 인접해 있었다.『諸蕃志』卷上, “麻囉華國, 與胡茶辣連接, 其國管六十餘州, 有陸路, 衣服風俗, 與胡茶辣國同, 産白布甚多, 每歲約發牛二千餘隻, 馳布就陸路, 往他國博易.”
316)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바섬 페칼롱간(Pekalongan) 지역.『諸蕃志』卷上, “闍婆國, 又名莆家龍, (…) 其王椎髻, 戴金鈴, 衣錦袍, 蹋革履, 坐方牀.”
317) 단만(蜑蠻). 중국 남방의 수상생활 민족인 단민(蜑民)을 가리킴.
318) 인도네시아 자바.
319) 수마트라 섬에 있던 삼보자(Samboja) 왕국. 삼불제국(三佛齊國).
320) 중역(重譯)은 여러 번 통역을 거친다는 뜻이다. 한 번의 통역으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중간에 여러 번 통역을 거쳐야 할 만큼 멀리 떨어진 민족들까지 내조(來朝)한다는 것은 제왕의 성덕의 증거 중 하나였다.『漢書』,「平帝紀」, “元始元年春正月, 越裳氏重譯獻白雉一、黑雉二, 詔使三公以薦宗廟.” 顔師古注, “譯謂傳言也. 道路絶遠, 風俗殊隔, 故累譯而後乃通.”

내에 운자(韻字)를 둔 것 등은 『시경(詩經)』을 모방한 것으로서, 읽는 이로 하여금 예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려는 의도에서 의식적으로 구사한 형식일 것이다.

각 연은 기본적으로 독립적 단위를 이루지만, 전체 16연을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7개의 느슨한 단락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21] 그러나 <동해비>는 시상 전환에 따른 명확한 분단(分段)을 염두에 두고 쓴 시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단락 구분은 대략적인 것이며 가변적일 수 있다.

전체적 글자 운용[用字]에서 눈에 띄는 점은, 우선 '之'나 '哉'와 같은 어조사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글자를 중심으로 시를 전개해 나가는 한편, 군데군데 벽자(僻字)를 배치하여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벽자 운용의 대상은 크게, '洋潏汪濊'나 '轇轕'과 같은 형용의 첩어(疊語)나, '夔'나 '莆', '蜑(蟺)'과 같은 괴물(怪物) 혹은 이민족의 명칭, 두 부류로 압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평이한 글자의 주조(主調) 속에 간간이 벽자를 혼합 배치한 파격을 삽입한 형식은, 바다란 영역 내에 괴물・악천후・기이한 산물・신기한 민족들이 존재하는 내용과 합치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모두 포괄하여 품에 안아 복종시킨 옛 성인의 덕을 강조하는 <동해비>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汗汗漫漫', '宛宛', '滄滄' 등 일반적인 시에서는 보기 힘든 동자(同字)

321) 백승호는 <동해송>(<척주동해비>)을 9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백승호, 「正祖時代 政治的 글쓰기 硏究」, 2013, 서울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pp.88~93) 그 근거로 채제공(蔡濟恭)이 <미수허선생동해비가(眉叟許先生東海碑歌)>(『樊巖集』 권6)에서 <척주동해비>를 가리켜 "或如九首或一股"라고 한 것을 지적하고, 이 구절을 "때로는 아홉 수 같고 때로는 한 수 같은데"라고 해석했다. 물론 "首"나 "股"가 시나 문장의 단위를 지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척주동해비>의 "天吳九首 怪夔一股"를 가리키는 것으로, 백승호의 해석은 오역이다. <동해송>은 단락의 분명한 구분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필자가 나눈 7개의 단락 또한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보는 관점에 따라 <척주동해비>를 9개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척주동해비>와 근연 관계인 허목의 말년작 <百濟西望海謠>가 9결(闋)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동해비>를 9개 단락으로 본다 해도, 그 근거가 채제공의 <미수허선생동해비가>가 될 수는 없다. 백승호는 또한 <동해송>이 『시경』의 「상송(商頌)」 그 중에서도 특히 <현조(玄鳥)>의 장법과 用韻을 본받았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동해송>이 『시경』을 본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所依를 '商頌'이나 '玄鳥'로 특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여겨진다.

반복을 과감하게 구사한 것도 주목된다.

‘퇴조비(退潮碑)’라는 별칭을 염두에 둔다면, <동해비>는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지적처럼 한유(韓愈)의 <악어문(鰐魚文)>이나 두보(杜甫)의 학질을 견책(譴責)한 시[322]와 같은, 귀수(鬼祟, 사람을 해치는 귀신) 혹은 재액(災厄)을 구양(驅攘, 내쫓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의(祭儀)적 성격의 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해비>의 내용 전반을 보면, 구축(驅逐, 몰아 쫓아냄)의 어구는 거의 보이지 않고 경탄과 칭송(稱頌)의 정조가 주조를 이룬다. 칭송이 향하는 대상은, ‘갖가지 비정상적 존재들[雜種]’이나 ‘여러 번 통역을 거쳐야 할 만큼 일상적 인지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격절된 먼 공간에 거주하는 이민족들[百蠻重譯]’마저 ‘복종하지 못할 만큼 먼 곳은 없게끔[無遠不服]’ 하며, ‘무궁한 큰 공간[其大無窮]’인 바다마저 ‘모두 다 덕화(德化)의 보살핌 아래에서 함께 거(居)하는 균질한 성덕(聖德)의 공간[同囿咸育]’으로 만들었던 ‘먼 곳까지 다 회유하는 옛 성인의 덕[古聖遠德]’이 ‘현재까지 미치는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 멀리[邈] 미칠 유풍[遺風]’이다. 이러한 성인의 위대했던 그리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위대한 덕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거대한 바다가 품고 있는 온갖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존재들이 ‘쫓아내야 할’ 악물(惡物)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탄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들은 일상적 인식의 영역 밖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물론 ‘괴이한[怪]’ 것들이며 때로는 악천후를 일으키는 등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옛 성인의 성덕과 유풍 덕택에 이들의 ‘기이함[奇]’에 대해 <동해비>의 독자는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 태도를 갖고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성인에 대한 송덕(頌德)을 전제로 하는 ‘송(頌)’이란 장르의 운문으로서 긍정적 경탄을 주조로 하므로, <척주동해비>는 괴기담과 같은 허탄(虛誕)함 혹은 유가에서 부정했던 ‘괴력난신(怪力亂神)’의 혐의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기(奇)’에 대한 기술에 치중하는 ‘박물지(博物誌)’의 기

322) 원래 <견학귀(譴瘧鬼)>는 한유의 시이다. 두보가 학질을 앓는 사람에게 자신의 <戲作花卿歌>의 한 구절(子章髑髏血模糊 手提擲還崔大夫)을 외게 하여 병을 치료하게 한 고사는 송(宋) 갈입방(葛立方)의 『운어양추고금시화(韻語陽秋古今詩話)』에 나온다. (한국고전DB 『성호사설』 권29 ‘東海碑’ 번역 주석 참고)

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괴물・진귀한 산물・'만이(蠻夷)'들에 대한 기술은, <동해송>이 속한 『기언』 원집(原集)의 '산천(山川)'의 다른 글들 혹은 '기려(羈旅)'나 '기행(記行)' 등의 편과 달리, 허목 자신의 직접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옛 전적(典籍)의 기술을 통해 얻은 지식의 재서술을 통해 진행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동해송>은 허목 말년작인 <백제서망해요(百濟西望海謠)>의 압축・요약판에 해당하는데 – 물론 <동해송>의 창작이 <백제서망해요>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 <백제서망해요>는 기본적으로 『문선(文選)』에 수록된 목화(木華)의 <해부(海賦)>에서 제재(題材)와 표현을 대거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해부>・<백제서망해요>・<동해송>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천오(天吳)'는 최초의 출전이 『산해경(山海經)』이다. 대체로 당(唐) 이전의 옛 전적으로 출전이 거슬러 올라가는 '괴물'들과 달리, '불제(佛齊)'・'사화(砂華)'・'조와(爪蛙)'・'단민(蜑民)' 등 <백제서망해요>와 <동해송>에 등장하는 이민족들은 대개 최초 출전의 시기가 괴물들만큼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지만,[323] 역시 전적을 통해 얻은 간접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서술을 기반으로 한다.

옛 성인의 교화의 유풍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며, 마치 과거의 '중역(重譯)'처럼 일상적 영역 밖으로부터 전적이라는 매체를 거쳐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온 지식을 서술했다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거쳤기에, <동해비>의 '기(奇)' 서술은 『기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눈에 띈다. 타 문집에 비해 '기' 서술이 많은 『기언』이지만 <동해비> 정도로 그것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은 또한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동해비>의 유명세와 문예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허목 '기(奇)' 기술의 대표작이라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동해비> 내에서 그려진 '기(奇)'의 현상과 존재들은 허목의 여타 '기' 기술과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다소 다른 면모 또한 보여주고 있다. <동해비>의 '기'한 것들은, ①비정상적 형태와 능력을 지닌 괴물・②괴

323) 다만 '黑齒'는 『山海經』에도 출현한다. 『山海經·』, 「大荒東經」, "有黑齒之國." 이를 제외하면 허목은 아마도 송대(宋代)와 명대(明代)의 각종 유서(類書)에서 '蠻夷'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물 혹은 바다 자체가 지닌 현실을 뛰어넘는 속성으로 인해 일어난 이상 기상 현상 및 자연재해・③일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바다의 산물・④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기이한 이민족이란 네 가지 정도의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모두 <동해비>나 <백제서망해요> 이외『기언』의 여타 '기(奇)' 서술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류의 것들이다. 앞서도 서술했듯이 허목은 천지(天地)를 구성하는 기(氣)의 변이로서 기(奇)를 중시했는데, 이때의 중시와 그에 따른 기(奇) 서술은, 비록 변이이지만 천지 기화(氣化)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세계 인식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동해비>의 네 가지 부류의 '기(奇)' 또한 옛 성인[古聖]의 덕화(德化)를 증거하는 존재 혹은 현상들이기 때문에 성인의 덕을 인지하기 위한 보조적 매개물로서 충분히 기술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존재하는 영역은 무궁히 광막한 바다로서 임(臨)하여 바라볼 수는 있을지언정 풍습이나 언어 등 어느 하나 공통점을 찾기 힘든, 이곳과 격절된 이질적 공간이다. 따라서 같은 기화의 변이라 해도 변이의 정도가 매우 커서, 공감을 통한 감동보다는 박물지적 서술을 통한 경이 쪽에 더 경도된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여 <척주동해비>에 서술된 여러 기이한 제재들은 성인의 교화의 범위의 거의 끄트머리에 걸쳐 있으며 겨우 받아들일 만한 가치를 지니면서 일상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를 지닌 감상의 대상이 된다. 동시에 그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척주동해비>의 글씨들도 옛 성인의 이상(理想)을 담고 있는 고문(古文)인 동시에 매우 '이상(異常)'한 경이(驚異)의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동해비>의 글씨가 담지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성을 상세히 살펴보려 한다.

2. <척주동해비> 수록 글자 결구(結構) 분석을 통한 자형(字形) 연원의 탐색

허목이 <척주동해비>에 쓴 글자들은 지금 여기의 현실과 상당히 먼 거

리를 둔 것들을 지시하기에 완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옛 성인의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고문(古文)'이기에 현재까지 전해진 성인의 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이 절은 허목에 의해 지금 여기에 재현되어 당대(當代)에서 확인가능하게 된 고문의 면모 중 과연 어떤 부분 혹은 속성이 옛 성인의 옛 글자의 면모인가를, 근거에 의거하여 정확히 특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에서 『기언』의 분석을 통해 허목이 평생 고구(考究)한 '고문'이 정확히 어떤 글씨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 지시 범위를 좁혀 보았고, 3종의 고문자 자전의 분석을 통해서는 자형(字形) 연원 연구를 위해 그가 어떤 자료를 보았으며 어떤 자형에 특히 주목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허목의 대표적 서예 작품인 <척주동해비> 자형들이 어떤 연원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한 분석·연구의 방법론으로서 필자는 특히 다음 두 가지에 주목했다.

첫째, 허목이 평생 탐구했으며 서예 작품에서 구사한 '고문'은 전통적 서체 분류로는 전서(篆書)에 해당한다.[324] 그런데 전서는 다른 주요 통행 서체인 해행초(楷行草)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전서는 한자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발달한 서체이기 때문에 문자 구성요소의 하위 단위, 즉 '부건(部件)'[325]의 조합이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

---

324) 더 자세하게는 '대전(大篆)'에 가까울 것이다. 허목의 글씨는 흔히 '미전(眉篆)'으로 불리기도 했다.

325) 한자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붓을 한 번 대었다가 뗄 때까지 만들어지는 점이나 선인 '필획(筆劃, 筆畫)'이다. 부건(部件)은 필획이 서로 조합되어 이루어진 한자의 구성단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는 한 글자의 좌우나 상하 또는 안팎을 구성하는 요소를 주로 편방(偏旁)이라고 불렀다. '편방'과 달리 '부건'은 현대 한자학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편방 개념이 주로 형성자나 회의자의 성부나 형부를 가리키는 개념이어서 이것으로는 모든 글자에 공히 적용되는 단위를 확정하기 어려운데 반해, 부건은 글자의 구성요소를 기계적으로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 개수의 부건으로 모든 글자의 구성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편방과 달리 부건은 글자의 독음이나 의미와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想'의 편방은 의미를 나타내는 '心'과 소리를 나타내는 '相'이지만, 부건으로 나누면 '木, 目, 心'이 된다. 이때 '木'이나 '目'은 '想'의 의미나 독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형태상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현대 중국에서는 글자의 모양과 관련된 문제에는 주로 '부건'을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주로 어학에서 사용되며 건조한 인상을 주는 용어여서 서예론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이를 채용하기로 한다. 박종한·양세욱·김석영, 『중국어

서 이체(異體) 혹은 이형(異形)의 범위가 제한적인 해서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이체·이형자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부건의 조합 즉 글자 전체의 결구(結構)를 살펴보면 해당 자형(字形)의 연원을 비교적 손쉽게 분변(分辨)할 수 있다. 더구나 초서나 행서와 같은 필획 혹은 부건의 생략, 또는 필획과 필획이나 부건과 부건 끼리의 연속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변이 더욱 명백하다. 이는 해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서는 동일 글자의 경우 부건 간 결합의 방식 즉 결구가 거의 고정적이어서 연원 탐색의 여지가 없어진다. 부건 간 결합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은 글자 판독, 즉 어떤 자형을 보고 그 글자를 동정(同定, identify)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연원 고구(考究)에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허목 '고문'의 연원 탐색에는 '전초(傳抄) 고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초 고문자'란 출토 고문자에 대비하여, 당대에 쓰인 고문자의 실물이 아니라 후대에 전래된 해당 자형을 베껴서 정리한 것을 가리킨다. 현대 고고학이 발전하여 갑골 및 금문(金文) 등 출토 실물 자료(혹은 그 자료의 탁본이나 사진)를 비교적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 이전에는, 옛 글씨로 쓰였다고 전해지는 자료에서 글자를 뽑아 베껴 모아서 자전 형식으로 편찬하여 고문자 연구에 활용하곤 했다. (옛 사람들은 이 '古文'들을 上古의 고문자로 착각하곤 했지만, 실제로는 戰國 六國의 이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326] 허신의 『설문해자』에 수록된 '古文'이나 송대(宋代) 『한간(汗簡)』, 『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 『집전고문운해(集篆古文韻海)』, 명대 『금석운부(金石韻府)』 등이 대표적 전초 고문자 집자(集字) 자전이다. 전초고문자는 필사에 의한 필획의 개변(改變)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고문자 연구에서는 대개 출토 고문자에 비해 중요도가 덜한 참고 자료 정도로 취급하곤 한다. 그러나 허목이 본 고문자 자료란 전초고문자 집성 자료뿐이었을 것이며, 그가 그 중 어떤 것을 취사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개변 및 창의를 더했는지가 허목 '고문(古文)' 서예 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초고문자는 본 연구의 필

의 비밀』, 궁리, 2012, pp.74~79.

326) 오제중, 위의 논문(「傳抄古文의 내용과 字形 비교 연구」), pp.365~372.

수불가결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전초고문자와 허목 글씨의 비교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아래에서 진행할 자형 비교 분석에서는, ①<척주동해비>에 나타난 자형을 중심으로, ②허목의 기타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자형들도 가능한 한 모두 모아 제시했다. 이후 ③명(明) 『금석운부(金石韻府)』의 해당 자형 중 허목의 자전 및 실제 작품례와 관련 있는 자형들을 제시한 후, ④허목의 『금석운부』, 『고문운율』, 『고문운부』에 나타난 자형들을 모두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⑤허신의 『설문해자』 대표자인 소전체와 중문(重文)인 '설문주문(說文籀文)', '설문고문(說文古文)' 및 '설문혹체(說文或體)' 등이 있으면 모두 제시하고, 『한간(汗簡)』 등 전초고문자 자형 중 위의 ①②③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골라 제시했다.[327]

위와 같은 방법론 및 과정을 통해 분석한 <척주동해비> 등장 자형들의 연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1. 전초(傳抄) 고경(古經) 자형의 채택

허목은 『금석운부』·『고문운율』·『고문운부』 3종의 고문자 자전에서 부기(附記)로 자형의 출전을 밝히면서 유가(儒家) 경전을 출전으로 적시한 경우가 있다. 그가 '고문(古文)'을 추구한 이유는 그것이 옛 성인이 쓴 바로 그 글씨여서 성인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전의 고문 경전 출전 부기는 허목이 평상시에 성인의 고문을 수집하여 연구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만일 실제 작품에서도 '고경(古經)' 출전의 자형을 사용했다면, 그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문자 생활이나 예술 실천에서 옛 성인의 '고문(古文)'을 재구(再構)하려 하였음을 실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래의 몇몇 자형은 그 실례가 된다.

327) 자세한 범례는 아래 부록 '<척주동해비> 자형 비교표'의 '일러두기' 참조.

a. 고문(古文) 상서(尙書)

다음 '汪', '殊', '皇' 세 가지 예는 '고상서(古尙書)' 즉 '고문상서(古文尙書)'의 자형을 채택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이다.

汪 (眉東-46)[328]

'왕(汪)'은 허목의 다른 자전이나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고문운율』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고문운율』의 '汪'과 <척주동해비>는 '삼수 변[氵(=水)]'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개변(改變)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따라서 '汪'의 '王' 부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문운율』과 <척주동해비>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汪'은 잘 쓰이지 않는 벽자이기 때문에 명(明) 『금석운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집전고문운해(集篆古文韻海)』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고문운율』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명 『금석운부』 '往'의 '主' 부건 부분과 허목의 '汪'들이 일치함도 확인할 수 있다. 『집전고문운해』는 원래 자형의 출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출전 확인이 가능한 것이 명 『금석운부』의 '往'이다. 이것의 출전이 '古尙書'이기 때문에 허목의 '汪' 자형도 이를 참조하여 만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殊 (眉東-151)

명(明) 『금석운부(金石韻府)』에는 '의운장(義雲章)'과 '고상서(古尙書)'의 출전 자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상서' 자형은 『한간(汗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자형은 <척주동해비>와 비교할 때 오른쪽 '朱' 부건의 획이 한 개 더 있어서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같은 계열이라고 판단할

328) '眉東-00'은 '<척주동해비> 글자 일련번호'를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부록의 '<척주동해비> 자형 비교표'를 참조.

수 있다. 이는 『설문해자』의 대표자인 소전체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설문소전(說文小篆)'은 현행 해서체와 거의 흡사하다. 『금석운부』는 명 『금석운부』를 완전히 동일하게 필사하고 있고, 『고문운율』은 '고상서' 자형만을 필사했는데 한 번은 명 『금석운부』와 동일하게, 한 번은 획 하나를 생략해서 <척주동해비>와 같게 썼다. 『고문운율』과 <척주동해비>의 강한 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皇 (眉東-163)

<척주동해비> '皇'은 명 『금석운부』에서 '古尙書'라 칭한 자형을 채택했다. 다만 윗부분이 명 『금석운부』에서는 '白' 부건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허목은 '自'를 사용하고 있다. 『한간(汗簡)』의 예를 보면 허목처럼 '自'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 『금석운부』가 아닌 『한간』을 직접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척주동해비>의 자형은 『고문운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허목 육필 전서(篆書) 작품 중 가장 이른 예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전무왕명(篆武王銘)>은 명 『금석운부』 '제후종(齊侯鐘)' 두 번째 자형과 매우 흡사하다. 동일 계열 자형을 『집전고문운해(集篆古文韻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전고문운해』는 아래 '王' 부건의 획이 하나 없음)

다음의 자형들은 '고상서' 출전을 확인 가능하나, 동일 자형이 다른 출전으로도 등장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출전 분변이 위의 두 경우처럼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형의 출전을 '고상서'로 판단할 수 있다.

且 (眉東-106)

'且'는 <척주동해비> 이외에 <사물잠(四勿箴)>·<증혜사서(贈慧師序)>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척주동해비>와 <사물잠>은 결구가 완전히

일치하고, <증혜사서>는 약간 다르다. 모두 '虘/又'의 형태인데, <증혜사서>는 '且' 부건이 조금 달라서 <희유략고(希裕略古)> 및 『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의 '노자(老子)' 자형임을 알 수 있다. <척주동해비>와 <사물잠>의 경우는 정확히 '且'의 형태이며 명(明) 『금석운부』의 '고상서(古尙書)'와 일치한다. 『한간(汗簡)』의 경우 동일 자형의 출전이 '서자비(庶子碑)'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이 자형의 출전을 '상서(尙書)'와 '서자비', 좀 더 넓게는 '노자'와 '희유략고'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희유락고'는 2차 자료인 집자서(集字書)이므로 일단 제외한다면, 선택지는 3가지로 줄어든다. 문자학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출토된 목간(木簡)·죽간(竹簡) 등이 아닌- '고문상서(古文尙書)' 혹은 '고문노자(古文老子)'란 서물(書物)은 후대(後代)의 위작(僞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거로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 <서자비>는 '왕서자비(王庶子碑)'라고도 하며, 『한간』 등 고문자 집자서의 인용 자료로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나, 이것을 출전으로 하고 있는 자형들로 볼 때 대체로 선진(先秦)의 고문자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329] 따라서 문자학적 자료의 가치는 <서자비>가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허목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오히려 '상서'나 '노자' 등 '고문(古文)' 전적(典籍) 쪽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으며, 둘 중에서 다시 선택한다면 당연히 경전(經典)인 상서를 소의(所依) 텍스트로 삼아야할 것이다. 더구나 허목이 손수 필사한 『금석운부』에는 '서자비'의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다. 명 『금석운부』 '도덕경'의 자형은 <척주동해비> 및 <사물잠>과 약간 다르며, '고상서'의 자형은 완전히 일치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허목은 <척주동해비> '且'를 서사(書寫)하면서 '고문상서(古文尙書)'의 자형을 염두에 두고 자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列 (眉東-123)

329) 黃錫全, 『汗簡注釋』, 武漢大學出版社, 1990, pp.57~58. 郭忠恕의 『汗簡』에서 인용된 자료들에 대한 고증은 이 책의 '郭忠恕脩汗簡所得凡七十一家事蹟'(pp.34~63)을 참조했다.

‘열(列)’은 <척주동해비>와 <증혜사서> 두 작품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증혜사서>는 명(明) 『금석운부』의 ‘고상서’ 자형과 거의 일치한다. 허목이 필사한 『금석운부』에서도 동일 자형을 확인할 수 있다. <척주동해비>의 경우는 명 『금석운부』의 ‘종정문(鐘鼎文)’ 자형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 자형은 결구 상 ‘고상서’와 상당히 유사하며, 다만 오른쪽 ‘刂’ 부건(=刀, 전통적으로는 ‘선칼도방’, ‘입도방立刀旁’이라고 부름)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더구나 <척주동해비>=명 『금석운부』 ‘종정문’ 자형이 『한간』에서는 ‘상서(尙書)’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척주동해비> 자형은, 넓은 의미에서 ‘고문상서’를 출전으로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b. 고문 효경(孝經)

‘서경(書經)’ 이외에 <척주동해비>에서는 ‘효경(孝經)’을 출전으로 갖는 자형의 예도 약간 보인다.

臨 (眉東-22)

명(明) 『금석운부』에서 ‘고효경(古孝經)’이라 출전이 부기(附記)된 자형을 2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척주동해비>는 그 중 두 번째 자형을 채택했다. 허목의 『금석운부』는 해당 부분이 탈락되어 있어 초록(抄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고문운율』과 『고문운부』는 ‘육서통(六書統)’, ‘의운장(義雲章)’, ‘화악비(華嶽碑)’ 등 집자서와 석각(石刻) 자료를 두루 초록했다. 『고문운부』 4번째 자형은 명 『금석운부』 ‘고효경’ 첫 번째 자형이다. 따라서 허목은 명 『금석운부』의 두 가지 자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척주동해비>에서 굳이 2번째 자형을 채택하여 쓴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明 (眉東-51)

허목 서예 작품에서 '명(明)' 자형 채택은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척주동해비>의 자형은 기본적으로 명 『금석운부』 '고효경(古孝經)' 출전 자형이나, '日' 부건이 '目'으로 대체되어 있다. <이상좌불화첩발(李上左佛畫帖跋)>에서는 변형 없이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했다. <채세영(蔡世英) 신도비>는 명 『금석운부』에서 '古文'이라 지칭한 자형과 유사한 결구를 보인다. (이때의 '古文'은 '說文古文'이 아니며, 정확히 무엇을 지칭한 것인지는 불확실함) <전송유문(篆宋儒文)>은 미묘하다. 전체적 결구와 왼쪽의 '囧' 부건은 명 『금석운부』의 '道德經'이나 '說文小篆'을 따르고 있고, 오른쪽 '月' 부건은 '古孝經' 계열이기 때문이다. 명 『금석운부』에서 출전 '고효경'이라 칭하고 있는 자형이 『한간(汗簡)』에서는 '老子' 출전으로 되어 있다. 또한 명 『금석운부』에서 '古尙書'라고 칭하는 것은 실제로는 '설문고문(說文古文)'이다. 『금석운부』·『고문운율』·『고문운부』에서 이 자형들을 대체로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허목은 '明'이 다양한 형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척주동해비>나 『고문운율』 자형처럼 '明'의 '日' 부건을 '目'으로 쓰는 경우 또한 고문자 자료에서 종종 보인다. <척주동해비> '明'의 경우 특정 출전을 충실히 따른 것이 아니며 허목 자신의 변용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해비>의 이 改變은 『고문운율』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고 해도 오른쪽 '月' 부건 가장 왼쪽 획의 특징적인 구불구불함으로 인해 글자 전체의 인상이 명 『금석운부』 '고효경' 자형처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의 '고효경' 채택 동인(動因)은 그것의 출전이 '경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자형 혹은 특정 획의 형태가 주는 인상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명 『금석운부』를 초록한 허목의 『금석운부』의 경우엔 '주역(周易)' 출전의 자형을 베껴 쓴 경우도 보이지만, <척주동해비>에서는 서경(書經)과 효경(孝經) 이외에 다른 경전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고문(古文) 경전의 전래 문제와 관계 깊을 것이다. 따라서 허목이 서경과 효경 자형을 채택한 것이 특별히 이 두 경전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명(明)'(眉東-51)과 '영(靈)'(眉東-122)의 경우는 『금석운부』·『고문운율』·『고문운부』에서 '고상서(古尙書)' 자형을 채록(採錄)하여 그것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척주동해비>의 실제 창작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허목이 고경(古經)의 자형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다고는 해도 경전의 출전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갖는다. <척주동해비>에서 서경과 효경 자형을 채택한 것은, 『기언』의 기록 및 고문자 자전 편찬에서 보이는 '고문(古文)' 경전 연구의 면모를 서예 실천의 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2. 전초(傳抄) 제자서(諸子書) 자형의 채택

『금석운부』나 『고문운율』의 부기(附記)에서는 유가 경전(經典) 이외 다른 전적 혹은 제자서(諸子書)를 해당 자형의 출전으로 명시한 경우가 없다. 그런데 <척주동해비>에서는 제자서 특히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출전 자형을 상당히 많이 채택하고 있다.

a. 고문 노자(老子)[330]

雨 (眉東-107)

'설문고문(說文古文)'이나 『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 '노자(老子)' 형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그대로 형상화한 듯한 상형(象形)이다. 하늘 혹은 구름을 나타내는 부건[冂] 아래의 점들은 후에 '水'와 비슷한 형태로 정리되었으며, 이는 현재 통용되는 해서 자형의 원형인 '설문소전(說文小篆)'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척주동해비>의 자형은 맨 위의 '一'이 없다는 점에서 '설문소전'과는 다르며, 명(明) 『금석운부(金石韻府)』

330) '도덕경(道德經)'이라 부기(附記)한 것 포함.

‘도덕경(道德經)’의 자형이다. 다만 명『금석운부』와 ‘水’ 부건이 약간 다른데, 가운데 획이 이어져 있어서 ‘水’(물 수) 형태와 더욱 유사해졌다.

德 (眉東-83)

‘덕(德)’은 <척주동해비>에서 두 차례 쓰였는데, 첫 번째 자형은 명『금석운부』의 ‘멸오력(蔑敖鬲)’[331]이란 청동기 명문(銘文) 자형이며, 두 번째는 명『금석운부』‘도덕경(道德經)’ 출전 중 두 번째 자형이다. 이 두 번째 자형은 <불여묵전사노인십팔계(不如默田社老人十八戒)>에서도 쓰였다. 그리고 <척주동해비> 첫 번째 자형은 허목이 사망한 해에 쓴 <한간문(汗柬文)>에도 쓰였다. 기타 <사물잠(四勿箴)>은 명『금석운부』‘조화종(盄和鐘)’ 자형을, <미옹심획(眉翁心畫)>는 ‘고효경(古孝經)’을 변형한 자형을 썼다. 명『금석운부』‘고효경’과 ‘도덕경’ 자형은 모두 옛 석각 자료인 <벽락문(碧落文)> 수록 자형 계열이라 볼 수 있다. 허목이 <벽락문>을 채택한 것인지 혹은 명『금석운부』의 출전을 존중하여 ‘도덕경’을 의식하고 이 자형을 쓴 것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다만 <척주동해비> 다른 자형들에서 ‘노자 도덕경’ 자형을 채택한 경우가 꽤 있으므로, 이 경우도 출전이 ‘도덕경’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靈 (眉東-122)

‘영(靈)’의 현재 해서 자형은 ‘설문혹체(說文或體)’를 계승한 것인데, 이 글자는 ‘설문소전(說文小篆)’ 자형인 ‘靈’을 포함하여 ‘霝’, ‘霝’[332], ‘霝’, ‘䨻’ ,‘䨻’, ‘霝’ 등 다양한 이체자가 존재한다. 심지어 명『금석운부』‘고상서(古尙書)’ 첫 번째 자형은 ‘雨/竜[333]’의 형태를 하고 있다. <척주동

331) 주대(周代)의 청동기인 ‘蔑敖鬲’은 송대(宋代)『선화박고도(宣和博古圖)』나『역대종정이기관지법첩(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 등에 수록되어 일찍부터 알려진 기물(器物)이다. 명(明)『금석운부』는 송대의 고기물명문집(古器物銘文集)의 성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332) 원래 ‘靈’의 소리부인 ‘비올 령’임.

333) ‘竜’은 ‘龍’의 이체자이다.

해비>는 '霽'의 형태이며, 명『금석운부』나『고문사성운』에 따르면 이는 '노자 도덕경'에 쓰인 자형이다. 허목의 다른 작품에서 쓰인 자형도 <척주동해비>와 같다. 허목『금석운부』에서는 명『금석운부』'고상서' 두 번째 자형 및 '제후종(齊侯鐘)'을 채록했고,『고문운율』에는 '고상서' 첫 번째 자형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허목이 자전 편찬에서는 분명 '고상서'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작품에서는 '노자 도덕경'의 자형을 선택했다. 이는 적어도 서예 실천의 면에서는 유가 경전과 제자서가 동등한 위치를 가진 전거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예여서 매우 주목된다.

b. 기타

노자 도덕경 이외에 다른 제자서 출전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범위를 넓히면 '사기(史記)'의 예를 찾을 수 있다.

齊 (眉東-145)

<척주동해비>에서 '제(齊)'는 만이(蠻夷, 오랑캐, 이민족)의 명칭인 '불제(佛齊)'에서 쓰였다. 이 형태는 명『금석운부』에서 '고사기(古史記)'로 출전을 표시한 것이다.[334] 그런데 같은 자형이『한간(汗簡)』에는 출전이 '상서(尙書)'로도 되어 있다. 위의 '靈'의 예에서 보듯 <척주동해비> 등 서예 작품에서 허목은 경전과 제자서 출전의 위상에 그다지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척주동해비>의 '齊' 자형이 '사기'이건 '상서'이건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다만『한간』에서도 거의 같은 자형이 '사기'로도 '상서'로도 되어 있고, 명『금석운부』에서는 '사기' 출전만이 나타나므로 이 자형의 출전을 '사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334)『汗簡』에는 자형 출전을 '史記', '漢書' 혹은 '史書'라고 표시한 글자들이 간혹 나온다. 이는 사마천(司馬遷)의『사기』나 반고(班固)의『한서』중에 "고자(古字)"로 쓰인 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黃錫全,『汗簡注釋』, p.42.

2.3.『설문해자(說文解字)』 자형의 채택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허목이 『설문해자』를 직접 보고 고문자를 수집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척주동해비>에서 '설문고문(說文古文)'을 채택한 경우가 몇몇 보이는데, 허목이 이 자형들을 『설문해자』로부터 직접 채택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해도 자형 채택의 의의는 작지 않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본 후, 『설문해자』 대표자인 '소전(小篆)' 자형을 채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a. 설문고문(說文古文)의 채택

『설문해자』의 중문(重文) 중 '고문(古文)'은, 전통적으로는 서주(西周) 사주(史籒) 주문(籒文)보다도 더 오래된 고문자로 보았지만, 현대 문자학의 성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국(戰國)시대 육국(六國)에서 쓰인 문자들이라고 추정된다. 허목은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없으므로 전통적 견해에 따라 주대(周代)의 '고문'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 '(眉東-2)나 ' '(眉東-60)의 경우를 보면, 허목은 이 자형들을 '설문고문'이라고 인지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명 『금석운부』에 따라 '고상서(古尙書)' 출전의 자형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335] 이런 경우는 <척주동해비>에서 꽤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 ' '(眉東-92)의 경우는 허목이 이것의 출전이 확실히 '설문해자'임을, 나아가 '설문고문'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을 보여준다. 명 『금석운부』에서는 비슷한 자형의 출전을 '說文'이라 명기하고 있는데, 『고문운율』을 보면 허목은 분명 '소전(小篆)'체와 '설문고문'체를 둘 다 수록하고 있고, 네 번째 자형은 현행 『설문해자』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설문고문'과 거의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척주동해비> 자형은 『고문운율』 두 번째 자형인데 이것이 명 『금석운부』 '說文'

335) <척주동해비> 대자(大字) '州'의 경우. 소자(小字)는 '州卣'라는 鐘鼎文을 출전으로 갖는다.

자형의 변형인지, 혹은 허목이 『고문운율』에 써놓은 정확한 '설문고문'의 변형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 『고문운율』 네 번째 자형은, 『설문해자』를 직접 보았건 혹은 다른 서적을 통해 보았건, 허목이 '설문고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眉東-97)은 명확히 '설문고문'의 자형이며 명 『금석운부』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는 『설문해자』를 직접 보았건 그렇지 않고 다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했건 적어도 형태-결구 상으로는 명확히 '설문고문'을 재현하고 있다.

' '(眉東-93) 또한 '설문고문' 두 번째 자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명 『금석운부』 '운대비(雲臺碑)'이 자형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힘들다.

' '(眉東-7)의 경우 명 『금석운부』에 따라 이것을 '고문(古文)'으로 판단하고 채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문운율』 등 자전에서 허목이 '설문고문'이나 '설문주문' 자형을 대거 채택하고 있음을 볼 때 허목이 『설문해자』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자형들을 채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척주동해비>에서는 『설문해자』란 책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출전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의 경우가 주목되는 것은 허목이 그것을 '古文'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의 '古文'은 허목이 평생 추구했던 넓은 의미의 '고문'이 아니라 『기언』「古文」에서 언급한 좁은 의미의, 서체로서의 '古文'이 된다. 현대 문자학의 성과를 허목이 인식했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 자형은 허목에게는 '상고(上古)'의 '古文'이 된다.

<척주동해비>에서는 '설문주문(說文籀文)'의 자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명 『금석운부』 등에서 출전을 '籀文'이라고 한 자형을 채택한 예는 보인다.[336] 허목이 자신이 초록한 『금석운부』와 편집한 『고문운율』에서 사주(史籀)의 주문(籀文)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음을 감안할 때, 실제

336) '大'(眉東-23)와 '號'(眉東-37)의 경우. 이를 통해 볼 때 허목의 '籀文' 추구는 『설문해자』 '주문' 뿐 아니라 다른 서적들에 수록된 '주문'도 함께 참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서예 작품에서 '籀文' 선택이 '古文'보다 적다는 사실은, 『기언』「고문」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목이 '주문'을 (좁은 의미의) '고문'보다 한 단계 하위의 전거라고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b. 설문소전(說文小篆)

<척주동해비>에서는 『설문해자』의 대표자인 '소전체'의 채택도 흔하게 발견된다.

潏 (眉東-45) / **暀** (眉東-50)

'휼(潏)'과 '예(暀)'는 그다지 많이 쓰이는 글자가 아니다. '潏'은 명 『금석운부』 등에 실려 있지 않고 『집전고문운해(集篆古文韻海)』에 예가 보일 뿐이다. 『집전고문운해』의 경우도 『설문해자』 소전체를 그대로 실은 것이다. <척주동해비>는 '설문소전'을 기본으로 하되 '矞' 부건에 약간의 변화를 가했다. 이 부분은 명 『금석운부』 '휼(譎)'(속일 휼)을 참조한 것이다. '暀'의 경우도 현 해서체의 원형인 '설문소전'을 그대로 활용했다. 비교적 많이 쓰이는 글자인 '**涵**'(眉東-72)도 여타 집자(集字) 자료에서 예를 찾기 힘들다. <척주동해비> '涵'도 '설문소전'을 그대로 쓴 것을 알 수 있다.

韜 (眉東-125) / **光** (眉東-126)

'광(光)'은 『고문운율』을 보면 세 자형이 수록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각각 '설문고문'1, '설문고문'2, '설문소전' 자형이다. 그러나 허목은 이를 『설문해자』와 연계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형들은 명 『금석운부』에 '벽락문(碧落文)', '고효경(古孝經)', '종정문(鐘鼎文)'으로 출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光'은 <척주동해비>를 포함 4군데에 작품

예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고문운율』3번째 자형=명『금석운부』종정문 자형을 채택했다. 이 자형은 설문소전과 대단히 유사하며 따라서 현재 통행 해서체 자형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명『금석운부』에 '고효경', '도덕경' 등 자형이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자형과 큰 차이가 없는 자형을 선택한 것은, 허목이 무조건 '상고(上古)' 고문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서예 실천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었음을 시사한다. '도(韜)'의 경우도 명『금석운부』에 '도덕경', '설문(說文)' 등의 출전 자형이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고문운율』에서 채택한 '설문소전' 자형을 사용했다.

2.4. 전초(傳抄) 석각(石刻) 문자

전초(傳抄) 고문자 집자서 중 <운대비(雲臺碑)>, <벽락문(碧落文)> 등의 석각(石刻) 문자를 수록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허목도 이를 활용한 경우가 있다.

産 (眉東-73)

'산(産)'은 명『금석운부』에 석각 자료인 '화악비(華嶽碑)'와 기물(器物) 명문(銘文)인 '하구대(夏鉤帶)' 출전 자형이 수록되어 있다. <척주동해비> 자형은 이 중 '화악비'와 매우 유사하다.

氣 (眉東-94)

'기(氣)'는 전초 고문자 자료 중 어떤 것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금석운부』을 보면 <척주동해비>의 '氣' 자형이 '벽락문(碧落文)' 자형 계통임을 짐작할 수 있다. <벽락문>의 이 자형은 '氣'의 이체자인 '氣'(日+气) 형태의 변형이라 추정된다. 허목은 명『금석운부』

나『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에 전초(傳抄)된 <벽락문> 해당 자형을 바탕으로 원래 '日' 부건 오른쪽에 나란해 배열되었던 '气' 부건 부분을 '日' 상하와 우측으로 분산시키고 구불임의 정도도 다양화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출했다.

2.5. 종정문(鐘鼎文)

종정문은 <척주동해비>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중을 갖고 등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구체적 예를 살펴보겠다.

雜 (眉東-147)

<척주동해비>의 '잡(雜)'은 현행 해서체와 동떨어진 모양을 하고 있다. '雜'의 원래 '衣'(옷 의)가 의미부이고 '集'(모일 집)이 소리부인 '명(明)『금석운부(金石韻府)』' 운대비(雲臺碑)' 자형, 즉 '襍'이 원자(原字)이다. 허목은 이 '襍'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의『금석운부』와『고문운부』에서는 <운대비>의 자형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척주동해비>에서는 문자의 원형이나 현행 형태 양쪽 모두와 별 상관없는 <인궤(寅簋)> 자형을 채택하여 약간의 변형을 가해 서사(書寫)했다.

夔 (眉東-101)

'기(夔)'는 천오(天吳)와 함께 <척주동해비>에 등장하는 괴물(怪物)의 이름이다. 이 경우 <제후종(齊侯鐘)> 명문(銘文)을 자형의 연원으로 삼고 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자형은 명『금석운부』에 등장하고 있는데, 명『금석운부』 수록자는 다시 송대(宋代) 설상공(薛尙功)의『역대종정이기관지법첩(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에서 가져온 것이다.

日（眉東-67）/ **月**（眉東-90）

<척주동해비>는 물론 허목의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쓰인 '일(日)'과 '월(月)'은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篆宋儒文>의 '日'과 <汗東文>의 '月' 제외) 이 자형들은 명 『금석운부』에서 출전을 '상종(商鐘)'이라 한 것들 중에서 취한 것이며, 『역대종정이기관지법첩』에서 유래한 것이다. '日'과 '月' 모두 핵심부인 '日'과 '月'은 위 왼쪽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고, 글자의 대부분을 부건으로 분해하기도 힘든 획들로 채우고 있다. 이 획들은 보기에 따라서 일훈(日暈, 햇무리)이나 월훈(月暈)으로 보이기도 하고, 혹은 지시 대상 없는 어떤 '기운'으로 보이기도 한다. 『역대종정이기관지법첩』은 이 계열의 자형들을 모두 '상대(商代)의 종(鐘)'의 기명(器銘)에 수록하고 있는데, 자형만을 보면 마치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열국(列國), 특히 초(楚)나 중산국(中山國) 등의 기명에서 가끔 보이는, 종(縱)으로 길고 장식 획이 많은 장식서체처럼 보인다. 명 『금석운부』에 수록된 소위 '古文' 중 한 자형에서 '口' 안에 '烏'(까마귀 오)를 넣은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후대에 수집·편집된 전초 고문자 집자서에서는 '日'이나 '月', '天'이나 '地' 등 동양의 철학적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들 중 일부 자형에서, 문자학적 고증의 결과라기보다 사상적 부회(附會)의 산출물처럼 보이는 문자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日'과 '月' 자형들의 연원에 대한 고증은 허목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는 단지 명 『금석운부』와 같은 집자서에서 이를 채택하여 자신의 서예 작품에 적용하였을 뿐이다. 이 자형들이 허목 이외에도 사용된 예가 있는 것으로 보아,[337] 이 자형 채택을 허목만의 독자성

337) 국립중앙도서관 석한남 기증 자료 중 신희남(愼喜男, 1517~1591)의 전서(篆書)에서 이 '月' 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신희남, <전서팔폭병(篆書八幅屛)>, 8폭, 필사본, 124.5x336.0cm, 국립중앙도서관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기탁으로 빛나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2018, pp.98~99. 이 작품에서는 허목 <동해비>의 '氣'와 거의 비슷한 형태나 위에서 언급한 明 『金石韻府』 '日' '古文' 자형 중 첫 번째 자형(口/烏)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신희남의 본관은 거창, 자는 길원(吉遠), 호는 영계(瀅溪)이며 전라도 영암 출신이다. 정언, 좌승지, 병조와 예조 참의, 금산군수, 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생애나 학문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시와 글씨에 뛰어나 석봉(石峯) 한호(韓濩)에게 글씨를 가르쳤

으로 보기도 힘들다. 다만 통행 해서 자형과 너무도 멀리 떨어진 이 자형들이 갖는 독특함이, <척주동해비> 등 허목 서예 작품이 감상자에게 부여하는 기이함의 인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聖 (眉東-157)

'성(聖)'은 허목의 작품 중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고 있다. 허목의 세계관에서는 천지(天地)와 만물(萬物)과 인사(人事)는 모두 일기(一氣)에 의해 운행되는데, 그것을 완벽히 체현했던 옛 성인(聖人) 그리고 당대(當代)에 옛 성인과 같은 역할을 요구받는 군왕(君王)의 존재가 천지와 인사의 매개자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이천(程伊川)의 <사물잠(四勿箴)>과 당(唐) 장온고(張蘊古)의 <대보잠(大寶箴)> 일부를 베껴 쓴 '<사물잠>'을 제외하더라도, 그가 쓴 글에 '성'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척주동해비>에서는 옛 성인을 가리키는 '古聖'이라는 말에 사용되며, <불여묵사전사노인십팔계(不如默田社老人十八戒)>와 <한간문(汗柬文)>에서는 모두 '聖人'에서 사용되고 있다. <증혜사서(贈慧師序)>에서는 '역대 군왕의 글씨'라는 뜻의 '列聖御筆'이라는 어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척주동해비>와 <불여묵전사노인십팔계> 자형1에서는 주대(周代)의 청동기라 전해지는 <사구대(師寇敦)[338]> 명문(銘文)을, <증혜사서>와 <불여문전사> 자형2에서는 '도덕경(道德經)'의 자형을 쓰고 있다. <한간문>은 '聖'이 7차례나 쓰였는데, 허목의 가장 말년인 88세에 쓰였으며, 글의 내용상으로도 '성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가히 '성(聖)이라는 문(文)의 집대성'이라 칭할 만하다. <한간문>에서는 '고효경(古孝經)'·'도덕경'·'화악비(華嶽碑)'·'사구대' 등 유교 경전, 제자서(諸子書),

---

다고 한다.

338) '寇'는 '寇'(도둑 구)의 고자(古字)이다. '사(師)'는 관직(官職)의 이름이고, '구(寇=寇)'는 인명(人名)이다. 이때의 '敦'은 청동그릇의 종류이고 '대'라고 읽는다. 명『금석운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구대>는 원래『역대종정이기관지법첩(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권14에 '주기관지(周器款識)'의 '대(敦)' 항목 중 하나로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전초(傳抄) 석각(石刻), 전초 고기명(古器銘)=전초 종정문 출전이 골고루 쓰였다. 허목 서예 작품 전체로 보면 -물론 필자가 정리한 것에 한하여-, 총15회 출현 중 '고효경'이 1회, '도덕경'이 8회, '화악비'가 1회, '사구대'가 4회, 출전 미상(未詳)[339]이 1회 쓰여서, '도덕경'의 비중이 가장 높다. '고효경' 및 '화악비'는 <한간문>에서 7회나 등장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다양성을 증강하기 위해 쓰인 것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형 출전의 주된 원천은 역시 '도덕경'과 '사구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도덕경'이 '사구대'에 비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물잠>에서 4회나 등장하며 그것도 같은 자형이 중복 등장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종정문인 '사구대' 출전이 '노자 도덕경'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힘들다. 명 『금석운부』 자형들에서 '고효경'과 '화악비'는 '耳' 부건을 제외하면, '고효경'은 ''화악비' 오른쪽 방(旁)을 분리하여 아래쪽 '古'처럼 생긴 부건을 '耳' 아래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도덕경' 자형은 그것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사구대'는 전체 결구가 매우 다르다. 『역대종정이기관지법첩』의 원 자형을 보면 명 『금석운부』는 사실 원래 '耳' 아래에 붙어 있던 획들[340]이 와변(訛變)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허목은 이 와변된 획을 다시 더 강화했다. 따라서 <척주동해비> 자형은 현재의 해서 '聖'과 전체 결구는 오히려 비슷해졌고, 다만 아래의 '壬'(좋을 정)[341]이 '十'처럼 바뀌었을 뿐이다. 정리하자면 허목의 <척주동해비> '聖' 자형 선택과 구사에서는, 종정문 자형 선택이 갖는 전범 채택의 의의와, 원 자형을 실제 구사함에 있어 허목이 나름의 변형을 가하여 결국 독자적 자형을 창출해낸 서예 실천적 의의를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

339) 허목 『고문운부』 제2 자형.

340) '聖'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 '耳'와 '口'이 주된 요소이고 '耳' 아래에 종종 '人'이 부가되어 있기도 하다. 후에 이 '人'의 요소가 '壬'으로 변했고, 이것이 '口'와 합쳐져서, '聖'을 '耳'를 의미부로 하고 '呈'을 소리부로 하는 형성자로 해석하게 되었다. 금문(金文)이나 간독(簡牘)문 중에서 가끔 '口'가 두 번 반복되기도 하는데, '화악비'나 '고효경'의 전초 자형은 아마도 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악비'만을 보면 마치 '耳'와 '善의 생략형'처럼 보이기도 한다. 참고로 『설문해자』에서는 '壬'을 '善'으로 풀이하고 있다. 『說文解字 : "壬, 善也。从人士 ; 士, 事也。一曰象物出地挺生也。"

341) '壬'(아홉째 천간 임)과 다른 별개의 글자.

許 (眉東-176) / **穆** (眉東-177)

<척주동해비>에서 '허(許)'와 '목(穆)'은 본문 뒤의 서자(書者)를 표시한 후지(後識)에서 쓰이고 있다. '許'의 자형은 고자(古字)인 '鄦'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해비>의 자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설문소전'의 자형과는 결구가 분명히 다르고, 대체로 '허자종(許子鐘)' 계열의 자형에서 '皿' 부건의 위치만 좌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穆'의 자형은 비교적 연원이 명확하여, '목공정(穆公鼎)'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역시 '설문소전'과는 다르고, 또한 '고상서(古尙書)' 자형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자신의 이름자인 '許穆'에서 허목은 종정문을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각 글자 자형을 어떻게 분석하여 그 자형의 출전, 즉 연원을 확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확정된 자형 연원을 통합 계상하여, <척주동해비> 전체 글자 자형의 연원을 아래에서 표로 제시하였다.[342] (<표 16>)

아래의 표를 참조, <척주동해비> 자형 연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옛 글자체로 쓰였다고 간주된 유교 경전, 즉 '고경(古經)' 자형의 채택 비율이 의외로 낮다.

342) <척주동해비>는 총 226자, 중복 글자를 제외하면 178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글자가 여러 자형으로 쓰이거나, 같은 자형이 반복 출현하기도 하므로, 자형 연원의 총수는 글자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자형 연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은 '미상'으로 처리하였지만, 허목은 기존 자형을 그대로 따라 쓰지 않았으므로, 연원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힘든 면이 많다. 따라서 이 분류의 숫자는 정확한 것이 아닌 대략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16> <척주동해비> 글자 자형(字形) 연원 분류표

연원	출전[343]	횟수	소계	비고
전초고경 傳抄古經	古尙書	10	19 (9.8%)	
	古孝經	9		
전초제자서 傳抄諸子書	古老子 (道德經)	21	22 (11%)	
	기타	1		古史記
설문해자 說文解字	說文古文	6	45 (23%)	
	小篆	37 (19%)		
	“說文”[344]	2		
전초 고문자 傳抄 古文字 자료	傳抄集字書	20	46 (23%)	汗簡, 集篆古文韻海, 六書統, 義雲章(義雲切韻), 存乂切韻, 希裕略古 등
	傳抄石刻	15		華嶽碑(雲臺碑), 碧落文, 庶子碑, 石經, 貝丘長碑, 南嶽碑, 濟南碑文 등
	“古文”[345]	9		
	“籀文”[346]	2		
종정문 鐘鼎文	商鐘, 齊侯鐘, 齊侯鎛, 寅簋, 許子鐘, 師簋敦, 穆公鼎, 州卣, 伯英彝, 南宮中鼎, 圓寶鼎, 張仲簋, 晉姜鼎, 伯姬鼎, 師艅彝, 戠敦, 微爛鼎, 敦盤, 蔑敖鬲, 大夫始鼎, 尨敦, 盉和鐘, 漢四神鑑 등	33 (17%)		
미상		27 (14%)		총계: 192

343) 출전은 모두 明『金石韻府』의 附記를 기준으로 하였다.
344) 明『金石韻府』附記에 “說文”이라고 기재된 것. 실제『說文解字』수록 자형은 아님.
345) 明『金石韻府』附記에 “古文”이라고 기재된 것. 說文古文은 아니며 정확한 출전은 알 수 없음.
346) 明『金石韻府』附記에 “籀文”이라고 기재된 것. 說文籀文은 아니며 정확한 출전은 알 수 없음.

숙종에게 11개의 명(銘)을 진상하며 함께 올린 차자(「上古文十一銘箚」)나 『기언』 권5의 「문학(文學)」이나 권6 「고문(古文)」 등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허목이 옛 글씨 즉 '고문(古文)'을 중시하여 자신의 글씨로 구사한 이유는 그것이 상고(上古) 성인(聖人)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문'에서 성인이 지은 옛 경전은 제1차적 중요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허목이 자신의 고문자 자전의 부기(附記)를 통해 여러 고경(古經)에 주목한 것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허목의 가장 중요한 서예 작품인 <척주동해비>에서 고경 자형의 채택 횟수는 의외로 적다. 이는 허목이 고경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고경의 자형이 실제 작품 서사(書寫)에 활용할 만큼 충분히 풍부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칙과 사례의 탐구 및 실천이라는 '고문'의 학문적 연구와 달리, 허목이 서예 창작의 실제에서는 고경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비타협적으로 따르기보다, 차상(次上)적 가치를 지니는 자형이라도 조형미라는 관점에서 채택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채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고문(古文) 『도덕경』 자형의 채택 비율이 상당히 높다.

허목은 『기언』 「문학」에서, 상고 성인이 지은 육경(六經)의 가치를 계승한 공자(孔子)가 죽자 육경의 문(文)이 무너졌으며, 그 이후 제자백가가 어지러이 등장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문학」에서 그는 제자백가 중 노자(老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문학」에 뒤이은 「문총서(文叢序)」에서는 『사기(史記)』 「노담열전(老聃列傳)」을 인용하여 노자를 "청정하고 바르며, 인위를 두지 않아 스스로 화육(化育)한다[淸淨自正 無爲自化]"고 평가하고 있다. 제자백가 선집(選集)인 『문총』을 직접 편집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허목은 제자백가가 "비록 유가(儒家)의 학술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천하의 변화를 섭렵[博物天下之變]"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아버지 허교(許喬)가 서경덕의 문인인 박지화(朴枝華)의 문인(門人)이었다는 점, 또한 노자가 허목이 존경한 김시습(金時習) 및 자신의 은거(隱居) 지향의 먼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허목이 평소 노자 및 도가(道家)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담열전」에 따르면 공자가 노자를 방문하기도 했으므로, 노자는 제자백가 중에서도 시대적으로 앞선 인물이 된다. 따라서 글씨의 역사의 측면에서도 진(秦) 소전(小篆) 이전 제자백가의 춘추전국시대 중에서도, 상고 성인의 '고문' 및 서주(西周) 주문(籒文)의 시대에 그나마 가까운 시기가 된다. 물론 명(明) 『금석운부』 등 전초(傳抄) 고문자 집자(集字) 자전 수록 자형들이 출전으로 삼은 제자서(諸子書) 중 노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허목의 노자 채택의 직접적 원인이겠으나,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그가 노자 자형의 채택에 그다지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소전(小篆)의 채택률이 매우 높다.

후한(後漢) 대에 편찬된 『설문해자』의 대표자 서체인 '소전'은 진(秦)의 이사(李斯)에 의해 정리된 글씨체이다.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로부터 시간적으로 상당히 하강한 시기이며, 포악한 왕조에서 재상 지위를 지내며 분서(焚書)의 만행을 저지른 인물이 관여한 서체이므로 성인의 도(道)를 담지한 '고문'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자형 측면에서 보아도 여러 고문자 서체 중 소전체는 현행 기준 서체인 해서(楷書)와 가장 가깝고, 또한 상고(上古) 고문과 달리 현재에도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다. 여러 모로 소전체는 '고문'의 범주에 들기는 어려워 보이며, 실제로 허목의 고문자 자전에서도 진지한 탐구의 대상이 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척주동해비>에서는 상당히 많은 '소전' 자형이 쓰이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상고 고문이 현재 쓰이는 모든 한자를 갖출 정도로 복원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潘' 등의 벽자(僻字)에서 특히 소전체가 자주 쓰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허목의 『기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소전의 가치를 미약하게나마 인정한 대목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즉 그는 『기언』 「고문」과 「고문운율서」에서, 소전과 예서(隸書)가 모두 상고 고문이 무너진 진대(秦代)에 탄생한 서체라고 했지만, 예서에 대해서는 "예서가 생겨나자 고문이 사용되

지 않게 되었다[隸書作而古文廢]"(『기언』「古文」), "진(秦)이 고문을 없앴고 정막이 예서를 만들었다[秦壞古文 程邈作隸書]"(「古文韻律序」)라고 하여 그 가치를 완전히 부정했지만, 소전에 대해서는 예서 정도의 확실한 부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굳이 분류하자면 소전은 '예서(隸書)'처럼 상고 고문의 가치가 전무(全無)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전은 상고 고문보다는 훨씬, 사주 주문보다는 약간, 전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전거로서 사용할 수는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척주동해비>에서 소전체가 자주 쓰인 동인으로는, 고문 자형의 불비(不備)라는 현실적 이유 이외로도, 가장 가치가 떨어지나마 '전서(篆書)'로서 '고문'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소전 자체의 위상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높은 자형 채택률을 통해 종정문(鐘鼎文)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춘추좌전(春秋左傳)』의 '문정(問鼎)' 고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제왕이 소유한 청동 기물(器物)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옛 성왕(聖王)의 가치를 계승한 특별한 의장(儀仗)이었으며, 그것에 새겨진 명문(銘文) 또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종정이기(鐘鼎彝器)와 명문의 수집 및 감상은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다. 금석문 자료의 집대성이 발달한 북송(北宋) 대에도 청동기 및 명문은 더욱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역대종정이기관지(歷代鐘鼎彝器款識)』나 『선화박고도(宣和博古圖)』 등의 서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척주동해비>에서는 『역대종정이기관지』 '상종(商鐘)'의 '일월(日月)' 자형을 비롯, 박(鎛)·대(敦)·보궤(簠簋)·역(鬲) 등 다종다양한 종정문 자형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척주동해비> 이외 허목의 다른 작품 중 <고매누자대년설(古梅樓子大年說)>이나 <불여묵전사노인십팔계(不如嘿田社老人十八戒)>의 '不' 자형(부록 2. '<척주동해비> 자형 비교표' '眉東-161 不' 참조)에서 '하구대(夏鉤帶)'의 자형이 쓰인 예도 찾아볼 수 있다. 『금석운부』나 『고문운율』 등 허목의 고문자 자전을 통해서는 허목이 종정문을 어느 정도 중시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제 서예 작품에서는 허목이 종정문을 상당히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허목은『기언』「고문」에서 '종정문'을 주대(周代) 이전부터 존재한 진정한 옛 성인(聖人)의 서체의 하나로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서예 작품에서 이렇게 종정문 자형을 중시한 까닭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허목의 '종정문' 중시는 멀게는 고기물(古器物) 및 명문(銘文)의 완상이라는 동양 미학의 전통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기언』「고문」을 통한 역사적 조망과 <척주동해비>를 비롯한 실제 서예 작품의 사례 양면을 통해, 그가 이론·실천적으로 종정문의 가치를 선양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척주동해비> 자형 결구의 분석을 통해 각 자형의 출전을 밝힌 후 <동해비> 자형 전체의 연원을 분류하여, 허목 서예의 상고(尙古)의 성격을 밝혔다. 아래에서는 <동해비>의 필획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아 그 개성적 면모의 성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3. <척주동해비>의 필획

한자는 형음의(形音義)로 구성되며, 한자 한 글자의 형(形)의 최소 구성요소는 점획(點畫)[347]이다. 획이 모여 부건(部件)을 구성하며, 부건들의 총합이 한 글자의 전체 결구(結構)를 이룬다. 부건과 결구의 분석을 통해 자형의 연원을 특정한 위의 작업은,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허목의 글씨가 전통적 분류에 따르면 전서(篆書)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서(隸書) 혹은 해행초(楷行草)는 일부 이형자(異形字)[348]를 제외하면, 통

347) 점(點)을 극단적으로 짧은 획(畫)으로 본다면, 이 둘을 필획(筆畫)이라는 하나의 요소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획' 이상으로 한정하겠다.

348) 어원(語源)을 잘 계승하고 있으며 통상『강희자전(康熙字典)』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 '대표자'에 대하여, 대표자와 다른 부건 간의 결합으로 구성된 글자를 '이형자'라 하고, 대표자와 부건은 같으나 한 부건 안의 필획 결합이나 필획의 서사 방식이 다른 글자를 '이체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대표자 體에 대하여 体 혹은 骿는 이형자가 된다. 그리고 대표자 靑에 대하여 青은 이체자이다.) 그러나 이형자와 이체자, 속자(俗字), 와자(訛字) 등을 통틀어 '이체자'라고도 한다.

상 한 글자의 부간 간 결합이 강고하다. 허목의 경우 부건 선택에서도 자신만의 변용을 발휘한 예가 꽤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행초와 마찬가지로 전서의 경우에도 부건과 결구를 통해 서자(書者)의 개성을 발견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작가로서 서예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서예의 요소로는 장법(章法)과 필획을 들 수 있다. 글자와 여백의 배치[349]를 구사하는 장법은 작품 전체의 인상에 큰 영향을 준다. 필획은 작가의 운필(運筆) 혹은 용필(用筆) 역량을 단번에 드러내는, 작품의 미적 특질 및 작가의 개성을 알아볼 수 있는 서예의 핵심 요소이다. 그런데 전서의 경우 이 둘을 통해 작가의 개성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전서와 해서는 모든 글자의 크기가 일정한 범위 내에 수렴하는 경향이 강하고 글자 사이의 연면(連綿)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글자와 글자・구(句)와 구・행(行)과 행 사이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전서는 획의 비수(肥瘦)가 적고, 필획의 방향에 따른 용필의 구분도 별로 없어서, 획이 변화가 적고 단조로운 편이다. 따라서 획이 변화무쌍하고 포치장법(布置章法)도 자유로워 표정이 풍부한 행초(行草)에 비해, 대부분의 전서 작품은 근엄(謹嚴) 장중(莊重) 위주의 풍격(風格)만을 갖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허목의 글씨는 매우 이례적이다. 공간 배치는 다른 전서 계열 글씨와 같이 별 특징이 없지만, 필획만큼은 첫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기 때문이다. 필획의 미적 특질은 해당 작가의 서예 세계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기에 중대한 의의를 갖기도 하지만, 그 실제를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그것을 분석하거나 적절히 표현하기도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위의 결구 분석 및 연원 특정정도의 판명함은 갖추기 힘들겠지만, 그것이 허목 서예의 중대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만큼, 그 한계에 대한 인정 하에 아래에서는 그것의 성격의 분석에 대한 대략적 시론을 시도하려 한다.

<척주동해비> 서사(書寫)에서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자획화(字畫化)'이

349) 넓게 보아 인장(印章)도 포함할 수 있다.

다. 이는 허목 고문 서예의 출전이 된 자형들이 가지고 있던, 획이 미분화(未分化)된 상태의 강한 상형성을 탈피하여, 필획의 독립을 통한 생동감과 개성의 획득으로 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절차이다.

<척주동해비> '爲'(眉東-38)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명(明) 『금석운부』의 '진강정(晉姜鼎)' 자형을 출전으로 하고 있는 이 '爲'는 코끼리를 부려 일을 시킨다는 어원에 충실하게 '爪'와 '象' 두 부건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爲'는 부건의 조합에서는 晉姜鼎과 일치하지만, 각 부건, 특히 '象' 부건의 서사(書寫)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晉姜鼎의 象 부건은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각 선(線)이 독립성이 없이 전체의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데 반해, <척주동해비>의 그것은 각 획의 분절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그림'이자 '상형'인 코끼리가 아니라 획들의 집합인 글자로서의 '象'이 되었다. 이런 점은 晉姜鼎에서 가운데를 세로로 관통하고 있는 선이 <척주동해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척주동해비> 象 부건의 豕 부분이 여러 개의 획으로 나뉘어 쓰여서 아래가 '巾'과 같은 모양으로 독립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자획화'는 <척주동해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蠔'(眉東-140)의 豕 부건에서는 '爲'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聖'(眉東-157)의 아랫부분도 '巾' 모양으로 독립되어 있다. '重'(眉東-159)은 명 『금석운부』 '한간(汗簡)' 혹은 "고문(古文)" 계열 자형인데, 『집전고문운해(集篆古文韻海)』 수록 자형과 거의 비슷하지만 필획의 분리가 더욱 뚜렷하다. 부건 결구는 같지만 필획의 간가(間架)가 더 느슨해져 자획화가 더 진행된 것은 '廣'(眉東-166)도 마찬가지다.

다시 '爲'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고문자 자료의 초사(抄寫) 과정에서는 자획화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허목의 『금석운부』·『고문운율』 등의 수필(手筆) 자전에서는 원자료의 개변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 그런데 작품의 서사(書寫) 단계에 들어와 자획화에 따른 변형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형태의 변형 중 눈에 띄는 점은 최종획이 길게 늘어져 강조되는 것, 그리고 세로획의 수직화에 따라 글

자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워져 아래위로 길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四勿箴> '爲' 제3자형, <古梅樓子大年說> '爲')

이렇게 서사(書寫) 과정에서 필획의 역할이 증대되고 자획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로획은 수직에 가깝게 서고, 가로획은 수평에 가깝게 눕는 현상이 발생했다. <척주동해비>에서 이런 현상은 무척 많이 발생한다. 수직화의 예는 '**動**'(眉東-48), '**谷**'(眉東-53), '**賓**'(眉東-60), '**宮**'(眉東-66), '**珍**'(眉東-71), '**雨**'(眉東-107), '**同**'(眉東-153)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動'에서는 명『금석운부』"古文" 자형의 아래 '丌' 부건에서 2, 3획이 양옆으로 벌어져 있던 것이 <척주동해비>와 <사물잠(四勿箴)>에서는 두 획 모두 수직으로 섰으며, 수직화는 <척주동해비>에서 더욱 심하다. '宮' 등에서 위와 좌우의 '宀' 부건이 <척주동해비>에서는 좌우에서 극단적으로 수직화가 진행되었고, 이런 형태화는 여타 글자의 예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가로획 수평화의 예도 '**其**'(眉東-30) 등 많이 발견되며, '**而**'(眉東-84), '**出**'(眉東-108), '**紫**'(眉東-114), '**皇**'(眉東-163) 등에서는 수직화와 수평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자획화에 따른 수직화와 수평화는 그 자체로서 의미도 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에 따라 필획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원래 금석(金石) 혹은 판각(板刻) 자료였던 원자료를 허목이 서사(書寫)하면서 필획에 중점을 둔 결과, 자료 초사(抄寫)가 아닌 서예 작품에서는 필획의 '떨림' 내지 '연동(蠕動=蠢動, 꿈틀거림)'이 발생했다. 이는 자획화에 따른 필획의 독립에 따라 발생한 형태적 변화인데, 이런 필획은 허목 자신의 개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動', '其', '出' 등등 많은 수직 수평화 자형들의 필획에서 모두 예외 없이 필획의 심한 '꿈틀거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필획의 운동은 직획(直畫)의 연동(蠕動)에 그치지 않는다. '**海**'(眉東-4)의 좌측 '氵' 변은 출전인 명『금석운부』등의 '도덕경' 자형의 그것에 비해 훨씬 심한 획의 굴곡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古**'(眉東-6)의 우측 획, '**里**'(眉東-21)의 좌우 획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자

획화에 의해 상형적 선(線)들의 덩어리에서 떼어진 필획의 활력은 연동이라는 미세 운동으로부터 굴곡이라는 필획 자체의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어 허목 필획 서사(書寫)의 가장 특징적인 개성으로 발현된다.

그렇다면 연동 및 굴곡이라는 허목 필획의 개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김동건은 <척주동해비>의 전체적 분위기는 '조적서(鳥跡書)'와 비슷하고, '海'(眉東-4의 <척주동해비> 제4 자형) 등의 수필(收筆)에서 보이는 갈구리[趯] 현상을 전도전(剪刀篆)의 영향일 수도 있으며, 굴곡적 곡선의 획은 '조충서(鳥蟲書)'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목의 글씨가 전체적으로 행초(行草)의 필의(筆意)를 지니는데, 이러한 '초전(草篆)'은 명(明) 조환광(趙宧光, 1559~1629)이 창시자로서 허목의 글씨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했다.[350]

수필의 '적(趯)'이 '전도전'을 연상시키는 것은 형태상의 유사성만 보면 그럴 듯하나, 허목이 『기언』 권6 「고문」에서 전도전을 한대(漢代)에 만들어져 "고문(古文)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영향이 있다 해도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충서'는 전국(戰國) 육국(六國) 명문(銘文)자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서체인데, 허목의 실제 참조 여부는 확증할 수 없다. 이는 세로로 길고 종획이 아래로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 허목의 글씨와 비슷한 점이 있는 '현침전(懸針篆)'도 마찬가지이다. 현침전이나 전도전 등 소위 여러 '잡체전(雜體篆)'들은 허목 서예와 일부 유사성을 찾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역시 결정적인 것이라 보기 힘들다. 다만 '조적서(鳥跡書)'의 경우는 조금 특수하다. 『기언』 「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조적서는 황제(黃帝)의 사관(史官) 창힐이 창제한, 가장 유래가 오래 된 '고문(古文)'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대(當代)까지 전해진 대개의 '조적서'가 여러 잡체전 중 하나로 취급된 점에서, 허목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을지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

350) 김동건, 「眉叟許穆의 書藝硏究」(홍익대 석사논문), pp.72~75. 김동건은 초전의 대표자로서 조환광을 주목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허목이 조환광 글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다.

허목과 조환광은 수필(收筆)의 회봉(回鋒) 처리에 일부 유사성을 보일 뿐 필선의 질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거의 동시대의 인물로서 영향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허목이 그의 글씨를 보았다는 증거도 없다. 비슷한 시기 개성적 전서(篆書)를 구사한 예로는 조환광 이외로도 부산(傅山, 1606~1684)의 예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시대 중국 서예 작가들의 전서 구사는『금석운부』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명말 청초 출판문화의 융성에 따른 고문자 연구의 유행 등 시대적 풍조를 공유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그들의 서예가 허목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필획의 연동이라는 형태상의 유사성을 굳이 찾자면 전대(前代)인 송(宋)의 황정견(黃庭堅)의 예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황정견의 필획 또한 허목과는 상당히 다르다. 허목의 필획은 개성이 상당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선대(先代) 혹은 동시대의 영향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허목 자신의 내적 동인을 고찰하는 것이 오히려 유효한 연구 방법일 것이다.

각종 잡체전 결구 및 필획 특성의 채택 및 당대(當代) 중국에 실재했던 '초전(草篆)'의 영향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고증은 차치하더라도, 허목의 필획에 연동 및 굴곡이 실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런 필의(筆意)로 인해 허목의 전서가 초서와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 허목이 초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는 대목은『기언』곳곳에서 발견된다.

> 황기로(黃耆老)의 초서(草書) 대자(大字)는 귀신이 피하여 달아나게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양사언(楊士彦)의 백운계(白雲溪)과 풍악동(楓岳洞) 석각(石刻) 글씨는 매우 기이한데, "산속에 들어가 등나무와 칡을 보고 필력을 얻어 신묘함에 통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351]

351)『記言』別集 권10, '跋',「朗善君書帖跋」, "至今如黃耆老草書大字, 能令鬼神辟易. 楊蓬萊 白雲溪、楓岳洞石刻書尤奇, 嘗自言'入山中, 見藤葛, 得筆力通神'云. "

> 진(秦)이 일어나자 고문(古文)이 쓰이지 않게 되고 예서(隸書)가 생겨났다. 예서란 것은 죄수나 노예를 위한 글씨이다. 또한 예서가 변하여 초서(草書)가 크게 유행했다. 해서(楷書)와 초서는 모두 성인(聖人)께서 만든 것이 아니며, 초서는 제왕의 문자 통일에도 포함되지 않아 옛 전적에서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석문(石文)을 보고 나서야, 초서와 예서도 천지(天地)의 문(文)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석문으로 드러났음을 알게 되었다.[352]

황기로(1521~?)[353]와 양사언(1517~1584)은 모두 조선 중기에 활동한 초서의 대가들이다. 위 인용문에서 허목은 황기로에 대해서는 글씨의 신묘함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나, 양사언에 대해선 그 필력의 원천이 "등갈(藤葛)"임을, 그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해 지적하였다. 등나무와 칡은 휘감아 올라가는 덩굴 식물로서, 그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강한 생명력이 구불거리는 선(線)의 형태로 현현된다. 허목은 양사언 초서 필획의 구불구불한[延蔓屈伸] 생동감의 근원을 덩굴줄기[蔓莖]라는 자연물에서 찾았다. 칡넝쿨은 필획(筆畫)의 원(原) 이미지로 작용함을 넘어, 종종 붓[筆]의 소재로도 쓰였다. 허목은 삼척 응벽헌(凝碧軒)의 제액(題額)을 칡붓[墨葛][354]으로 썼을 뿐 아니라[355], 종종 칡붓으로 고문(古文)을 쓰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356]

필력의 변화무쌍함을 자연물에 비기는 것은 고래로 서론(書論)의 전통이며, 허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허목은 글씨 형상의 원형인 자연물로 "등갈"이란 "초목(草木)" 뿐 아니라 "용"이나 "뱀"과 같은 "조수(鳥

352) 『記言』 別集 권10, '跋', 「題熊淵石文後」, "秦興, 古文廢而隸書作, 隸書者, 徒隸之書. 又隸書變而草書大傳, 楷、草皆非聖人作之, 草書又不列於王者同文, 古書載籍不言, 然吾乃今得此, 然後知草、隸亦出於天地之文, 而其見於石文如此云."

353) 황기로의 몰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대체로 1575~1579년으로 추정된다.

354) '墨葛'은 정확하게는 '먹을 묻힌 칡'이다. 허목이 간단히 칡 줄기 끝을 짓이겨 붓삼아 글씨를 썼는지, 혹은 칡붓을 만들어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칡붓[葛筆]은 칡 줄기를 쳐서 연하게 만든 섬유질을 붓털로 삼아 만든 붓이다. 칡붓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진명, 『한국의 붓 : 붓장 유필무에게서 듣는 우리 붓 이야기』, 학민사, 2017.

355) 『記言』 권13 '中篇', '棟宇', 「凝碧軒題額記」, "余用墨葛, 作軒名三大字, 掛之壁上, 字三板, 畫如藤葛." 허목이 쓴 응벽헌 현판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356) 앞서 제3장에서도 인용한 『記言』 권57의 <不知山外事> 詩 末句에서 "墨葛寫蝌蚪"라고 했다.

獸)"가 동원되기도 했다. 낭선군(朗善君) 이우(李俁)가 중국 사행(使行)에서 구해 온 <형산신우비(衡山神禹碑)> 탁본첩의 글씨는 옛 성왕(聖王) 우(禹)의 글씨[357]로서 허목에 의해 진중(珍重)되었는데, 그는 이 비의 글씨를 조수(鳥獸)·초목·용사(龍蛇) 등에 비기고 있다.[358]

허목에게 글씨는 곧 천지(天地)의 문(文)이었으므로, 천지 자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초목과 조수는 글씨의 원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 초목과 조수 중에서도 넝쿨과 "용사"는 신비한 생명력이라는 속성과 구불구불함이라는 외양 때문에 글씨가 원천으로 삼을 자연물의 대표자가 될 만한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천지의 문 그 자체였던 상고(上古) 삼대(三代) 성인들의 고문(古文)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후대의 문(文)도 전거로 삼을 만한 일면의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천지 자연은 원칙적으로는 삼대의 상고나 후대인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대상이다. 따라서 결구 상으로는 후대의 문을 한 자료로 삼아 삼대 고문의 이상적 형태에 가까이 가면서, 현재 자신의 주변에도 위치한 자연물 중 일부의 형태를 취해 필획의 이상을 실현하려 노력할 수 있게 된다. 허목이 자신의 거처 근처에 위치한 임진강변 석문(石文)이라는 "괴괴기기(怪怪奇奇)"한 경물(景物)을 그토록 자주 찾아, 그곳에서 예서나 초서의 이상적 원형의 현현을 목격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서 등 후대의 글씨의 긍정적 가치를 발견한 일련의 행위는, 위와 같은 그의 서예에 대한 생각 및 서예 실천을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의 글씨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다음 구절에서 가장 정리된 형태로 만날 수 있다.

---

357) 이 비는 형산 구루봉(岣嶁峰)에 위치한다고 하여 <구루비>로도 불린다. 구루비는 당대(唐代)부터 존재가 알려져 송대의 탁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전해지는 것은 명대(明代) 가정(嘉靖) 연간의 것이다. <구루비>는 전통적으로 우(禹)의 치수(治水) 사적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졌지만, 현재는 후대의 위작(僞作)으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다.

358) 『記言』 권29 '下篇', '書畫', 「王孫朗善君金石貼序」, "得衡山《神禹碑》七十七文, 觀龍蛇怪神狀." ; 『記言』 別集 권9, '記', 「衡山碑記」, "得衡山《神禹碑》七十七文, 其文類龍蛇鳥獸草木形, 炳耀神怪, 不可名狀." ; 別集 권10, '跋', 「朗善君書帖跋」, "頃年奉使如燕京, 得衡山《神禹碑》, 觀龍蛇草木形." ; 別集 권10, '跋', 「三代古文跋」, "王孫朗善君亂後觀於故國, 得夏后氏《南嶽治水碑》七十七文, 當時象物制書, 字體類龍蛇草木形, 千古異跡, 信三代之物也."

글씨는 천지(天地)의 문(文)이므로, 시대가 내려오면 글씨도 변한다. 옛날 태호씨(太昊氏)가 처음 서계(書契)를 만들었고, 삼대(三代)에는 각기 글씨를 달리했다. 예서(隸書)는 뒤의 진(秦)에서 시작되었고, 위진(魏晉) 이후로 다시 변하여 해서(楷書)와 초서(草書)가 되었으니, 서체가 비록 창힐(倉頡)과 사주(史籒)의 글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이치는 같다. 그러므로 엄정하고 정중하여 옛 글씨의 유풍을 지니고 있는 것도 있고, 자유분방하여 베껴 형상화할 수 없는 것도 있으며, 괴괴기기하여 조화의 오묘함의 극치를 표현한 것이 거의 귀신의 경지와 같은 것도 있다. 크게는 해와 달과 별의 찬란함과 같고, 넓게는 조수(鳥獸)·충어(蟲魚)·초목(草木)의 기이함과 구슬[珠璣]·꽃과 열매의 아름다움을 여기[글씨]에서 남김없이 볼 수 있다.359)

위와 같이 <척주동해비> 등 허목 서예 작품의 필획에서 보이는 꿈틀거리고 구불거리는 운동감은, 전도전(剪刀篆)·현침전(懸針篆) 등 전래(傳來) 잡체전(雜體篆), 혹은 황정견(黃庭堅)이나 조환광(趙宧光) 등 선대(先代) 혹은 당대(當代) 서예가 등 외부의 전거에서 그 원형을 찾기보다, 허목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일상 속에서 주목한 변화무쌍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기기괴괴(奇奇怪怪)한 천지의 기(氣)를 잘 구현하고 있는 등나무·칡넝쿨·용과 뱀 등 조수초목에서 그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이다. 허목 서예는, 종래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행초서(行草書)의 필의(筆意)로 쓰인 전서(篆書)'라는 모순적 형용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삼대(三代) 고문(古文)이라는 글씨의 이상을 추구한 허목에게, 후대에 발생한 해행초, 예서, 전서라는 서체 분류는 이차적인 것이어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서예에 적절히 적용해도 무방한 것이었다. 글자 결구에 있어 고경(古經)·제자서(諸子書)·소전(小篆) 등을 적절히 활용했듯이, 필획에는 자연의 가치를 내포한 초서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허목 자신의 내적 동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허목의 글씨는 자연의 형상을 꿈틀거리는 필획으로 체현한 고문(古文) 서예로 정의할 수 있다.

---

359) 『記言』 권29, 「王孫朗善君金石貼序」, "書爲天地之文, 世降文亦降. 古者太昊氏始作書契, 三代各異書. 隸書始於後秦, 魏、晉氏來, 又變而爲楷、草書, 書體縱不及倉、籒書, 然其理則一也. 故嚴正祇肅, 有古書之遺者; 或有縱蕩自恣, 不可模狀者; 亦有怪怪奇奇, 極造化之妙者, 殆如鬼神焉. 大則日月星辰之炳耀, 散則如鳥獸蟲魚草木之奇、珠璣花實之美麗, 觀於此盡矣."

4. <척주동해비>를 통해 본 허목 고문(古文) 서예의 특징

<척주동해비>는 세간에 널리 알려진 허목의 대표작이며, 내용상으로나 글씨로나 독특함을 과시하는 작품이다. 그 내용은 바다의 광대함과 바다에 있는 괴물 및 이민족에 대한 서술을 통해 옛 성인의 유풍(遺風)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허목 문학 중에서도 '기(奇)' 서술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그런데 괴물이나 만이(蠻夷)가 다수 등장하는 등 내용상의 '괴이함' 때문에, 그 글씨도 그저 '기괴한' 것으로 치부되어 그동안 그 정확한 연원의 특정 없이, '퇴조비(退潮碑)'라고 불리며 마치 재앙을 물리치는 부적처럼 취급되는 등 그저 세속적 숭배의 대상이나 기이한 완상물로 간주되어 왔을 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척주동해비> 자형 결구의 분석을 통해 그 연원을 찾아내어 <동해비>를 학문적 분석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 서예의 미학적 연구를 위한 초석을 놓고자 했다.

앞 장에서 허목이 손수 써서 정리한 고문자 자전인 『금석운부』, 『고문운율』, 『고문운부』 수록 자형 및 부기(附記)의 분석을 통해, 허목이 평소 연구해왔던 '고문(古文)'의 연원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였고, 이는 <척주동해비> 등 실제 서예 작품에 나타는 자형 분석의 밑거름이 되었다. 고문자 자전 분석을 통해서는, 허목이 주대(周代) 사관(史官)이었던 사주(史籒)의 '주문(籒文)'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아울러 『설문해자(說文解字)』의 중문(重文) 중 하나인 '설문고문(說文古文)'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문(古文) 상서(尙書) 등 고문 경전의 전초(傳抄) 자형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척주동해비>의 자형 결구 분석을 통한 연원 분석의 결과와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즉 '고상서(古尙書)' 등 전초 고경(古經)과 '설문고문(說文古文)' 자형을 상당 부분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면 고문자 자전 분석과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었다. 즉 고문자 자전의 부기(附記)를 통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설문주문(說文籒

文)' 자형은, <척주동해비>에서는 전혀 채택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척주동해비> 자형 연원 분석을 통해 새롭게 파악하게 된 사실은, 전초 제자서(諸子書)인 '고노자(古老子)' 즉 고문『도덕경』자형을 상당 부분 채택했다는 점, 또한 고기명(古器皿)의 명문(銘文)의 전초(傳抄) 자료인 '종정문(鐘鼎文)'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주문(籒文)'의 불채택과 '종정문'에 대한 깊은 관심은 허목 고문론의 기본 텍스트인『기언』권6「고문」의 언급과도 일치되어 매우 의미심장하다. 즉 사주(史籒)의 주문은 옛 성인의 고문을 한 차례 변형한 것이어서 전범적 가치가 한 단계 하락한 것이며, '종정문'은 옛 성인 당시의 여러 서체 중 하나로서「고문」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범적 가치가 최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척주동해비> 자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허목이『기언』「고문」이나 고문자 자전 등을 통해 '고문' 연원 연구에 상당한 정도의 천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사한 '고문'의 실제에서는 '고문'의 연원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즉 제한적 경우이긴 하지만 전범적 가치가 최하인 '설문소전' 자형도 채택하고 있으며, 전초 유교 경전 자형 즉 옛 성인의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형도 생각보다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들이 어디까지나 '전초(傳抄)' 자형이기 때문에 수록 전적(典籍)의 신뢰성에 대해 허목이 의문을 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허목 글쓰기 양식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허목 예술 실천의 전반적 성향과 연관된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허목은 원칙적으로 '상고(尙古)' 주의자였고 '고(古)'의 추구에 누구보다 열심이어서 조선 후기 남인 문예의 상고 경향의 선구에 선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복고(復古)를 통해 '고(古)'를 '고(故)'로 차용 혹은 전유(專有)하고자 했던 동양적 문예 전통의 연장선상에서,『기언』의 글쓰기와 서예 작품의 글씨 쓰기 예술 실천에서 언제나, 고증과 박학의 사실 서술과 사실과 자신이 연결되는 연고(緣故)를 삽입하여 서술하는 자기 서술을 연결 짓기를 추구했다. 허목의 이러한 면모는 <척주동해비>라는 서예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옛 글씨 연고의 자형 채택을 통한 '고문' 복원의 방향성과, 전범적 가치가 약간 떨어지는 자형을 채택하거나 옛 자형의 기본 결구는 채택하되 자신만의 변형을 약간 가하는 방식을 통한 독자성 구현의 방향성이, 하나의 서예 작품 내에서 동시에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허목 문예·미학의 전반적 경향과 서예 실천이라는 미시적 양태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공통성이 있고,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한 쪽도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미학·문예사적 상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한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서예라는 문화 현상은, 그 고졸미(古拙美) 넘치는 심오함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독특함에 대한 폭넓은 인정에도 불구하고, 당대(當代)에도 후대(後代)에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 적대 당파인 서인(西人)에 속했던 이정영(李正英)이나 김만기(金萬基) 등은 허목의 글씨를 지목하여 “기이함만 좇는다”거나 “근거가 없어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비난하였으며, 심지어는 “흉악”하다는 극언으로 닦아세우기까지 했다. 한편 남인(南人)들에겐, 한때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당내 대립을 일삼았던 청남(淸南)이건 탁남(濁南)이건, 또한 허목의 근거지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부인 근기(近畿)와 지리적으론 주변부이지만 남인의 사상적 근거지였던 영남(嶺南)을 막론하고, 허목은 정치 지도자이자 예학(禮學)의 종장(宗匠)이자 상고(尙古)・박학(博學)적 학문의 거목으로서 누구 못지않은 선진(先進)이었고, 그의 글씨는 남인 문예의 기념비적 상징물로서 존숭 받았다. 허목의 글씨는, 흠모와 타기의 양극단 사이에서 학문적 연찬이나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 되어 마땅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진지한 고찰 저 너머에 소외되어 있었다.

이런 사정은 허목 서예의 대표작인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이하 <동해비>)로 인해 더욱 고조되었다. <동해비>는 바다의 덕을 기리는 <동해송(東海頌)>이라는 시를 쓴 비명(碑銘)인데,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천문(天文) 및 기상 현상, 그곳에서 산출되는 기이한 산물, 전설 속의 신기한 바다 괴물, 그리고 멀고 먼 해외(海外)에서 살아가는 이민족들을 『시경(詩經)』을 연상시키는 사언(四言) 시로 묘사하고 있다. 기괴한 소재와 고졸한 형식의 이 동해 찬양가는, 허목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쓰여 그 이채로움을 더한다. 이 비는 바닷가의 수재(水災)를 입은 삼척(三陟) 지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나운 바다를 위무(慰撫)하는 차원에서 1661년 당시 도호부사(都護府使)였던 허목이 손수 글을 짓고 써서 세운 비이다. 옛 전장(典章)과 예제(禮制)에 해박한

유학자였던 허목이 부임한 이래 힘쓴 사업은 향약(鄕約)의 제정, 향교(鄕校) 제기(祭器)의 개수(改修), 왕실의 선조인 목조(穆祖) 묘소의 고증 등이며, 나아가 그는 삼척의 지리·문물·제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지방지(地方志)로 남기기도 했다. 이와 같이 당대의 대학자이자 유교적 위민(爲民) 사상에 충실했던 행정가 허목이, 일견 기괴해 보이는 내용을 기괴해 보이는 글씨로 쓴 <동해비>를 제작한 것은, 단순한 엽기 추구나 벽사(辟邪)적 행위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며, 한유(韓愈)의 「악어문(鰐魚文)」의 전통을 이은 변방 목민관의 위정(爲政) 행위이자 유가적 태도를 견지한 상기(尙奇)적 문예 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동해비>를 자세히 독해해 보면, 바다의 기상 이변·괴물·만이(蠻夷) 등 기괴한 소재들은 결국 상고(上古) 성인(聖人)의 유덕(遺德)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시적 장치에 해당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보기 드물게 과거를 거치지 않고 정승의 반열에 오른 허목의 비범한 인물상 및 그에 따른 수많은 허목 관련 민간전승과 맞물려, <동해비>는 민간에서 흔히 조수(潮水)의 재해를 물리친 '퇴조비(退潮碑)'라 불리며 또 하나의 전설의 대상으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특히 남인 전통이 강한 영남 지방에서 재액을 물리칠 목적으로 집안에 <동해비> 탁본을 소장하는 일이 잦아 그 기묘한 문화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동해비>의 지위는 조선 후기 문예사에서 허목 서예 전반이 위치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반(一斑)이 된다. 67세에 쓰인 <동해비>는 명실상부 허목 서예의 대표작이다. 삼척부사를 마지막으로 벼슬길을 떠나 10여 년의 긴 은거 생활에 들어간 그는, 이 기간 동안 문체가 아닌 주제 별로 글을 모아 유례없이 독특한 체제를 지닌 문집인 『기언(記言)』 원집(原集)을 완성한다. 이렇게 글과 글씨 양면에서 문명(文名)을 높인 학자이자 독서가이자 문장가이자 서예가로서 종신(終身)할 듯했던 허목의 생애는 숙종 즉위와 함께 일변(一變), 재변(再變)하게 된다. 남인이 집권하며 80세의 나이로 우의정(右議政)까지 오르면서 단번에 중앙 조정의 중심에 서며 화려하게 비상한 후, 은퇴 생활을 누리던 1680

년(86세) 경신대출척으로 서인이 재집권하며 모든 영예를 빼앗긴 채 88살로 삶을 마치게 된 것이다. 마지막 2년간의 고난이 있긴 했지만, 여든 너머 맞이한 영광은 눈부신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성공에 따라 그의 글씨의 성가도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약간의 부침이 있긴 했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서인과 그를 계승한 노론(老論)이 조선의 주류를 형성했으며, 남인은 줄곧 침체를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남인 문예의 대표였던 허목의 글씨도 짧았던 영화를 뒤로 한 채 기이한 특수(特殊)로서 주변부로 밀려났다.

허목의 글씨는 전례 없이 평지돌출한 개성을 발휘했고 남인 일부 인사를 제외한 계승자도 별로 없을 정도로 특이하여 유사 사례가 별로 없기에 그저 '미전(眉篆)'이라 불리곤 했다. 전서(篆書)는 진(秦) 이사(李斯)가 정리한 소전(小篆)과 그 이전의 주문(籒文)·석고문(石鼓文) 등을 통칭한 대전(大篆)으로 나뉘는데, 허목의 글씨는 상고(上古) 삼대(三代)의 글씨를 이상으로 삼았으므로 종래의 분류에 따르면 '대전'에 속할 것이나, 사실 이것도 편의적 분류에 지나지 않고 그저 '고전(古篆)'을 추구했다고 하기도 한다.

허목은 자신의 글씨를 주로 '고문(古文)'이라 칭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고문'을 읽고 '고문'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상고(尙古)주의자로서 허목은 삼대(三代) 성인(聖人)이 지은 육경(六經)을 모든 제도와 학술과 문(文)의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상적이었던 삼대 육경의 문장은 후대로 내려오며 줄곧 가치가 낮아지며 현재에 이르렀으므로, 문학(文學)의 역사란 곧 '하강(下降)의 역사'가 된다. '문(文)'은 문장인 동시에 글씨이기 때문에 '옛 글씨' 곧 '고문(古文)'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문장은 대체로 한대(漢代)를 전후로, 글씨는 약간 앞서 소전(小篆)과 예서(隸書)를 전후로, 성인의 옛 자취가 영영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허목은 이런 생각을 자신이 생전 편집했던『기언』원집(原集)의 권5「문학(文學)」과 권6「고문(古文)」편에 기술해 놓았으며, 이를 통해 그의 고문관의 요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편의 짧은 간사(簡史)는 세심하게 독해되어야 한다. '하강의 역사' 서술이 상고 원리주의나 근고(近古) 및 후대의 배척으로 그대로 치환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고 전적이 그다지 많이 전하지 않고 육경만으로 모든 사상(事象)을 표현할 수 없는 현실에서, 허목은 이 짧은 두 글 곳곳에 후대의 글 및 글씨에 대한 미약한 인정으로 그것들이 차상(次上)의 전범(典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기언』 전편에 넘치는 육경 이외 군서(群書)들에 대한 탐구는, 허목의 상고주의와 삼대 복원의 작업이 편협하며 일면적인 것이 아니라, 긴 세월에 걸친 조심스럽고도 집요한 탐색을 거친, 유가(儒家)와 육경(六經)이라는 강고한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도가(道家) 등 제자백가와 선가(仙家) 및 불가(佛家) 그리고 박물(博物)적 지식을 포괄하는 다성(多聲)적 측면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허목은 지리와 역사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 많은 글을 남겼다. 그의 박물 지향은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그의 평생에 걸친 지적 탐구의 일환이다. 박학(博學)은 고학(古學)과 더불어 허목의 학문을 움직이는 두 바퀴 중 하나였다. 그는 세계 곧 천지(天地)를 일기(一氣)로 파악했다. 일기의 변화(變化)야말로 사계절의 변환으로부터 동식물의 삶, 인간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만물(萬物) 만상(萬象)의 근원이 된다. 그런데 모든 변화가 아름답고 훌륭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정사에 참여하고 군왕에게 조언할 책무가 있는 사대부로서, 정치의 잘못에 따른 재이(災異)의 역사는 철저히 탐구되어야 할 주제였다. 변화를 괘상(卦象)으로 구현한 경전인 『주역(周易)』은 비상(非常)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기문(奇文)을 종종 포함하고 있다. 옛 전적에 가끔 나타나는 기괴(奇怪)한 괴물과 현상들 또한 일기 변화의 일면으로서 탐구의 대상이 된다.

여행 및 유람 또한 현재의 천지 변화의 유행(流行)을 궁구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된다. 김시습(金時習) 등 몇몇 전설적 선구자가 있긴 했지만, 허목은 조선 후기 사족(士族) 전반에 걸쳐 발달한 산수유람 풍조의 중요한 첫 주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평생에 걸친 전국 편력(遍歷)은

전란과 가난(家難)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측면이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기언』에 많은 유기(遊記)를 남겼을 뿐 아니라 곳곳의 지지(地誌)적 기록까지 생산함으로써, 조선 중기까지 일반적이었던 도학(道學)적 관점에 따른 자연 체험과는 결이 다른 박물 지향 유람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천지 변화의 체험을 위한 기경(奇景)의 추구 중 돋보이는 것이 경기도 연천(漣川) 임진강변 석문(石文)의 감상이다. 석문은 천지의 문(文)으로서 초서(草書) 등 후대의 서체를 긍정할 자연적 근거가 되고, 석문 유람은 이를 자신의 글씨의 속성으로 흡수하는 것을 가능케 한 원체험이 되었다. 허목의 기(奇) 추구는 현실 세계에만 그치지 않았다. 서해(西海)의 광막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각종 괴물 및 기상(奇象)의 묘사는 <백제서망해요(百濟西望海謠)>라는 작품으로 남았고, 이는 반대 방향 바다의 기물(奇物)을 좀 더 축약적으로 노래한 <동해송(東海頌)>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허목의 고문(古文) 서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고문 글쓰기의 양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의 글은 일견 건조한 고증 및 사실 나열에 그친 것으로 보이기 쉽다. 직접적 감상 토로 등의 서정(抒情)적 요소가 극히 드물고, 유려한 행문(行文)이나 자세한 설명을 통한 전개 등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언』 전편을 통해 관통하는 그의 글쓰기는, 여행을 통해 체험한 지역이나 자신의 은거지 등 공간 배경의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며 글의 배치나 소재의 선택 등을 통해 해당 공간과 자신이 갖는 연고(緣故)를 은연중에 돋보이게 한다던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물의 고사(故事) 서술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식의, 공간 서사나 인물 서사 등 사실 서사에 자기 서사를 녹여내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고(古)를 고(故)로 전용(專用)함으로써, 과거를 단순한 과거 시제로 머물게 두지 않고 특정 사상(事象) 및 자기 자신과 연관을 갖는 연고(緣故)로서의 과거로 편입하는 동양적 상고(尙古) 전통의 양상과 맥락을 함께 하는, 전통적인 동시에 개성적인 허목 글쓰기의 양식이다.

허목의 ‘고문’ 서예 또한 단순한 호고(好古)나 교주고슬(膠柱鼓瑟)적 과거 묵수가 아닌, 자신만의 관점에 따른 선택적 전범 흡수를 통해 상고 고문 복원을 추구한 양식을 취한 것이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고문자 수집 및 연구 활동의 실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연구는『기언』등 그의 글 자료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허목이 구사한 서예 작품의 자형(字形)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본 논문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허목 수고본(手稿本) 고문자 자전(字典)에 소재한 자형들을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수필(手筆) 자전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592-1호 『금석운부(金石韻府)』·『고문운율(古文韻律)』·『고문운부(古文韻部)』 3종으로서, 비록 초고(草稿) 상태라 허목 고문자 연구의 완정(完整)한 전모를 파악하기엔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완성된 서물(書物)이 현전하지 않는 상황에선 최선의 자료가 된다. 이 가운데『금석운부』는 명대(明代)에 목판으로 간행된 동명(同名)의 서적을 발췌 서사(書寫)한 것이어서, 허목의 독자적 저작은 아니다. 그러나 명(明)『금석운부』가『한간(汗簡)』등 송대(宋代) 이래 중국 고문자 연구 성과를 충실하게 흡수하여 정리하며 각 자형의 전거를 부기(附記)로 정확히 밝혀 놓았기 때문에, 허목의 초선(抄選) 양상을 연구하면 오히려 각 자형의 연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문운율』은 세 자전 중 유일하게 서문(序文)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책(成冊)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동해비>와 유사한 자형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고문운부』는 위 두 자전에 실려 있지 않은 다양한 자형들을 수록하고 있어 두 자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허목 수고본 고문자 자전 3종의 분석을 통해, 그가 고상서(古尙書) 등 전래 고문(古文) 경전을 중심으로 각종 고문자 자료에 수록된 자형을 적극적으로 수집했으며, 특히 설문주문(說文籀文)과 설문고문(說文古文)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허목 서예의 정화(精華)인 <척주동해비>는 본 논문의 핵심적 연구 대상

이다. 연구의 최우선 목표는 <동해비> 자형 전체의 분석을 통해 하나하나의 자형 연원을 모두 확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교감을 통해 제목・소서(小序)・본문・후지(後識)을 포괄한 전문(全文) 227자를 확정하고, 중복 출현한 글자를 제외한 178자 자형을, 허목의 다른 서예 작품・명(明)『금석운부』 등 중국 고문자 자료・허목의 고문자 자전 3종에 출현한 동일 글자의 자형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종합한 결과, 상고(上古) 성인(聖人)의 고문 복원이라는 이상과는 달리 <동해비>와 같은 서예 작품의 실제에서는 고상서(古尙書)나 고효경(古孝經) 같은 전초(傳抄) 고문 유교 경전보다는, 고문 노자(老子)와 같은 전초제자서(傳抄諸子書)・『설문해자(說文解字)』의 대표자인 진(秦)의 소전체(小篆體) 등 옛 성인의 고문보다는 가치가 저하된 차선(次善)의 전범들로부터 선택한 자형들이 의외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종정문(鐘鼎文)이라는 상고의 전범 또한 높은 비율로 채택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기언』권6 수록「고문(古文)」에서 정리된 각종 고문자 서체의 전범적 가치를 실제 작품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허목 고문 서예의 핵심 가치인 상고 전범의 추구가 자형의 선택 및 변용이라는 작가 자신의 개입을 통해 <동해비>와 같은 구체적 서사(書寫) 결과로 현현되었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선택과 변용은 한 글자의 자형의 전체 결구(結構)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허목 서예의 가장 개성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필획의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즉 전거가 되는 전초(傳抄) 고문자 자료들의 비교적 매끈한 필획이, 허목의 손글씨 쓰기를 통해 꿈틀꿈틀한 미세 연동(蠕動) 운동 및 필획 전체를 관통하는 구불구불한 굴곡 운동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동해송>이라는 기괴한 소재 가득한 내용이 독자(讀者)에게 주는 기(奇)의 인상이, 마치 자연의 기운을 체화한 듯한 꿈틀꿈틀하고 구불구불한 필획으로 쓰인 <동해비>의 글자를 통해 독자-관람자에게 극대화된다. 부건(部件) 결합 양태를 관찰하여 전체 자형 결구의 연원을 특정하는 것은 객관・정량적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필획의 분석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는 일단

시론(試論)적 시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허목의 고문 서예는 그 중차대한 문예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라기보다 신비의 영역에 더 가까이 있었다. 본 연구는 우선 허목 상고(尙古) 학예(學藝)의 구도 전반이 지니는 의의를 의식하며 그의 고문 글쓰기 양상의 특성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하여, 서예가 그의 학예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그려 보았다. 그리고 그의 서예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파악하기 위해 작품 자형을 결구와 필획으로 분리, 결구의 구체적 전거를 밝혀 그의 서예의 연원을 실증해냈다. 그러나 허목 서예의 가장 개성적 면모에 해당하는 필획의 측면은 아직도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이 더 많다. 앞으로 심화 연구가 진행되어 이에 대해서도 침묵이 길게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18세기 중반 등석여(鄧石如) 전서(篆書)의 출현 이후 발생한 동아시아 서예의 혁명적 전변(轉變)을, 독자적이면서도 기이한 방식으로 선취한 허목 서예의 세계가 한 발짝이나마 이해의 영역으로 가깝게 다가서게 되었다면 다행이겠다.

참고문헌

원전 및 자료

※ 허목 筆 서예 작품은 아래의 '부록 1' 참조.
※ 著名한 古書의 경우 서지 사항은 생략하였음.
※『論語』,『孟子』,『史記』 등 漢文 기본 古典은 생략하였음.

허목

『古文韻部』, 보물 592-1호 '許穆手稿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 신수 10612)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古文韻律』, 보물 592-1호 '許穆手稿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 신수 10612)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金石韻府』, 보물 592-1호 '許穆手稿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신수 10611)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국역 기언』 1~8, 한국고전번역원, 2006~2008.
『記言』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98・99, 민족문화추진회, 1992.
『眉相圖章帖』,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貴 736.3 ㅎ176ㅁ)
『陟州誌』 <『完譯 陟州集』,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삼척시 발행, 산책출판사, 1997.
『許穆 陟州東海碑』(한국서예명적 12), 예술의전당, 2018.

筆寫者 미상, 『古文韻律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청구기호: K3^0461, 마이크로필름 번호: MF35-449)

한국

문집류
金萬基,『瑞石集』
宋時烈,『宋子大全』
李恒福,『白沙集』
蔡濟恭,『樊巖集』
洪良浩,『耳溪集』

기타
金振興,『篆海心鏡』,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 한古朝82-34)
宋伯玉,『東文集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청구기호 : K4-85)
李瀷,『星湖僿說』

『受敎輯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조선시대 법령자료'
『承政院日記』
『銀臺條例』
『典錄通考』<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조선시대 법령자료'
『海南尹氏群書目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 古0267-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seoul.kr)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학전자도서관 사이트(http://lib.aks.ac.kr)

중국

郭忠恕,『汗簡』
杜從古,『集篆古文韻海』
段玉裁,『說文解字注』
薛尙功,『歷代鐘鼎彝器款識』
朱雲 編,『金石韻府』, 明崇禎十三年 漳溪 林樹聲刊 朱墨套印本.
夏竦,『古文四聲韻』
許愼,『說文解字』
皇甫湜,『皇甫持正集』

小學堂(http://xiaoxue.iis.sinica.edu.tw)

단행본

한국

강명관,『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양화소록』, 아카넷, 2012.
금장태,『退溪學派의 思想 I』, 집문당, 1996.
로타 본 팔켄하우젠 지음, 심재훈 옮김,『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 세창출판사, 2011.
박종한・양세욱・김석영,『중국어의 비밀』, 궁리, 2012.
볼프강 카이저 지음, 이지혜 옮김,『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아모르문디, 2011.

송혁기,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6.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윤사순 외 10인, 『許眉叟의 學·藝·思想 論攷』, 眉叟硏究會, 도서출판 참나무, 1998.
이내옥, 『공재 윤두서』, 시공사, 2003.
정민,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정진명, 『한국의 붓 : 붓장 유필무에게서 듣는 우리 붓 이야기』, 학민사, 2017.
趙東元 編著, 『韓國金石文大系』 권4 '慶尙南道, 濟州道 編', 圓光大學校出版局, 1985.
_____, 『韓國金石文大系』 권5 '京畿道 編', 圓光大學校出版局, 1988.
하영삼, 『한자의 세계』, 신아사, 2013.
_____,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5.
하영휘 외 편저, 『옛편지 낱말사전』, 돌베개, 2011.
허찬무, 『(청빈한 대쪽 선비) 미수 허목 – 멸사행공을 배우다』, 진한엠앤비, 2013.
홍길주, 『현수갑고 상·하』, 박무영·이은영 외 옮김, 태학사, 2006.

『(慶南大學校 博物館 寺內文庫 所藏) 東國諸賢遺墨 외 3帖』(汗馬古典叢書 17), 경남대학교 박물관, 2016.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 기탁으로 빛나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2018.
『(慶南大學校 博物館 寺內文庫 所藏) 朝鮮名士遺墨 I』(汗馬古典叢書 18), 경남대학교 박물관, 2017.
『韓國金石文大觀』 권1 '延安李氏篇', 高麗金石院 編, 高麗金石院, 2000.

중국

姜剑云, 『审美的游离-论唐代怪奇诗派』, 東方出版社, 2002.
季旭昇, 『說文新證』, 福建人民出版社, 2010.
黃錫全, 『汗簡注釋』, 武漢大學出版社, 1990.

일본

白川靜, 『字統』, 平凡社, 2004.
石塚正英·柴田隆行, 『哲学·思想翻訳語事典』, 論創社, 2003.
安居香山·中村璋八 輯, 『緯書集成』 上, 河北人民出版社, 1994.

논문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秦漢古文派의 성립」, 『한국한문학연구』 18, 한국한문학회, 1995.
_____, 「16세기 말 17세기 초 秦漢古文派의 산문비평론」,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姜周鎭, 「眉叟全集 解題」, 『眉叟全集』, 驪江出版社, 1986.
고영진, 「17세기 후반 근기남인학자의 사상 - 윤휴・허목・허적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곽신환, 「宋時烈과 許穆의 正義觀」, 『정신문화연구』, 제16권 제2호(통권 5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권진호, 「眉叟 許穆의 尙古精神과 散文世界」,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김경, 「18세기 漢文散文의 尙奇 논의와 作品樣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김대식, 「숙종대 사문난적 논란의 재검토 - 국가 차원의 강학(講學) 통제인가?」, 『한국교육사학』 40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8.
김도련, 「'古文'의 여러 槪念과 展開」, 『중국학논총』5,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1989.
김동건, 「眉叟 許穆의 書藝硏究」,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1992.
_____, 「眉叟 許穆의 篆書硏究-形成과 樣式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10, 한국미술사학회, 1996.
김언종, 「『經說』을 통해 본 眉叟 古學의 性格」, 『道山學報』5, 道山學術硏究院, 1996.
김준석, 「朝鮮後期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그 展開」,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김철범, 「19世紀 古文家의 文學論에 대한 硏究 - 洪奭周・金邁淳・洪吉周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_____, 「이조후기 산문론에서 '見識'의 문제」, 『한문학보』9, 우리한문학회, 2003.
김철범・신승훈, 「眉叟 許穆 散文의 特徵과 그 意味-『地乘』과 記를 중심으로」, 『文化傳統論集』13,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김현숙, 「許穆 篆刻의 美學的 接近」, 『동양예술』27, 한국동양예술학회, 2015.
김형찬, 「敬畏에서 感應으로 - 眉叟 許穆의 退溪學 계승에 관한 고찰-」, 『철학』98, 한국철학회, 2009.
김혜숙, 「미수 허목(許穆) 시적(詩的) 정회(情懷)에 대한 일고(一考)-상고(上古) 희구(希求)의 좌절(挫折)과 자족적(自足的) 안착(安着)」, 『한국한시작가연구』 10권, 한국한시학회, 2006.
류인태, 「한국 字典의 웹 서비스 구현에 대한 매체적 관점의 고찰」,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柳鐸一, 「眉叟 許穆의 著述 刊行 攷」, 『石堂論叢』21,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5.
박경남, 「趙龜命 道文分離論의 변화와 독자적 인식의 표현으로서의 문학」, 『국

문학연구』17, 국문학회, 2008.
_____, 「兪漢雋・朴胤源의 도문분리 논쟁과 兪漢雋의 各道其道論」, 『한국한문학연구』42, 한국한문학회, 2008.
_____, 「16・17세기 程朱學的 道文一致論의 균열과 道文分離的 경향」, 『고전문학연구』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박은정, 「17C 말 18C 전기 農巖 계열 문장가들의 古文論 연구-金昌協・李宜顯・李德壽・申靖夏・李夏坤의 韓歐正脈論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백승호, 「正祖時代 政治的 글쓰기 硏究」, 서울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13.
부유섭, 「17-18세기 중반 近畿南人 文壇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송혁기, 「17세기말~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_____, 「17세기 후반~18세기 초기 허목 계열 남인의 산문론 - 동시기 김창협 계열 산문론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 『민족문학사연구』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신승훈, 「前後七子의 受容과 朝鮮中期 文苑의 反響」, 『동양한문학연구』16, 동양한문학회, 2002.
_____, 眉叟 許穆 散文의 美學」, 『인문학논총』 제14권 3호,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신연우, 「許穆 <退潮碑說話> 硏究」,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심현섭, 「미수 허목전서 연구의 실상과 과제」, 『서예학연구』13, 한국서예학회, 2008.
안병걸, 「眉叟 許穆과 嶺南學派」, 『퇴계학과 유교문화』3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
오수형, 「唐代의 散文美學 硏究: 韓愈・柳宗元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35,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
오제중, 「傳抄古文의 내용과 字形 비교 연구」, 『中國言語硏究』36, 한국중국언어학회, 2011.
유영희, 「탈성리학의 변주 - 미수 허목과 백호 윤휴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3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윤성훈, 「미수(眉叟) 허목(許穆) 고문(古文)론 연구: '옛 글'과 '옛 글자' 추구를 위한 전범 설정을 중심으로」, 『美學』 제84권 2호, 한국미학회, 2018.
_____, 「眉叟 許穆 手稿本 篆書 字典 기초 연구」, 『대동문화연구』10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윤재근, 「近畿南人 學統의 展開와 星湖學의 形成」, 『온지논총』36, 2013.
이경순,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間 인식」, 2013,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동린, 「許穆의 春秋災異論에 나타난 '漢學的' 경향」, 『한국사론』4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3.
이봉규, 「예송의 철학적 분석에 대한 재검토」, 『대동문화연구』3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이성민, 「'秦漢古文派'의 성립 배경과 秦漢古文에 대한 인식」, 『동악어문학』48, 동악어문학회, 2007.
이욱, 「許穆의 災異觀 - 그의 祭儀的 對應을 中心으로 -」, 『종교학연구』 14, 1995,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이원택, 「현종대의 服制論爭과 公私義理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이준규, 「許穆 散文의 古文詞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_____, 「許穆 한시의 尙古的 경향에 대하여」, 『韓國漢詩硏究』 17, 한국한시학회, 2009.
이진경, 「근기남인(近畿南人)의 도가사상 연구」, 『儒學硏究』 3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이효원, 「許穆과 荻生徂徠의 尙古主義 문학사상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장유승, 「前後七子의 수용과 秦漢古文派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문학논집』 36, 2013.
정광호, 「眉叟 許穆의 古篆世界」, 『민족문화』4, 민족문화추진회, 1978.
정만조, 「朝鮮 顯宗朝의 私義·公義 論爭」, 『한국학논총』 1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91.
최강현,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문학을 살핌 1-주로 그의 수기시(修己詩)를 중심으로-」, 『淵民學志』 2, 淵民學會, 1994.
_____,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문학을 살핌 2: 주로 그의 기행시를 중심하여」, 『겨레어문학』 20, 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하영삼, 「韓國 歷代 《說文解字》 硏究 綜述」, 『中國語文學』56, 영남중국어문학회, 2010.
하영휘, 「朱之蕃의 朝鮮使行과 朱太史 전설」, 『朝鮮時代史學報』81, 조선시대사학회, 2017.
하지영, 「18세기 秦漢古文論의 전개와 실현 양상」, 이화여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하계(霞溪) 권유(權愈) 산문 소고 - 숙종 연간 남인계 관각 문단과 관련하여」, 『한국고전연구』4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황의열, 「『記言』의 編輯 體制와 眉叟 許穆의 文體意識」, 『한문학보』18, 우리한문학회, 2008.

蕭欣浩, 「《說文》古文與籀文之關係硏究」, 嶺南大學碩士論文, 2010.

부록 1. 허목 고문(古文) 서예 작품 목록

아래 목록은 본 논문의 본문 및 '부록 2. <척주동해비> 자형 비교표'에 활용된 허목의 고문(古文) 서예 작품[360]을 나열한 것이다.

일러두기

- 소위 '미전(眉篆)'이라 부르는 허목 특유의 고문(古文)으로 쓰인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서(楷書)·행서(行書)·초서(草書) 등으로 쓰인 것은 제외하였다.
- 공공기관에 소장·공개되어 검색 및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자료 위주로 선정하되, 일부 개인소장 자료를 추가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은 대체로 망라했으나, 모든 작품을 수록한 것은 아니다.
- 지본(紙本) 수필(手筆) 작품과 전액(篆額) 및 비명(碑銘) 2개 부류로 대별(大別)한 후, 서사(書寫) 연도순으로 배열했다. 연도를 알 수 없는 것은 뒤쪽에 모아 배치했다. ※ '전액(篆額) 및 비명(碑銘)'의 '연도'는 입비(立碑) 연도가 아닌 서사 연도임.
- '분량'은 '古文'(篆書)로 쓰인 자수(字數)만 계산한 것이다.(제목·序·본문·前後識 모두 포함. 중복 자수 포함)
- '전액(篆額) 및 비명(碑銘)'의 '출처'는 탁본 및 이미지의 출처임.

지본(紙本) 수필(手筆) 작품

명칭	篆武王銘[361] (전 무 왕 명)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정보	소장품번호: 민속039840		
		출처(서적)	眉叟許先生篆帖		
연도	1642년	**출처(URL)**	https://www.nfm.go.kr/		
내용	주(周) 무왕(武王)의 <杖銘>과 <几銘>			**분량**	총39자

360) '작품'은 일반적으로 완상(玩賞) 및 감상(鑑賞)의 대상을 지칭한다. 이 목록에서는 감상의 대상은 아니나 허목 서예 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비(碑)의 전액(篆額) 등 석각(石刻) 자료도 포괄하여 수록했다.

361) '篆武王銘'이란 작품명은 필자가 부여한 것임.

명칭	척주동해비 陟州東海碑 (原稿)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정보	보물 592-1호 허목수고본 소장품번호: 신수 10610	
		출처(서적)	許穆手筆東海碑帖	
연도	1661년	출처(URL)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기록유산 원문 http://www.heritage.go.kr/	
내용	<동해송(東海頌)> (『記言』 권28 下篇 '山川 下' 수록)			총226자 (제목5/序21/본문191/後識9)
명칭	사물잠 四勿箴	소장처	경남대학교 박물관	
		출처(서적)	『(慶南大學校 博物館 寺內文庫 所藏) 朝鮮名士遺墨 I』(汗馬古典叢書 18), 경남대학교 박물관, 2017, pp.35~57.	
연도	1666년			
내용	정이(程頤)의 <四勿箴>, 『詩經』 <那> 전문, 『周易』 「繫辭傳」 중 一句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379자 (사물잠274/那91/계사전14)
명칭	증혜사서 贈慧師序	소장처	경남대학교 박물관	
		출처(서적)	『(慶南大學校 博物館 寺內文庫 所藏) 東國諸賢遺墨 외 3帖』(汗馬古典叢書 17), 경남대학교 박물관, 2016, pp.77~81.	
연도	1668년			
내용	이름에 '慧'가 들어가는 어떤 승려에게 써준 글. 각종 碑碣 글씨에 대한 評.			총119자
명칭	고매누자대년설 古梅樓子大年說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정보	소장품번호: 서울역사002692	
		출처(서적)	眉叟先生眞蹟	
연도	1671년 4월	출처(URL)	http://www.museum.seoul.kr/	
내용	『記言』 권14 中篇 '田園居 一' 수록.			총115자
명칭	이상좌불화첩발 李上左佛畫帖跋[362]	소장처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정보		
		출처(서적)	李上佐佛畵帖 (보물 593호)	
연도	1671년 8월	출처(URL)	리움 미술관 http://www.leeum.org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위 사이트에는 전체 이미지가 없음.	
내용	李上佐의 佛畵에 대한 評			총110자

명칭	不如嘿田社老 人十八戒[363]	소장처	개인소장	
		소장정보		
		출처(서적)		
연도	1671년(추정)	출처(URL)		
내용	『記言』 권23 中篇 '戒懼'에도 수록.			총109자
명칭	단서지계 丹書之戒	소장처	충재박물관(沖齋博物館) 주소: 경북 봉화군 봉화읍 충재길 60	
		출처(서적)	보물 제902-5호 '권벌 종가 유묵(權橃 宗家遺墨)' 중 '허목전서((許穆篆書)'	
연도	1681년	출처(URL)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기록유산 원문 http://www.heritage.go.kr/	
내용	연천으로 자신을 방문한 하당(荷塘) 권두인(權斗寅)에게 써준 글. 太公望의 <丹書之戒>와 周武王의 銘 <杖銘>·<盤銘>·<鑑銘>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105자
명칭	한간문 汗柬文	소장처	개인소장	
		소장정보	보물 592-4호 '허목 전서 한간문 등(許穆 篆書 汗柬文 等)'	
연도	1682년 3월	출처(URL)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기록유산 원문 http://www.heritage.go.kr/	
내용	汗柬文 上中下篇(『記言』 권58)·不如默社誌(『記言』 권23)·喜怒之戒(『記言』 권23)			총309자
명칭	청암수석 靑巖水石	소장처	충재박물관(沖齋博物館)	
		소장정보	보물 제902-2호 '권벌 종가 유묵 허목 청암정편액제자(許穆靑巖亭扁額題字)'. ※ 허목이 쓴 원본을 판각한 편액이 청암정(靑巖亭)(주소: 경북 봉화군 봉화읍 충재길 44)에 걸려 있음.	
연도	1682년 4월[364]			
내용	靑嵒水石 4자 大字書			총4자
명칭	함취당 含翠堂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정보	보물 592-2호 '허목 전서 함취당'	
연도	미상	출처(URL)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내용	含翠堂 3자 大字書. 洪秀輔의 跋文 있음.			총3자

명칭	애군우국 愛君憂國	소장처	개인소장	
		소장정보	보물 592-3호 '허목 전서 애군우국'	
연도	미상	출처(URL)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내용	愛君憂國 4자 大字書			총4자
명칭	미옹심획 眉翁心畫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정보	청구기호: 奎 9996	
		출처(서적)	미옹심획(眉翁心畫)	
연도	미상	출처(URL)	http://kyujanggak.snu.ac.kr/	
내용	進德修業 懲忿窒欲 霽月光風 瑞日祥雲			총16자
명칭	오로당 五老堂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정보	'許穆筆篆書' (소장품 번호: 동원 3760)	
연도	미상	출처(URL)	https://www.museum.go.kr/	
내용	五老堂 3자 大字書			총3자
명칭	전두시 篆杜詩[365]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정보	소장품번호: 덕수-2932	
		출처(서적)	육일첩(六一帖)	
연도	미상	출처(URL)	https://www.museum.go.kr/	
내용	杜甫 <去蜀> 일부, <江漢> 전문, <奉寄李十五祕書> 일부.			총80자
명칭	전송유문 篆宋儒文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정보	소장품번호: 동원-003428	
		출처(서적)	미수서첩(眉叟書帖)	
연도	미상	출처(URL)	https://www.museum.go.kr/	
내용	呂大林의 <克己論> 일부 / 周敦頤의 <愛蓮說> 일부.			총48자
명칭	전소옹시 篆邵雍詩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정보	소장품번호: 덕수-919	
		출처(서적)	해동명필첩(海東名筆帖)	
연도	미상	출처(URL)	https://www.museum.go.kr/	
내용	邵雍 <君子吟> 및 <至靈吟> 殘片			총20자

(총 17 편 / 1,689자)

362) 문화재 등록명은 '李上佐佛畵帖'이나 허목이 쓴 원문에 따라 '李上左'로 함.

363) 『記言』 권23에는 제목이 <不如嘿田社老人十六戒>로 되어 있음. 원문에 따라 명칭을 수정함.

364) 허목의 가장 마지막 글씨. 허목은 1682년 4월 27일에 사망하였음.

전액(篆額) 및 비명(碑銘)

명칭	이원익(李元翼) 신도비	연도	1635년
소재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산 137-1 ※경기도 시도기념물 제85호		
출처	『韓國金石文大系』 권5 '京畿道 編', 趙東元 編著, 圓光大學校出版局, 1988.		
내용	議政府領議政完平府院君贈諡文忠李公神道碑		총20자 (6~8자 결락)
명칭	사천(泗川) 구산사비(龜山祠碑)	연도	1640년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구계서원 내		
내용	龜山祠碑		총4자
비고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35호		
명칭	권태사(權太師) 신도비 (舊碑)	연도	1659년 9월 (추정)
소재지	경북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길 87		
내용	高麗太師權公神道碑銘		총10자
명칭	채세영(蔡世英) 신도비	연도	1660년 1~2월 (추정)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12번지 ※의왕시 향토유적 제2호		
비고	※허목이 篆額과 본문(楷書)을 씀		
내용	有明朝鮮國左參贊蔡公神道碑		총13자
명칭	이창정(李昌庭) 신도비	연도	1660년 4~8월 (추정)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543-8		
출처	『韓國金石文大觀』 권1 '延安李氏篇', 高麗金石院 編, 高麗金石院, 2000.		
내용	華陰無求先生李公神道碑銘		총12자
명칭	이현(李袨) 신도비	연도	1660년 무렵
소재지	충북 청원군 문의면 후곡리		
출처	『韓國金石文大觀』 권1 '延安李氏篇'		
내용	贈左參贊行平安道觀察使延安君李公之神道碑		총20자
명칭	원천석(元天錫) 묘갈	연도	1660~67년 (추정)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산 37 ※강원도기념물 제75호		
내용	高麗國子進士耘谷先生墓碣		총12자

365) '篆杜詩'이란 작품명은 필자가 부여한 것임. 이하 '篆宋儒文', '篆邵雍詩'도 같음.

명칭	류석(柳碩) 신도비	연도	1663~73년 (추정)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산5-6		
출처	『韓國金石文大系』 권5 '京畿道 編'		
내용	觀察使柳公神道碑 ※허목이 篆額과 본문을 씀		총8자
명칭	하겸재(河謙齋) 묘명(墓銘)	연도	1665년
소재지	경남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謙齋 河弘度 묘갈명		
비고	허목이 篆題와 본문을 짓고 씀. 탁본집 『河謙齋墓碣銘』이 있음.		
내용	朝鮮徵士謙齋河先生之墓		총11자
명칭	권대항(權大恒) 신도비 (舊碑)	연도	1666~72년 (추정)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183-2		
내용	東昌尉權公神道碑		총8자
명칭	고령(高靈) 삼처사(三處士) 유허비 (舊碑)	연도	1675년 1~5월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내용	星山三處士墓		총6자
명칭	이성구(李聖求) 신도비	연도	1675년 6월 이후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산90-1 ※경기도기념물 제49호		
출처	『韓國金石文大系』 권5 '京畿道 編'		
내용	議政府領議政贈諡貞肅李公神道碑銘		총16자
명칭	이만(李曼) 신도비	연도	1675년 6월 이후
출처	탁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奎 28088)		
URL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내용	大司憲完原君李公神道碑		총11자
명칭	주세붕(周世鵬) 신도비	연도	1679년 이전
소재지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576 ※경상남도 기념물 제33호		
출처	『韓國金石文大系』 권4 '慶尙南道, 濟州道 編', 趙東元 編著, 圓光大學校出版局, 1985.		
내용	愼齋周先生神道碑		총8자
명칭	한오규(韓五奎) 묘갈	연도	미상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773		
내용	上黨韓五奎之墓 淑人漢陽趙氏附		총14자

명칭	한여직(韓汝溭) 묘갈	연도	미상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773		
내용	行禮曹判書韓公墓碣		총9자
명칭	어촌(漁村) 양훤(楊晅) 묘비	연도	미상
소재지	경남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 산 21-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71호		
내용	成均進士楊君墓碣		총8자

(총 17 건 / 180자)

※ 기타 허목의 글씨를 집자한 전액(篆額)으로 <이산해(李山海) 신도비>, <동계(桐溪) 정온(鄭蘊) 묘표>,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顒) 신도비>, <채제공(蔡濟恭) 뇌문비(誄文碑)> 등이 있음.

부록 2. <척주동해비> 자형(字形) 비교 표

일러두기

1. 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일련번호 - 대표자

척주동해비 및 허목 작품례	- 대표자의 <척주동해비> 원고(原稿) 자형(字形)을 중심으로, 허목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자형들을 제시했다. - 가능한 한 작품 성립 시기의 순서대로 배열했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순서를 뒤로 미뤘다. - 자형이 여러 개인 경우 자형 이미지 앞에 번호를 부여하여 모두 나열했다. - 한 작품 안에 거의 동일한 자형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작품례와『古文韻律』의 경우) 이런 경우도 특정 자형의 중요도를 나타내거나 필획의 차이를 보이는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 모두 제시했다.
明 金石韻府	- 허목이 초록(抄錄)한『金石韻府』의 원자료인 명말(明末)에 출간된 목판본『금석운부』 - 주로 허목의 초록 및 실제 작품례와 관련이 있는 자형들만 골라 제시했다. - 각 자형 이미지 아래에 자형의 출전을 캡션으로 달아 주었다. 이 캡션은 明『금석운부』에 기재된 출전을 그대로 전재(轉載)한 것이다.
金石韻府	허목이 초록하여 필사(筆寫)한『금석운부』에 나타나 있는 대표자의 자형들을 모두 제시
古文韻律	허목이 초록하여 필사(筆寫)한『고문운율』에 나타나 있는 대표자의 자형들
古文韻部	허목이 초록하여 필사(筆寫)한『고문운부』에 나타나 있는 대표자의 자형들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한(漢) 허신(許愼)의『說文解字』에 수록된 대표자의 자형.『설문해자』의 대표 자형인 소전(小篆)을 중심으로 해당 글자의 다른 자형, 즉 '說文古文' 및 '說文籀文', '說文或體' 등이 있으면 그 자형들도 모두 수록했다. -송대(宋代)에 성립한 고문자 자전(字典)인『汗簡』,『古文四聲韻』,『集篆古文韻海』 등을 중심으로, 여러 전초(傳抄) 고문자 자형들 중 허목 및 明『金石韻府』 자형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골라 제시했다.
비고	- 자형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說文解字』의 자원(字源) 설명 등 원문 자료를 제시했다. - 기타 부가적 설명

2. 자형(字形)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2-1. '척주동해비'
-원고(原稿): 보물 제592-1호 '허목수고본(許穆手稿本)'
-탁본: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一蓑古754.3-H41c)
2-2. '明 金石韻府' 이미지 출처: 书格 사이트 (https://shuge.org/)
2-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小學堂 사이트' (http://xiaoxue.iis.sinica.edu.tw/)
※ '傳抄古文字'의 자형 이미지 캡션에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다.
汗簡 : 汗 / 古文四聲韻 : 四 / 集篆古文韻海 : 海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원고와 현전 비문(碑文) 소자의 원고 사이에 차이가 있다. 문자 결구(結構) 상 차이를 보이는 글자가 다음 7자이며, 필획 및 필치 상 차이를 보이는 글자 또한 다수 있다.

결구 상 차이를 보이는 글자 : **獩, 北, 無(제2자), 羲, 木, 次, 古(제2자)**

4. <척주동해비>에 출현한 모든 글자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글자의 자형 비교표를 수록했다.
4.1. 원문 글자에 모두 '척주동해비 원문 글자 일련번호'(예를 들어 '陟'은 眉東-1이 됨)를 부여하여 자형(字形) 비교표를 만들고, 글자 출현 순서에 따라 표를 배치했다.

4.2. 원문에서 떨어져 위치한 글자라도 자형 상 비슷하거나 비교의 필요가 있으면 옮겨 병치했다. 이 때 위치를 옮긴 글자에는 원래 뒤에 위치한 글자라는 표시(▼)를 해 주었다.
(예: '▼眉東-32 潮'는 원문 위치 상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眉東-28 朝' 다음에 위치함)

4.3. <척주동해비> 원문에는 없으나 자형 비교의 필요 상 허목의 다른 작품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 비교표를 수록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일련번호에 별도의 표시를 하였다.
(예를 들어 <척주동해비>에는 '墟'만 나오고 '虛'는 나오지 않지만 자형 비교표 '眉東-14 墟' 뒤에 '眉東-14-1 虛'를 수록하였음)

<척주동해비> 글자 일련번호

[1]陟 [2]州 [3]東 [4]海 [5]碑

[2]州 [6]古 [7]悉 [8]直 [9]氏 [10]之 [11]地　[12]在 [13]獄 [14]墟 [15]南　[16]去 [17]國 [18]都 [19]七 [20]百 [21]里　[3]東 [22]臨 [23]大 [4]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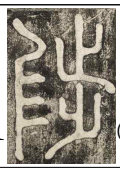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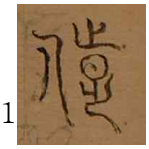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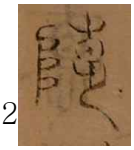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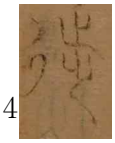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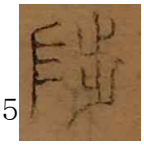
[24]瀛 [4]海 [25]滂 [26]濞　[20]百 [27]川 [28]朝 [29]宗　[30]其 [23]大 [31]無 [32]窮 [3]東 [33]北 [34]沙 [4]海　[31]無 [35]潮[366] [31]無 [36]汐　[37]號 [38]爲 [23]大 [39]澤 [40]積 [41]水 [42]稽 [43]天　[44]淳 [45]滀 [46]汪 [47]濊[367]　[4]海 [48]動 [49]有 [50]噎 [51]明 [51]明 [52]暘 [53]谷　[54]太 [55]陽[368] [10]之 [56]門　[57]義 [58]伯[369] [59]嗣(司) [60]賓 [61]析 [62]木 [10]之 [63]次　[64]牝 [65]牛 [10]之 [66]宮　[67]日 [68]本 [31]無 [3]東 [69]鮫 [70]人 [10]之 [71]珍　[72]涵 [4]海 [20]百 [73]産　[74]汗 [74]汗 [75]漫 [75]漫 [76]奇 [77]物 [78]譎 [79]詭　[80]宛 [80]宛 [10]之 [81]祥　[82]興 [83]德 [84]而 [85]章 [86]蚌 [10]之 [87]胎 [88]珠　[89]與 [90]月[370] [91]盛 [92]衰　[93]旁 [94]氣 [95]昇 [96]霏 [43]天 [97]吳 [98]九[371] [99]首[372]　[100]怪 [101]夔 [102]一[373] [103]股　[104]颱 [105]回 [106]且 [107]雨 [108]出 [67]日 [28]朝 [109]暾　[110]轇 [111]軋 [112]炫 [113]煌　[114]紫 [115]赤 [116]滄 [116]滄 [117]三 [118]五[374] [90]月 [119]盈　[41]水 [120]鏡 [121]圓 [122]靈　[123]列 [124]宿 [125]韜 [126]光 [127]扶 [128]桑 [34]砂 [129]華　[130]黑 [131]齒 [132]厥 [133]羅　[134]撮 [135]髻 [136]莆 [137]家 [138]壇 [139]蠻 [10]之 [140]嚆　[141]爪 [142]毫 [10]之 [143]猴　[144]佛 [145]齊 [10]之 [64]牛 [4]海 [146]外 [147]雜 [148]種　[149]絶 [150]黨 [151]殊 [152]俗　[153]同 [154]囿 [155]咸 [156]育 [6]古 [157]聖 [158]遠 [83]德　[20]百 [139]蠻 [159]重 [160]譯[375]　[31]無 [158]遠 [161]不 [162]服 [163]皇 [164]哉 [165]熙 [164]哉　[23]大 [59a]嗣(治) [166]廣 [167]博[376]　[168]遺 [169]風[377] [170]邈 [164]哉

[18]都 [171]護 [172]府 [173]使　[174]孔 [175]碧 [176]許 [177]穆 [178]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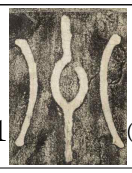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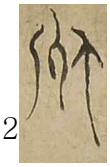
---

366) 潮: 자형 비교표는 '眉東-28 朝' 뒤에 위치함
367) 濊: 자형 비교표는 '眉東-13 獩' 뒤에 위치함
368) 陽: 자형 비교표는 '眉東-52 暘' 뒤에 위치함
369) 伯: 자형 비교표는 '眉東-20 百' 뒤에 위치함
370) 月: 자형 비교표는 '眉東-67 日' 뒤에 위치함
371) 九: 자형 비교표는 '眉東-19 七' 뒤에 위치함
372) 首: 자형 비교표는 '眉東-42 稽' 뒤에 위치함
373) 一: 자형 비교표는 '眉東-19 七' 뒤에 위치함
374) 三, 五: 眉東-117 三과 118 五의 자형 비교표는 '眉東-19 七' 뒤에 위치함
375) 譯: 자형 비교표는 '眉東-39 澤' 뒤에 위치함
376) 扶: 자형 비교표는 '眉東-127 扶' 뒤에 위치함
377) 風: 자형 비교표는 '眉東-104 颱' 뒤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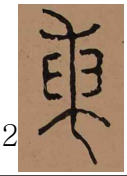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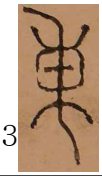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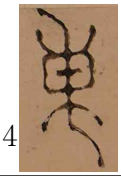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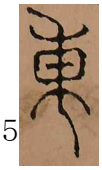
眉東-1 **陟**

척주동해비	1  (1661) 2 (1661 무렵)
明 金石韻府	古尙書 義雲章 汗簡 六書統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3 4  5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尙書 汗 義雲章 四 汗簡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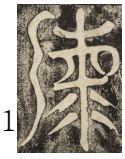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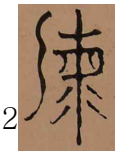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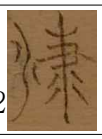
眉東-2 州

척주동해비	1  (1661) 2 3 ※2, 3은 1661년 무렵
贈慧師序 (1668) '洲'	
古梅樓子大年說 (1671) '洲'	1 2 
篆杜詩 (국중 六一帖) (미상)	
明 金石韻府	古尙書 州卣 商鐘
金石韻府	
古文韻律	※附記: "州洲"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尙書 四 崔希裕纂古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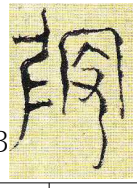
眉東-3 **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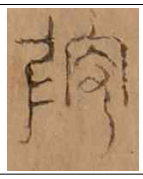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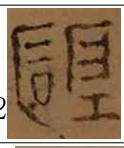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 1661년 2-5: 1661 무렵	1 2  3  4  5 
權大恒 신도비 (1666-72년) (추정)	
明 金石韻府	 古孝經 汗簡 穆公鼎 “古文”※ ※說文古文 아님. 출전 미상.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四 孝經 四 汗簡 海

眉東-4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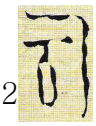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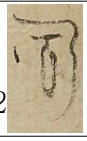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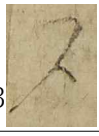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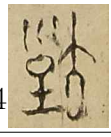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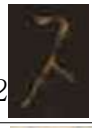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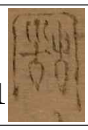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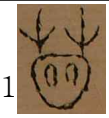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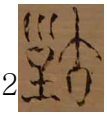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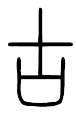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 1: 1661년 2-8: 1661 무렵	1  2  3 4 5 6 7 8
贈慧師序 (1668)	
明 金石韻府	古孝經 道德經 古尙書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六書通-升菴文集의 자형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尙書 四 老子 四 孝經 四 尙書

眉東-5 **碑**

李元翼 신도비	龜山祠碑	權太師 신도비
1635	1640	1659(추정)
蔡世英 신도비	李昌庭 신도비	李袨 신도비
1660(추정)		
척주동해비	1 (1661) 2 (1661 무렵)	
權大恒 신도비 (1666-72년) (추정)		柳碩 신도비 (1663~73년) (추정)
贈慧師序 (1668)	1 2 3 	
李聖求 신도비	李曼 신도비	周世鵬 신도비
1675년 이후		(1670년대 후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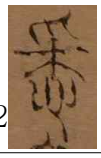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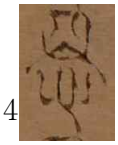
明 金石韻府	 義雲章 華嶽碑 雲臺碑 “古文”※ ※說文古文 아님. 출전 미상.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義雲章 四 華嶽碑 四 雲臺碑

眉東-6 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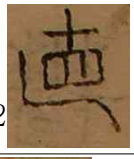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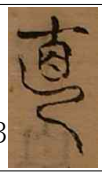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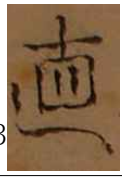
<table>
<tr><td>척주동해비
(原稿: 1661 무렵)
(碑文: 1661 이후)</td><td colspan="3">1 2(原稿) 2(碑文)[378] </td></tr>
<tr><td>四勿箴</td><td>贈慧師序</td><td>贈慧師序 ‘故’</td><td>李上左佛畫帖跋</td></tr>
<tr><td>1666</td><td colspan="2">1668</td><td>1671</td></tr>
<tr><td> </td><td>1 2  </td><td> </td><td> </td></tr>
<tr><td>古梅樓子大年說
(1671)</td><td colspan="3">1 2  3  4  </td></tr>
<tr><td colspan="4">汗柬文 ‘故’(1682)</td></tr>
<tr><td colspan="4">1 2  3 </td></tr>
<tr><td>明
金石韻府</td><td colspan="3"> 古孝經 “說文”※ 伯英彝 ※실제로는 說文古文</td></tr>
<tr><td>金石韻府</td><td> </td><td>古文韻律</td><td>1  2 </td></tr>
<tr><td>古文韻部</td><td colspan="3">1  2  3 4 5
6 7 </td></tr>
<tr><td>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td><td colspan="3">  說文小篆 說文古文 碧落文 碧落文 海</td></tr>
</table>

37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原稿)와 현재 전하는 비문의 자형(字形)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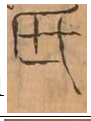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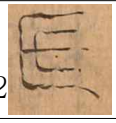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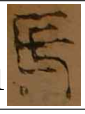
眉東-7 悉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尙書 古文※ 省文 ※ 說文古文의 형태와 거의 비슷함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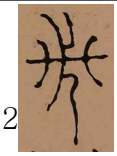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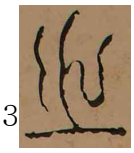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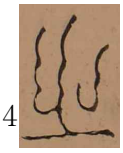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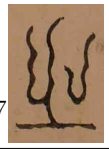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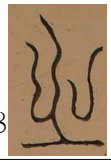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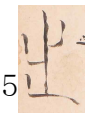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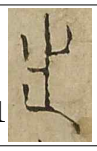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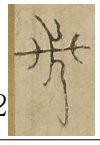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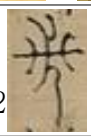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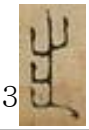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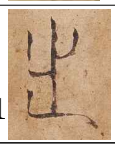
眉東-8 **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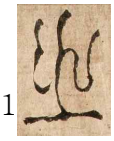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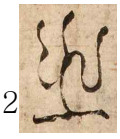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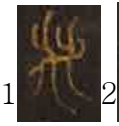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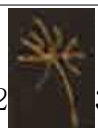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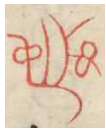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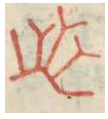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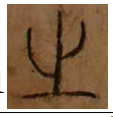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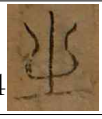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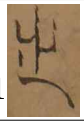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不如嘿田社老人十八戒 (1671년 추정)	
明 金石韻府	 道德經 演說文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四 老子 四 演說文

眉東-9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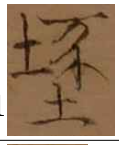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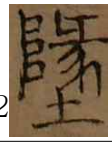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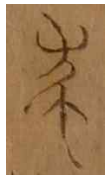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韓五奎 묘갈	
明 金石韻府	古文※ 說文※※ 敔敦 ※說文古文 아님. 출전미상. ※※ 說文解字 자형 아님. 출전미상.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蔡邕石經

眉東-10 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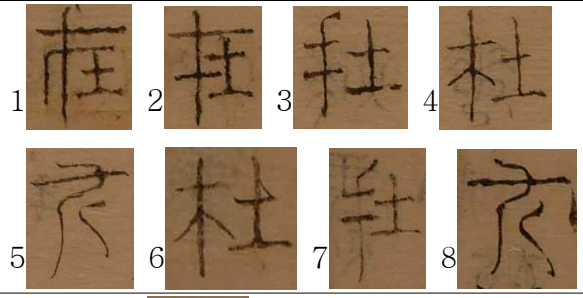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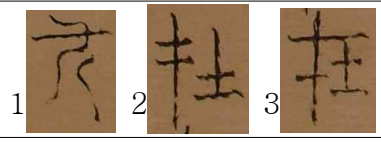
李袨 신도비 1660(추정)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3  4  5 6 7  8  9 10
河謙齋墓銘 (1665)	
四勿箴 (1666)	1 2 3 4 5  6 7 8 9 10 11 12
古梅樓子大年說 (1671)	1  2 
李上左佛畫帖跋 (1671)	1 2 3 4 5
不如嘿田社老人十八戒 (1671) (추정)	1 2  3  4
篆宋儒文(국중 眉叟書帖) (미상)	1  2

篆邵雍詩 (국중 海東名筆帖) (미상)	1  2 	韓五奎 묘갈	
丹書之戒 (1681)			
汗柬文 (168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明 金石韻府	 古孝經 古孝經 曾侯鐘 許子鐘 商鐘   比干墓銘 古文 1※ 古文 2※ 嘯堂盤		※說文古文 아님
金石韻府	자형 1종만 기재. 附記: “之 古文”		
古文韻律	1  2 3 4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比干墓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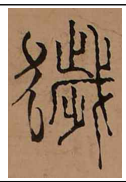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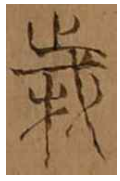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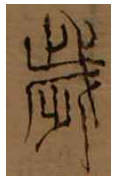
眉東-11 **地**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汗簡文 (1682)	1 2 3		
明 金石韻府	 古孝經 古老子 古尙書 碧落文 省文 省文 希裕略古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3 4 5		
古文韻部	1 2 3 4 5 6 7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籀文 汗 華嶽碑 四 老子 海	※ 地 = 墜 = 坠	
비고	 小篆 '象' 明府 '象' 古文 汗 '象' 義雲章 海 '象'  眉府 '象'		

眉東-12 **在**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明 金石韻府	 古孝經 南宮中鼎 公緘鼎 微㲻鼎 尹卣 尹卣 父癸尊
金石韻府	 1 2 3 4 5
古文韻律	 1 2 3 4 5 6 7 8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海 海 海 海

眉東-13 **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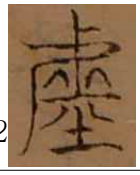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原稿) (1661 무렵)		척주동해비 (碑文)[379] (1661 이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없음)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없음. 海		
비고	  眉東‘濊’ 說文小篆‘歲’ 眉府‘歲’ 眉律‘歲’		

▼眉東-47 **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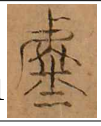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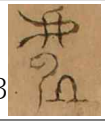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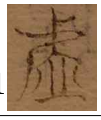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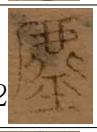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原稿) (1661 무렵)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없음)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없음) 海 海

37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原稿)와 현재 전하는 비문의 자형(字形)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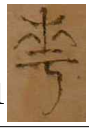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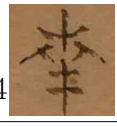
眉東-14 **墟**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虛' (1666)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설문소전 없음.

※眉東-14-1 **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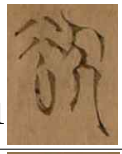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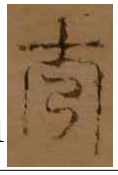
四勿箴	
明 金石韻府	道德經 道德經 存乂切韻 存乂切韻 存乂切韻 存乂切韻 齊侯鐘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5 6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存乂切韻 四 存乂切韻 四 存乂切韻 四 存乂切韻 四 道德經 四 道德經
비고	 眉東‘墟’

眉東-15 **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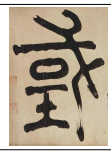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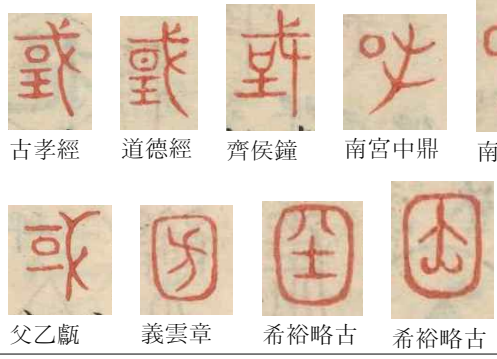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李上左佛畫帖跋 (1671)	
明 金石韻府	古孝經 古尙書 南嶽碑 南和鐘
金石韻府	(없음)[380]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4  5 6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380) 下平聲 侯韻까지만 수록되어 있고 그 이하 '幽 侵 覃 談 鹽 咸 嚴 咸 銜 凡' 운 부분이 탈락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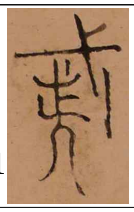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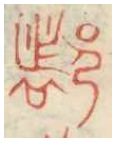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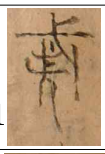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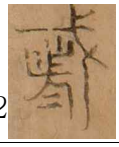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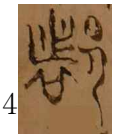
眉東-16 去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老子 義雲章 汗簡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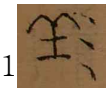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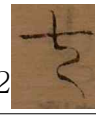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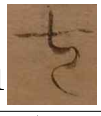
眉東-17 **國**

蔡世英 신도비 (1660)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元天錫 묘갈 (1660~67 추정)		愛君憂國 (미상)	
汗簡文 (1682년)			
明 金石韻府	 古孝經 道德經 齊侯鐘 南宮中鼎 南宮中鼎 父乙甗 義雲章 希裕略古 希裕略古		
金石韻府	 1 2 3 4 5 6		
古文韻律	 1 2 3 4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義雲章 汗 義雲章 四 孝經 四 老子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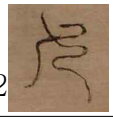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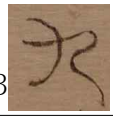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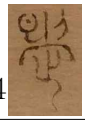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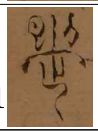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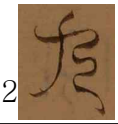
眉東-18 **都**

척주동해비	1  2
明 金石韻府	石經  齊侯鐘 齊侯鐘 齊侯鐘 齊侯鐘 公緘鼎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石經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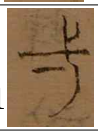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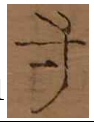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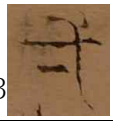
眉東-19 七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古梅樓子大年說 (1671)	
明 金石韻府	 道德經 道德經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四 老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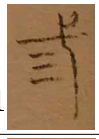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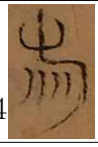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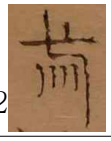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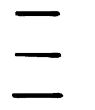
▼眉東-98 九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小篆 道德經 戊命彝 兄癸卣 商鐘 說文小篆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3  4 		
古文韻部	1  2 		

▼眉東-102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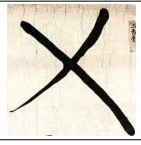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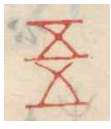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孝經 古尙書 道德經 道德經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尙書 四 老子

▼眉東-117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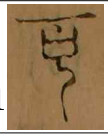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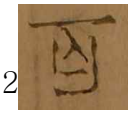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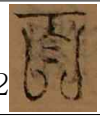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三處士 묘갈 (1675)	
明 金石韻府	貝丘長碑 雲臺碑 古文 汗簡
金石韻府	(없음)[381]
古文韻律	1  2 3 4  5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381)『金石韻府』 下平聲에는 '侯'韻部 이후 '幽・侵・覃・談・鹽・酣・嚴・咸・銜・ 凡' 운부가 누락되어 있음. '三'은 談部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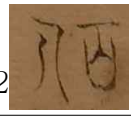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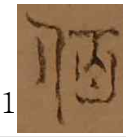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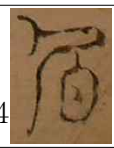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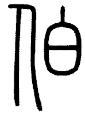
▼眉東-118 五

척주동해비	
韓五奎 묘갈	
五老堂	
明 金石韻府	古孝經  道德經 道德經 義雲章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眉東-20 百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3 4	
李上左佛畫帖跋 (1671)		
明 金石韻府	 石經 師譴敦 道德經 牧敦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石經 四 石經 四 老子	
비고 (※歷代鐘鼎彝器款識) 卷1 商鐘二 出古器物銘	 吉 客 怡	※百의 아랫부분을 口로 볼 경우 <척주동해비> 및 『고문운율』 자형 2 아랫부분의 형태의 연원을 商器銘으로 볼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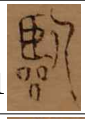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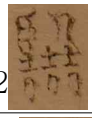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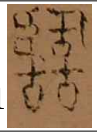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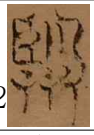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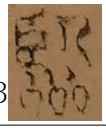
▼眉東-58 伯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孝經 道德經 季娠鼎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義雲章 四 老子

眉東-21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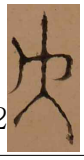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小篆 南宮中鼎 道德經 六書統 六書統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三 老子 海

眉東-22 **臨**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孝經 古孝經 華嶽碑 義雲章 說文※ 說文※ 師簋敦 六書統 ※說文解字 수록 字形 아님
金石韻府	없음38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義雲章 汗 華嶽碑 四 孝經
참조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 권14 <師簋敦> '臨'

382) 下平聲 侯韻까지만 수록되어 있고 그 이하 '幽 侵 覃 談 鹽 咸 嚴 銜 凡' 운 부분이 탈락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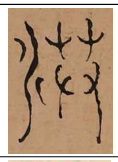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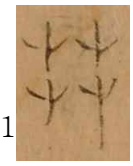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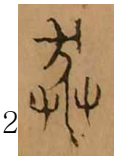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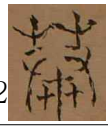
眉東-23 大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3 4		
四勿箴 (1666)	1 2		
古梅樓子大年說 (1671)	1 2 3 4 5		
이상좌불화첩발 (1671)		不如嘿田社老人十八戒 (1671)(추정)	
李曼 신도비 (1675년 이후)		汗柬文 (1682)	
明 金石韻府	古孝經 汗簡 古老子 古老子 王庶子碑 籀文※		※ 說文籀文 아님
金石韻府	1 2 3 4☆		☆附記: '籀文'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孝經 四 汗簡 四 老子 四 王庶子碑 四 籀文 海		

眉東-24 **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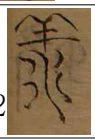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비고	說文小篆‘嬴’ 眉律‘嬴’

眉東-25 **潐**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莽)	齊莽史鼎 六書統	金石韻府 (莽)	1  2 
古文韻律	(없음)[383]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莽)	說文小篆 四 說文		

383) 이 부근의 養, 湯 韻部가 없음. 아마도 어떤 사정으로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眉東-26 **濬**(濼)[384]

척주동해비 (濬)	
明 金石韻府 (濼)	古尙書 義雲章
金石韻府 (濼)	1 2
古文韻律 (濼)	1[385] 2 
古文韻部 (濼)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濼)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尙書 四 義雲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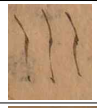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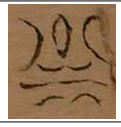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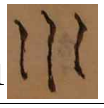
384) 『記言』 권28 <東海頌>, 권65 「自序」, 「記言年譜」에는 모두 '濬'으로 되어 있고, 『金石韻府』·『古文韻律』 등의 수록 자형에는 '濼'으로 석문(釋文)되어 있다. (허목 사후에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 『古文韻律抄』에는 '濬'이 수록되어 있음) '濬'은 '濼'의 說文古文 자형이며 '濼'의 동훈이형자(同訓異形字), 즉 동자(同字)로 보아야 하지만 허목의 원래 취지를 살려 <척주동해비>와 전서(篆書) 자전(字典)의 해석(楷釋, 楷書 釋文)을 각기 다르게 하였다. (『記言』 권28은 허목이 스스로 편집·서사한 原集에 속함)

385) 목록의 去聲 '濼'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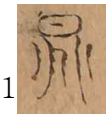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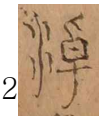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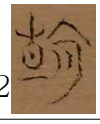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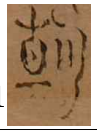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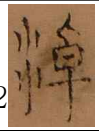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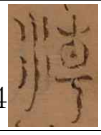
※眉東-26-1 **養**

四勿箴	
明 金石韻府	古尙書 單欽豆
金石韻府	
古文韻律	※上聲 목록 '養'部의 자형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尙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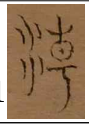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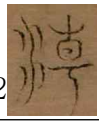
眉東-27 川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贈慧師序 (1668)	
明 金石韻府	 道德經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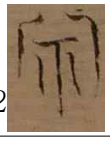
眉東-28 **朝**

蔡世英 신도비 (1660)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河謙齋墓銘 (1665)		四勿箴 (1666)	
明 金石韻府	貝丘長碑 石經 假借 假借 古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貝丘長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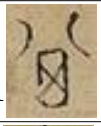
▼眉東-35 **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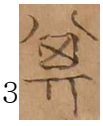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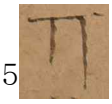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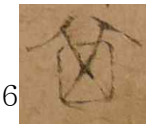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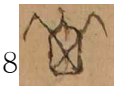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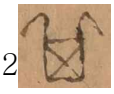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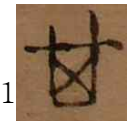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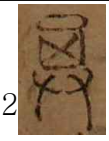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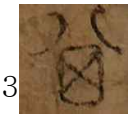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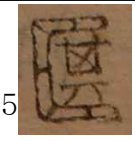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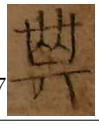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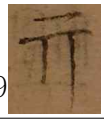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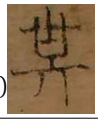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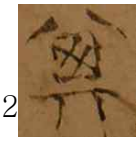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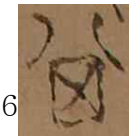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朝 항목 참조)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部	(없음)
古文韻律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朝 항목 참조)

眉東-29 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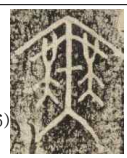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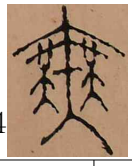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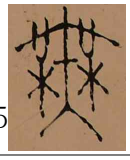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汗柬文 (1682)	
明 金石韻府	古孝經 道德經 豫讓文 戍命彝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碧落文 汗 豫讓文 四 道德經 四 孝經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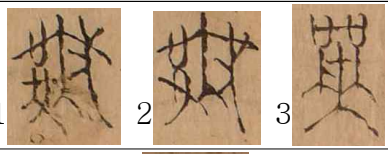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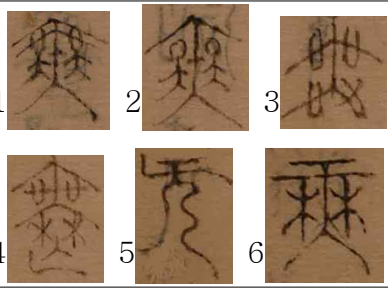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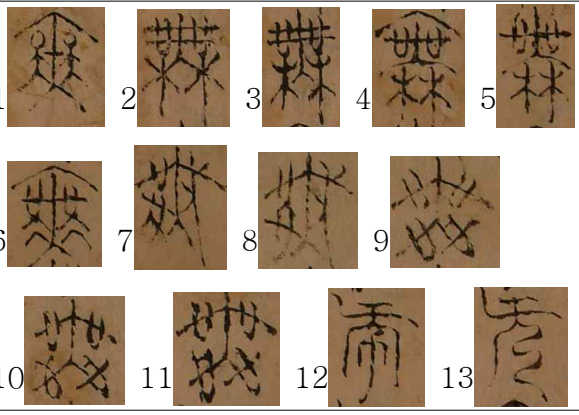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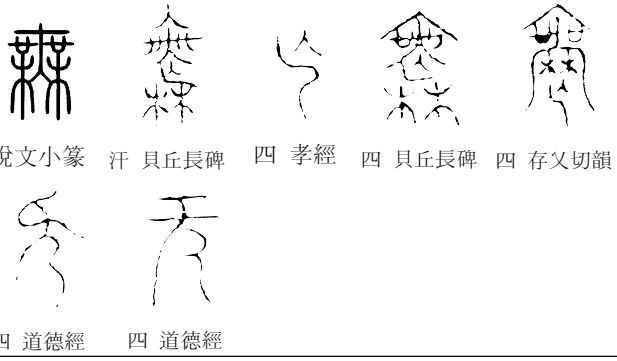
眉東-30 **其**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3 4 5
古梅樓子 大年說 (1671)	
李上左佛畫帖跋 (1671)	1 2
不如嘿田社 老人十八戒 (1671)(추정)	1  2
丹書之戒 (1681)	
明 金石韻府	古孝經 汗簡 汗簡 道德經 道德經 碧落文 穆公鼎 穆公鼎 林罕集 圓寶鼎 圓寶鼎 左父鼎 方寶斸 京姜鬲 京姜鬲 鐘鼎文 鐘鼎文 鐘鼎文 鐘鼎文 鐘鼎文 古文 古文 古文

金石韻府	1 2 3  4 5  6  7 8  9 10 11 12 
古文韻律	1  2  3  4 5  6 7  8 9  10 
古文韻部	1 2  3 4 5 6  7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說文古文 說文古文 說文籀文 說文籀文 四 道德經 四 存乂切韻

眉東-31 **無**

李昌庭 신도비 (1660)	
척주동해비 (1661 무렵) (碑文: 1661 이후)	1 2(原稿) 2(碑文)[386]  3 4  5 
四勿箴 (1666)	
篆杜詩 (국중 六一帖) (미상)	
汗東文 (168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明 金石韻府	晉姜鼎 公緘鼎 杞公匜 孟姜匜 孟姜匜 孟姜敦 張仲簋 張仲簋 貝丘長碑 存乂切韻 道德經 古文 古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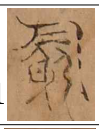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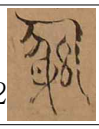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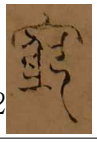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貝丘長碑 四 孝經 四 貝丘長碑 四 存乂切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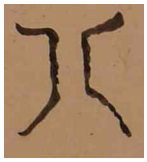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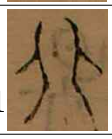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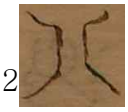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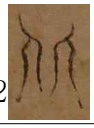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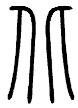
四 道德經 四 道德經

38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原稿)와 현재 전하는 비문의 자형(字形)이 다름.

眉東-32 **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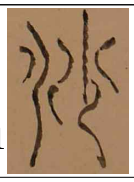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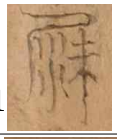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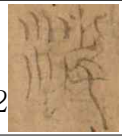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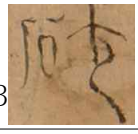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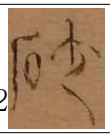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汗衆文 (1682)	
明 金石韻府	道德經 六書統 六書統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陽華巖銘 四 道德經

眉東-33 北

척주동해비 (原稿)		척주동해비 (碑文)387)	
明 金石韻府	古孝經 汗簡 父乙鼎 谷口銅甬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背’		
古文韻部	1 2  3 ※‘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三體石經 春秋僖公 汗簡目錄 汗簡 四 孝經 四 汗簡		

38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原稿)와 현재 전하는 비문의 자형(字形)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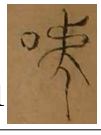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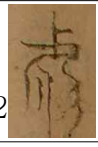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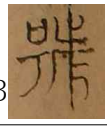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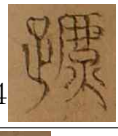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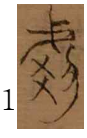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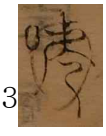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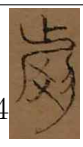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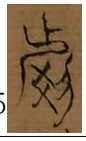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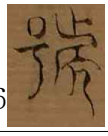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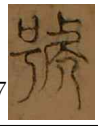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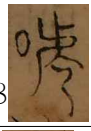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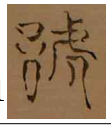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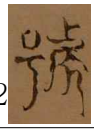
眉東-34 沙(砂)

척주동해비	1  2
明 金石韻府	 義雲章 希裕略古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沙)	 說文小篆 說文或體 汗 義雲章 四 崔希裕纂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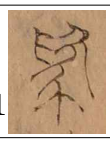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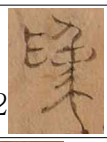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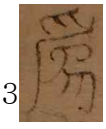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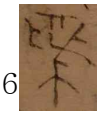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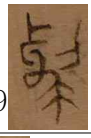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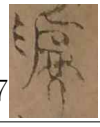
眉東-36 汐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明 金石韻府 ‘夕’	寅簋 尨敦 伯冏父敦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夕)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없음)
비고	四勿簋 ‘夕’
비고	小篆 ‘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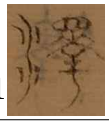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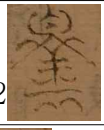
眉東-37 **號**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籀文* 希裕略古 希裕略古 秦權 書統統**
	* 說文籀文 아님 **'六書統'의 誤記로 추정됨
金石韻府	1  2  3  4 
古文韻律	1  2 3  4  5  6  7  8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四 籀韻 四 籀韻 海 海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虎)	四 老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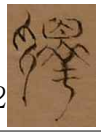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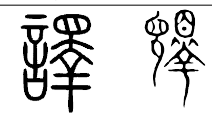
眉東-38 爲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3	古梅樓子 大年說 (1671)	
汗簡文 (1682)	1 2 3 4 5				
明 金石韻府	古孝經 道德經 說文 說文 晉姜鼎 古文 古文 古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3  4 5 6  7 8 9  10 11				
古文韻部	1 2 3 4 5 6 7  8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碧落文 海 海 海 汗 華嶽碑 四 道德經 四 孝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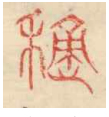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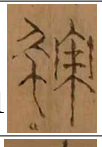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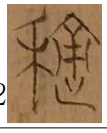
眉東-39 **澤**

척주동해비 (1661 무렵)	
不如嘿田社老 人十八戒 (1671)(추정)	
明 金石韻府	義雲章 庶子碑 碧落文 石鼓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庶子碑 四 義雲章 四 義雲章 海 汗 義雲章 汗 碧落文 碧落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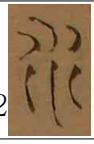
▼眉東-160 **譯**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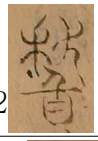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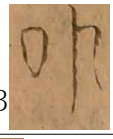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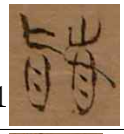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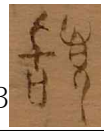
眉東-40 **積**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道德經 義雲章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義雲章 四 老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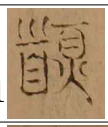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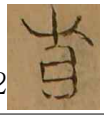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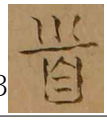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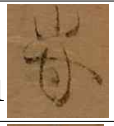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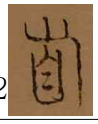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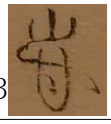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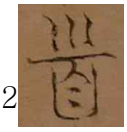
眉東-41 水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李上左佛畫帖跋 (1671년)	
篆宋儒文 (국중 眉叟書帖 중)(미상)	
靑巖水石 (1682)	
明 金石韻府	古老子 雲臺碑 籀文 寶鼎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簡 四 老子 四 雲臺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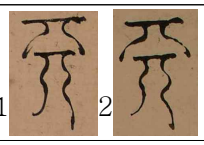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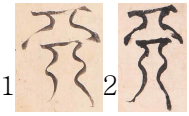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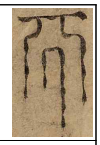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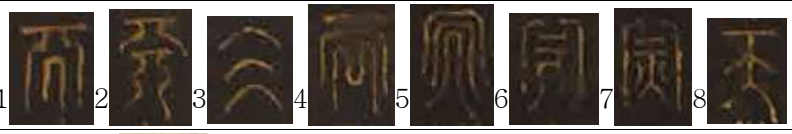
眉東-42 **稽**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尙書 古尙書 汗簡 存乂切韻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尙書 汗 尙書 汗 庶子碑 四 存乂切韻 四 存乂切韻 海
비고	䎽, 䎽는 稽와 同字. 旨는 首의 本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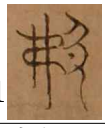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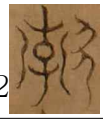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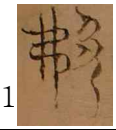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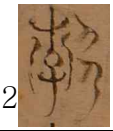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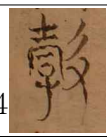
▼眉東-99 首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道德經 伯姬鼎 戠敦 宰辟敦 宰辟敦 齊侯鐘 籀文 汗簡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海 海 海
※비고 古文字의 例	甲骨文 甲骨文 沈子它簋蓋(金) 西周早期 師酉簋(金) 西周中期 天策(楚系簡帛文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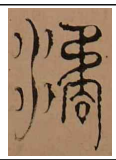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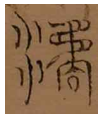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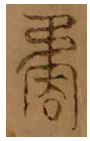
眉東-43 天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篆杜詩 (국중 六一帖) (미상)	
汗簡文 (1682)	
明 金石韻府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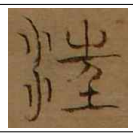
眉東-44 **浡**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明 金石韻府 (勃)	古論語 六書統 六書統 虢叔鬲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勃)	1  2  3 4
古文韻律	(없음)
古文韻部	(없음)
古文韻部 (勃)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渤)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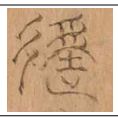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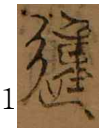
眉東-45 **潀**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 金石韻部 (없음)			
古文韻律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海
明 金石韻府 (譌)	 義雲章 六書統	金石韻府 (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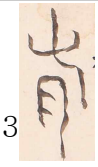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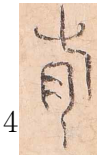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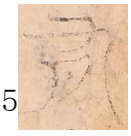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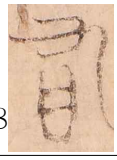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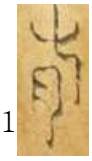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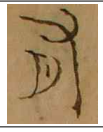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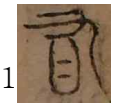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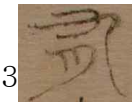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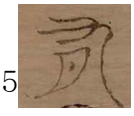
眉東-46 **汪**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明 金石韻府 (往)	 古尙書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部	(없음)
古文韻律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海 海		

眉東-48 **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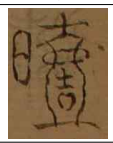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3
明 金石韻府	古老子 古老子 古文 古文 古文 希裕略古 陰符經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尙書 汗 尙書 四 老子 四 陰符經

眉東-49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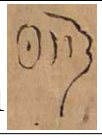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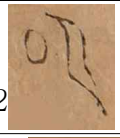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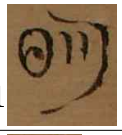
蔡世英 신도비 (1660)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3  4  5  6 7 8 				
古梅樓子大年說 (1671)		李上左佛畫帖跋 (1671)	1  2	不如嘿社老人十八戒 (1671) (추정)	
篆杜詩 (국중 六一帖) (미상)					
明 金石韻府	道德經 季札墓 汗簡 漢鑑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3  4 5  6 7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季札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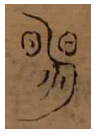
眉東-50 **暟**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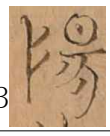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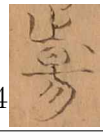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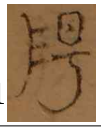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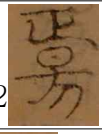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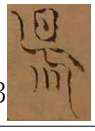
眉東-51 **明**

蔡世英 신도비 (1660)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李上左佛畫帖跋 (1671)	篆宋儒文 (국중 眉叟書帖) (미상)
明 金石韻府	古孝經 汗簡 道德經 古尙書 希裕略古 古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目錄 四 老子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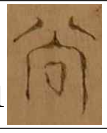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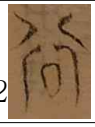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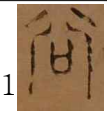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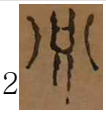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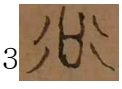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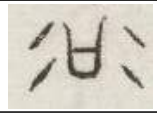
眉東-52 **暘**

척주동해비		古文韻律		說 文 小 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明 金石韻府 / 金石韻府 / 古文韻部 (없음)					

▼眉東-55 **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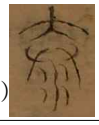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韓五奎 묘갈	
明 金石韻府	 道德經 敔敦 陀鼎 師艅彝 說文 說文 說文 說文		
金石韻府	1 2 3  4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海		

眉東-53 谷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元天錫 묘갈 (1660~67 추정)	
贈慧師序 (1668)	
明 金石韻府	汗簡 道德經 道德經 師虩敦 六書統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5 6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四 老子
참조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 <師虩敦> '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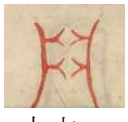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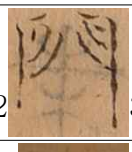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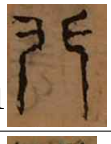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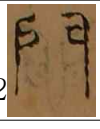
眉東-54 太(泰)

權太師 신도비 (1659)		척주동해비 (1661 무렵)		丹書之戒 (1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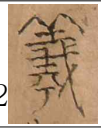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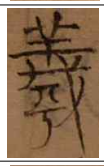
明 金石韻府 (太)	古老子 鐘鼎文 六書 六書
明 金石韻府 (泰)	道德經 汗簡 古老子 華嶽碑 雲臺碑
金石韻府 (泰)	1 2 3
金石韻府 (太)	1 2 3
古文韻律	1(泰) 2(泰)  3(泰) 4(太)
古文韻部 (太)	1 2 3 4 5 6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泰, 太)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華嶽碑 四 老子 四 老子

※ 《說文》: “泰, 滑也. 从廾, 从水, 大聲. 𡍮, 古文泰.”

眉東-56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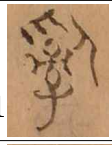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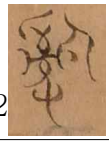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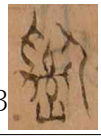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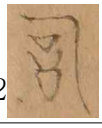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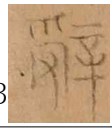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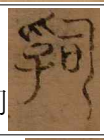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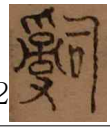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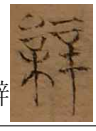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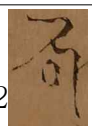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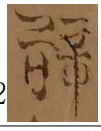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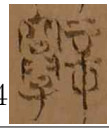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贈慧師序 (1668)	
明 金石韻府	汗簡 古孝經 古道德經 古道德經 華嶽碑 王存乂切韻  古文		
金石韻府	1 2  3 4 5 6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目錄 四 老子 四 汗簡 海		

眉東-57 **義**

척주동해비 (原稿)		척주동해비 (碑文)388)	
明 金石韻府	 古孝經　六書統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孝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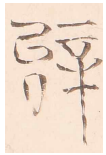
38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原稿)와 현재 전하는 비문의 자형(字形)이 다름.

眉東-59 **嗣**(司)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李曼 신도비 (司) (1675년 이후)	
明 金石韻府 (司)	 伯鄙父鼎 司敗匜 司空彝 戠敦 宰辟父敦		
明 金石韻府 (辭)	 籀文 籀文 古文 牧敦 汗簡 王存乂切韻		
金石韻府 (司)	1  2  3 		
金石韻府 (辭)	1 2  3 		
古文韻律	司  辭1 辭2  辞 		
古文韻部	司1 司2  辭1 辭2  辭3 辭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司)	 說文小篆 汗 目錄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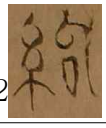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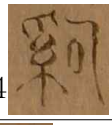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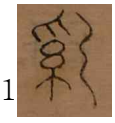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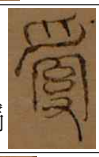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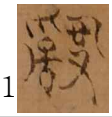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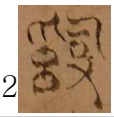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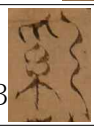
<table>
<tr><td>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嗣)</td><td colspan="3">
說文小篆

說文籀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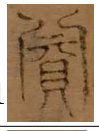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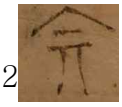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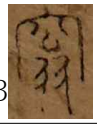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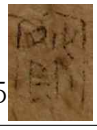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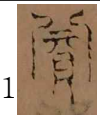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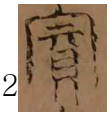
汗 尙書</td></tr>
<tr><td>※척주동해비
(治=嗣)</td><td> </td><td>※四勿箴
‘辭(辞)’
(1666)</td><td>  </td></tr>
<tr><td>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辞)</td><td>
說文小篆

說文籀文</td><td colspan="2">※《說文》：“司，臣司事於外者．从反后.”
※《說文》：“辭，訟也．从屬，屬猶理辜也．屬，理也．嗣，籀文辭从司.”
※《說文》：“舜，不受也．从辛，从受．受辛宜舜之．辞，籀文辭从台.”</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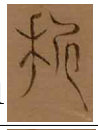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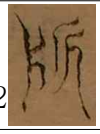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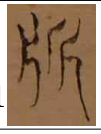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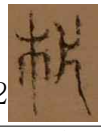
▼眉東-59a 嗣(治)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治)	 義雲章 義雲章 古孝經 古孝經 微欒鼎 師毁敦
金石韻府 (治)	1 2  3 4  5
古文韻律 (治)	1  2 ※ 
古文韻部 (治)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治)	 說文小篆 汗 汗 存乂切韻 四 孝經 海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嗣)	 說文小篆 說文籀文 汗 尙書
※《說文》:“治, 水. 出東萊曲城陽丘山, 南入海. 从水, 台聲.”	
※《說文》:“辭, 訟也. 从屬, 屬猶理辜也. 屬, 理也. 嗣, 籀文辭从司.”	
※《說文》:“屬, 治也. 幺子相亂, 受治之也. 讀若亂同. 一曰理也. 爰, 古文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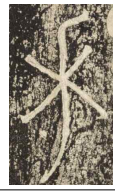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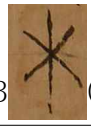
眉東-60 **賓**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道德經 古尙書 古尙書 存乂切韻 存乂切韻 存乂切韻 張仲簋 夏鉤帶 丙寅卣
金石韻府	1 2 3 4
古文韻律	1  2  3  4 5 
古文韻部	1  2  3 4 5 6 7 8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存乂切韻 汗 尙書 汗 尙書

眉東-61 **析**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尙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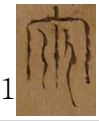
眉東-62 木

척주동해비 (原稿) (1661 무렵)		척주동해비 (碑文)[389] (1661 이후)	
篆宋儒文 (국중 眉叟書帖) (미상)			
明 金石韻府	小篆 汗簡 古文 六書統		
金石韻府	1 2 3  (古文) 4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38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原稿)와 현재 전하는 비문의 자형(字形)이 다름.

眉東-63 次

척주동해비 (原稿) (1661 무렵)		척주동해비 (碑文)390) (1661 이후)		四勿箴 (1666)	

明 金石韻府	天台經幢 義雲章 義雲章 義雲章 朱育集字 朱育集字 希裕略古
*說文古文 아님	說文 古文* 古文* 古文* 古文* 古文*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1 2 3 4 5
古文韻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四 義雲章 四 庶子碑 海

眉東-64 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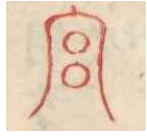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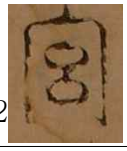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海

眉東-65 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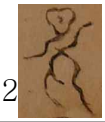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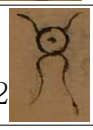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 2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39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고(原稿)와 현재 전하는 비문의 자형(字形)이 다름.

眉東-66 **宮**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義雲章 華嶽碑  南宮中鼎 汗簡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簡 四 華嶽碑 四 汗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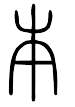
眉東-67 日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古梅樓子大年說 (1671)		眉翁心畫 (규장각 소장) (미상)	
篆杜詩 (국중 六一帖) (미상)		篆宋儒文 (국중 眉叟書帖) (미상)	
明 金石韻府	汗簡 古老子 古老子 華嶽碑 商鐘 商鐘 商鐘 古文 古文 古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目錄 汗 華嶽碑 海 海		
비고 (※歷代鐘鼎彝器款識)	* ** ***	*卷1 商鐘一 出維楊石本 **卷1 商鐘二 出古器物銘 ***卷1 商鐘三 出博古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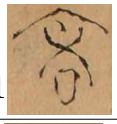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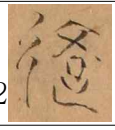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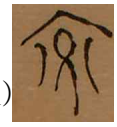
▼眉東-90 月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古梅樓子 大年說 (1671)		眉翁心畫 (규장각 소장) (미상)	
篆杜詩 (국중 六一帖) (미상)		汗束文 (1682)	
明 金石韻府	汗簡 商鐘 商鐘 商鐘 齊侯鎛 大夫始鼎 齊姜鼎 古文		
金石韻府	1 2 3 4 5		
古文韻律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四 汗簡		
비고 (※歷代鐘鼎 彝器款識)	* ** *** ****	*卷1 商鐘一 出維楊石本 **卷1 商鐘二 出古器物銘 ***卷1 商鐘三 出博古錄 ****卷1 商鐘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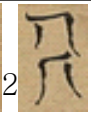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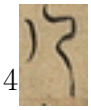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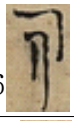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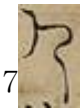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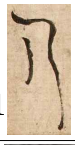
眉東-68 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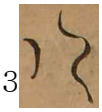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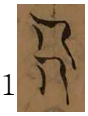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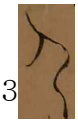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贈慧師序 (1668)	
李上左佛畫帖跋 (1671)	
明 金石韻府	古孝經 古孝經 道德經 六書統 六書統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尙書 四 老子 四 孝經 四 孝經 四 尙書 海

眉東-69 **鮫** cf.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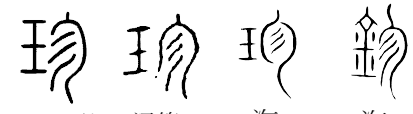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鮫)		四勿箴 (交)	
明 金石韻府	(없음)		
※明　金石韻府 (交)	道德經 義雲章 敦盤 交父彝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交)	1  2 		
古文韻律	※(交) 		
古文韻部	(없음)		
※古文韻部 (交)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鮫)	說文小篆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交)	說文小篆 汗 目錄 汗簡 四 老子 四 義雲章		

眉東-70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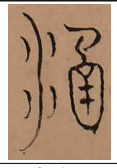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3 4 5 6 7		
贈慧師序 (1668)	1 2		
古梅樓子大年說 (1671)	1 2	李上左佛畫帖跋 (1671)	1 2
不如嘿社老人十八戒 (1671)	1 2  3 4  5 6  7  8		
篆邵雍詩 (국중 海東名筆帖) (미상)	1  2	篆宋儒文 (국중 眉叟書帖) (미상)	1 2
韓五奎 묘갈			
丹書之戒 (1681)	1 2		
汗衆文 (1682)	1 2 3 4 5 6 7		

明 金石韻府	古孝經 汗簡 古老子 華嶽碑 雲臺碑 存乂切韻 存乂切韻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1 2 3 4
古文韻部	1  2 3  4 5 6 7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眉東-71 **珍**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存乂切韻　六書統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簡　海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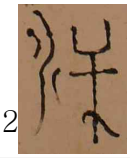
眉東-72 **涵**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없음)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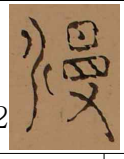
眉東-73 **産**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華嶽碑　夏鈞帶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華嶽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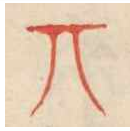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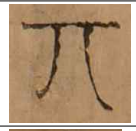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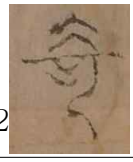
眉東-74 汗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汗東文 (1682)	1 2 3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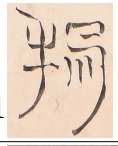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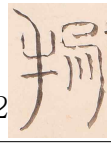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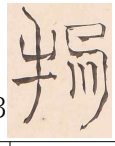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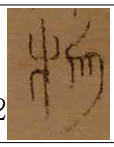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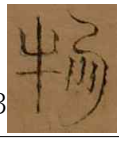
眉東-75 漫

척주동해비	1 2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曼)	 說文小篆		

眉東-76 **奇**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道德經　汗簡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道德經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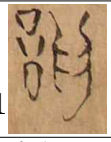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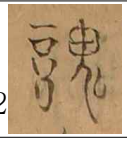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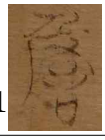
眉東-77 物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3 
古梅樓子大年說 (1671)	1 2
李上左佛畫帖跋 (1671)	
汗柬文 (1682)	1 2 3 4 5 6
明 金石韻府	(없음)
明 金石韻府 (勿)	說文 石鼓文 義雲章 道德經 龏敦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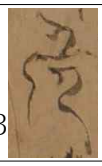
眉東-78 **譎**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義雲章 六書統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義雲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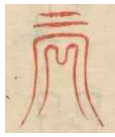
眉東-79 **詭**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說文 古史記 六書統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四 說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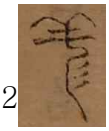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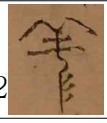
※眉東-79-1 危

篆武王銘 (민박 眉叟篆帖) (1642)			
四勿箴 (1666)		丹書之戒 (1681)	
明 金石韻府	 古孝經 汗簡 古尙書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目錄 汗 尙書 四 孝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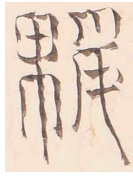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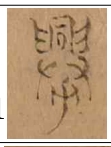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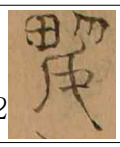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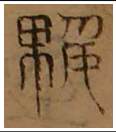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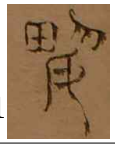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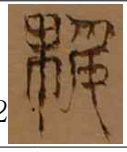
眉東-80 **宛**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碧落文　六書統
金石韻府 / 古文韻律 /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或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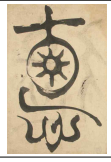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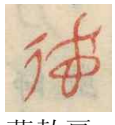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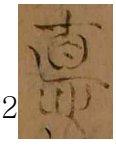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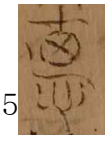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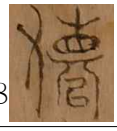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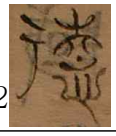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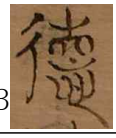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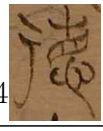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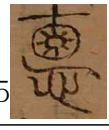
眉東-81 **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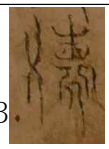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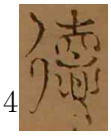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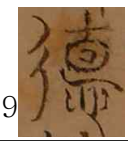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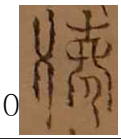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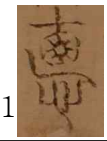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眉翁心畫 (규장각 소장) (연도 미상)	
明 金石韻府	 古老子　說文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眉東-82 **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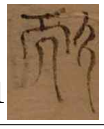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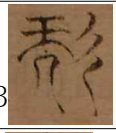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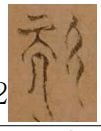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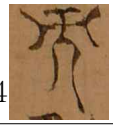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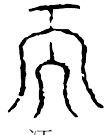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明 金石韻府	 古孝經 義雲章 雲臺碑 六書統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義雲章 四 孝經 四 義雲章 四 雲臺碑 四 籀韻 海 海		

眉東-83 **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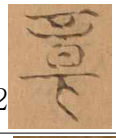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四勿箴 (1666)		不如嘿田社老人 十八戒 (1671)(추정)	
眉翁心畫 (규장각 소장) (연도 미상)		汗束文 (1682)	
明 金石韻府	古孝經 古孝經 道德經 道德經 庶子碑 庶子碑 雲臺碑  蔑敖鬲 盉和鐘 師艅尊 碧落文		
金石韻府	1 2  3 4 5  6 7 8 		
古文韻律	1 2  3  4  5  6		

古文韻部	1 2 3  4  5 6 7 8 9  10  11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碧落文 碧落文 汗 庶子碑 四 老子 四 孝經 四 雲臺碑 海 海 海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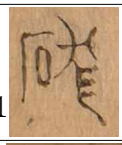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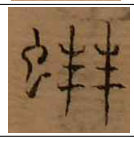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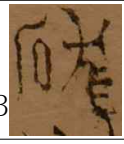
眉東-84 而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3 4
汗柬文 (1682)	
明 金石韻府	 古孝經 汗簡 汗簡 庶子碑 齊侯鎛 古文*
金石韻府	(없음) *說文古文 아님
古文韻律	1  2 3  4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汗 庶子碑 汗 說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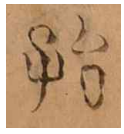
眉東-85 **章**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明 金石韻府	道德經 華嶽碑 大夫始鼎 大夫始鼎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華嶽碑 四 老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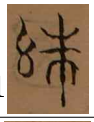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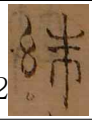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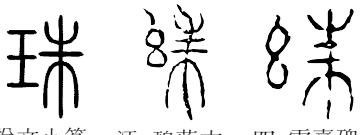
眉東-86 **蚌**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說文 六書統 六書統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海 '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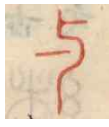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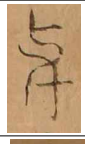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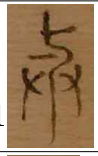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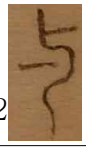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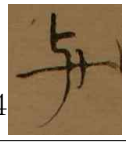
眉東-87 **胎**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六書統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眉東-88 **珠**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雲臺碑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碧落文 四 雲臺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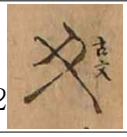
眉東-89 **與**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3
丹書之戒 (1681)	
汗衆文 (1682)	
明 金石韻府	道德經 說文 古孝經  六書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3 4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四 老子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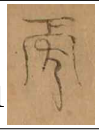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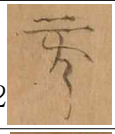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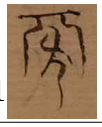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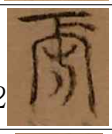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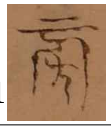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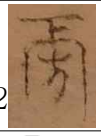
眉東-91 **盛**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없음)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碧落文 碧落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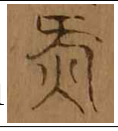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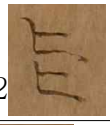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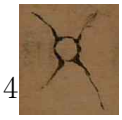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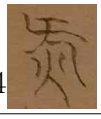
眉東-92 **衰**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說文 存乂切韻 存乂切韻 古文 古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3 4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說文 四 存乂切韻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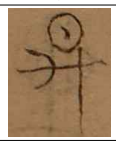
眉東-93 旁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李上左佛畫帖 跋 (1671)	
明 金石韻府	義雲章 雲臺碑 尹卣 육서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旁)*	1  2  *旁은 旁과 同字(異形字)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籀文 說文古文 說文古文 四 義雲章 四 說文 四 說文

眉東-94 **氣**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明 金石韻府	天台經幢 天台 汗簡 碧落文 六書統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3 4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或體 說文或體 碧落文 碧落文 汗 義雲章 汗 淮南子 上升記 汗 碧落文 汗 說文 四 天台碑 四 天台碑 四 汗簡 四 碧落文 海
비고	※氣,槩,餼,, 旣, 气, 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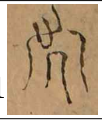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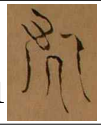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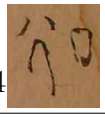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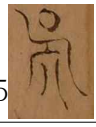
眉東-95 昇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明 金石韻府 (升)	 古文* *說文古文 아님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升)	 說文小篆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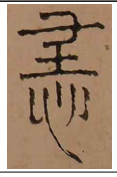
眉東-96 **霏**(霏)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明 金石韻府 (飛)	 汗簡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霏)	 說文小篆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飛)	 汗 碧落文 四 汗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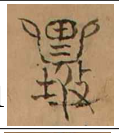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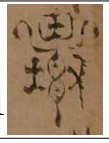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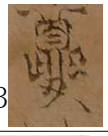
眉東-97 **吳**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義雲章 義雲章 王子吳鼎 王存乂切韻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四 義雲章 四 存乂切韻

眉東-100 **怪**

척주동해비 (1661 무렵)		不如嘿田社老人十八戒 (1671)(추정)	1 2
明 金石韻府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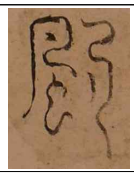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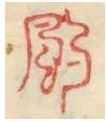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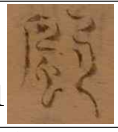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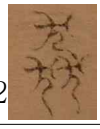
眉東-101 **夔**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齊侯鐘 齊侯鐘 夔鼎 素腹鼎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存乂切韻 齊侯鐘*
	*歷代鐘鼎彝器款識 권8 齊侯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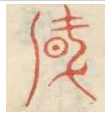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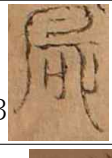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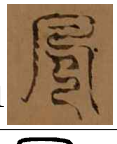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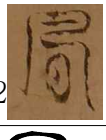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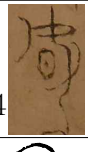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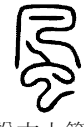
眉東-103 **股**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六書統 六書統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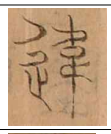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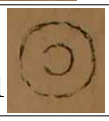
眉東-104 **颱**(飓, 颱)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飄)	假借  六書統 道德經 義雲章
金石韻府 (飄)	
古文韻律 (飓)	
古文韻律 (飄)	1 2 ※2는 票의 자형.
古文韻部 (飓)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飓, 颱)	說文小篆 說文或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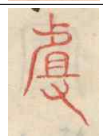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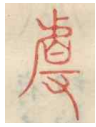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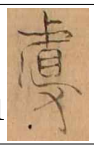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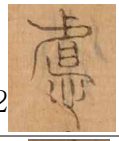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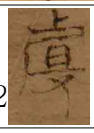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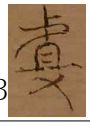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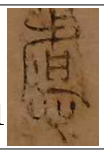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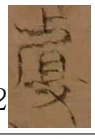
▼眉東-169 **風**

척주동해비 (1661 무렵)			
眉翁心畫 (미상)		篆杜詩 (국중 六一帖) (미상)	
明 金石韻府	道德經 道德經 王庶子碑 王庶子碑  雲臺碑 存乂切韻 存乂切韻 存乂切韻 汗簡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4  5 6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庶子碑 四 庶子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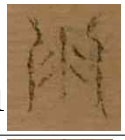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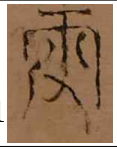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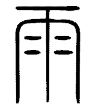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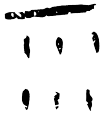
眉東-105 回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義雲章 假借 假借
金石韻府	 ※附記: 回 假借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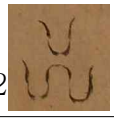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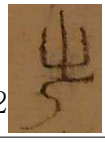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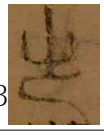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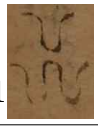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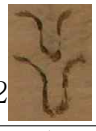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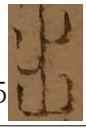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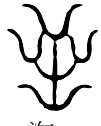
眉東-106 且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贈慧師序 (1668)	
明 金石韻府	 古尙書  道德經 希裕略古 希裕略古 希裕略古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庶子碑 四 老子 四 尙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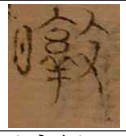
眉東-107 **雨**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道德經 雲臺碑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目錄 四 老子 四 老子
참조	甲骨文  甲骨文 金文 子雨己鼎 商代晚期 金文 戰國晚期

眉東-108 出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古梅樓子大年說 (1671)	
汗東文 (1682)	
明 金石韻府	道德經 道德經 汗簡 汗簡 汗簡 汗簡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3  4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簡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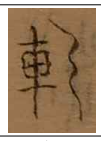
眉東-109 **暾**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敦)	說文小篆 碧落文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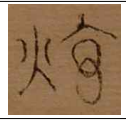
眉東-110 **轇**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없음)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翏)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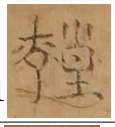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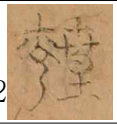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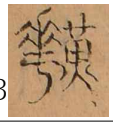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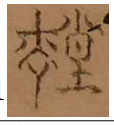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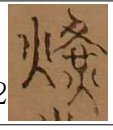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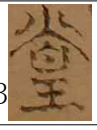
眉東-111 **軋**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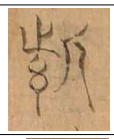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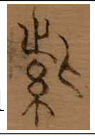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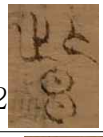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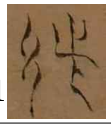
眉東-112 **炫**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玄)	 說文小篆 說文古文 碧落文		

眉東-113 **煌**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鐘鼎文 鐘鼎文 鐘鼎文 鐘鼎文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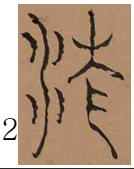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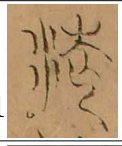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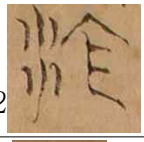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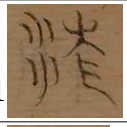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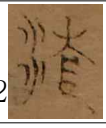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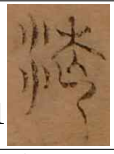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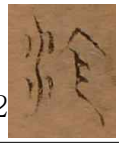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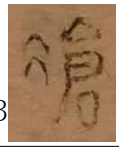
眉東-114 **紫**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光遠集綴　六書統
明 金石韻府 (此)	 張揖集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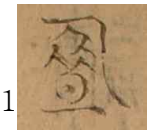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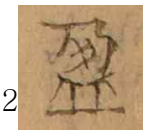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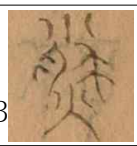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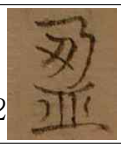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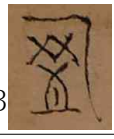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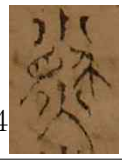
眉東-115 赤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義雲章 汗簡 古尙書 寅簋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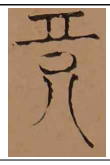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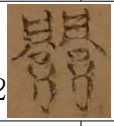
眉東-116 **滄**

척주동해비	1 2 
明 金石韻府	 古尙書 古文* 古文* 希裕略古 *說文古文 아님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尙書

眉東-119 **盈**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道德經 道德經 道德經 古文* 籀文* 雲臺碑 雲臺碑 *說文古文, 說文籀文 아님
金石韻府	1  2  3  4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四 三方碑 四 雲臺碑

眉東-120 **鏡**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鏡)	 漢四神鑑 漢十二神鑑 古文		
明 金石韻府 (竟)	 義雲章 光遠集綴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鏡, 竟 없음)	古文韻部	(없음)
古文韻部 (竟)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竟)	 說文小篆 四 義雲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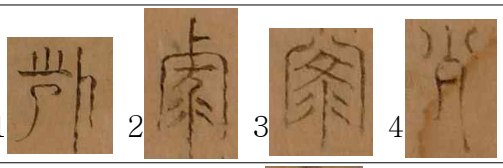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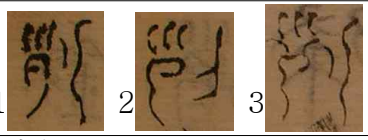
眉東-121 **圓**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金石韻府 古文韻部	(없음)
古文韻律 (圜, 圓)	1 (圜,圓通用) 2 (圓,圜通用) 3 (圜)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義雲章 四 義雲章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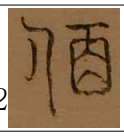
眉東-122 靈

척주동해비 (1661 무렵)	
篆邵雍詩 (국중 海東名筆帖)(미상)	
明 金石韻府	道德經 山海經 古尙書 古尙書 齊侯鎛 齊侯鐘 六書統 古文※ ※說文古文 아님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或體 碧落文 四 老子 四 尙書 四 尙書
비고	靈=霝=霝=靈=霝=䨻=䨻=霝 眉叟 작품례, 碧落文, 古老子 자형 등은 霝의 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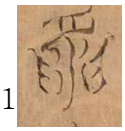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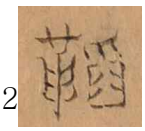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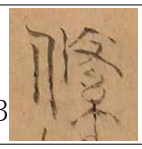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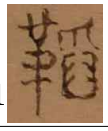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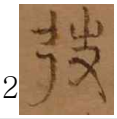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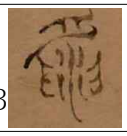
眉東-123 **列**

척주동해비 (1661 무렵)	
贈慧師序 (1668)	
明 金石韻府	 古尙書 義雲章 義雲章 雲臺章 鐘鼎文
金石韻府	 1 2 3 4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尙書 四 尙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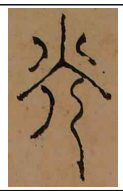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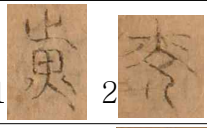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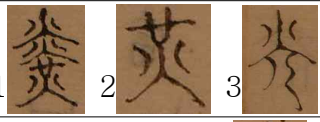
眉東-124 **宿**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비고	宿의 聲部인 佰은 夙의 古文임. 《說文》: “宿, 止也. 从宀, 佰聲. 佰, 古文夙.” 《說文》: “夙, 早敬也. 从丮. 持事雖夕不休, 早敬者也. 佰, 古文夙, 从人、丙. 佰, 亦古文夙, 从人、丙. 宿从此.”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夙)	 說文小篆 說文古文 說文古文 汗 尙書 四 尙書 四 尙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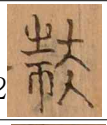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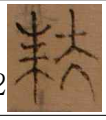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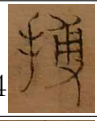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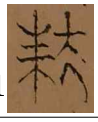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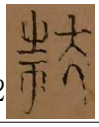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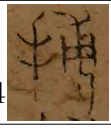
眉東-125 **韜**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道德經 說文 六書統 六書統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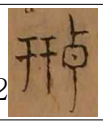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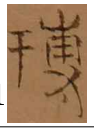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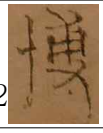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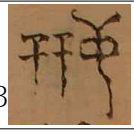
眉東-126 光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古梅樓子大年說 (1671)		李上左佛畫帖跋 (1671)	
眉翁心畫 (미상)			
明 金石韻府	 古孝經 道德經 道德經 碧落文 鐘鼎文 鐘鼎文 鐘鼎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說文古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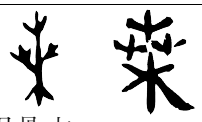
眉東-127 扶(搏)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存乂切韻 光遠集綴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扶)	1 2  3 4 
古文韻部 (扶)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扶)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存乂切韻 汗 裘光遠集綴 四 存乂切韻 海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搏)	 說文小篆
비고 *척주동해비 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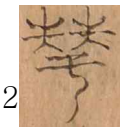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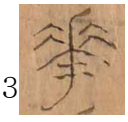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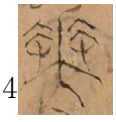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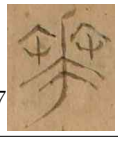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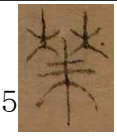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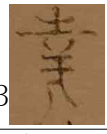
▼眉東-167 博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孝經 義雲章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義雲章 四 孝經
비고 *척주동해비 扶(搏)	

眉東-128 桑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希裕略古 古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崔希裕纂古 四 崔希裕纂古 海
비고1	《說文》 木部 桑“桑，蠶所食葉木. 从叒、木.” 《說文》 叒部 叒“叒，日初出東方湯谷所登榑桑，叒木也. 象形. 凡叒之屬，皆从叒. 桑，籀文.” 《說文》 艸部 若“若，擇菜也. 从艸、右. 右，手也. 一曰杜若，香艸.” ※叒은 원래 若의 원자(原字)인 이나 『설문해자』에서는 若木(扶桑)의 의미를 가진 독립된 글자로 보았음.
비고2 桑의 고문자 용례	 甲骨文 睡虎地秦簡

眉東-129 **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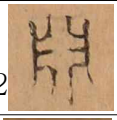
李昌庭 신도비 (1660)(추정)		척주동해비 (1661 무렵)		篆宋儒文 (국중 眉叟 書帖) (미상)	
明 金石韻府	道德經	道德經	古莊子	存義*切韻	華嶽碑	汗簡	雲臺碑
*乂의 잘못 ※ 說 文 籀 文 아님	籀文※	鐘鼎	鐘鼎	鐘鼎	鐘鼎	鐘鼎	鐘鼎	鐘鼎
金石韻府	1 2  3  4  5 6 7 					
古文韻律	1 2 3 4 5  6 7 8					
古文韻部	1 2 3  4 5					
說 文 小 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海	海				

眉東-130 **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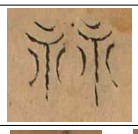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原稿) (1661 무렵)		척주동해비 (碑文)[391] (1661 이후)	
明 金石韻府	 汗簡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四 老子 海		

391) 원고본과 비문의 '黑'이 기본적 결구는 같으나 제3,4획의 점 두 개의 모양이 약간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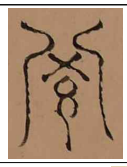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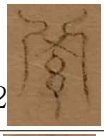
眉東-131 **齒**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雲臺碑 汗簡 六書統 古文 古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四 雲臺碑 四 崔希裕纂古

眉東-132 **麻**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希裕略古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四 崔希裕纂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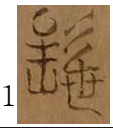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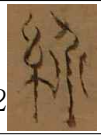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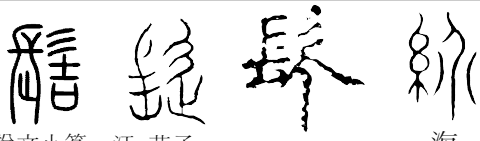
眉東-133 **羅**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華嶽碑 庶子碑 雲臺碑 雲臺碑 雲臺碑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華嶽碑 汗 華嶽碑 汗 碧落文 四 庶子碑 四 雲臺碑 四 華嶽碑

眉東-134 **撮**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 金石韻府/ 古文韻律 /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最)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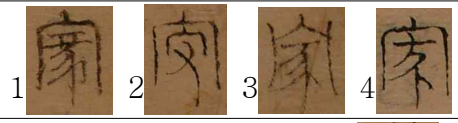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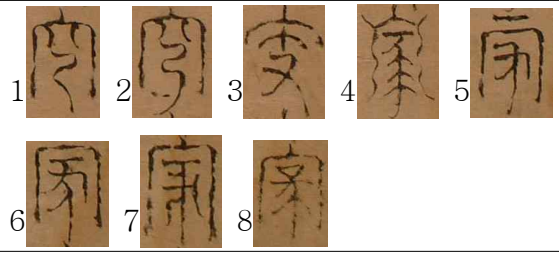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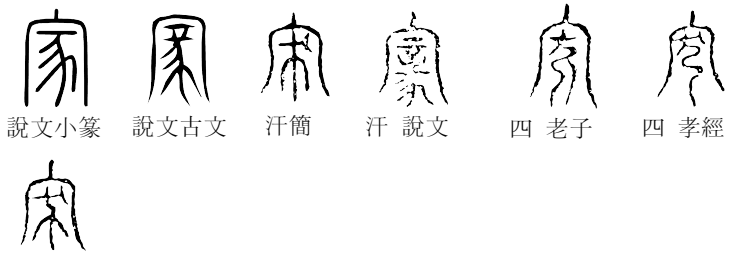
眉東-135 **鬊**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莊子 古文※ 假借 ※說文古文 아님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莊子 四 崔希裕纂古 海

眉東-136 **莆**

척주동해비		古文韻律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明 金石韻府 / 金石韻部 / 古文韻部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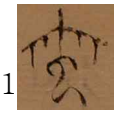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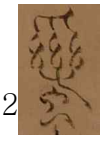
眉東-137 **家**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道德經 古孝經 說文 石經 希裕略古 鎛鐘 鎛鐘 齊侯鐘 商鐘 商鐘 商鐘 鐘鼎文 古文 古文
金石韻府	 1 2 3 4 5
古文韻律	 1 2 3 4
古文韻部	 1 2 3 4 5 6 7 8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簡 汗 說文 四 老子 四 孝經 四 石經

眉東-138 **蟺**(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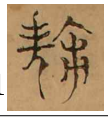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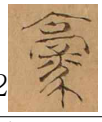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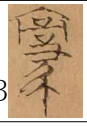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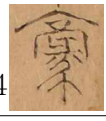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明 金石韻府 (蟬)	小篆 六書統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蟺)	說文小篆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蜑)	說文小篆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蟬)	海		

眉東-139 **蠻**

척주동해비	1(原稿) 1(碑文)[392] 2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392) 蠻 제1자의 원고본과 비문의 결구가 대체로 같으나 아래 '虫' 부건(部件)의 모양이 약간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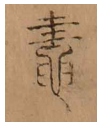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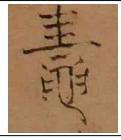
眉東-140 **蠔**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說文古文 아님.
明 金石韻府 (豪)	 古爾雅 道德經 道德經 道德經 古文※ 古文※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豪)	1  2  3  4 
古文韻律 /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豪)	 說文小篆 說文籀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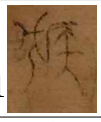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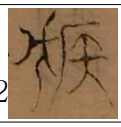
眉東-141 爪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小篆 老子 說文*	金石韻府	
古文韻律 / 古文韻部 (없음)	*說文解字의 자형 아님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目錄 四 老子 四 籀韻 四 庶子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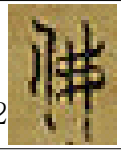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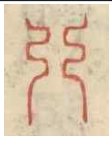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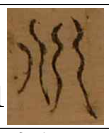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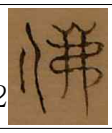
眉東-142 **黿**(蛙)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蛙)	 小篆 說文	金石韻府 (蛙)	
古文韻律 (蛙)		古文韻部 (蛙)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黿)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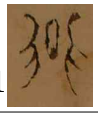
眉東-143 **猴**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明 金石韻府 (侯)	 古孝經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部	(없음)
古文韻律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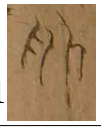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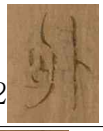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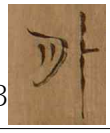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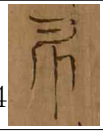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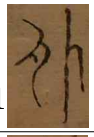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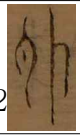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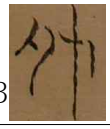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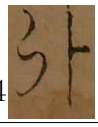
眉東-144 **佛**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李上左佛畫帖 跋 (1671)	1 2 
明 金石韻府	(없음)
明 金石韻府 (弗)	 古尙書 義雲章 龙敦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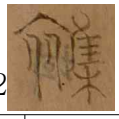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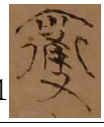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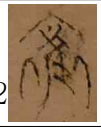
眉東-145 **齊**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汗簡 雲臺碑 古史記 商隱字略 遲父鐘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1 2 (攝齊)*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史記 汗 尙書
비고	古文韻律 제2 자형에는 '攝齊'란 附記가 있음. 즉 이 자형의 '齊'는 '攝齊'의 의미로 쓰일 때의 '齊' 자형이란 뜻임. '섭제'는 升堂 등의 경우 조심하기 위해 옷자락을 드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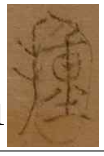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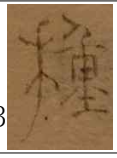
眉東-146 外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3
明 金石韻府	 古老子 義雲章 老敦 齊侯鐘
金石韻府	1  2  3  4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義雲章 四 老子 四 崔希裕纂古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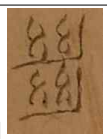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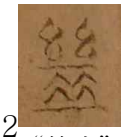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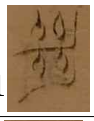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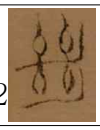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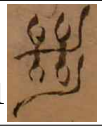
眉東-147 **雜**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寅簋 雲臺碑 敔敦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雲臺碑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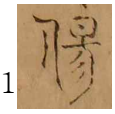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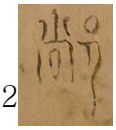
眉東-148 **種**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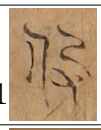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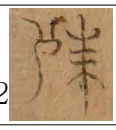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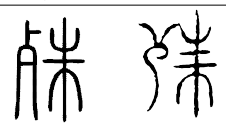
眉東-149 **絶**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李上左佛畫帖 跋 (1671)	
明 金石韻府	 道德經 林罕集 古文 籀文
金石韻府	  1 “絶古” 2 “籀文”
古文韻律 (絶)	  1 2
古文韻律 (絕)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說文》：“絶，斷絲也．从糸，从刀，从卩．𢆶，古文絶，象不連體，絶二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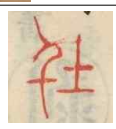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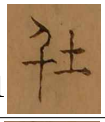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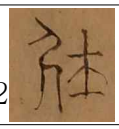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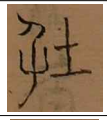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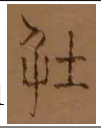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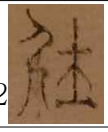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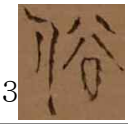
眉東-150 **黨**

척주동해비		韓五奎 묘갈	
明 金石韻府	 庶子碑 籀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庶子碑 四 籀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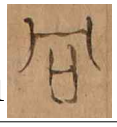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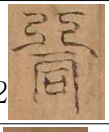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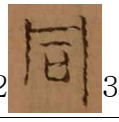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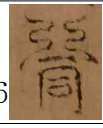
眉東-151 **殊**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義雲章 古尙書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尙書

眉東-152 **俗**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孝經 古老子 碧落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碧落文 汗 碧落文 汗 老子 四 碧落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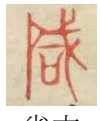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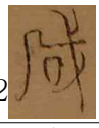
眉東-153 **同**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篆杜詩 (국중 六一帖 중) (미상)	
明 金石韻府	 古孝經 道德經 道德經 郙敦 商鐘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5 6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道德經 四 孝經		

眉東-154 **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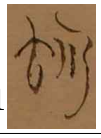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籀文	明 金石韻府 (有)	 南嶽碑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籀文		

眉東-155 **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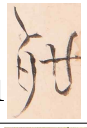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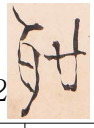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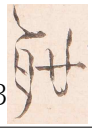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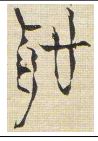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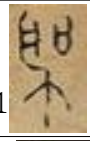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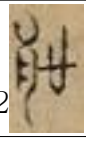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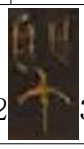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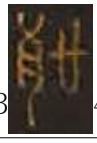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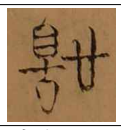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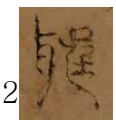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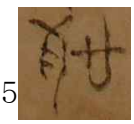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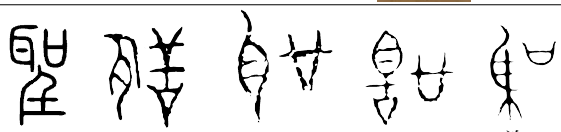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汗東文 (1682)	
明 金石韻府	 庶子碑 盉和鐘 齊侯鐘 省文 說文		
金石韻府	(없음)[393]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海		

393)『金石韻府』 下平聲에는 '侯'韻部 이후 '幽・侵・覃・談・鹽・咸・嚴・銜・ 凡' 운부가 누락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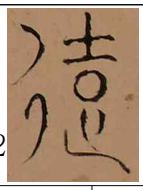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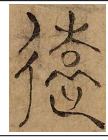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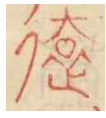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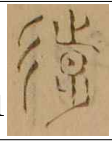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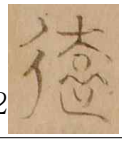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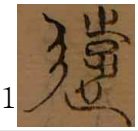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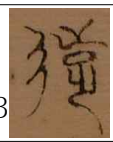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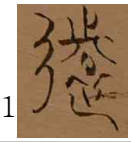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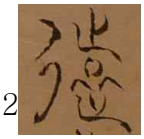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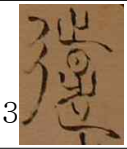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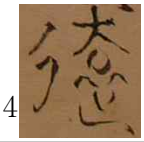
眉東-156 **育**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汗東文 (1682)	
明 金石韻府	 古孝經 說文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毓)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或體 四 老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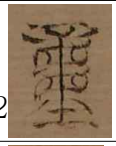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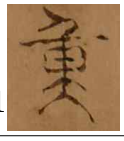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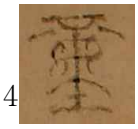
眉東-157 **聖**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3  4
贈慧師序 (1668)	
不如嘿田社老人 十八戒 (1671)	1  2 
汗東文 (1682)	1 2  3  4 5 6 7
明 金石韻府	 古孝經 道德經 華嶽碑 師簴敦
金石韻府	
古文韻律	(없음)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華嶽碑 四 老子 四 孝經 海
참조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 권14 <師簴敦> '聖'

眉東-158 **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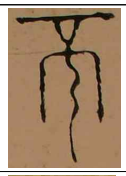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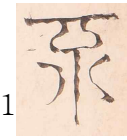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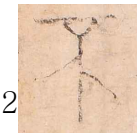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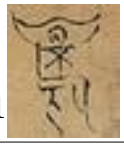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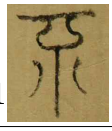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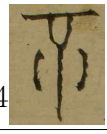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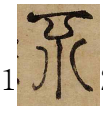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贈慧師序 (1668)	篆杜詩 (국중 六一帖) (미상) 
明 金石韻府	道德經 古尙書 聿遠鬲 秦權 秦權  古文※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四 老(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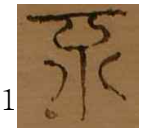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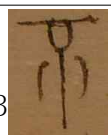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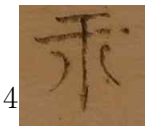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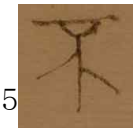
眉東-159 **重**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古梅樓子大年說 (1671)		李上左佛畫帖跋 (1671)	
明 金石韻府	汗簡 古文 古文 汾陰宮鼎 汾陰宮鼎		
金石韻府	(없음)[394]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4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魏石經 汗 義雲章 海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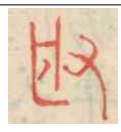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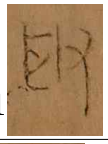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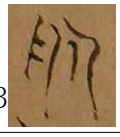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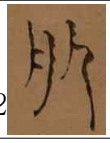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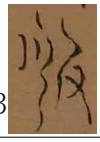
394)『金石韻府』 去聲 送・宋・用・絳・寘部가 누락되어 있음.

眉東-161 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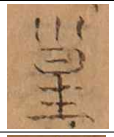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李上左佛畫帖跋 (1671)		古梅樓子大年說 (1671)	
不如嘿田社老人十八戒 (1671)(추정)	1  2 3		
丹書之戒 (1681)	1  2 3 4 		
篆杜詩 (국중 六一帖) (미상)	1  2	篆邵雍詩 (국중 海東名筆帖) (미상)	
汗簡文 (1682)	1 2 3 4 5 6 7 8 9 10 11 12		
明 金石韻府	 古孝經 夏鉤帶 商鐘 商鐘 說文 說文		

金石韻府	
古文韻律	1  2 3  4  5  6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蔡邕石經 四 孝經
비고 (※歷代鐘鼎彝器款識)	卷1 夏器款識 夏鉤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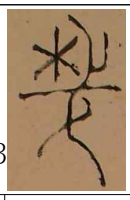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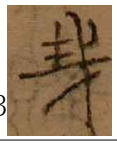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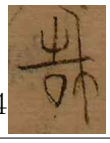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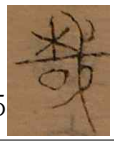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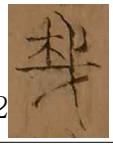
眉東-162 **服**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明 金石韻府	古孝經 寅簋  戩敦 道德經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說文古文 汗 說文 汗 義雲章 四 孝經 四 籀文 四 籀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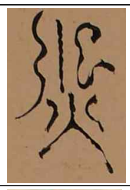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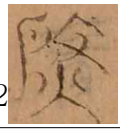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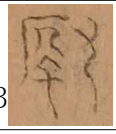
眉東-163 皇

篆武王銘 (민박 소장 眉叟篆帖) (1642)	1 2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明 金石韻府	古尙書 孟皇父匜 齊侯鐘 齊侯鐘 大風歌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尙書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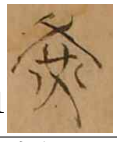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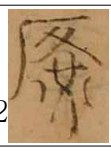
眉東-164 **哉**

척주동해비 (1661 무렵)	1 2 3 
四勿箴 (1666)	
篆宋儒文 (국중 眉叟書帖) (미상)	
明 金石韻府	 碧落文 穆公鼎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1 2 3  4  5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碧落文 四 碧落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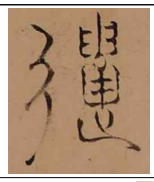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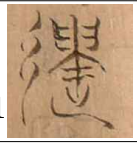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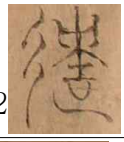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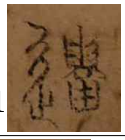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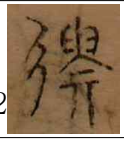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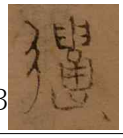
眉東-165 熙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尙書 籀文 籀文 道德經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古文韻律 (配)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尙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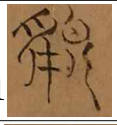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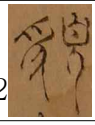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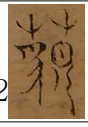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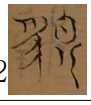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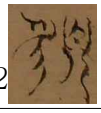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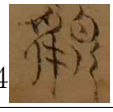
眉東-166 **廣**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老子 義雲章 汗簡 穆公鼎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없음)
古文韻部	(없음)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義雲章 四 老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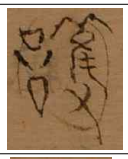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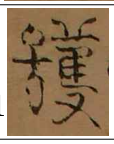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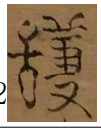
眉東-168 **遺**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孝經 雲臺碑 籀文 六書統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1  2  3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簡 四 孝經 四 雲臺碑 海
※비고 古文字 자료 (金文)	雁侯見工鐘 (西周中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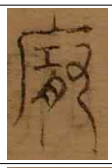
眉東-170 邈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貌)	義雲章 籀文 籀文 書統 書統
金石韻府 (貌)	1  2 
古文韻律 (邈)	
古文韻律 (藐)	1 2  3
古文韻律 (貌)	1 2  3 4
古文韻部 (貌)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邈)	汗簡 四 義雲章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藐)	碧落文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貌)	說文小篆 說文籀文 汗 義雲章 四 義雲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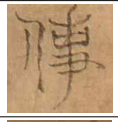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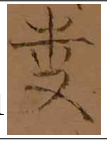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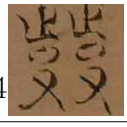
眉東-171 **護**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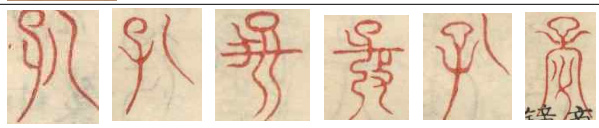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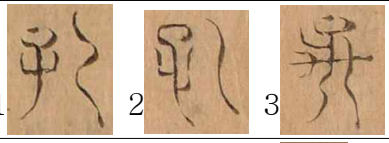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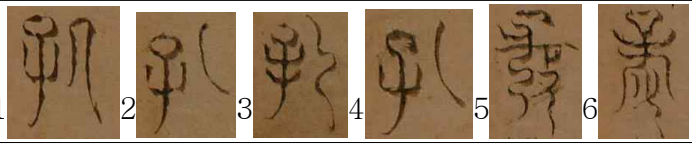
眉東-172 府

李元翼 신도비 (1635)	1 2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李聖求 신도비 (1675년 이후)	
明 金石韻府	(없음)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古文韻部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濟南碑文 海
비고 府 고문자 용례	金文 鄂君啓舟節 金文 少府銀圜器 楚簡 荊門包山竹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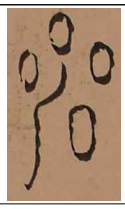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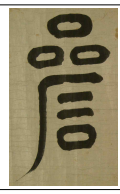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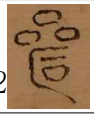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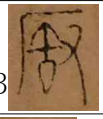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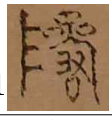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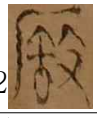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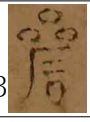
眉東-173 **使**

李袨 신도비 (1660)(추정)	
척주동해비 (1661 무렵)	
柳碩 신도비 (1663~73년) (추정)	
明 金石韻府	 古老子 華嶽碑 六書統
金石韻府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汗 義雲章 汗 蔡邕石經 四 老子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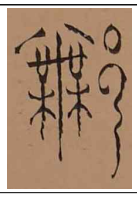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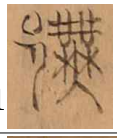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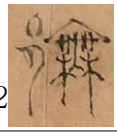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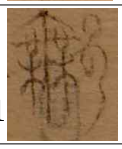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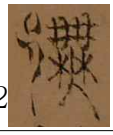
眉東-174 **孔**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古老子 盉和鐘 鐘文 鐘文 鐘文 商鐘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1 2 3 4 5
古文韻部	 1 2 3 4 5 6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四 老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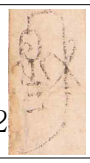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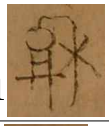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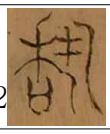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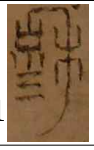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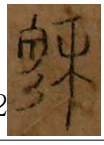
眉東-175 **嚴**(巖)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古梅樓子大年說 (1671)	1 2	青巖水石 (1682)	
明 金石韻府 (巖)	 古文 義雲章 說文 假借		
金石韻府	(없음)		
古文韻律 (巖)	1 2  3 		
古文韻部 (岩)	1  2  3  4 5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嚴)	 說文小篆 海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巖)	 說文小篆 碧落文 汗 義雲章 汗 義雲章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石)	 說文小篆 陽華岩銘 汗 目錄 ※		※고문자 예 楚簡 荊門包山竹簡
《說文》:“嚴, 教嚴也. 从石、品. 《周書》曰:‘畏于民嚴.’讀與巖同.” 《說文》:“巖, 岸也. 从山, 嚴聲.” 《說文》:“石, 山石也. 在厂之下, 口象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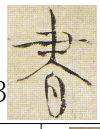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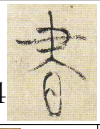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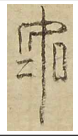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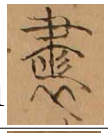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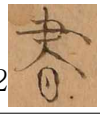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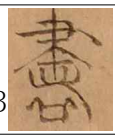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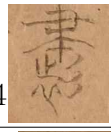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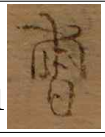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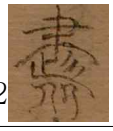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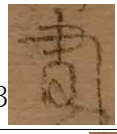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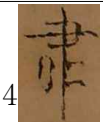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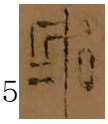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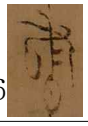
眉東-176 **許**

척주동해비	
明 金石韻府	許子鐘 六書統 六書統
金石韻府	1  2  3
古文韻律	1  2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許)	說文小篆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鄦)	說文小篆
비고	鄦는 許의 古字. 《說文》:“鄦, 炎帝 太嶽之胤甫侯所封, 在潁川. 从邑, 無聲. 讀若許.” 段玉裁注:“鄦、許, 古今字.”

眉東-177 **穆**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1 2 
明 金石韻府	古尙書 古尙書 遲父鐘 許子鐘 穆公鼎 曾侯鐘 師准父卣
金石韻府	1  2 
古文韻律	
古文韻部	1  2  3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碧落文 汗 尙書 汗 尙書 海 海
비고 고문자 용례 (穆)	金文 曶鼎 金文 蔡侯盤

眉東-178 **書**

척주동해비 (1661 무렵)		四勿箴 (1666)			
贈慧師序 (1668)	1 2 3  4 				
古梅樓子大年說 (1671)		李上左佛畫帖跋 (1671)		韓汝溪묘갈	
丹書之戒 (1681)		汗束文 (1682)	1 2		
明 金石韻府	 華嶽碑 古文※ 古文※ 碧落文 六書統 六書統				※ 說文古文 아님
金石韻府	1  2  3  4 				
古文韻律	1  2  3  4				
古文韻部	1 2 3 4  5  6  7				
說文小篆 및 傳抄古文字	 說文小篆 碧落文 四 華嶽碑 海				

Abstract

A Study on Heo Mok's Revivalistic Calligraphy

Yoon, Sunghoon
Asian Aesthetics Division
Dep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isu(眉叟) Heo Mok(許穆, 1595~1682) was a literary scholar and bureaucrat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Namin Party(南人) in the reign of King Hyeonjong(顯宗) and Sukjong(肅宗) of Joseon dynasty. He was the revivalist of the ancient sage kings' golden age of "Three dynasties"(三代), i.e. Xia(夏)・Yin(殷)・Zhou(周), therefore he pursued an ideal of ancient rituals in ancient Confucian ritual canons like Liji(禮記)・Yili(儀禮)・Zhouli(周禮), ancient literary and style of writing in ancient canons like Shangshu(尙書)・Shijing(詩經), and ancient script, "Gomun/Guwen"(古文).

He rose to the rank of deputy prime minister without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that was a very rare case in Joseon dynasty. He became a minister in his eighties in the early reign of Sukjong when he was a symbolic presence of Namin Party, but it was an exceptionally brief splendid period in his long life, because he led a eremitic life out of public office as a book reader, writer, scholar, and calligrapher.

His calligraphy was so unique that became a political talking point. Seoin Party(西人), antagonists of Namin, insisted in imposing a ban on

his calligraphy, on the contrary, Namin looking up to him held in high estimation of his calligraphy. His most famous work of calligraphy, *Cheokju Donghae Bi(陟州東海碑)*, i.e. *Ode to the East Sea Stele in Samcheok(三陟)*, was also an object of folkloric and mystical worship especially in Gyeonsang Province where was a stronghold of Namin. Heo Mok's calligraphy has been a battlefield of reverence and expulsion, but never been an object of an analytic research, that is why this thesis is written.

In traditional category, Heo Mok's calligraphy can be classified as the seal script(篆書), but he always called his calligraphy "Gomun(古文)". The Chinese character "mun/wen"(文) can refer to both a letter/script/character and a written sentence, therefore "gomun" can refer to both an ancient script and an ancient way of writing. So his "gomun" calligraphy should be probed into in the basis of understanding his way of writing, literary theory, and revivalistic arts and sciences.

Heo Mok's writing style seems a dry description without lyricism and argument, but careful reading of his anthology, *Gieon(記言)*, i.e. *Record of My Word*, shows that his way of writing is mixing a description of facts with self-narrative. In Chinese character cultural sphere, pursuing "past"(古) has always been an immanent constant, and pursued "past" cannot be a simply "past time" but a root of presence, that is to say, "Go/gu"(古), i.e. "the antiquity" has always been appropriated by "Go/gu"(故), i.e. "the cause (rooted deep in the past)". His "gomun" writing style plays a good role in his calligraphy, and his calligraphy enhances an affluence of his writing.

Heo Mok's literature also has a eccentric flavor. He perceived a world as a constant fluid of Qi(氣), and was interested in perverted beings like monsters, meteorological disasters, and magnificient scenery. *Baekje Seomang Haeyo(百濟西望海謠)*, i.e. *Song for the West Sea seen from old Baekju region*, and *Ode to the East Sea* are depicting bizarre incidents, eccentric monsters and exotic people living in vast and ferocious west

and east ocean. They are two typical eccentric works of Heo Mok's literature.

To Heo Mok "gomun", the ancient script of the ancient golden age was an immovable ideal, but remaining characters in exact ancient shape were insufficient to meet ordinary needs of writing. That was why he adopted also degenerated later scripts like Zhouwen(籒文), i.e. Zhou scripts made by Clerk Zhou(史籒) in Upper Zhou(西周) period and Xiaozhuan(小篆) made by prime minister Li Si(李斯) in the vicious Qin(秦) dynasty.

Three manuscript ancient script dictionaries of Heo Mok are core texts to understand his "gomun" graphonomy and calligraphy. *Geum Seok Un Bu(金石韻府)*, i.e. *Rhyme Dictionary of Stone and Bronze Scripts*, is not his original book but excerpts from Chinese authority of the same titled book. *Go Mun Un Yul(古文韻律)*, i.e. *Rhyme Dictionary of Ancient Scripts*, and *Go Mun Un Bu(古文韻部)*, i.e. *Assorted Rhyme Dictionary of Ancient Scripts*, are arranged excerpts from various Chinese dictionaries of ancient scripts. They shows that he was researching and collecting ancient scripts focusing on the Zhou scripts(籒文), and the Ancient scripts(古文) of *Shuwen Jiezi(說文解字)*, i.e. *Explaining Graphs and Analyzing Characters*.

Cheokju Donghae Bi(陟州東海碑), i.e. *Ode to the East Sea Stele in Samcheok(三陟)*, is a showpiece of his calligraphy. This thesis analyzes 178 characters with comparing his other works, his manuscript dictionaries, and other Chinese dictionaries, which results in specifying 178 characters' original references. This analysis shows that in calligraphic practice Heo Mok adopted not only the scripts from Confucian Classics like *Shangshu(尙書)* in ancient scripts and other numerous Chinese ancient books like *Laozi(老子)* but also the Xiazhuan scripts and the Zhongding(鐘鼎) scripts, i.e. Bronze Bells and Cauldrons inscriptions. *Ode to the East Sea Stele*'s strokes are wriggling and crooked, which shows relation with strokes of the cursive scripts(草書) that he counted as symbols of natural life and movement.

Heo Mok's revivalistic calligraphy had a ultimate goal of pursuing ancient sages' scripts, but also in practice adopts a pragmatic line by utilizing and transforming various sources from later periods and authorities, which demonstrates his calligraphy has the basis of both universalism of the Eastern Chinese character culture and his individuality. The key characteristic of his calligraphy is cursive strokes which embodies the natural movement of Qi throbbing with life. This study considered Heo Mok's calligraphy by and large trying to raise his calligraphy from mystical worship or blind expulsion to intellectual investigation's field of an academic standard.

Keywords : Heo Mok(許穆), Calligraphy, Ancient Scripts(古文), Revivalism(尙古主義), Eccentricity(奇), Joseon(朝鮮) Dynasty, Copied Ancient Scripts in Later Manuscripts